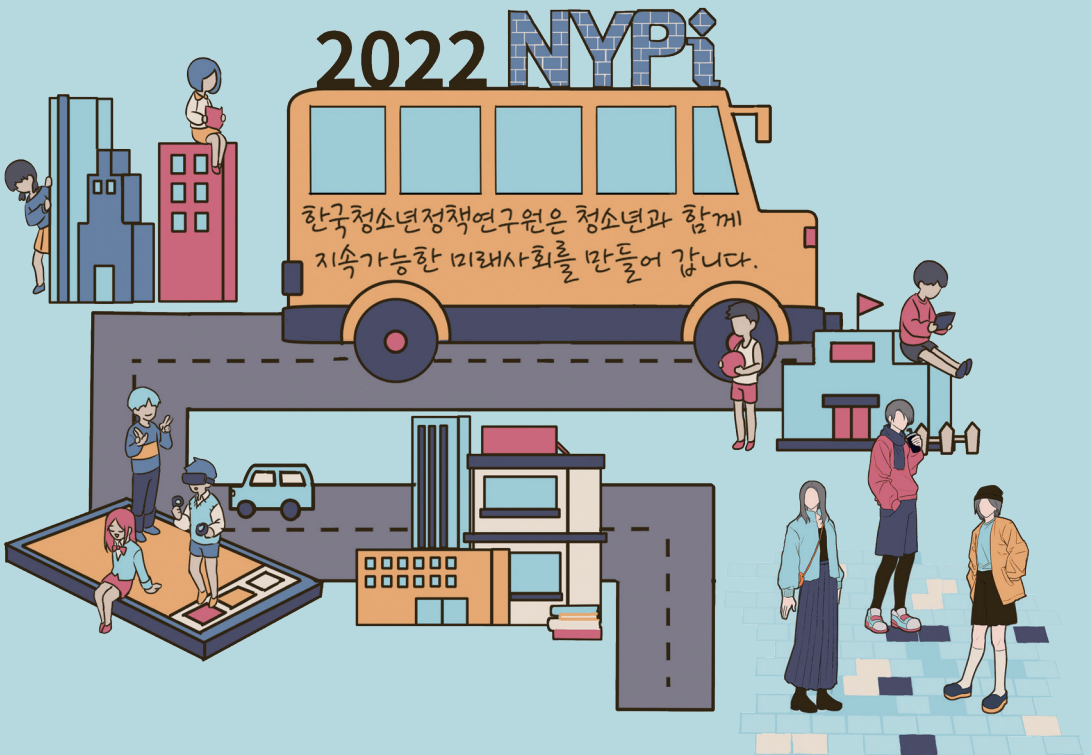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김지경 · 김윤희 · 송현주



연구보고22-기본09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책임연구원_김지경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윤희 부연구위원, 송현주 허통계연구소 대표

연구보조원_변주영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보고서를 펴내며

학문의 이론이나 관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앞선 생애단계의 경험이 이후 살아가야 하는 다음 단계의 생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이견 없이 동의할 것이다. 누구나 쉽게 ‘그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 중 하나가 지난 시절 경험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지난 시절 어떤 경험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다음 생애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내는 일은 쉽지 않다. 특히 근거 기반이라는 전제가 요구되는 정책의 영역에서는 더욱더 쉽지 않은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체계적인 실증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경험과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고, 정책영역에서 생애단계 연계성에 조금 더 주목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설계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0대시기 경험의 형성과 영향력을 갖는 과정, 그리고 그 영향이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한 편의 연구보고서에 10대시기부터 청년의 삶까지의 내용을 모두 담을 수는 없었으나, 생애단계 정책연계 고리를 찾아 이어감으로써 취약계층 청소년이 청년의 삶의 단계를 이행하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실마리는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발판삼아 보다 나은 후속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자신의 지나온 삶의 과정을 낯선 연구자에게 이야기해 준 심층면접조사 참여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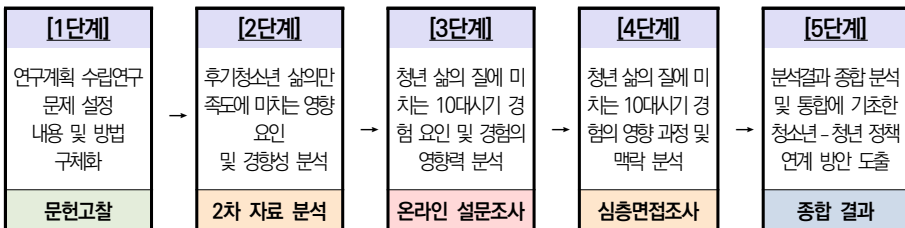
연구요약

■ 연구 배경 및 목적

- 생애 중간과정의 일정 연령대 ‘대상자’인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구조 측면에서 생애단계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현행 정책 구조 하에서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을 연계하는 ‘연계 고리(key chain)’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본 연구의 출발선임.
-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점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즉 ‘정책 고리 잇기(policy chaining)’의 실증 근거의 확보와 이에 기초한 청소년과 청년정책 연계 방안의 도출이 본 연구의 목적임.

■ 연구내용 및 방법

- 청소년-청년의 생애단계 연계성 확인과 10대시기 경험이 청년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요 영향요인 및 영향력, 그리고 영향의 맥락과 과정 파악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구성
- 제한된 시간과 예산 하에서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주요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통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ology) 중 하나인 ‘순차적 통합방법 설계(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의 틀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
 - 구성된 연구내용 및 방법을 다섯 단계로 나누고 단계적·순차적으로 진행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의 내용을 종합한 결과, 10대시기 경험이 청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및 영향의 맥락과 과정은 다음과 같음.

19세-24세 후기청소년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 10대시기 전반 만족도가 높을 수록 후기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수준 높음.
- 10대시기 긍정경험 부정경험 동시 영향 미침.
- 무직 상태 후기청소년에게 10대시기 부정경험의 영향 집중되어 나타남.
- 10대시기 경험 요인의 특정한 경향성은 없음.
- 가족여행은 후기청소년 삶의 만족도 높이는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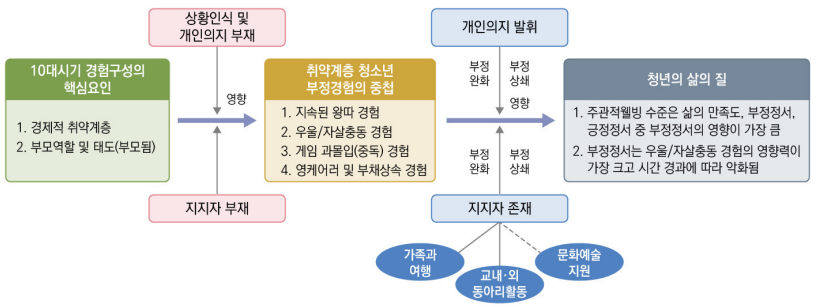
19세-34세 청년 주관적 웰빙 수준 영향요인

-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정정서 수준을 낮추는 방향 설정 필요
- 10대시기 긍정경험과 부정경험과 더불어 현재특성 동시 영향 미침.
- 10대시기 우울 및 자살충동 유경험이 가장 큰 영향 요인
 - 20대, 여성, 대학(원)생, 광역시 거주자가 상대적 취약 집단
- 10대시기 전반 만족도가 두 번째로 큰 영향 요인
 - 19세-24세, 남성, 무직자, 도 지역 거주자가 상대적 취약 집단
- 10대시기 가족여행은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 높이는 요인
 - 여성, 25세-29세, 취업자
- 10대시기 게임과몰입(중독)은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 낮추는 요인
 - 25세-29세, 취업자
- 10대시기 문화예술지원 수혜 경험은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을 높이는 요인
 - 남성, 취업자, 광역시, 30세-34세

19세-34세 청년 10대시기 경험 영향의 맥락과 과정

- 개인의지를 제외한 10대시기 경험 구성의 핵심 성장환경 요인은 ①경제적 여건과 ②부모 역할 및 태도
- 10대시기 모든 경험은 통합 과정을 거치며, 이때 지지자의 존재가 부정경험 영향 완화에 중요 기제
- 취약계층 청소년은 10대시기 긍정경험 구성이 거의 되지 않고, 부정경험 중첩된 상태로 성장, 청년이 된 후 회복되지 않은 부정경험 영향 악화
- 돌봄 제공자로 인식조차 되지 않는 10대시기 가족 돌봄 경험은 초등 저학년시기 (조)부모 돌봄 조력자부터 간병 맡까지 넓은 범위의 역할 수행
- 내용과 과정이 모두 어려운 10대시기 부채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의 법적 처리 과정
-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몰입과 게임과 몰입은 종이 한 장 차이, 10대시기 교내외 활동의 긍정경험 청년 삶의 에너지
- 불안정한 가족환경과 왕따 피해경험은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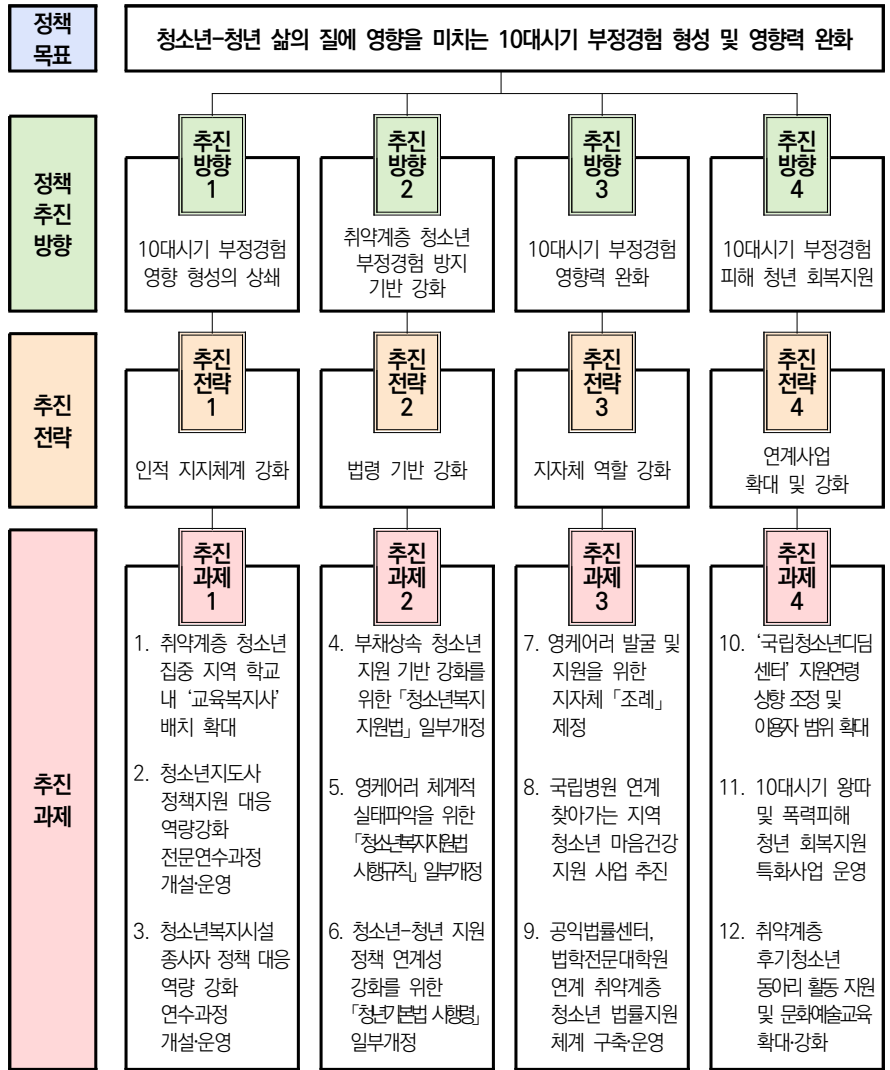
종합 분석 : 10대시기 경험 구성 및 청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과정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본 연구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청소년-청년정책의 연계를 위한 정책추진의 목표 및 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음.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보고22-기본09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 9
- 3. 추진 체계 및 절차 17

II. 생애과정관점에서의 청소년-청년정책 연계 중요성 및 필요성 논의

- 1. 생애과정관점에서 접근한 청소년-청년정책 연계의 중요성 ··· 23
- 2. 선행연구에 나타난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전 경험
요인 28
- 3. 청소년-청년정책 연계 현황 및 확대 가능성 탐색 32

III. 후기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경험 :

2차 자료 분석

- 1. 분석 자료 45
- 2. 분석 방법 49
- 3. 분석 결과 59

4. 소결 : 결과의 요약 및 설문조사 내용 설계의 방향 · 84

IV.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의 경험 :

주관적웰빙 수준의 영향 요인 분석

1. 조사개요 및 방법 89
2.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 경험 분석 105
3. 대상자 특성별 주관적웰빙 수준 비교 및 영향 요인 분석 · 119
4. 소결 :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 시사점 142

V.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경험의 맥락과 과정 :

심층면접조사

1. 조사개요 147
2. 결과 분석 : 10대시기 경험과 영향, 그 과정의 맥락 · 157
3. 소결 : 도출된 의미의 요약 194

VI. 종합논의 및 정책제언

1. 주요 실증결과의 논의 및 종합 결과 도출 199
2. 청소년-청년정책 연계 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 218
3.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 222

참고문헌 253

부 록 265

표 목차

표 I-1. 설문조사 개요	14
표 I-2. 심층면접조사 방법	15
표 I-3. 정책실무협의회 추진 내용	16
표 I-4. 간담회 및 자문회의 등 추진 내용	17
표 III-1. 2차 자료 분석 변수	54
표 III-2. 2차 자료 분석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1) : 5개년 결합자료 공통 분석 변수	56
표 III-3. 2차 자료 분석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2) : 5개년 결합자료 하위집단 추가 변수	57
표 III-4. 2차 자료 분석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3) : 중1~고3시기 경험 측정 변수	58
표 III-5. 후기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경험 ...	61
표 III-6. 경과기간(2017년~2021년) 각 차수별 자료 분석 : 전체 집단	67
표 III-7. 경과기간(2017년~2021년) 각 차수별 자료 분석 : 대학원(생) 집단	72
표 III-8. 경과기간(2017년~2021년) 각 차수별 자료 분석 : 취업자 집단	76
표 III-9. 경과기간(2017년~2021년) 각 차수별 자료 분석 : 무직자 집단	80
표 IV-1. 최소 표본 구성 및 할당	91
표 IV-2. 조사 내용의 구성	92
표 IV-3. 조사 문항 및 문항 작성의 근거	94
표 IV-4. 자료수집 결과 : 최종 표본 수	98
표 IV-5. 주요 분석 내용 및 방법	99
표 IV-6. 실증분석 변수 유형	102
표 IV-7. 실증분석변수 기초 통계량	103
표 IV-8. 분석 대상자 특성	106
표 IV-9. 대상자 특성별 주관적웰빙 수준 : 차이검증	120

표 IV-10. 10대시기 성장환경 특성별 주관적웰빙 수준 : 차이검증	121
표 IV-11. 일반/긍정 경험 유무별 주관적웰빙 수준	123
표 IV-12. 부정 경험 유무별 주관적웰빙 수준 : 가족관련 경험	124
표 IV-13. 부정 경험 유무별 주관적웰빙 수준 : 학교 경험	125
표 IV-14. 부정 경험 유무별 주관적웰빙 수준 : 사회 및 교차 경험	126
표 IV-15. 정책수혜 경험 유무별 주관적웰빙 수준	127
표 IV-16. 주관적웰빙 수준 영향 요인 : 전체	129
표 IV-17. 주관적웰빙 수준과 3가지 구성 요소 간 상관관계	130
표 IV-18. 3가지 요소가 주관적웰빙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131
표 IV-19. 주관적웰빙 3가지 구성 요소 각각의 영향 요인 : 전체	132
표 IV-20.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성별	134
표 IV-21. 주관적웰빙 수준 영향 요인 : 연령대별	136
표 IV-22. 주관적웰빙 수준 영향 요인 : 현재상태별	138
표 IV-23. 주관적웰빙 수준 영향 요인 : 거주지역별	140
표 V-1.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및 섭외 기준	150
표 V-2.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151
표 V-3.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배경 특성	153
표 V-4. 심층면접조사 방법	155
표 V-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83
표 VI-1. 경제적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10대시기 부정경험 비율	213
표 VI-2. 지지자 유무에 따른 부정경험 영향력 완화	214
표 VI-3. 부정경험 영향에 대한 긍정경험의 완화 작용	215
표 VI-4. 청년 주관적웰빙 수준에 미치는 10대시기 문화예술지원 수혜 경험의 영향력	215
표 VI-5. 청년 주관적웰빙 수준에 미치는 '10대 전반 만족도'의 영향력	217
표 VI-6. 교육복지우선사업 전담인력의 주요 업무	223
표 VI-7.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	224
표 VI-8.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관련 법령	226
표 VI-9. 「민법」 일부개정안	230
표 VI-10. 지자체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 제정 현황	231
표 VI-11. 지자체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정 현황	232
표 VI-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 제안	234
표 VI-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제안	236
표 VI-14.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제안	238

표 VI-15. 영국 영케어러 지원 「아동 및 가족법(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240
표 VI-16.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사례	241
표 VI-17.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제안	247
표 VI-18. 최근 3년 간 청소년 동아리 지원 예산 : 2020년~2022년	250
표 VI-19. 정책 추진 과제 요약	251

그림 목차

그림 I-1. 정책구조 측면에서의 그간 청소년 및 청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7
그림 I-2. 청소년-청년정책의 수직적·수평적 고리 잇기 (policy chaining) 필요성	8
그림 I-3.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의 기본 설계	10
그림 I-4. 단계별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	10
그림 I-5. 연구 추진체계	18
그림 I-6. 연구 추진 일정 및 절차	19
그림 II-1. 생애과정관점의 연속적인 생애패러다임	26
그림 II-2. 청소년-청년 정책 간 연결고리의 필요성	34
그림 II-3.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보호기간 연장	37
그림 II-4. 우리나라와 영국의 영케어러 지원 연령 범주	39
그림 II-5.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민법」 제1019조 개정안 주요 내용	41
그림 III-1. 분석 원자료 : KCYPS2010 중1코호트 본 조사 및 유지조사	46
그림 III-2. 분석 자료 : 데이터 셋(data set) 생성 및 구성	48
그림 IV-1. 설문조사 추진과정	90
그림 IV-2. 조사문항 개발 과정	93
그림 IV-3. 온라인 조사도구 개발 과정	97
그림 IV-4. 10대시기 성장환경 각 특성 유경험 비율	107
그림 IV-5.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 성장환경 각 특성 유경험 비율 차이(1)	108
그림 IV-6.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 성장환경 각 특성 유경험 비율 차이(2)	109
그림 IV-7.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 성장환경 각 특성 유경험 비율 차이(3)	110
그림 IV-8. 10대시기 전반 만족도	110
그림 IV-9. 10대시기 일반/공정 각 경험별 유경험 비율	111
그림 IV-10.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 긍정/일반 경험 비율 차이(1)	112
그림 IV-11.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 긍정/일반 경험 비율 차이(2)	113
그림 IV-12. 10대시기 가족관련 부정경험 비율	113

그림 IV-13.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 가족관련 부정경험 비율 차이 ..	114
그림 IV-14. 10대시기 학교관련 부정경험 비율	114
그림 IV-15.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 학교관련 부정경험 비율 차이	115
그림 IV-16. 10대시기 사회관련 부정경험 비율	116
그림 IV-17.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 사회 및 교차경험 관련 부정경험 비율 차이	116
그림 IV-18. 10대시기 5가지 정책지원 수혜 경험 비율	117
그림 IV-19. 연령별 10대시기 정책지원별 수혜 경험률 차이	118
그림 IV-20. 10대시기 기초생활보장수급 유경자의 정책지원 수혜율 ..	118
그림 IV-21. 주관적웰빙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전체	130
그림 IV-22. 주관적웰빙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성별	135
그림 IV-23. 주관적웰빙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연령대별	137
그림 IV-24. 주관적웰빙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현재상태별	139
그림 IV-25. 주관적웰빙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거주지역별	141
그림 V-1. 연구추진 과정에서 심층면접조사의 위치 및 활용	148
그림 V-2. 심층면접조사의 주요 내용 구성 및 진행 흐름	154
그림 V-3. 10대시기 경험 구성과 영향 과정의 맥락	159
그림 V-4. 심층면접조사에서의 주요 발견	196
그림 VI-1. 주요 실증분석 결과 요약	205
그림 VI-2. 실증분석 결과의 종합 분석	207
그림 VI-3. 종합결과 및 정책함의 도출	210
그림 VI-4. 대상자 특성별 주관적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 ..	212
그림 VI-5. 연령대별 우울 또는 자살충동 경험의 부정정서에 대한 영향력 ..	216
그림 VI-6. 4가지 정책 추진 전략	219
그림 VI-7. 청소년-청년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의 기본체계 ..	221
그림 VI-8. 보건복지부 '가족 돌봄 청년 실태조사'의 대상 연령 범주 ..	235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
- 3. 추진 체계 및 절차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생애 특정 시기 또는 연령대의 대상자를 지원하는 ‘대상자’ 정책에 있어 한 시점(one-spot)의 횡단면이 아닌 종단면, 즉 앞선 생애단계의 삶의 내용이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고 영향을 미치는가를 시간 흐름의 과정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삶이 시간 연속적인 과정이며, 주어진 여건과 환경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앞선 생애과정에서의 삶의 내용이 다음 생애단계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생애 특정 시기에 있는 대상자 지원의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은 주로 당해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그 시점을 중심으로 빚어지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다시 말해, ‘성인기 이행’이라는 중요한 생애 발달과업을 갖는 10대시기 청소년의 삶이 동일 시간 선상에서 청년의 삶으로 연장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성장과 발달이 연속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정책은 그 생애과정의 연속성에 주시하여 새롭게 설계되거나 기존 정책을 생애단계 간 연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장되지 못했던 것이다.

최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 수요자 의견수렴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만24세 후기청소년을 포함하는 청소년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청년정책 수요로 제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청년정책 유튜브 댓글 이벤트 ‘청년정책 제안 나도 한마디!’에서 취합된 의견들을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후기청소년 연령대(19세~24

* 이 장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세)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¹⁾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함께 이 정책의 확대 필요를 제기한 청년들의 수가 적지 않다는 것이 쉽게 포착된다. 당시 댓글 이벤트의 목적은 지난해 시행되었던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청취였으나, 20대 초반의 후기청소년이자 청년정책 대상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청년정책인지 청소년정책인지는 그다지 중요치 않고, 특정 조건이나 자격 요건 없이 지원정책이 실시되는 지역의 대상 연령범주에 포함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가장 만족도 높게 체감되었기에 청년정책에 대한 댓글로 확대 시행을 제안한 것이다.²⁾

이와 같은 제안은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개인의 생애과정에 청소년기가 연장되고 성인기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 상황, 그리고 정책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높은 정책 발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시행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한 것으로만 이해되지는 않는다. 단순 만족도에 대한 표현이기보다는 청소년 지원 정책 중 청년정책으로 확장 또는 연계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빠르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문제 제기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정책 중 적용 시점을 당겨 10대 청소년시기부터 지원될 필요가 있는 제도는 없는지, 그리고 기존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 사이에 새롭게 제도화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수혜자들의 의견이자 문제제기는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이 생애과정단계에 따라 끊어짐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생애단계 ‘정책 고리 잇기(Policy Chaining)’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때, 보다 의미 있는 정책개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의견들은 한 시점의 횡단면으로 접근하였던 수평적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 각각의 정책설계 구조를 생애과정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생애단계 수직적인 연계 구조를 설계하는데 있어 연계 고리 형성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생애과정의 연속성을 고려한 정책 연계의 필요성이 비단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을 통해서만 인지되거나 포착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지난해부터 언론을 통해 보도가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 거주 만13세~23세 청소년,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원 한도 지원,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www.gbustpb.kr>, 2022.5.24. 검색 및 출력),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서울시 거주 만19세~24세 청년들의 교통비를 연간 최대 10만원 한도(교통카드 사용 이용금액의 20%, 교통마일리지 지급)로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https://youth.seoul.go.kr/site/main/content/transportationfee_intro, 2022.7.15. 검색 및 출력).

2) 5차 정책실무협의회(2022.5.12.)를 통해 제공 받은 국무총리실 디지털소통비서관(2021.7.16.) 「‘청년정책 제안 나도 한마디!’ 유튜브 댓글 이벤트 결과_보고자료 및 댓글 취합 원자료 검토 결과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90년대 생들의 학폭미투' 현상, 즉 스포츠계를 비롯한 연예계 등 미디어 노출이 빈번한 유명인의 학교 폭력에 대해 20대, 30대 청년이 줄이어 고발하는 현상이라던가, 10대시기 왕따와 학교폭력의 기억을 회고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유튜브 영상 '왕따였던 어른들이 조회 수가 300만을 넘고 좋은 콘텐츠에 수여되는 여러 상을 수상한 사실에서도 생애과정 관점으로 접근한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연계의 필요성이 발견된다.

드러난 '학폭미투' 현상만 보더라도 10대시기에 학교 안과 밖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학교폭력이 청년세대에 하나의 집단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시절을 보낸 청년들 사이에 "그 때 알면서도 묵인했던, 눈감았던 어른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뉴스포스트, 2021.3.3.)의 암묵적 연대가 20대, 30대 청년세대가 공유하는 삶의 가치가 되기도 한다. 즉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학교폭력을 둘러싼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10대시기에 경험한 학교폭력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주변인들의 태도 등이 누적되어 청년세대의 행동양식과 삶의 가치 지향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세대의 공통 경험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다면 청년정책이 정책대상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수립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정책수요자가 체감하는 지원정책의 발골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많지는 않으나 취약계층, 그 중에서도 빈곤계층 청년들의 성장 경험을 연구한 연구들(김경희, 윤민화, 박주혜, 김성원, 2020; 안로사, 2017, 한상철, 김미숙, 2008)에서도 생애과정의 연속성을 고려한 정책설계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발견된다. 그들 연구에서 분석되거나 조사된 청년들의 삶의 과정을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10대시기에 이어 20대 이후 청년이 되어서도 적절한 정책 지원이 적시에 주어지고, 그로 인한 누적된 긍정경험이 성공적으로 자립한 삶을 이어나가는 데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적 빈곤이나 폭력 피해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들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긍정적인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 성공적으로 자립하는 데 드러나는 개인의 특성이나 주어진 여건에 따른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차이는 적극적 정책 개입이 작동될 때 충분히 감소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정책수요자 측면에서 생애과정을 고려한 연계성 있는 정책 필요성의 제기가 있고, 일부 학술연구를 통해서도 청소년과 청년 지원의 유기적 연계가 청소년의 건강함 성장 및 청년의 성공적인 자립을 이끄는 데 중요한 기제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더불어

최근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정책 분야의 정책 개선 및 제도 도입 방안과 관련된 사항들을 살펴보면, 정책공급자 측면에서도 생애과정 관점이 반영된 사례들이 발견된다.

예컨대,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가 발표한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은 만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나와 홀로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24세까지로 연장하고, ‘자립준비청년’ 정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들의 10대의 삶과 20대의 삶을 끊어짐 없이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관계부처 합동, 2021.7.13.)한 것인데, 이는 생애과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정책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10대시기와 20대 이후를 연계한 정책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어린 시절부터 장애 또는 질병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애부양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영케어러(Young Carer)’ 지원하기 위한 「가족 돌봄 청년(영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이 발표되었는데(관계부처합동, 2022.2.14.), 이는 청소년-청년시기를 연계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부터 새롭게 제도 도입을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부모가 남긴 채무(빚)를 10대 미성년자가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된다거나 성인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상속에 관한 「민법」 개정을 통해 알지 못했던 부모의 빚이 미성년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성년이 된 이후 상속된 재산의 범위 내에서 부모의 채무를 갚을 수 있게 ‘한정승인’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민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입법예고(법무부, 2022.4.5.)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이는 취약한 상태에 놓이는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년기까지 연계 지원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입법개선 추진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수요자의 요구와 정책공급 측면에서의 대응 움직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은 물론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청년정책에서도 삶의 생애과정을 고려한 종단측면의 정책설계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왜냐하면 그간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이 주로 법률에서 규정한 연령 범주 내 대상자에 대한 지원 분야를 늘리는 방식으로 정책이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청소년과 청년 정책은 ‘대상자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생애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수평적 정책 분야 확장을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어 온 것이다.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분야를 확장하며, 정책 분야 간 탄탄한

연계 구조를 갖추는 것은 정책이 발전해 나아가는데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그간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은 빠르게 적용 정책분야를 확장시켜왔다.³⁾ 그러나 정책의 수평적 확장이 주(main)가 되었다는 것은 정책구조측면에서 그간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이 공통으로 갖는 성과이자 한계가 될 수 있다. 한 마디로, 정책구조측면에서 그간의 청소년 및 청년정책의 성과이자 한계를 압축적으로 표현한다면, “정책 분야의 수평적 확장 및 개별 정책 분야 안에서의 대상자 확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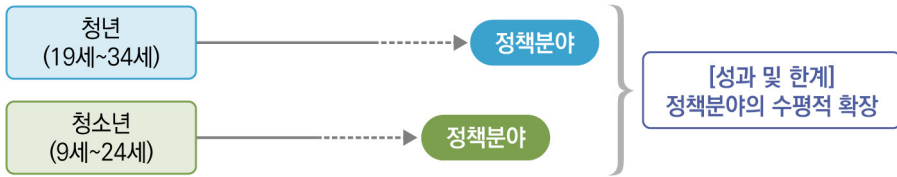


그림 1-1. 정책구조측면에서의 그간 청소년 및 청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생애과정의 특정 시기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대상자정책’은 수평적으로는 교육, 노동,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정책 분야 간 연계, 그리고 수직적으로는 시간 연속선상에 있는 청소년기 삶을 지원하는 정책과 청년기 삶을 지원하는 정책이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시점과 지점, 그리고 어떠한 지원 내용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점인가를 발견하고, 그 연계 고리를 강화하는 대상자 정책의 수직적 연계구조의 설계가 중요하며, 기존 정책을 연결할 수 있는 정책 고리(Policy Chain)들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책 발굴이 되는 것이다. 생애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 대상자의 연령범주만을 단선적으로 고려하여 횡단면의 수평적 정책설계만이 강조될 때, 정책분야 간 또는 연령대별 정책 지원의 중첩 문제가 불거지고 결과적으로 예산 배분과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수직적 정책 구조의 틀을 갖출 때, 쉽게 드러나지 않는 취약 청소년 및 청년을 적극적으로 정책대상자로 발굴하는 것이 용이하며, 필요 수요에 맞는 지원 정책을 빠르게 구체화 할 수 있다. 더불어 가장 효과적인 정책 개입의 지점을 발견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3) 「청년기본법」제정(2020.2.4.) 이후 2년 간 청년정책 지원 분야 및 사업은 양적인 측면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예컨대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청년정책은 2020년 179개 사업, 예산 16.9조원 이었던 것이 2021년 270개 사업, 22조원(관계부처합동, 2020.12.12., p.5), 이것이 다시 2022년 376개 사업, 24조6천억원으로 증가(국무조정실, 2022.2.14., p.1)

정책수요자의 체감도 높은 정책 효과성, 그리고 예산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준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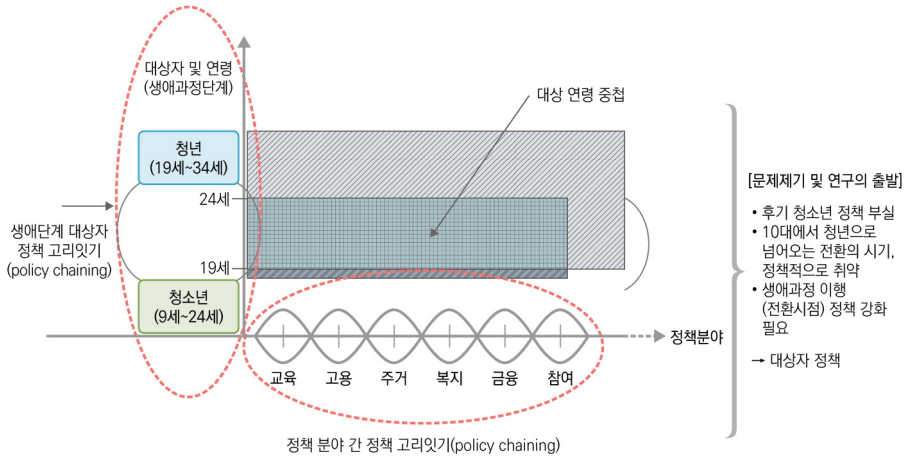


그림 1-2. 청소년 - 청년정책의 수직적·수평적 고리 잇기(policy chaining) 필요성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애 중간과정의 일정 연령대 ‘대상자정책’인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을 잇는 수직적 정책구조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수직적 정책구조 설계 시 중요한 ‘연결 고리(chaining key)’의 발견과 그 고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10대시기 삶의 경험이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상자 지원 정책의 수직적 연계 방향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10대시기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경험이 청년의 삶의 질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가를 실증분석하고, 경험의 구체성과 영향의 맥락을 파악하여 종합 분석한 후 결과를 도출하는 통합적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가정책으로서 생애전반기 대상자 지원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생애과정을 고려한 청소년과 청년 정책의 수직적 정책 설계의 기초를 마련하고,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고리 잇기(Policy Chaining)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정부가 대상자 지원정책의 생애단계 연계 및 연속성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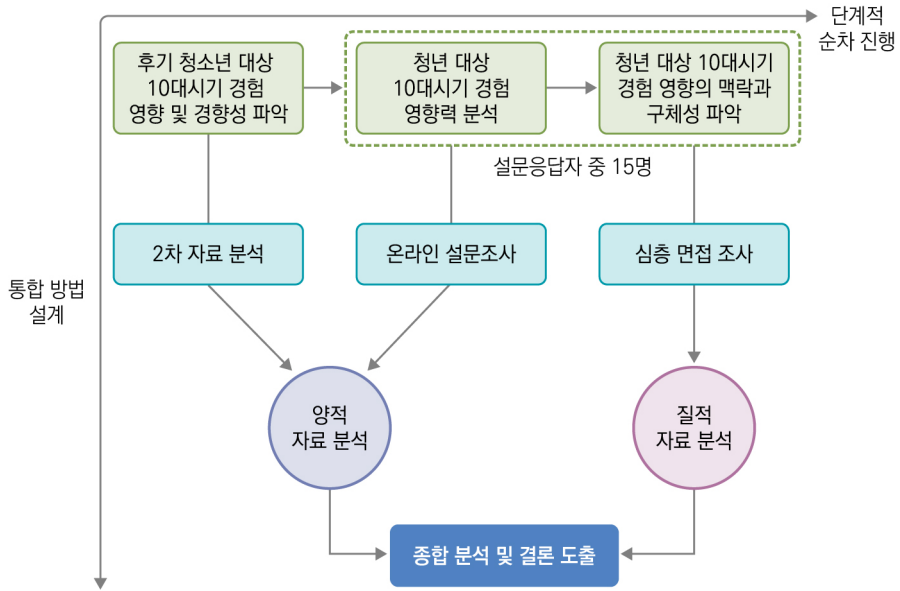
1) 내용 및 방법 구성의 기본 설계

본 연구에서는 제한된 시간과 예산 하에서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주요 내용 및 방법을 ‘통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ology)’ 중 하나인 ‘순차적 통합방법설계(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의 틀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하였다.

통합설계는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설계의 하나로, 양적 접근은 현상의 ‘구조’를 밝히는 데 적합하고, 질적 접근은 ‘과정’을 밝히는데 보다 적합하며, 하나 이상의 방법에 의하여 연구의 결과가 입증되었을 때 그 연구결과를 더욱 신뢰할 수 있다(남궁근, 2017, pp.413-416; 김지경, 변금선,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2019, p.5에서 재인용). 또한 순차적 통합방법설계는 하나의 연구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사항을 양적으로 접근하여 시작한 후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질적인 접근이 진행되거나 그 역의 순서로 진행될 수 있는 설계로 ‘국면설계(two-phase design)’라고도 불린다(Creswell, 1995, p.177; Tashakkori & Teddlie, 2001, p.42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순차적 통합방법설계(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횡축에 내용을, 그리고 종축에 방법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조화하였다. 우선 횡축에는 10대시기의 경험이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2차 자료에 담기지 못하였으나 최근 정책동향에 비추어 볼 때 주목해야 하는 10대시기의 경험들을 포함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로 10대시기 경험들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그 다음 단계에서는 10대시기 경험의 보다 구체적인 영향과 과정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들 중 일부를 심층면접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면접을 통해 확보된 질적 자료를 분석한다.

이어 종축에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2차 자료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설문문항 작성 및 내용을 구성하고, 설문조사의 결과를 참조하여 심층면접조사의 내용과 대상자를 선정한다. 2차 자료와 설문조사 자료는 양적 방법, 심층면접조사의 자료는 질적 방법으로 분석한 후 통합하여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연구의 결론과 정책 방안을 도출한다.



* 출처: Creswell, J. W. (2014). A Concise Introduction to Mixed Methods Research, p.37, Figure4-1 재구성

그림 1-3.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의 기본 설계

2) 단계별 주요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순차적 통합방법설계’에 기초하여 구성된 연구내용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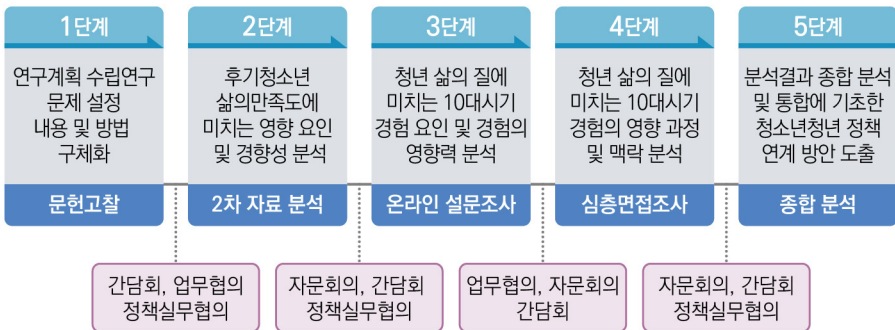


그림 1-4. 단계별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

(1) 1단계 : 연구문제 설정 및 내용과 방법 구체화를 위한 문헌고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책연구로서 '이 연구를 왜 하는가?'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제한된 시간과 예산 하에서 연구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과 선행연구, 그리고 정책 자료들을 검토하고 고찰하였다. 자료를 검토함에 있어 문헌자료가 중심이 되기는 하였으나, 최근 청소년과 청년의 삶과 관련한 영상자료들이 적지 않음을 고려하여 '유튜브(YouTube)'와 같은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공개된 '왕따였던 어른들', '용돈 없는 청소년' 시리즈 등의 영상자료 또한 함께 검토하였다.⁴⁾

이들 문헌자료와 영상자료의 탐색과 검토 그리고 고찰의 과정을 통해서 '생애과정관점'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 연구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근거이며 본 연구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적 근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뿐만 아니라 이 관점은 연구의 흐름을 관통하는 문제제기와 더불어 본 연구의 내용과 방법의 구성하는 기본 설계방법인 '순차적 통합방법설계'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준거가 되었다.

이론과 함께 고찰된 10대시기의 경험 영향에 관련된 선행연구와 청소년과 청년들의 생생한 자기 삶의 경험을 밝힌 영상자료를 통해 그간의 연구들이 갖는 한계를 발견하였으며, 동시에 본 연구가 왜 수행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한 보다 탄탄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해 다소 추상적이고 넓은 범위의 '10대시기의 경험'과 '청년의 삶'이라는 주제를 구체적이고 명확한 실증분석을 할 수 있는 내용 범주 설정을 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본 연구의 '10대시기의 경험'은 가정, 학교, 사회의 세 가지 영역에서의 일반적인 학습이나 학업 성취를 제외한 생활의 영역에서의 긍정 또는 부정의 경험들로 구성하였고, '청년의 삶'은 단순히 성취 또는 발달과업의 결과가 아닌 삶의 질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 선행연구들 이외, 청소년 또는 청년과 관련하여 발표된 정책기본계획이나 특별대책, 분야별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비롯한 정책 자료의 고찰, 그리고 정책의 기본이자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 기본법」과 「청년기본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 그리고 기본 이념과 같은 법률 내용 또한 본 연구의 목적 설정과 내용을 구성,

4) 유튜브 시리즈 영상 '왕따였던 어른들'과 '용돈 없는 청소년'의 영상자료 주소는 지면상 본문에는 제시하지 않고 [참고문헌] 목록에만 제시

그리고 연구 주제의 범주를 설정하는데 근거가 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2.9. 검색).

(2) 2단계 : 2차 자료 분석을 통한 10대시기 경험 영향의 경향성 파악

두 번째 단계에서는 10대시기의 경험이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2차 자료를 통해 영향 요인과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왜냐하면 생애과정 관점에서 10대시기의 누적된 경험이 다음 생애단계에 해당되는 청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체계성을 갖춘 근거기반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설문문항 작성 및 자료 수집을 위한 첫 단추이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실증자료의 확보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국가승인통계의 하나로 매년 조사하고 통계 작성 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의 중1 패널자료와 유지조사 자료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0년 중학교 1학년이었던 조사대상자가 고등학교 졸업 시점까지 7년 간 추적 조사한 자료에 더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매년 간략한 문항을 유지조사 차원에서 조사를 하여 축적된 자료이다. 즉 중학교 1학년 패널조사 대상자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5년 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고, 이 자료에 20대 초반 삶에 대한 만족도 측정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10대시기의 다양한 경험이 이후 청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절한 자료이다.

다만, 이 유지조사 자료에는 청년층 전체가 아닌 청소년과 청년연령대가 겹치는 19세~24세 이하 연령대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만이 측정되어 있어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년층, 즉 19세~34세 연령대 전체를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10대시기를 갓 벗어난 5년에 대한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또한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가 되었기에 시간 흐름에 따른 영향 요인과 영향력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의 경험을 본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징검다리 실증분석으로서 생애단계 이행 초기에 대한 10대시기의 경험 영향의 실증 결과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고교 졸업이후 관찰된 5년간 매년 영향 요인을 비교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영향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영향 요인의 분석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중1 패널 유지조사 1차~5차까지 5개년 자료를 묶어(pooling) 사용하고, 원자료에서 단일 문항의 5점 척도로 측정된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응답 당시의 상태 특성, 그리고 크게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으로 구성된 10대 중고교 시기의 경험이 설명변수로 포함하는 순위형 로짓 모델(Ordered Logit Model)로 분석하였다.⁵⁾

2차 자료 분석의 결과는 10대시기의 경험 중 어떠한 요인이 20대 초반 청년의 삶의 만족도로 측정될 수 있는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그 영향 요인이 일정한 경향성을 갖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나, 동시에 다음 단계에서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설계하고 분석 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준거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3) 3단계 : 설문조사 자료 수집분석을 통한 10대시기 영향력 분석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두 번째 단계에서 분석된 2차 자료 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청년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의 경험 요인 및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웹기반(Web-based)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의 내용은 앞선 제3장의 실증분석에서 주요 요인으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였고, 현재 청소년 또는 청년대상 지원 제도의 개선이나 신규 정책의 형태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예컨대 가족 돌봄 청소년(영케어러)와 부모 채무(빚) 상속 등으로 인해 삶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10대시기의 해당 경험, 그리고 영상자료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학교폭력 피해의 영향, 그리고 이들의 삶의 경험과 생애과정의 이행에 대한 내용을 신규 문항으로 작성하여 반영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의 대상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국가법령정보센터, 2022.2.9. 검색)에서 규정하는 청년 연령을 준용하여 전국의 만 19세~34세의 청년으로 설정하였다. 표집 방법은 응답 대상자의 선정을 위한 표집 틀이 없기 때문에 확률표집 방식을 활용하지 못하고, 비확률표집 방법 중 하나인 할당표집 방식을 선택하였다. 표본 할당의 기준은 청년층 세대 내 격차를 고려하여 연령과 성별 그리고 거주 지역으로 설정하고, 할당된 목표 표본의 수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비례 할당된 총 1,200명이다.

5) 자료의 선정 및 분석자료 생성을 위한 과정, 분석모델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3장에서 다루어짐.

표 1-1. 설문조사 개요

모집단	전국 19세~34세 청년							
총 목표 표본 수	총 1,200명							
표집 방법	비확률 표집 방법 중 할당 표집(할당 기준: 연령, 성별, 거주 지역)							
표본 할당 및 구성	주민등록인구통계('22년 4월 기준) 인구 수 비례하여 표본 할당 (단위: 명)							
	구 분	서울 및 수도권		그 외 광역시		그 외 도 지역		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세~24세	108	107	44	40	63	52	414
	25세~29세	118	112	42	37	56	44	409
	30세~34세	111	105	37	33	49	42	377
소계	337	324	123	110	168	138	1,200	
계	661		233		306		1,200	
조사 시기	2022년 7월(1개월)							

(4) 4단계 :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10대시기 경험 영향의 맥락과 과정분석

네 번째 단계에서는 설문조사에 이어 2차 자료 분석이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없는 10대시기 경험이 청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과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삶의 연속성 측면에서 10대시기의 부정적인 경험의 영향과 그 영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사항에 대한 청년들의 생생한 경험을 청취하고, 현재 제도 개선이나 신규 제도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인 경험 속에서 포착해 내고자 하였다.

심층면접조사는 연구진과 참여자의 1:1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는 설문조사 응답자 중 이어지는 면접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면접조사 내용 및 방식에 동의한 이들을 목록화한 후 연구진이 설정한 참여자 구성 및 섭외 기준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심층면접의 방식은 오프라인 대면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90분 정도의 면담 시간으로 운영하되, 최대 120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초과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전체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도 심층면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참여자들의 면담은 동일한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표 1-2. 심층면접조사 방법

구분	내용
참여자 섭외 및 참여자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설문에 응답 완료 전, 이후 실시되는 심층면접조사에 대한 참여 의사 유무 및 섭외를 위한 개인연락에 동의 여부 확인 • ① 참여의사가 있고 개인연락에 동의한 응답자들을 데이터화하고 → ② 이들 중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및 섭외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을 선별하여 우선 섭외 순서를 확정하고 → ③ 개별 연락을 취하여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연구추진계획에 따라 확정된 기간 내 참여 가능한 자의 여부를 확인 → ④ 참여 일시 및 장소, 면접조사 방식, 사전 배경 정보 제공 등 심층면접조사 참여에 대한 최종 동의 후 확정
면담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면접조사를 위해 대여한 공간으로 참여자 내방
면담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와 1:1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총 15명의 참여자 면담을 연구책임자가 모두 진행하여 일관성 유지와 더불어 면담을 진행단계에서도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1일 총 3명을 초과하여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행
면담 횟수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1인당 면담 횟수는 1회, 면담 시간은 90분~120분으로 하되, 최대 1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기록 및 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을 시작하면서 참여자가 구술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아도 되며, 면담과정에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참여자들에게 알리고, 기록을 위해 면담의 내용을 녹취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한 후 실시
면담자	연구진

(5) 5단계 : 분석결과 통합에 기초한 청소년 - 청년정책 연계 방안 제안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2차 자료 및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한 실증분석 결과와 심층면접조사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종합하여 논의하고, 결과를 모두 통합하여 종합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결론에 기초하여 현행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이며, 어느 시점에 어떠한 내용을 정책개입이 있을 때 효과적인 생애 중간과정 단계에 있는 대상자 정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을 잇는 연결고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가를 발견하여 정책 고리 잇기(policy chaining)와 대상자 정책이 있어서의 생애과정을 고려한 수직적 정책연계의 설계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의 방향과 목표,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추진 과제를 도출하였다.

(6) 단계별 원활한 연구 추진을 위한 정책실무협의회, 자문회의, 간담회

본 연구에서는 총 다섯 단계로 구성된 연구의 내용을 추진하면서 앞서 기술한 연구의 내용과 방법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책실무협의회와 자문회의 그리고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고 결정하며 진행하였다. 연구 착수 시점부터 현재 까지 실시된 정부부처와의 정책실무협의회는 연구의 방향이나 연구의 내용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의견 수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부처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공유와 협조 사항에 대한 협의 또한 이루어졌다.

표 1-3. 정책실무협의회 추진 내용

차수	주요 내용	관계부처	개최 시기
1차	생애과정 연계 정책 수립에 대한 검토 현황 및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국무조정실	1/10(월)
2차	문화예술체육분야 정책관련 생애과정 접근 사례 및 연구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	1/26(수)
3차	청소년정책 분야 필요 사항 및 연구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여성가족부	1/27(목)
4차	사회정책분야 청소년-청년 연계 정책구조 설계 관련 제안 및 아이디어 논의	교육부	2/18(금)
5차	부처수집 청년의견수렴 원자료 공유 타진 및 협의회의	국무조정실	5/12(목)
6차	2차 자료 분석 결과 및 온라인 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 수렴, 2023년 청년정책예산(안) 관련 논의	국무조정실	6/28(화)
7차	후기청소년정책 포함 청소년 정책현안 사항 협의 및 논의	여성가족부	8/25(목)
8차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결과에 기초한 문화누리카드 청소년 지원금 증액 가능성 타진	문화체육관광부	9/15(목)
9차	청소년-청년연계 정책 추진 방향 및 추진 과제에 관한 의견 수렴	여성가족부	10/18(화)

정책실무협의회와 더불어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방식도 각 단계별 연구 추진에 활용되었다. 연구 초기의 간담회는 연구방법의 설계와 유관 정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한 관련 연구자료 공유에 대한 협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를 준비하는 단계에

서는 설문초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자문은 물론, 정책 추진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있어서도 전문가 자문이 활용되었다.

표 1-4. 간담회 및 자문회의 등 추진 내용

차수	주요 내용	참석	개최시기
1차	조사방법 설계 관련 조사전문가 간담회	사회조사전문가 2인	1/12(수)
2차	대상자 정책 및 생애과정 고려 정책형성 등 관련 연구자 간담회 및 업무협의	정책연구자 3인	1/14(금)
3차	고용 및 복지 분야 청소년-청년정책 연계 관련 연구자 간담회 및 업무협의	정책연구자 2인	5/17(화)
4차	생애과정 연계 정책관련 경제인문사회 관계자 간담회 및 업무협의	관계자 2인	5/23(월)
5차	설문초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	정책연구자 3인	5/30(월)
6차	제안 정책과제에 관한 전문가 검토 및 자문	정책연구자 3인	10/12(수) 10/19(수)
7차	법령개정 관련 정책과제 검토 및 자문	법률전문가 2인	10/20(목)

3. 추진 체계 및 절차

1)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진을 내부 연구진뿐만 아니라 전문성 있는 외부 연구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예산 및 시간 제약 하에서 2차 자료 분석 및 설문조사자료 분석, 그리고 심층면접조사를 단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적 설문조사자료의 수집을 전문조사업체 위탁조사 방식으로 실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전문조사업체를 [그림 1-5]와 같이 연구 추진체계에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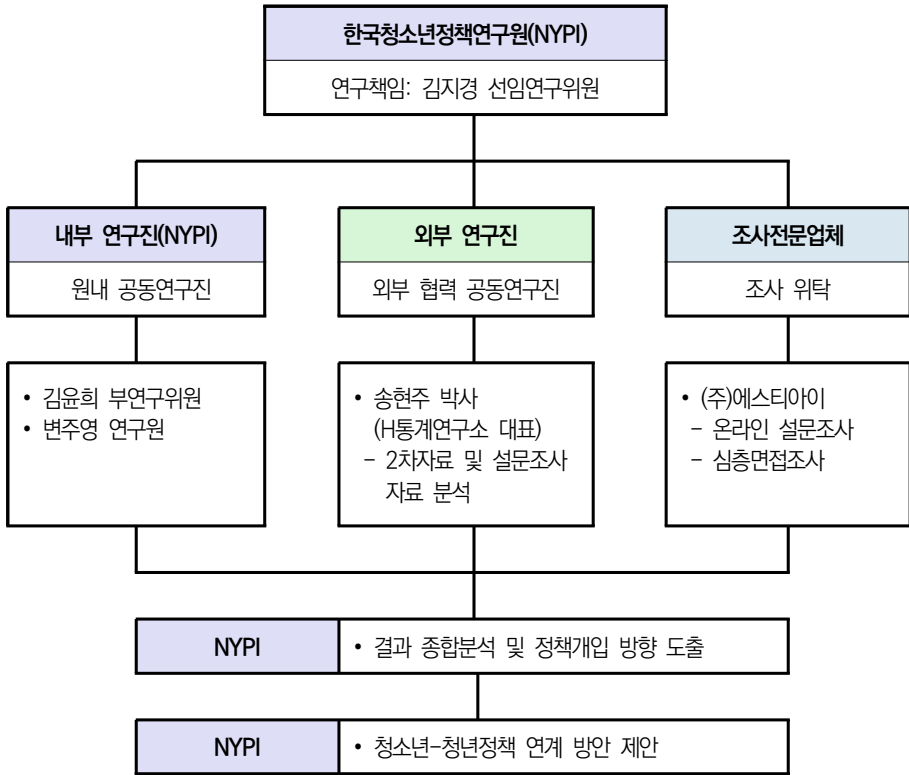


그림 1-5. 연구 추진체계

2) 연구 추진절차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추진되도록 설계되었다. 제한된 예산과 일정 하에서 연구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각 단계의 계획된 이행 사항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추진 일정에 따른 절차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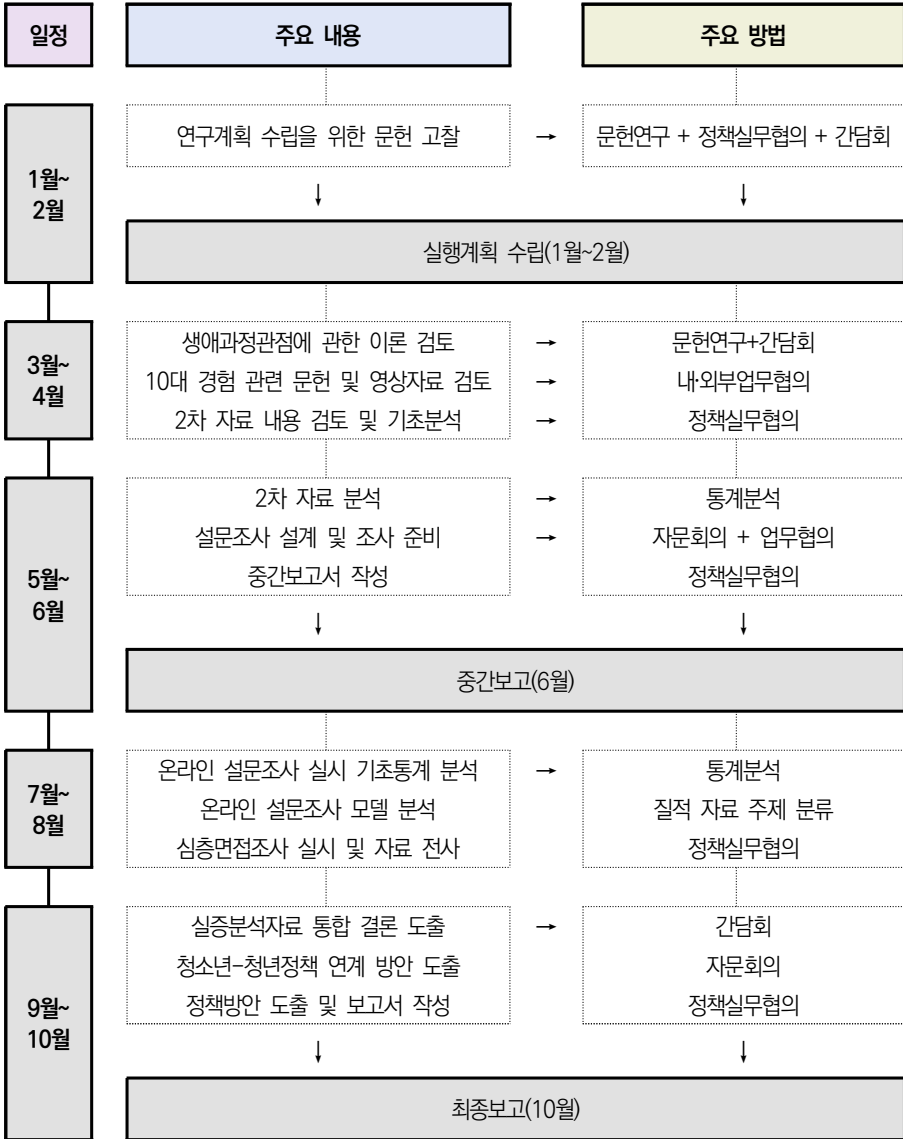


그림 1-6. 연구 추진 일정 및 절차

○ ————— 제2장 생애과정관점에서의 청소년-청년정책 연계 중요성 및 필요성 논의

- 1. 생애과정관점에서 접근한
청소년-청년정책 연계의
중요성
- 2. 선행연구에 나타난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전
경험 요인
- 3. 청소년-청년정책 연계
현황 및 확대 가능성 탐색

2

생애과정관점에서의 청소년-청년정책 연계 중요성 및 필요성 논의*

1. 생애과정관점에서 접근한 청소년-청년정책 연계의 중요성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생애과정관점은 개인의 삶을 특정 연령에 따라 분절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연결되어 있는 과정으로 바라고 접근함. 현행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은 분절적으로 나누어 수립·시행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정책지원을 위해서는 생애과정 관점을 기반으로 한 정책 연계가 요구됨.
-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은 누적적이고 지속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부족한 상태이며,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행될지라도 이전 단계의 부정적 영향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청소년기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청소년정책에 한정되어서는 안 됨.
- 청년기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기의 경험 요인들은 가족, 학교, 사회 등의 범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그 요소들이 양적·질적 측면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부정적 경험(위험요인)의 예방 및 치료 그리고 긍정적 경험(보호요인)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생애 과정에 따른 변화와 연속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행하는 만 18세에서 만 25세 사이의 후기청소년(청년초기)은 인간의 발달 단계에 있어, 청소년에서 성인이 되는 시기(emerging adulthood)에 해당한다. 청년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생물학적, 심리적 변화와 함께 주변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삶의 역할 및 의무 그리고 가치 등의 변화가 함께 일어난다. 이에 따라 취업, 결혼, 출산, 자립 등과 같이 요구되는 과업의 수행도 달라지기 때문에, 청소년기와 청년기 두 발달단계는 각각 강조되는 측면이나 주요 관심에 대한 차이를 갖게 된다. 예컨대 청소년기에는 사춘기, 인지적 성숙, 사회적 관계의 변화(친구, 또래, 연인 등), 학교 진학(고등학교, 대학교)등이 주요 이슈가 되는 반면, 청년기에는 대학생활, 노동시장 및 경제 활동,

* 이 장은 김윤희 부연구위원이 초고를 작성하고,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내용 구성 및 초고 작성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음.

가족 구성 등에 집중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 대해 생애과정관점(life course perspective) 또는 생애과정이론(life course theory)에서는 개인의 삶을 특정 연령에 따라 분절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 내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 즉, 종단적 접근(longitudinal approach to life history)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Elder, Johnson & Crosnoe, 2003).

청년기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후기청소년 연령대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청소년기에서 청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연결된 지원이 필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Arnett, 2000). 가령 청소년들은 고교 졸업 후 시점은 여전히 자립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등록금이나 생활비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는다(Fingerman & Yahirun, 2016).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받던 지원이 청년기로 이행하면서 바로 단절되기보다는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보호와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며, 일차적으로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해 정책적 차원에서 주목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에서는 생애과정관점 같이 생애단계의 이행과정(transition process)의 연속성을 고려하는 것은 미흡하다. 특히 정책 설계 시 생애관점에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생애단계에 따라 고려하여 파악하기보다는 연령에 따라 분절되어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때때로 청소년이 청년기로 이행할 때 연령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는 상황들도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국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왔던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청년기로 이행시기에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자립에 필요한 요소들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청소년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정책대상자로서 청소년의 연령은 9세부터 24세 이하이고, 「청년기본법」의 청년은 19세부터 34세까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이행하는 19세~24세 시기, 즉 후기청소년과 청년 시작 연령대는 연령이 중첩된다. 일각에서는 중첩된 연령이 정책의 비효율을 가져온다는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지만, 비효율이라고 단언 할 수 있는 실증 근거는 없다. 왜냐하면 개인의 발달적 관점과 생애단계 관점에서 청소년과 청년을 잇는 중요한 시기라고 하고, 자립을 위해 지원이 집중될 필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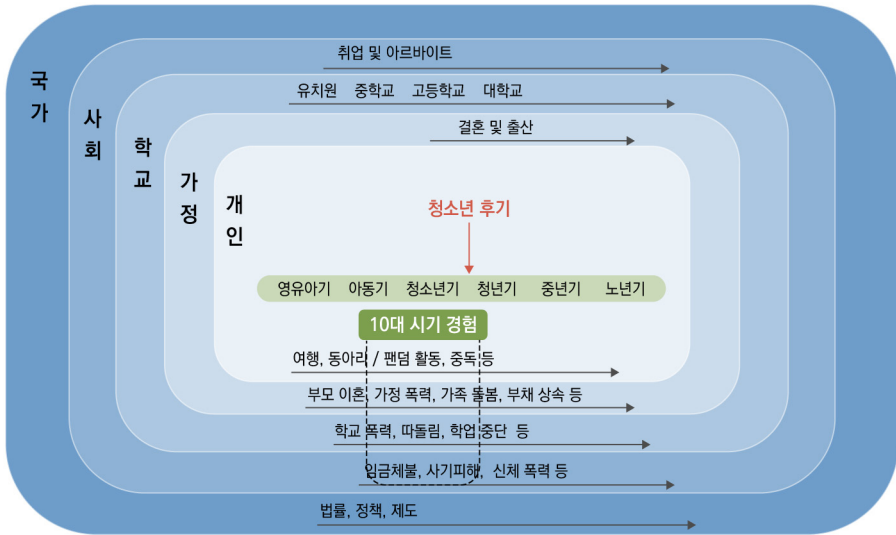
있다고는 하나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빈약하기 때문에 비효율을 논하기는 어렵다. 다시 말해, 청소년정책은 10대 중심으로, 청년정책은 20대 중반 이후 대졸자의 사회진출에 초점을 두어 발전되어 왔기에 19세~24세 중첩된 연령대상자에 대한 그렇다할 정책의 비효율성을 현재 시점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책의 공백지대로 보인다.

청소년기의 경험이 청년기까지 이어진다는 생애과정 연속성의 생애패러다임을 전제로 생애시기에 따라 필요로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개인의 발달 궤적, 사회적 변화, 그리고 사회적 경로 등의 틀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Elder et al., 2003; Kok, 2007). 이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의 어떠한 특징과 경험이 청년기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청년들에게 청소년기부터 지속적으로 필요한 정책, 혹은 반대로 지원의 연령을 앞당겨야 하는 지원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청소년기 경험 영향의 지속성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요소들은 [그림 II-1]과 같이 개인의 특징을 기반으로, 크게 가정, 학교, 그리고 사회의 경험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거시적 관점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는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의 틀에서 설명될 수 있다. 생태학적 체계이론에서 개인은 그들을 둘러싼 가족, 또래와 같은 미시적 차원의 요소 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적 정책과 같은 거시적 차원의 요소들의 집합체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들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Bronfenbrenner, 1977, 1986).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 중에는 생애 전반에 걸쳐 삶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요소들이 있다. 예컨대 주기적인 신체활동 및 건강관리나 교육적 성취, 질 높은 가정환경, 친구와 가족의 지지 등은 장기적으로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반면,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부모의 부재(이혼, 죽음)와 같은 어린 시기 역경(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범죄 및 폭력(가정, 학교, 사회), 따돌림 경험, 정신 건강 문제 등은 전 생애를 거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회, 경제,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행동까지 모두 포괄하여 나타나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보호요인 또는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다.



* 주: 위 그림은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의 틀을 기반으로 작성

그림 II-1. 생애과정관점의 연속적인 생애패러다임^{주)}

이러한 보호 또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 생애과정관점을 적용하여 본다면, 누적적 과정 및 이익/불이익(cumulative process and (dis)advantages)의 측면에서 연계·설명될 수 있다. 누적적 과정 및 이익/불이익은 개인이 생애 전반에 걸쳐 경험하는 것들이 동시에 누적적으로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가 점차 누적될 수 있으며, 누적된 이익 또는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관점이다(Elder et al., 2003; Levy & Bühlmann, 2016). 예컨대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족의 빈곤, 한부모 가정, 가정 및 학교 폭력 등과 같은 위험요인의 부정적 영향은 지속적으로 누적될 가능성이 높이며, 추후 부적응 수준을 증가시키므로 이전 단계에서의 경험이 다음 발달단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Gerard & Buehler, 2004; Lanza & Rhoades, 2013).

생애과정관점(life course perspective)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요소들의 연속적 패러다임을 고려함과 동시에 거시적 측면의 관점을 갖는다. 전 생애에 걸쳐 개인,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은 영향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 복지, 교육, 노동 시장 등 거시적 사회 측면까지 포괄한다(Settersen Jr., 2003). 이 관점을 적용한 연구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삶의 질은 연속되는

관점으로서 접근해야 하고, 개인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밝혀, 이에 따라 가져오는 결과를 거시적 차원과 연계시켜 제언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Stauber & Ule, 2015). 또한, 이러한 관점은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환경, 사회적 규범 등에 대한 실증적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관점으로 평가된다(Benasso, Cefalo & Tikkanen, 2022). 최근 유럽에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을 강조하며, 생애과정관점을 기반으로 노동시장 및 경제 정책 분야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 프로젝트(YOUNG_ADULLLT — Policies Supporting Young People)가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시행된 바 있다.

상기 내용을 종합해보면, 청년들은 개인에 따라 각기 다른 경험을 하고 경험의 영향은 지속성을 가지므로 성인기로 이행하는 청년기 삶에 차이가 발생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과 청년의 정책적 연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10대 청소년기 경험이 청년의 현재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고찰된 내용은 본 연구의 실증연구를 설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에 나타난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전 경험 요인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청년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는 OECD 지표를 살펴보면, 세 가지 요소(①삶의 만족도, ②긍정 정서, ③부정 정서)로 구성되어 측정됨.
-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경제적 측면을 예측 요인으로 분석한 연구가 다수이며, 청소년기의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경험은 청년기까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선행연구의 공통된 결과임.

1) 청년의 삶의 질 측정요인

청년의 삶에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이 지각하는 삶의 질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을 평가하는 요소에는 소득, 건강, 교육 등과 같이 객관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인 지표(수준)를 함께 살펴볼 때, 전반적인 청년의 삶의 질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삶의 질을 측정하는 방식은 “삶 전반”과 “어제의 정서 상태”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삶의 만족도와 가치에 대해서는 ‘삶 전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평균 수준을 측정하는 반면, 정서적 측면에 있어서는 ‘peak and rule’의 상태를 적용하여, 판단 당시(예, 어제)의 정서 상태(예, 행복감, 우울, 걱정)를 측정한다(OECD, 2013). 이러한 특성을 적용한 OECD의 ‘삶의 질’ 측정항목은 총 다섯 가지로, ①“어제”의 행복감, ②걱정, ③우울 수준, 그리고 ④“전반적으로” 삶에 만족하는 정도와 ⑤하는 일에 대한 가치 평가가 이에 해당한다.

삶의 질에 대한 국내 학술연구에서도 ‘삶의 질’을 주관적웰빙 또는 정서적 안녕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며(서경현, 2012; 이명숙, 2015), OECD의 삶의 질 측정에 하위항목에 해당하는 삶의 만족도, 행복감 등을 단독으로 조사한 결과들도 있다. 이와 같은 삶의 질의 측정요인을 고려해 볼 때, 삶의 질을 가늠하는 방법은 크게 삶의 만족도, 긍정정서, 그리고 부정정서를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질문 다섯 가지 정도로 구성하여 측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정 방법을 활용하여 ‘삶의 질’ 수준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어떠한 경험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과관계를 밝히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들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영향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에서부터 사회적 차원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그 범주

가 높다(이도훈, 2020; 정세정, 최권호, 최보라, 2021). 그러나 여전히 청년의 삶의 질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아직 정책의 실증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청소년과 청년의 생애단계를 연계성 있게 접근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쉽지 않다.

2)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긍정/부정경험

우리나라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탐색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회경제적 측면을 예측변수로 살펴보거나 부정적 정서 상태(예, 우울)를 결과변수로 탐색한 연구가 우세한 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청년은 소득과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는 우울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송나경, 2020), 청년을 포함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주거상황, 사회경제적 박탈, 사회적 신뢰수준 등이 우울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슬기, 김지선, 2021). 또한,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 건강, 주거, 노동능력 및 음주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는 결과를 보였다(문진영, 강상준, 2020).

사회경제적 수준 이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경험 또한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 예컨대 가정의 경험으로, 부모와의 사별, 부모의 이혼, 사망 등 부모의 부재로 인하여 충분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한 경우,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수반하여 대인관계, 사회적응의 문제를 겪게 되면서 생활만족도가 저하되거나 우울감을 높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성률, 박병선, 이정미, 최귀숙, 2015; 권지은, 유성은 2021; 윤명숙, 이모숙, 김남희, 정향숙, 2012). 학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험의 예로,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있을 때, 시간이 지나 대학생이 되어도 관계적 삶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오효정, 심혜미, 2019). 사회에서의 경험의 예로, 사법처리를 받은 비행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낙인 및 심리적 압박 등으로 삶의 질이 점차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남미애, 2006). 한편, 청년기까지 장기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지만, 청소년의 약물 및 도박은 범죄 가능성이나 사회 비용 손실을 넘어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다(박은경, 정원미, 전종설, 2019; 유지안, 2020).

해외의 선행연구에서도, 아동 및 청소년기의 빈곤 및 물질적 결핍은 성인기에 우울과 약물남용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결과(Dearing, 2008; Melchior,

Moffitt, Milne, Poulton & Caspi, 2007; Poulton et al., 2002)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국내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보임에 따라 청소년기 경험과 청년기 삶의 연결성은 보편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즉, 청소년기 경험의 영향은 청년기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 성인기까지도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경험에 대한 종단적 영향에 대해, 아동기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청년기를 거쳐 중년기의 우울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Power et al., 2007). 뉴질랜드의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아동기의 경험은 30년 뒤 경제적 성취, 교육적 성취, 그리고 범죄 경험 등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Gibb, Fergusson & Horwood, 2012), 미국과 노르웨이 자료를 비교한 연구도 아동 및 청소년기의 경제적 어려움이 성인기의 근로시간이나 소득과 관계가 높다(Duncan, Telle, Ziol-Guest & Kalil, 2009).

국내 선행연구도 이러한 맥락과 유사하게 아동기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및 생계 곤란이나 학업 중단을 한 경험은 추후 성인기의 우울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민혜, 최은진, 2019; 윤수경, 2019). 이러한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도록 하거나, 이미 부정적 경험을 한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는 것을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책적 차원에서, 청소년기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것은 개인의 삶의 만족을 넘어,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능적 문제들의 가능성을 낮춤에 따라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경험과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함의 점은 청소년기의 경험들은 한 가지 경험에 의해 그 영향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한 가지 지표로 볼 수 없으며, 이들이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긍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이다. 즉, 부정적 경험이 긍정적 경험으로 인해 상쇄되어 10대시기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며, 부정적 경험의 시너지 효과로 인해, 긍정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의 만족도가 낮을 수도 있다(Liem, Lustig & Dillon, 2010). 한편, 삶의 만족도에 관한 문헌들을 고찰한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는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행동적 구조가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요소들과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청년기와 성인기의 삶의 만족도와 연결된다는 결과가 보고된다(Proctor, Linley & Maltby, 2009). 이들 연구의 결과는 결국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해, 10대 청소년기 경험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본 인과관계를 파악한 양적 연구 이외에도 인터뷰를 통해, 현재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회고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과거의 경험이 누적되어 현재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일관되게 보여준다. 예컨대 저임금 고졸 청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의 영향 속에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고, 진로에 대한 충분한 탐색 없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대부분 저임금·비숙련 일자리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숙련에 투자하거나 경력을 축적하지 못하게 된다(남재욱, 김영민, 한기명, 2018).

생애관점을 적용하여 경제적 취약 상황에 놓인 만 19세부터 만 30세 사이의 취약 청년(예, 보호 종료 청년, 학교 밖 청년, 저소득 청년 등) 16명의 인터뷰를 실시한 연구의 결과에서도 누적된 영향이 포착된다. 즉, 아동 및 청소년기의 가구 빈곤, 가정폭력·아동학대, 학교 및 교육환경에서의 부정적 경험 등이 누적되어 현재의 취약 상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정세정 외, 2021). 이러한 결과는 해외 연구에서 노동 시장에서 고용의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는 49명의 취약 청년 심층 인터뷰에서, 이들의 불안정한 현재 상태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돌봄의 결핍, 주거환경의 불안정, 약물 중독 등이 결합하여 나타난 문제라고 설명한 것(Lakey, Barnes & Parry, 2001)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청년의 삶의 예측하는 요인에 대한 많은 연구는 개인적 요인에서부터 사회적 차원까지 다양한 관점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및 학교에서의 대인관계와 같이 미시적 관점에서 변인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청년기 경험은 가정 이외의 사회적 체계 등 더 큰 범주와 함께 결합하여, 현재의 청년기 상태를 만들어어나간다(Flouri, Tzavidis & Kallis,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생애과정 관점을 수용하여, 삶의 질의 전반적으로 높여주기 위해 현재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거시적으로 살펴보고,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 사이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거나 새롭게 제도화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도출하기 위해, 이 연구는 순차적 통합방법에 기초하여, 2차 자료 분석, 설문조사, 그리고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며,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과 청년 대상의 정책적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3. 청소년-청년정책 연계 현황 및 확대 가능성 탐색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후기청소년정책은 생애주기단계의 발달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 정책 및 청년 정책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한계점을 가진. 또한 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연결고리가 미흡하여,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행하면서 지원이나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됨.
- 대표적으로 청소년기의 장기적 영향을 고려한 연계된 정책은 전무하며, 이는 분절적인 정책의 한계로도 볼 수 있음. 즉, 청소년기에 따돌림 피해를 경험한 청년의 경우, 청소년기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사례가 많지만, 이를 위한 대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려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현재 청소년 정책과 청년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여 연계 및 확장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대상 중심의 정책 설계에 적용해야함.
- 최근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청년정책 연계 확대되고 있는 입법 및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제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그리고 미성년자 및 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이 있음. 청소년-청년 정책 연계 확대를 위한 입법 및 지원 제도를 살펴보면, 현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제도가 유일하나, 이러한 연계적인 신규입법 및 지원 제도는 빠르게 확장될 것으로 보임.

1) 후기청소년정책 현황 및 한계

(1) 후기청소년정책 일반 현황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 대상은 지원 정책 및 법률에 따라 같은 연령에 다른 용어가 적용되기도 한다.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만 9~24세로 정의하며,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만 19세~34세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정책분야에서 생애주기 단계별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볼 때, 중첩되는 연령층은 만 19세~24세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후기청소년(또는 청년초기)에 해당한다.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24세까지의 후기청소년을 포함하여,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등 4대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3.). 또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관계부처 합동, 2020.12.)에 따르면, 만 19세~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다음의 5대 정책방향 및 중점과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자리 분야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주거 분야 (청년의 주거부담이 줄어듭니다.)”, “교육 분야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 “복지·문화 분야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참여·권리 분야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

이러한 추진 목표 및 방향을 바탕으로, 후기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을 부처별로 살펴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으로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기반 지원,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 안전망 프로그램 등의 사업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립 지원, 진로 및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후기청소년이 근로의 기회를 갖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직업훈련 등의 진로지원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정책이 후기청소년에게 어떠한 역할을 살펴보면,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2) 후기청소년정책의 한계점

① 양과 질 모두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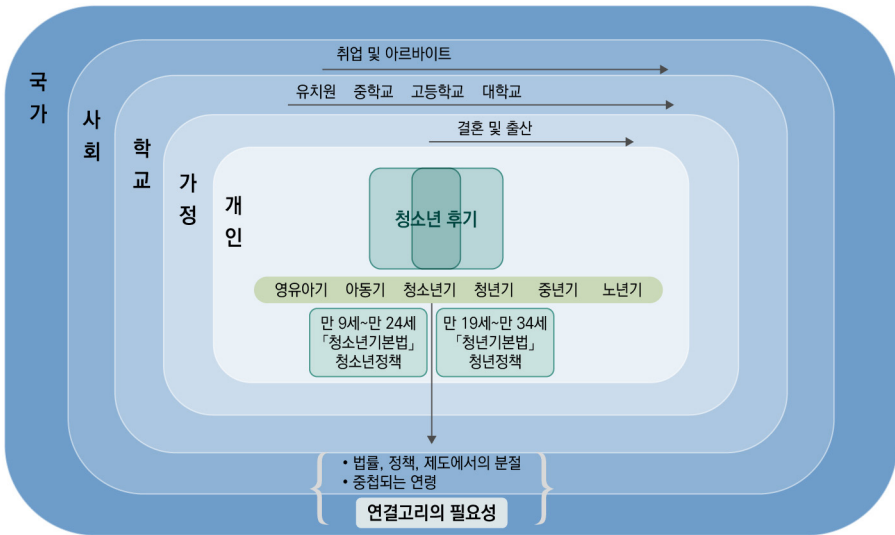
먼저, 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다. 정책의 대상자는 청소년과 청년 사이에 기본축이 되어 있으며, 후기청소년은 두 생애주기 단계에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정책 수혜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지원 정책은 청소년과 청년 시기의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즉, 후기청소년들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연령 범위가 일부 중첩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적 욕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정책을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후기청소년이 겪는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정책적 요구사항은 초중고 시기 연령층의 청소년과는 차이가 있지만, 현행 청소년정책은 주로 초중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집중되어 있으며, 후기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지원의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후기청소년은 20대에 진입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의 상태(학생, 무직, 취업자 등)에 따라 필요한 상황과 다양한 욕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 청소년정책과 차별성을 갖는 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미흡한 상태이며, 20-30대 청년의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청년정책 또한 후기청소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년기의 시작점에 있는 후기청소년들에게 10대시기나 청년시기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의 정책효과가 있는지 먼저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즉, 후기청소년에게 현재의 정책들의 수단과 내용이 적절한지 명확한지, 효과성이 담보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후기청소년들의 특성에 맞게 부가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②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과의 유기적 연계성 부재

또 다른 한계점은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 사이의 연결고리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즉, 두 정책은 분절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연계시키기보다는 각 정책의 범주 안에서의 효과성을 찾기 위한 설계만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 사이에 고려되지 않은 연결고리는 앞서 첫 번째 한계점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부족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그림 II-2] 참고).



* 주: 위 그림은 브론펜베르너(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을 기반으로 작성

그림 II-2. 청소년-청년 정책 간 연결고리의 필요성^{주)}

이처럼 분절된 정책으로 인해 나타난 특정 취약계층 및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의 한계점을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까지 시행되었던 18세 미만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행하는 연령대에 지원되던 서비스가 모두 중단되는 방식으로 지원제도가 운영되었다. 그러나 지원이 중단되는 시점까지 자립을 충분히 준비 하지 못한 후기청소년의 경우, 연령만 높아졌을 뿐 일상에 필요하였던 지원 서비스가 사라지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자립기반이 취약한 취약계층 후기청소년들의 경우,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분절적 정책의 한계를 고려할 때, 후기청소년들에게는 지원

을 중단시키기 전,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 연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2022년부터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 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이처럼 정책지원을 효율적으로 받지 못하는 대상을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연계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③ 생애단계 연속성 고려의 부재

한편, 또 다른 한계로 지속적이고 연쇄적인 영향을 고려한 정책은 전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0대 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은 청년기까지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동안 청소년기에 겪은 부정적 경험을 해결하고자 하는 지원 및 시도들은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이루어져 왔으나, 부정적 상황을 경험한 시기를 기준으로 단기간 서비스가 진행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예컨대 대학생의 우울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시기의 학교에서의 부적응은 고등학교에서의 학교적응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대학생이 되어 새로운 환경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대시기의 경험이 대학생의 우울감을 높인다(김윤희, 구자연, 김현경, 2018).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기의 따돌림의 경험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모두 대인관계나 정신건강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청년기의 우울은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있어 또 다른 방해요인이 된다(오효정, 심혜미, 2019; 현미열, 2016). 즉, 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충분히 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로 다음 생애 주기로 넘어간다면, 부정적 경험의 환경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여전히 남아있어, 연쇄적으로 또 다른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청소년정책과 청년 정책을 살펴보면, 청소년기 부정적 경험에 따른 심리·정서적 지원이 연계성 있게 추진되지는 않는다.

한편,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매년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은 학교 폭력이다. 앞서 언급한 연계성이 부재한 정책적 설계는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은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후 회복되지 않은 채 성인이 되고, 각자 그들의 상처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심리상담 등의 도움을 받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생생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유튜브 채널(씨리얼) 영상으로 존재한다. 이 영상에서는 ‘왕따’ 경험을 소재로, 따돌림을 경험한

청년들이 참여한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는데⁶⁾, 청소년기에 겪은 ‘왕따’ 경험으로 인한 영향은 성인기가 되어도 지속되며, 청소년기 동안 이 경험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사회적 장치는 전무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등의 장치가 학교 안팎으로 있다 하더라도 이들에게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공통된 의견이 갖는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부정적 감정을 잊기 위해 게임중독, 유해 환경 접근 등 건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소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이 있지만, 이러한 법률은 피해를 이미 겪은 피해자들이 건강한 심신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종합적으로 볼 때, 청소년기 따돌림과 같이 생애 주기에서 부정적 영향의 크기와 지속성이 강한 경험을 한 경우, 이들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사건 발생 시기에 대한 지원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장치가 후기청소년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후기청소년들의 건강한 청년기 진입을 위해서는 종단의 생애관점에서 영향력을 고려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신규 입법 및 지원 제도 추진을 통한 청소년-청년정책 연계 확대 가능성 탐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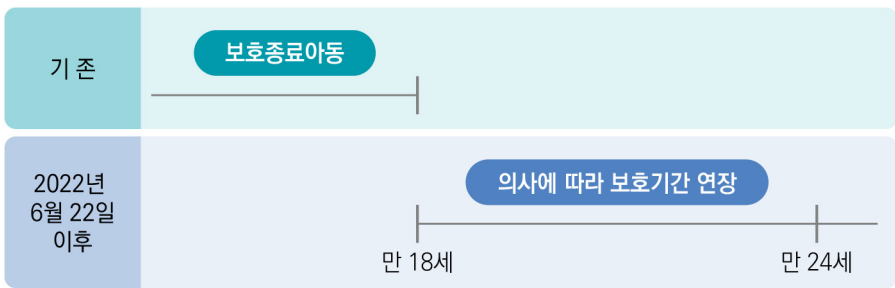
후기청소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신규 정책을 도입하거나 지원 제도 추진을 통해 청소년과 청년정책을 연계하고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이러한 청소년-청년정책 연계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정책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으로 최근 이슈화가 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원제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제도, 그리고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지원제도

최근 청소년-청년의 생애 단계를 이어주는 지원 제도가 추진된 바 있으며, 이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수당지원제도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보호종료아동’으

6) 유튜브 씨리얼 영상 ‘왕따였던 어른들’

로 칭하였던 자립준비청년⁷⁾은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아동양육시설(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 등 국가로부터 만 18세까지만 보호를 받아 왔지만, 매년 보호가 종료된 2,500여 명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아무 대책 없이 홀로서기를 해야 했던 자립준비 청년들은 “자립을 당했다.”라고 표현되기도 하였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기를 이어주는 지원 방안으로, 자립수당 지원 대상을 보호 종료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확대하였고, 18세가 되었을 때, 보호조치를 연장하고자 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다(관계부처합동, 2021.7.13). 이러한 정책 사례는 청소년기에 지원되고 있었던 정책지원의 범위를 확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과 청년을 연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그림 II-3) 참고).



* 주: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22년 6월 22일부터 아동의사에 따라 별도의 사유없이 만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

그림 II-3.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보호기간 연장

그러나 자립지원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으로만 이들의 자립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실질적 자립에 필요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이다(예, 선제적 임대주택 연계 및 경제 교육 등). 청소년-청년의 생애 단계를 이어주는 후기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책은 자립준비 청년 정책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소년과 청년을 연계하는 정책들이 점차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7) 2022년도부터 '보호종료아동' 명칭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

(2) 가족돌봄청년 지원제도

생애과정관점을 반영하여,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연계하여 새롭게 제도를 수립하고 있는 또 다른 지원정책으로, 가족 돌봄 청년 지원이 있다.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 및 청년(이하 영케어러)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그동안 누적된 사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복지대상자로서 진행한 발굴지원 사업이 진행된 바가 없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도 이들을 위한 지원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법률적 정책적 인지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족 돌봄 청소년 및 청년들은 교육·훈련의 기회가 제약됨에 따라 균등한 성장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미래의 자립능력을 키우기 어려운 상태로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간병살인 사건)로 인해 이들을 위한 지원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관계부처합동, 2022.2.14.),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이 수립될 예정이다.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지원 서비스는 현재 도입과정에 있으며,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가족 돌봄 청년의 발굴 및 실태 조사가 시행 중에 있다. 조사 대상은 만 19세 미만의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과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청년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연계하여 청소년에게 지원 될 수 있는 지원은 「청소년 복지 지원법」에 따라 위기청소년 일반지원에 해당하는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실시 등이 있으며, 특별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등이 있다. 한편, 가족 돌봄 청소년이 “위기청소년”의 개념과 “특별지원 대상자”로서 해당되는지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

영국,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영케어러 지원 정책에 대한 지원이 선행된 곳이 많으며, 영케어러(Young Carer)를 정의하는 연령을 만 18세 미만(영국) 또는 20대 중반까지 포괄(호주, 일본 지자체)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해외사례로, 영케어러를 위한 지원에서 선진국으로 평가되는 영국의 경우, 영국의 「아동 및 가족법」(The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Section 96에 따라 18세 미만을 영케어러(Young Carer)로, 만 18~24세 후기청소년은 「돌봄법」(Care Act 2014)으로 영 어덜트 케어러(Young Adult Carer)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허민숙, 2022, p.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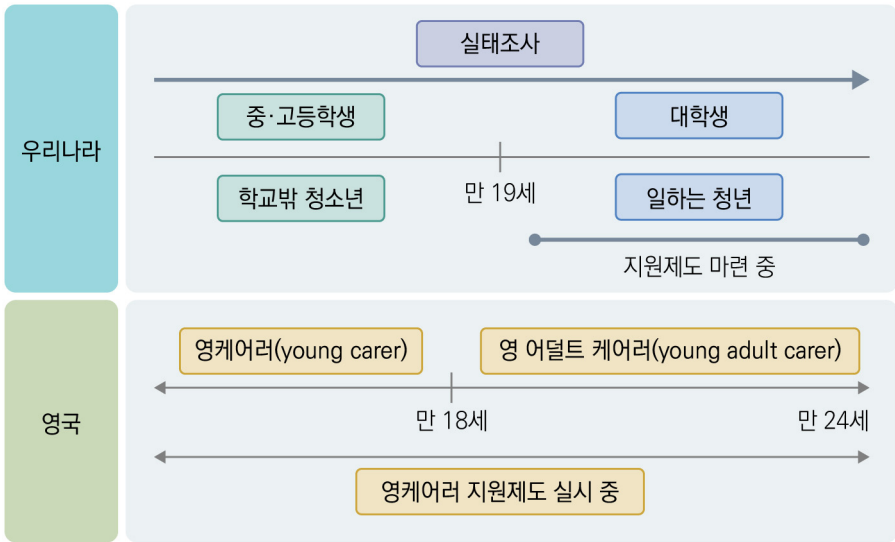


그림 11-4. 우리나라와 영국의 영케어러 지원 연령 범주

한편, 영국의 영케어러 지원 정책은 연령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시스템인 Young Carer's Needs Assessment를 통해 영케어러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아일랜드에서도 7가지 평가항목을 통해, 개인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다(허민숙, 2022, pp.9-11). 이처럼 영케어러를 위한 정책이 선행되고 있는 해외국가들을 볼 때, 연령으로만 영케어러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들이 어떠한 사항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족을 돌보는 일은 보편적으로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어진다. 영케어러들은 가족을 돌봄에 따라 공감능력, 의사결정 능력, 독립심 등과 같이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지만(Doutre, Green & Knight-Elliott, 2013; Gough & Gulliford, 2020; Heyman & Heyman, 2013; Jansson & Anderzén-Carlsson, 2017), 전반적으로 성장기에 평등하게 누려야 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며 나타나는 부정적 영향이 우세하다. 특히, 학습기회의 제약과 성공적이지 못한 학교생활(결석, 낮은 학업 성취도, 또래와의 활동)은 미래에

자립을 위한 능력을 성장시키는 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으며(Gates & Lackey, 1998; Justin, Lamore, Dorard & Untas, 2021; Kaatsiz & Öz, 2020; Thastum, Johansen, Gubba, Olesen & Romer, 2008), 돌봄을 통해 지속되는 스트레스와 압박은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 연결된다(Bendor, 1990). 이러한 과정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청소년기는 청년기의 삶의 질을 낮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Liem et al., 2020), 가족 돌봄 청년을 위한 정책에 있어서도 청소년을 포괄하되 후기청소년 단계를 고려한 생애주기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케어러를 위한 법률 및 제도의 시작점에 있다. 따라서 정책의 한계점으로 제기된 바와 같이, 지원 대상을 한정하여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이처럼 지원의 연결고리를 고려한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3)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후기청소년들을 고려한 또 다른 국가적 개입으로 ‘미성년 상속인 보호 입법 방안’이 있다. 현행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때,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초과 상속채무를 승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빚 대물림에 대한 보호조치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어, 한정승인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 초과채무의 승계를 방지하는 민법 개정안이 통과 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림 II-5]와 같이,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한정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미성년 상속인을 초과 상속 채무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견이 수렴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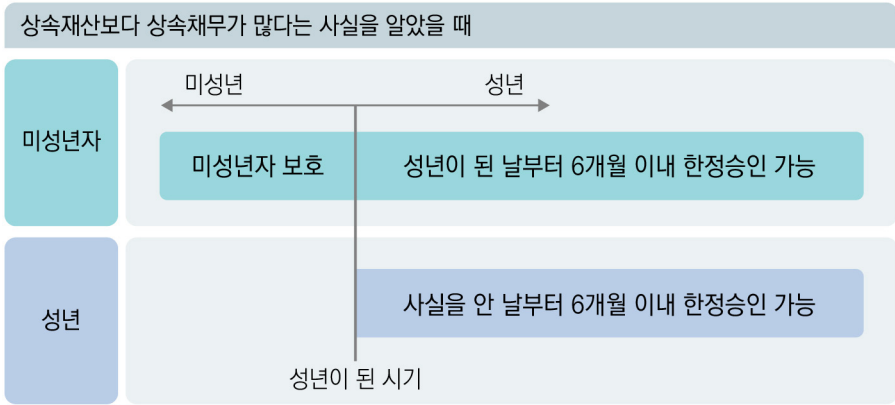


그림 11-5. 미성년자 및 대물림 방지 「민법」 제1019조 개정안 주요 내용

미성년 상속인 보호규정은 선진 국가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당연승계주의를 채택한 국가(독일, 프랑스)와 당연승계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에 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미국, 영국, 오스트리아)로 나뉜다. 당연승계주의인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상속승인여부에 대한 결정과 승인 및 포기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는데,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성년이 되었을 때의 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하거나(독일), 한정승인이 원칙(프랑스)인 점이 특징적이다. 이와 달리, 미국의 경우 잔여 재산이 있을 때 상속재산이 분배되기 때문에 초과된 상속 채무는 미성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조건부 승인)하도록 하여, 미성년 상속인을 초과상속 채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특별규정을 마련해두었다. 국가별로 제도의 승계에 대한 규정에 차이가 있으나, 특별규정 등을 마련하여, 초과하는 채무가 미성년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해두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김성호, 2021, pp.4-9).

당연승계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민법개정을 통해, 후기청소년 시기의 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으나,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초과상속의 채무가 과도하게 승계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입법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속 승인 및 포기 기간의 확장, 한정승인절차에 대한 부담 완화 등 이들을 보호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행하는 시기에 있어,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채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후기청소년을 비롯하여,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이어주는 하나의 정책으로 바람직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세 가지 국가적 차원의 정책 및 개입 이외에도 연계적인 신규입법 및 지원 제도가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생애주기관점에서 청소년과 청년기를 잇는 청소년기의 10대 경험 중 영향력이 크거나 지속성이 높은 요소들에 대해 구체적인 경험과 영향의 맥락에 대해 파악하고, 청소년-청년정책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 요인들을 발굴하고자 한다.

○———— 제3장 후기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경험 :
2차 자료 분석

- 1. 분석 자료
- 2. 분석 방법
- 3. 분석 결과
- 4. 소결 : 결과의 요약 및
설문조사 내용 설계의 방향

3

후기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경험 : 2차 자료 분석*

1. 분석 자료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KCYPS2010)’의 중1 코호트는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진학 시점까지 7개년 (2010년~2016년) 조사가 완료된 후 다시 2017년부터 매년 ‘패널유지조사’의 형태로 현재 상태와 삶의 만족도 등이 조사됨. 이 자료를 통해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경험 요인 파악과 제4장에서 실시될 온라인 설문조사 내용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10대시기 주요 경험 특성에 대한 실증 근거를 확보함.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누적된 ‘패널유지조사’ 자료를 묶어 5가지의 결합자료(pooled data)를 생성하고, 이 자료로 후기청소년이자 동시에 20대 초반 청년에 해당하는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10대시기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대상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미치는가를 실증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음.

1) 분석 자료 : ‘KCYP2010’ 중1 코호트 본 조사 및 유지조사 자료

본 연구에서는 10대시기의 어떠한 경험 요인이 24세 이하 후기청소년이자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함과 동시에 제4장에서 실시되는 설문조사에 반영되어야 할 주요 경험 특성에 관한 실증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차 자료를 분석하였고, 이를 위한 자료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2010: 이하 KCYPS2010)’ 중학교 1학년 코호트 자료를 선택하였다.

이 자료에는 학업이나 진로선택 등과 같은 제한된 성취 획득만이 아닌, 10대시기의 성장과정에서 겪어내는 다양한 측면의 경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삶의 연속적인 과정에서 10대시기에 경험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험에 관심을 갖는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으로 선택하였다.

* 이 장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과 송현주 대표가 분석하고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특히 2010년 당시 구축된 3개의 코호트(cohort) 중 중학교 1학년 코호트의 경우, 중학교 1학년부터 대학교 진학 시점까지 7개년(2010년~2016년)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이후 2017년부터 매년 12월 조사대상자인 패널들과 접촉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패널유지조사’의 형태로 현재 상태와 삶의 만족도 등으로 구성된 간략한 내용을 웹기반 조사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하형석, 황진구, 김성은, 이용해, 2021, p.12).

앞서 제1장 연구 내용 및 방법 구성에서 간략하게 기술한 바와 같이, KCYPS2010중1 코호트의 유지조사 자료는 고교 졸업 후 5개년을 추적한 자료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만19세부터 만34세 연령대의 청년 전체가 아닌, 만19세~24세 이하 후기청소년이자 청년인 20대 초반에 대한 실증분석만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다. 그러나 10대시기의 경험이 청년의 삶과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 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제한적이거나 생애단계 이행 초기에 대한 영향요인을 밝힐 수 있을 것이며, 본격적으로 청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의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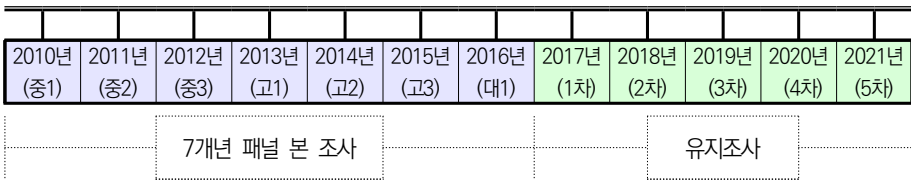


그림 III-1. 분석 원자료 : KCYPS2010 중1코호트 본 조사 및 유지조사

‘KCYPS2010’ 중1 코호트의 유지조사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의 수준을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단일 문항 측정은 주관적 삶의 질(subjective well-being)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식 중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primary measure)라 할 수 있다(OECD, 2013, p.253).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국가의 ‘삶의 질 지표’에는 총 11개의 지표가 구성되어 있고, 개인의 삶의 질 수준인 ‘주관적웰빙’이 국가단위 삶의 질 지표에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주관적웰빙의 측정은

8) ‘KCYPS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에서 삶의 만족도는 ‘귀하의 전반적인 생활을 고려할 때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의 질문에 ‘①전혀만족하지 않는다, ②만족하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만족한다, ⑤매우 만족한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데이터아카이브, <https://www.nypi.re.kr/archive/mps/program/examinDataCode?menuId=MENU00226>, 2022.5.11. 검색 및 출력)

OECD(2013)의 “주관적웰빙 측정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따라 삶의 만족도 외 긍정정서와 부정정서가 하위지표로 포함된다(통계청 e-나라지표, 2022.5.2. 검색 및 출력).

그러나 KCYPS2010 패널조사의 경우, 삶의 질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자료가 아니기도 하고, 패널조사 대상자 접촉 유지의 목적으로 간략하게 문항들을 구성한 조사이며 단일 핵심문항인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만 측정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삶의 만족도 문항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이는 ‘KCYPS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자료가 갖는 한계이므로 다음 제4장에서 이어지는 설문조사에 주관적웰빙을 측정하는 핵심 문항(core measures)인 긍정정서와 부정정서를 반영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2) 분석 데이터 셋(Data set) 생성

‘KCYPS2010’ 중1 코호트 본 조사 자료와 유지조사 자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제1차 유지조사 자료부터 2021년 제5차 자료까지 모두 묶어 5개년 결합자료(pooled data)로 전체 데이터 셋(data set)을 생성하고, 이 자료를 현재 상태에 따라 다시 세 집단(대학(원)생, 취업자, 무직자)의 하위 데이터로 나누어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5개년 유지조사 결합자료의 분석 데이터 셋 4개(전체 및 하위 3개 집단)를 생성한 것이다.⁹⁾ 이들 데이터 셋의 분석을 통해 5개년 전체, 즉 20대 초반 시기의 후기청소년이면서 동시에 청년인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10대시기의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와 현재 상태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미치는가를 실증 모델 분석(empirical model analysis)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어 5개년 간 실시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각 년도 유지조사 자료를 각각 분석함으로써, 10대시기의 경험 영향 요인이 고교 졸업 후 5개년 동안 1년이라는 동일한 시간 간격에 따라 일정한 또는 특정한 경향성으로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 생성된 데이터 셋은 총 19개로 유지조사 1차 년도에 해당 표본이 없어 데이터 셋 생성이 되지 않은 무직자 집단을 제외하고, 총 4개 집단(전체, 대학(원)생, 취업자, 무직자)의 5개년 각각의 데이터 셋이 이에 해당한다.

9) ‘KCYPS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에서는 현재 상태를 5가지 선택 항목(①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②학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있다(주된 신분은 학생), ③일을 하면서 학교에도 다니고 있다(주된 신분은 직장인), ④일을 하고 있고,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다, ⑤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있다)으로 측정하였다. 이 구분의 기준은 학교에 다니는지와 주당 18시간 일하는 지의 여부이다. 본 연구에서는 ①과 ②를 대학(원) 재학생, ③과 ④를 취업자, ⑤를 무직자로 재분류하였다.



5개년 결합자료(Pooled Data)셋

	2017	2018	2019	2020	2021
전체	○	○	○	○	○
재학생	○	○	○	○	○
취업자	○	○	○	○	○
무직자	-	○	○	○	○

각 년도 분석비교 자료 셋

그림 Ⅲ-2. 분석 자료 : 데이터 셋(data set) 생성 및 구성

이들 5개년 결합자료로 생성된 데이터 셋 4개와 각 년도 총 19개 데이터 셋에는 'KCYP2010' 중1 코호트의 고교 졸업 후 5개년 유지조사를 통해 측정된 삶의 만족도와 응답 시점의 현재 상태 등의 사항만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와 통제변수로서의 응답 시점의 현재 상태, 그리고 회고적 청소년기에 대한 만족도,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도나 기본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10대시기의 경험 변수는 'KCYP2010'의 7개년(2010년~2016년) 본 조사 자료와 결합하여 생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학교 1학년 시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시기까지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주요 경험 측정값들을 중학교 시기 경험과 고등학교 경험 시기로 나누어 각 3년 기간의 누적 값을 합산·산출하여 변수로 생성하였고, 이들 변수는 유지조사 5개년 데이터 셋에 고정 값을 갖는 변수로 투입된다. 본 연구에서 'KCYP2010'에서 측정한 10대시기 경험과 관련된 측정값을 누적 합산하여 변수로 생성한 것은 경험의 내용에 따라 해당자가 없어 분석 자체가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10대시기의 부정적인 경험과 관련해서는 그 내용의 특성상 다수의 경험자가 있기 어려우므로 분석을 하지 않기로 차선의 방법을 택하여 실증 분석을 가능케 하였다.

'KCYP2010' 중1 코호트 본 조사 자료에서 중학교 3개년과 고등학교 3개년 각 누적 합산 값으로 산출된 10대시기의 특성은 크게 10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경험과 그 시절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경험들로 구성된다. 가령 긍정적인 경험으로는 가족과의 여행, 문화 활동, 해외방문 경험, 각종 체험활동¹⁰⁾, 교내외 동아리

10) 'KCYP2010'에서는 체험활동을 아홉 가지(①건강/보건, ②과학/정보, ③교류·모험, ④가치·문화, ⑤예술, ⑥봉사, ⑦직업체험, ⑧환경보존, ⑨자기개발)로 나누어 측정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모두를 체험활동으로 묶어 합산한 후 중학교, 고등학교 각 3개년 누적 횟수를 산출하였다.

활동 등의 활동 경험 횟수가, 부정적인 경험으로는 '왕따'와 같은 집단 따돌림 피해와 폭력 피해, 음주나 흡연, 도박 게임과 같은 지위의 경험도 각 학령기 누적 경험으로 합산되어 생성변수로 포함된다.

2. 분석 방법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실증 분석에 생성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분석 모형을 선정하기 위한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된 삶의 만족도가 종속변수이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경험 요인들을 분석하는 모형으로 최종 순위로짓모델(Ordered Logit Model)을 선택함.
- 삶의 만족도 측정의 5점을 기수로 간주하고, 패널 자료임을 고려하여 '합동 OLS(Pooled OLS)' 모델 적용을 검증하였으나, 오차항의 정규성과 동분산이 가정되지 않아 적용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검토한 '패널GLS' 모델은 시계열 개수가 패널 그룹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용하지 못함.

1) 분석 모델 선정을 위한 검토

실증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생성 데이터 셋에 담긴 측정 자료들을 어떠한 모형으로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검토하고, 연구의 목적과 자료의 속성을 고려한 최적의 추적 모델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종속변수로 분석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5점 리커트 척도, 즉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 '만족하지 않는다(2점)', '보통이다(3점)', '만족한다(4점)', '매우 만족한다(5점)'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분석 모델을 검토하였다.

학문 분야에 따라 5점 또는 7점 등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값을 연속된 기수적 점수(cardinal scores)로 간주하여 회귀분석(OLS: Ordinary Least Squares)모형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값이 서열척도로 측정된 연속된 값과 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순서화된 서열척도로 측정된 서수(Ordinal numbers)로 보고, 순위로짓(Ordered Logit) 또는 순위프로빗(Ordered Probit)과 같은 모델을 적용하기도 한다(안주엽 외, 2016, pp.329-33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생성된 본 연구의 결합 데이터 셋(pooled data set)을 분석하는데 있어 이들 두 가지 분석 모델을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특히 패널자료의 속성을 고려하여 '합동 OLS(Pooled OLS)' 모델 적용이 가능한가를 검증하였다. 간략하게 정규성

과 오차항의 동분산(homoskedasticity) 검증을 실시한 결과¹¹⁾, 정규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이분산(heteroskedasticity)으로 동분산이 가정되지 않아 ‘합동 OLS(Pooled OLS)’ 모델 적용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오차항에 이분산성이 존재할 경우 대안으로서 적용 가능한 ‘패널GLS(Generalized Least Squares)’ 모델을 검토하였으나, 이 경우 각 그룹 내 시계열 개수가 적어도 패널 그룹의 수보다 많아야 한다(Beck & Katz, 1995)는 전제 조건에 본 연구의 분석 자료가 부합하지 못하여 이 또한 적용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본 연구의 분석 데이터 셋의 시계열 개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5개이고, 패널 그룹이라 할 수 있는 각 개인 패널의 수는 1,207명으로 패널GLS 모델 적용의 기본 전제에 부합하지 못하여 이 모델로 추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의 경험 요인을 ‘합동OLS’나 ‘패널GLS’ 추정 방식이 아닌, 순위로짓 또는 순위프로빗 모형 중에서 앞서 실시한 결합자료의 정규성 검증 결과를 고려하여 순위로짓 모델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하였다.

2) 실증 분석 모델 : 순위로짓 모델(Ordered Logit Model)

순위로짓 모델은 종속변수의 응답이 서열적 형태의 성격을 리커트 형태의 변수를 다룰 수 있도록 특별히 개발된 계량모형이다(Gujarati, 2016, p.246).

이 모델은 잠재변수(latent variable) y^* 가 점차 높은 임계점들을 지나면서 순차적으로 결과들이 생성된다는 것을 모형화하는 것이다. 즉 y^* 은 현재 삶의 만족도에 대해 관찰되지 않은 척도로, 개인 i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y_i^* = x_i' \beta + u_i$$

11) 정규성 검증(Shapiro-Francia W test for normal data : H_0 = normal distribution 기각), 동분산 검증(Breusch-Pagan/ Cook-Weisberg test for heteroskedasticity : H_0 =constant variance 기각)

여기에서 설명변수 x 가 절편을 포함하지 않음을 통해 정규화가 이루어진다. y^* 의 값이 매우 낮은 것은 삶의 만족도가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를 의미한다. $y^* > \alpha_1$ 이면 삶의 만족도는 ‘만족하지 않는다’ 상태로 향상되며, $y^* > \alpha_2$ 이면 삶의 만족도는 ‘보통이다’ 상태로 향상된다. 같은 방식으로 $y^* > \alpha_3$ 이면 삶의 만족도는 ‘만족한다’로 향상되며, $y^* > \alpha_4$ 이면 삶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로 향상된다.

이처럼 m 개의 대안을 갖는 순위 분석 모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lpha_{j-1} < y_i^* \leq \alpha_j \text{ 일 때 } y_i = j, \quad j = 1, \dots, m$$

여기서 $\alpha_0 = -\infty$ 그리고 $\alpha_m = \infty$ 이다. 이 경우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begin{aligned} \Pr(y_i = j) &= \Pr(\alpha_{j-1} < y_i^* \leq \alpha_j) \\ &= \Pr(\alpha_{j-1} < x_i' \beta + u_i \leq \alpha_j) \\ &= \Pr(\alpha_{j-1} - x_i' \beta < u_i \leq \alpha_j - x_i' \beta) \\ &= F(\alpha_j - x_i' \beta) - F(\alpha_{j-1} - x_i' \beta) \end{aligned}$$

여기서 F 는 u_i 의 누적분포함수이며 u_i 는 로지스틱분포를 취하게 된다. 회귀 모수 β 의 부호는 그 설명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잠재변수 y^* 가 증가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β_j 가 양수인 경우, x_{ij} 의 증가는 가장 낮은 범주($y_i = 1$)가 선택될 확률을 감소시키고 가장 높은 범주($y_i = m$)가 될 확률을 증가시킨다(Cameron & Trivedi, 2017: pp.696-697).

3) 분석 변수의 구성

본 연구에서 분석 모델에 투입된 변수는 <표 III-1>과 같다.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를 1점으로, ‘매우 만족한다’를 5점으로 측정된 측정값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인 10대시기의 경험은 크게 긍정 경험과 부정경험으로 구성하였다. 긍정경험으로는 ①가족과 1박 이상의 여행 횟수, ②문화활동 연간 누적 횟수, ③해외방문경험 횟수, ④교육목적의 해외방문 체류 일수, ⑤체험활동 횟수(건강/보건·과학/정보·교류·모험/개

척·문화/예술·봉사·직업체험·환경보존·자기개발 관련 체험), ⑥교내동아리 활동 횟수, ⑦ 교외 동아리 활동 횟수가 포함된다. 부정경험으로는 10대시기에 겪은 다양한 피해 경험과 비행 경험으로 구성하였는데, 즉 ①학교폭력(심한 놀림이나 조롱, 집단 따돌림(왕따), 언어 폭력, 신체폭력, 성폭행이나 성희롱)¹²⁾, ②담배피우기, ③음주, ④돈 걸고 한 도박 게임이 이에 해당된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이들 10대시기의 경험은 중학교 3년간 각 경험 횟수의 합산과 고등학교 3년간 경험 횟수의 합산변수를 산출하여 변수로 생성하였다. 그런데, 'KCYP2010' 중1 코호트의 1차 년도(2010년) 조사에서는 부정 경험과 관련된 사항이 측정되지 않아, 중학교의 부정경험은 중2~3학년의 2년치 경험 횟수의 합계로 생성되었다. 또한 부정경험 중 '돈 걸고 한 도박 게임 횟수'의 경우 1차 년도(2010년)와 2차 년도(2011년)에는 측정되지 않아, 중학교 3학년 1개년도의 측정값만이 반영되었다. 또 부정경험의 경우 횟수라는 양(量)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지속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매 조사 차수마다 부정경험에 대해 경험 '있음'으로 응답하였을 경우 해당 년도의 수를 모두 덧셈하여 값을 생성하고, 그것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독립변수와 더불어 설명변수이자 통제변수는 분석 원자료인 'KCYP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자료에서 측정된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현재 상태, 그리고 생활만족도로 구성하였다. 이들 특성의 구성은 전체 집단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변수와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구분한 집단, 즉 대학(원)생, 취업자, 무직자 집단에 따라 추가 변수를 구성하였다. 가령 대학(원)생 집단의 경우 재학하고 있는 대학의 지역이나 학교의 학제유형, 전공, 그리고 학교생활만족도가, 취업자 집단의 경우 직장소재지와 직종, 직장생활만족도가, 무직자의 경우 진학 또는 취업가능성과 진학/취업준비를 안하는 이유가 추가 구성되었다.

모든 분석 데이터 셋에 공통으로 포함된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성별(남/여), 연령(연속), 거주지역(서울, 광역시, 도), 부모동거 여부(동거/비동거) 특성이 분석 변수로 구성되었다. 여기에 10대시기 가구소득정보를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 포함하였는데, 학령 전환기이면서 진로 결정시기인 중3과 고3 시점의 가구소득이 자연로그를 취한 연속변수로 투입되었다.

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KCYP2010에서는 심한 놀림이나 조롱, 집단 따돌림,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희롱·성폭력의 5가지로 측정함. 본 연구에서는 이들 개별 측정 항목의 경험자 수가 적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학교폭력으로 묶어 분석하였음.

대학(원)생 집단 분석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대학소재지(서울, 광역시, 도와, 대학 유형(전문대, 4년제 이상), 전공(인문, 경제/경영, 법률/사회과학/교육, 공학/자연, 의/약학/간호, 예체능, 자유전공)이 추가 반영되었다. 취업자 집단 분석의 경우 직장소재지(서울, 광역시, 도), 직종(관리/전문가, 사무/판매직, 서비스직, 기능/장치조작직, 농어업/단순노무/군인)이, 무직자 집단 분석에서는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여부(준비함/안함), 진학이나 취업의 가능성(연속: 1. 매우 낮다, 2. 낮은 편이다, 3. 높은 편이다. 4. 매우 높다),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 안하는 이유(건강이나 집안사정/병역/그 외) 변수가 포함되었다.¹³⁾

다음으로 현재 상태는 'KCYP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각 차수 조사에서의 응답자의 상태이다. 전체 집단 분석에서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일은 하지 않고 있다' 는 집단을 준거로 '학교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있다(주된 신분은 학생)', '일을 하면서 학교에도 다니고 있다(주된 신분은 직장인)', '일을 하고 있고,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다',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있다'의 응답을 가변수로 포함하였다. 대학생 집단 분석에는 '학교에 다니고 일은 하지 않고 있다'와 '학교에 다니면서 일도 하고 있다'를 비교하기 위하여, 학교에만 다니는 경우를 준거로 가변수 형태로 분석에 포함하였고, 취업자 집단 분석에서는 '일을 하면서 학교에도 다니고 있다'와 '일을 하고 있고, 학교는 다니지 않고 있다'를 일만 하는 경우를 준거로 가변수를 생성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생활만족도는 전체 분석 데이터 셋 공통으로 'KCYP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각 차수에서 5점 척도(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5. '매우 만족한다')로 측정된 청소년기 만족도와 가정생활 만족도가 측정된 값 그대로 변수로 구성되었고, 여기에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재산·경제력/화목한 가정/자아성취/건강/감사긍정태도/기타)도 가변수로 반영되었다. 대학생 집단과 취업자 집단 분석에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5점 척도로 측정된 학교생활만족도와 직장생활만족도가 각각 추가 구성되었다.

이상의 분석 변수들은 <표 III-1>에 제시하였으며 기초통계량은 <표 III-2>, <표 III-3>, <표 III-4>와 같다. 제시된 기초통계량 값은 분석 자료가 5개년 결합자료(Pooled data)이기 때문에 단위가 한 명이 아닌 하나의 관측치로 총 5,277개가 분석되었으며, 각 수치에 대한 별도의 해석은 하지 않고 제시된 <표 III-2>, <표 III-3>, <표 III-4>의 내용으로 같음하고자 한다.

13) 아래 바 ' _ ' 로 표기된 사항은 더미변수로 투입된 변수의 준거집단 표기임(이하 동일). 가변수로 분석되는 범주형 측정값의 경우, 모델분석에 앞서 기술통계를 통해 사전에 해당 관측치 수를 파악하고 재범주화 하였음.

표 III-1. 2차 자료 분석 변수

	변수	측정 치수	측정 척도 및 분석 변수 유형
중속 변수	현재삶의만족도	유지조사 매차수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 만족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만족한다 5. 매우 만족한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여자)	유지조사 매차수	더미(기준=남자)
	연령	유지조사 매차수	연속
	거주지역(광역시, 도)	유지조사 2차-5차	더미(기준=서울)
	부모동거(비동거)	유지조사 2차-5차	더미(기준=동거)
	가구소득	중3시점 가구소득 고3시점 가구소득	자연로그(log) 환산
	[대학생] 대학소재지(광역시, 도)	유지조사 매차수	더미(기준=서울)
	[대학생] 대학유형(전문대)	유지조사 매차수	더미(기준=4년제 및 대학원)
	[대학생] 전공계열(인문, 법률/사회과학/교육, 공학/자연, 의/약학/간호, 예체능, 자유전공)	유지조사 매차수	더미(기준=경제/경영)
	[취업자] 직장소재지(광역시, 도)	유지조사 매차수	더미(기준=서울)
	[취업자] 직종(관리/전문가, 사무/판매, 기능/장치조작, 농업/단순노무/군인)	유지조사 매차수	더미(기준=서비스직)
	[무직자] 진학/취업준비여부(준비안함)	유지조사 매차수	더미(기준=준비함)
	[무직자] 진학/취업가능성	유지조사 매차수	1. 매우낮다, 2. 낮은 편이다, 3. 높은 편이다, 4. 매우 높다
	[무직자] 진학/취업준비 안하는 이유(병역, 그 외)	유지조사 매차수	더미(기준=건강, 집안사정)
	현재 상태	현재상태(학생이면서 일함, 취업자이면서 학생, 취업자, 무직)	유지조사 매차수
생활 만족도	청소년기만족도	유지조사 매차수	현재 삶의 만족도 측정과 상동
	가정생활만족도	유지조사 2차-5차	현재 삶의 만족도 측정과 상동
	행복요건(화목한가족, 자아성취, 건강, 감사긍정태도, 기타)	유지조사 매차수	더미(기준=재산, 경제력)
	[대학생] 학교생활만족도	유지조사 매차수	현재 삶의 만족도 측정과 상동
	[취업자] 직장생활만족도	유지조사 매차수	현재 삶의 만족도 측정과 상동
10대 시기 긍정 경험	가족과 1박 이상 여행 횟수	중1-3까지 37년 합산 고1-3까지 37년 합산	연속
	문화활동 연간 누적 횟수	중1-3까지 37년 합산 고1-3까지 37년 합산	연속
	해외방문경험 횟수	중1-3까지 37년 합산 고1-3까지 37년 합산	지난 1년간 해외방문 경험 있는지 여부로 측정
	교육목적의 해외방문 체류일수	중1-3까지 37년 합산 고1-3까지 37년 합산	연간횟수 없어, 연간 방문기간(일)로 환산

	변수	측정 차수	측정 척도 및 분석 변수 유형
	체험활동 횟수	중1~3까지 3개년 합산 고1~3까지 3개년 합산	건강/보건, 과학/정보, 교육, 모험/개척, 문화/예술, 봉사, 직업체험, 환경보존, 자기개발 관련 체험 참여시간 합산
	교내동아리활동 횟수	중1~3까지 3개년 합산 고1~3까지 3개년 합산	연속
	교외동아리활동 횟수	중1~3까지 3개년 합산 고1~3까지 3개년 합산	연속
10대 시기 부정 경험	학교폭력 피해 횟수	중2~3까지 2개년 합산 고1~3까지 3개년 합산	심한 놀림이나 조롱, 집단 따돌림(왕따),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 횟수 합산. KCSYPS2010 1차년도 조사에서는 측정안하여 중학생의 경우 2개년 합산치
	담배피우기 횟수	중2~3까지 2개년 합산 고1~3까지 3개년 합산	1년 또는 하루 횟수 응답을 하루 단위로 환산함. KCSYPS2010 1차년도 조사에서는 측정안하여 중학생의 경우 2개년 합산치
	음주 횟수	중2~3까지 2개년 합산 고1~3까지 3개년 합산	1년 또는 한달 횟수 응답을 한달 단위로 환산함. KCSYPS2010 1차년도 조사에서는 측정안하여 중학생의 경우 2개년 합산치
	돈 걸고 도박 게임 횟수	중3 1개년 수치 고1~3까지 3개년 합산	KCSYPS2010 1차, 2차년도 조사에서는 측정안하여 중학생의 경우 1개년 수치
	학교폭력 피해 지속 년수	중2~3까지 2개년 피해 유경험 년수 고1~3까지 3개년 피해 유경험 년수	심한 놀림이나 조롱, 집단 따돌림(왕따), 언어폭력, 신체폭력, 성폭행이나 성희롱 가운데 하나라도 유경험 응답 년수
	담배피우기 지속 년수	중2~3까지 2개년 유경험 년수 고1~3까지 3개년 유경험 년수	매 조사 시 유경험 응답 년수 합산
	음주 지속 년수	중2~3까지 2개년 유경험 년수 고1~3까지 3개년 유경험 년수	매 조사 시 유경험 응답 년수 합산
	돈 걸고 도박 게임 지속 년수	중3 1개년 유경험 년수 고1~3까지 3개년 유경험 년수	매 조사 시 유경험 응답 년수 합산

*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2017년~2021년 원자료

표 III-2. 2차 자료 분석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1) : 5개년 결합자료 공통 분석 변수

변수		관측치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구성비
중속 변수	현재삶의만족도(전체)	5,277	3.58(0.88)	1	5	100.0
	유지조사 1차 년도	931	3.71(0.80)	1	5	17.64
	유지조사 2차 년도	1,056	3.73(0.87)	1	5	20.01
	유지조사 3차 년도	1,063	3.51(0.89)	1	5	20.14
	유지조사 4차 년도	1,082	3.48(0.90)	1	5	20.50
	유지조사 5차 년도	1,145	3.46(0.88)	1	5	21.70
사회 인구 학적 특성	성별(전체)	5,277	0.53(0.50)	0	1	100.0
	남성	2,483				47.05
	여성	2,794				52.95
	연령(전체)	5,277	21.98(1.44)	19	26	100.0
	19세~20세	1,026				19.44
	21세	1,072				20.31
	22세	1,058				20.05
	23세	1,099				20.83
	24세~26세 ^{주)}	1,022				19.37
	거주지역	4,346	1.40(0.72)	0	2	100.0
	서울	611				
	광역시	1,380				
	도	2,355				
	부모동거	4,346	0.33(0.47)	0	1	100.0
	동거	2,897				66.66
비동거	1,449				33.34	
연평균 가구소득_중3시기	5,277	4809.66(2744.79)	500	40,000	100.0	
연평균 가구소득_고3시기	5,277	4921.91(2523.04)	300	20,000	100.0	
현재 상태	현재 상태	5,277				100.0
	학생	학교만 다님	2,325			44.06
		학교다니면서 일함	703			13.32
	취업자	(직장)일하면서 학업	238			4.51
		(직장)일만 함	1,386			26.26
무직	학교도 일도 안함	625			11.84	
생활 만족도	청소년기 전반에 대한 만족도	5,277	3.64(0.94)	1	5	100.0
	가장생활만족도	4,346	4.02(0.88)	1	5	100.0
	행복요건	5,277				100.0
	재산/경제력	1,321				25.03
	희망한가정	1,261				23.90
	자아성취	493				9.34
	건강	654				12.39
	감사긍정태도	550				10.42
	기타	998				18.91

*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2017년~2021년 원자료

* 주: KCYPS2010 중1 코호트 응답자 중 만25세 8명, 26세 2명이 포함되어 있음.

표 III-3. 2차 자료 분석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2) : 5개년 결합자료 하위집단 추가 변수

집단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구성비
대학생	대학 소재지	3,028	1.30	0.77	0	2	100.00
	서울	585					19.32
	광역시	958					31.64
	도	1,485					49.04
	대학유형	3,028	0.20	0.40	0	1	100.00
	4년제 및 대학원	2,435					80.42
	전문대학	593					19.58
	전공계열	3,028	2.68	1.44	0	6	100.00
	경제/경영	311					10.27
	인문	358					11.82
	법률/사회과학/교육	445					14.70
	공학/자연	1,150					37.98
	의약학/간호	433					14.30
	예체능	299					9.87
	자유전공	32					1.06
학교생활만족도	2,281 ^{주)}	3.45	0.91	1	5	100.0	
취업자	직장 소재지	1,624	1.25	0.82	0	2	100.00
	서울	395					24.32
	광역시	431					26.54
	도	798					49.14
	직종	1,624	1.40	1.32	0	4	100.00
	관리/전문가	464					28.57
	사무/판매	309					19.03
	서비스직	513					31.59
	기능/장치조작	159					9.7
	농림어업/단순노무/군인	179					11.02
	직장생활만족도	1,440 ^{주)}	3.40	0.92	1	5	100.00
무직자	진학/취업 준비여부	625	0.16	0.36	0	1	100.0
	준비함	527					84.32
	진학/취업가능성	527	2.88	0.83	1	4	100.00
	준비안함	98					15.68
	진학/취업준비 안하는 이유	98	1.58	0.66	0	2	100.00
	건강/집안사정	9					9.18
	병역	23					23.47
	그 외	66					67.35

*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2017년~2021년 원자료

* 주: 'KCYP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2차 년도부터 측정

표 III-4. 2차 자료 분석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3) : 중1~고3시기 경험 측정 변수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0대 시기 긍정 경험	중학교 가족여행 횟수	5,277	6.65	6.71	0	55
	고등학교 가족여행 횟수	5,277	3.83	5.10	0	110
	중학교 문화활동 횟수	5,277	11.96	11.05	0	90
	고등학교 문화활동 횟수	5,277	14.26	13.01	0	123
	중학교 해외방문 횟수	5,277	0.40	0.71	0	3
	고등학교 해외방문 횟수	5,277	0.25	0.56	0	3
	중학교 교육목적해외방문 체류일수	5,277	5.15	27.56	0	420
	고등학교 교육목적해외방문 체류일수	5,277	1.02	9.37	0	270
	중학교 체험활동 횟수	5,277	45.93	38.31	0	236
	고등학교 체험활동 횟수	5,277	43.67	56.95	0	867
	중학교 교내동아리활동 횟수	5,277	21.21	29.83	0	223
	고등학교 교내동아리활동 횟수	5,277	54.04	55.26	0	420
	중학교 교외동아리활동 횟수	5,277	3.75	14.45	0	204
	고등학교 교외동아리활동 횟수	5,277	4.54	20.00	0	300
10대시 기 부정 경험	중학교 학교폭력 피해 횟수	5,277	2.23	15.23	0	317
	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횟수	5,277	1.49	15.26	0	300
	중학교 담배피우기 횟수	5,277	0.17	1.18	0	15
	고등학교 담배피우기 횟수	5,277	0.97	3.96	0	50
	중학교 음주 횟수	5,277	0.08	0.58	0	10
	고등학교 음주횟수	5,277	0.74	2.38	0	28
	중학교 돈걸고 도박 게임 횟수	5,277	0.12	1.28	0	30
	고등학교 돈걸고 도박 게임 횟수	5,277	0.50	4.53	0	100
	중학교 학교폭력 피해 지속 년수	5,277	0.15	0.40	0	2
	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 지속 년수	5,277	0.07	0.31	0	3
	중학교 담배피우기 지속 년수	5,277	0.10	0.35	0	2
	고등학교 담배피우기 지속 년수	5,277	0.24	0.67	0	3
	중학교 음주 지속 년수	5,277	0.10	0.34	0	2
	고등학교 음주 지속 년수	5,277	0.56	0.87	0	3
중학교 돈걸고 도박 게임 지속 년수	5,277	0.03	0.16	0	1	
고등학교 돈걸고 도박 게임 지속 년수	5,277	0.06	0.31	0	3	

* 자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2017년~2021년 원자료

3. 분석 결과

1) 5개년 결합 자료(Pooled Data) 분석

본 연구에서는 앞서 설명된 분석 데이터 셋과 순서로짓 모델 분석을 통하여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이면서 청년인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경험 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은 5개년 결합 자료(pooled data)를 전체 집단부터 대학(원)생, 취업자, 무직자 집단의 순서로 이루어졌으며, 결합 자료 분석 후 각 년도 자료를 별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먼저 결합 자료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표 III-5>에 제시된 전체 집단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후기청소년이자 20대 초반 청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비롯한 현재 특성과 10대시기 경험 특성으로 구분된다.

현재 특성변수로는 성별과 연령, 현재 상태로서 취업자가 부(-)의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행복요건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고, 연령수준이 높을수록 만족도 수준은 낮으며, 대학(원)생에 비해 취업자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다. 반면 청소년기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이 가장 중요한 행복요건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 비해 다른 요건을 꼽은 이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으며, 중3시점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현재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다.

10대시기 경험 특성의 경우, 고등학교시기 경험과 중학교 경험의 영향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긍정경험과 부정경험의 영향도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그 영향력에 있어서는 고등학교시기 가족여행 횟수가 가장 큰 영향력(Odds Ratio=1.02)을 갖는다. 한 가지 긍정경험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기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견되었는데, 중학교 시기 문화 활동 횟수와 고등학교시기 체험활동 횟수가 이에 해당한다. 이는 횟수보다는 활동의 질적인 측면이 보다 중요하며 분석 자료인 KCYPS2010 중1 코호트 응답자의 중학교 시기 문화 활동이나 고등학교시기 체험활동의 내용 및 활동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낮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부정경험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이 모두 후기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데, 이해 해당하는 변수는 중학교시기 학교폭력 피해 횟수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시기 담배피운 경험 횟수이다. 이들 변수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는 중학교시기 담배피운 경험 횟수(Odds Ratio=1.01)로 긍정경험 인 고등학교시기 가족여행 횟수와 유사한 영향력을 갖는다.

같은 방식으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3개 집단(대학(원)생, 취업자, 미취업자)으로 구분 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은 대학생과 무직자 집단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청소년기 전반의 만족도와 행복요건의 정(+)의 영향은 모든 집단에 공통 영향요인 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추가되는 영향 요인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대학생 집단의 경우 고등학교시기 가족여행 횟수가 정(+)의 영향을, 체험활동과 담배피운 경험 횟수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모두 고등학교시기 특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집단의 경우 직장특성으로서 소재지가 '도' 지역에 있는 경우 서울지역에 있는 이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고, 서비스 직군에 비해 농어업이나 단순노무 직군에 있는 이들이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고등학교시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여행 횟수가 많을 수록 현재의 삶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무직자 집단의 경우 성별과 연령, 그리고 중학교시기 도박게임 경험 횟수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진학이나 취업가능성과 청소년기 만족도, 행복요인과 중학교시기 가구소득이 정(+)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후기청소년이자 20대 초반 청년의 현재 삶의 만족도는 당사자들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고 있으며, 청소년기에 대한 삶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행복의 요건이 재산이나 경제력이 우선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이들이 삶에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10대시기의 경험은 긍정경험과 부정경험의 영향이 동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긍정경험 중 고등학교 가족과의 여행 횟수는 전체집단과 대학생 및 취업자 집단에서 현재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공통 요인이 되고, 고등학교시기 체험활동은 전체 및 대학생 집단에서 현재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결과는 다음의 제4장에서 실시될 설문조사 내용을 구성하고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초정보로 활용 될 수 있다.

이어 다음에서는 패널유지조사 5개년 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고교 졸업 후 5개년 경과기간에 따라 후기청소년이자 20대 초반 청년의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고, 경과 차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표 III -5. 후기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경험

변수	전체			대학(원)생			취업자			무직자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성별(여자)	-0.30(0.06)***	0.73		-0.45(0.08)***	0.63		-0.18(0.12)	0.82		-0.45(0.19)*	0.63	
연령	-0.11(0.02)***	0.89		-0.14(0.02)***	0.86		-0.12(0.03)	0.88		-0.21(0.07)**	0.80	
거주지역(광역시)	0.00(0.00)	0.00		-	-		-	-		-	-	
거주지역(도)	0.00(0.00)	0.00		-	-		-	-		-	-	
부모동거(비동거)	-0.06(0.09)	0.93		-	-		-	-		-	-	
현재상태(학생이면서 일)	0.06(0.13)	1.06		0.01(0.08)	1.01		-	-		-	-	
현재상태(취업이면서 공부)	0.09(0.07)	1.09		-	-		-0.06(0.14)	0.93		-	-	
현재상태(취업자)	-0.33(0.09)***	0.71		-	-		-	-		-	-	
현재상태(무직)	0.00(0.00)	0.00		-	-		-	-		-	-	
대학소재지(광역시)	-	-		0.03(0.10)	1.03		-	-		-	-	
대학소재지(도)	-	-		0.01(0.09)	1.01		-	-		-	-	
대학유형(전문대)	-	-		-0.13(0.09)	0.87		-	-		-	-	
전공(인문)	-	-		0.18(0.15)	1.20		-	-		-	-	
전공(법률,사회과학,교육)	-	-		0.1(0.14)	1.10		-	-		-	-	
전공(공학,자연)	-	-		0.04(0.12)	1.04		-	-		-	-	
전공(약학간호)	-	-		0.25(0.14)	1.29		-	-		-	-	

사회인구
학적 특성
및
현재
특성 변수

변수	전체		대학(원)생		취업자		무직자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전공(예체능)	-	-	0.07(0.15)	1.07	-	-	-	-
전공(자유전공)	-	-	-0.33(0.37)	0.71	-	-	-	-
직장소재지(광역시)	-	-	-	-	0.26(0.14)	1.30	-	-
직장소재지(도)	-	-	-	-	0.32(0.12)*	1.38	-	-
직종(관리, 전문가)	-	-	-	-	0.24(0.13)	1.27	-	-
직종(사무, 판매)	-	-	-	-	0.08(0.14)	1.09	-	-
직종(기능, 장치조작)	-	-	-	-	-0.14(0.19)	0.86	-	-
직종(농어업, 단순노무, 군인)	-	-	-	-	-0.40(0.18)*	0.66	-	-
총상장지위(임시일용)	-	-	-	-	-0.09(0.12)	0.90	-	-
총상장지위(자영자)	-	-	-	-	0.39(0.23)	1.47	-	-
총상장지위(무급가족)	-	-	-	-	0.26(0.42)	1.30	-	-
진학/취업준비(여부(준비인함))	-	-	-	-	-	-	0.62(0.84)	1.87
진학/취업가능성	-	-	-	-	-	-	0.40(0.11)***	1.49
진학/취업준비인하는이유(병역)	-	-	-	-	-	-	0.97(0.89)	2.65
진학/취업준비인하는이유(경제)	-	-	-	-	-	-	0.02(0.80)	1.02
청소년기만족도	1.05(0.03)***	2.87	1.06(0.04)***	2.89	1.01(0.06)***	2.76	1.03(0.10)***	2.80
가장행렬만족도	-	-	-	-	-	-	-	-

변수	전체		대학(원)생		취업자		무직자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행복요건(회복한가정)	0.87(0.07)***	2.39	0.68(0.10)***	1.99	0.96(0.13)***	2.62	1.28(0.23)***	3.60
행복요건(자아성취)	0.24(0.10)*	1.28	0.13(0.13)	1.14	0.48(0.20)*	1.62	0.00(0.32)	0.99
행복요건(건강)	0.55(0.09)***	1.74	0.51(0.12)***	1.67	0.70(0.16)***	2.01	0.29(0.26)	1.34
행복요건(감시·규정태도)	0.91(0.09)***	2.49	0.72(0.13)***	2.06	1.23(0.19)***	3.43	1.07(0.28)***	2.92
행복요건(기타)	0.49(0.08)***	1.63	0.36(0.11)**	1.44	0.56(0.14)***	1.76	0.87(0.25)**	2.40
학교생활만족도	-	-	0.00(0.00)	0.00	-	-	-	-
직장생활만족도	-	-	-	-	-	-	-	-
로그스독_중3시점	0.25(0.10)*	1.28	-0.08(0.13)	0.92	-0.27(0.17)	0.75	0.69(0.33)*	2.00
로그스독_고3시점	0.01(0.06)	1.01	0.23(0.14)	1.26	0.41(0.17)*	1.52	-0.24(0.33)	0.78
중학교 기죽여행 횡수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1.00	0.01(0.01)	1.01
고등학교 기죽여행 횡수	0.02(0.00)***	1.02	0.02(0.00)**	1.02	0.04(0.01)***	1.04	0.01(0.02)	1.01
중학교 문화활동 횡수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0.99	-0.01(0.00)	0.98
고등학교 문화활동 횡수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0.99
중학교 해외방문 횡수	0.02(0.04)	1.02	0.05(0.05)	1.05	-0.09(0.09)	0.91	0.08(0.12)	1.08
고등학교 해외방문 횡수	0.07(0.05)	1.07	0.05(0.06)	1.05	0.15(0.10)	1.16	-0.2(0.18)	0.81
중학교 교육목적(해방문) 체류일수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1.00
고등학교 교육목적(해방문) 체류일수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1.00

10대
시기
규정
강함

변수	전체			대학(원)생			취업자			무직자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10대 시기 부정 경험	중학교 체험활동 횟수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0.99		0.00(0.00)	1.00	
	고등학교 체험활동 횟수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0.99	
	중학교 교내동아리활동 횟수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1.00	
	고등학교 교내동아리활동 횟수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1.00	
	중학교 교외동아리활동 횟수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0.99	
	고등학교 교외동아리활동 횟수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0.99		0.00(0.00)	1.00	
	중학교 학교폭력 지속년수	0.08(0.08)	1.09	0.10(0.11)	1.10		-0.01(0.13)	0.98		0.09(0.26)	1.09	
	고등학교 학교폭력 지속년수	0.01(0.09)	1.01	0.16(0.13)	1.17		-0.19(0.17)	0.82		0.41(0.30)	1.51	
	중학교 담배피우기 지속년수	0.06(0.11)	1.06	-0.15(0.16)	0.85		0.33(0.18)	1.40		-0.22(0.32)	0.80	
	고등학교 담배피우기 지속년수	0.00(0.07)	0.99	-0.02(0.10)	0.97		0.07(0.11)	1.07		0.09(0.22)	1.10	
	중학교 음주 지속년수	0.05(0.10)	1.05	0.16(0.14)	1.17		-0.15(0.18)	0.85		0.16(0.29)	1.17	
	고등학교 음주 지속년수	0.00(0.04)	0.99	0.00(0.05)	1.00		-0.04(0.07)	0.95		-0.06(0.12)	0.93	
	중학교 돈걸고 도박 게임 지속년수	0.24(0.21)	1.27	0.11(0.26)	1.11		0.44(0.45)	1.56		1.11(0.72)	3.04	
	고등학교 돈걸고 도박 게임 지속년수	0.05(0.10)	1.05	-0.17(0.15)	0.83		0.34(0.17)	1.40		0.04(0.35)	1.04	
	중학교 학교폭력횟수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0.99	
	고등학교 학교폭력횟수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1.00		0.00(0.00)	0.99	
중학교 담배피우기 횟수	-0.01(0.02)*	1.01	0.06(0.05)	1.07		-0.01(0.04)	0.98		0.00(0.10)	1.00		
고등학교 담배피우기 횟수	-0.02(0.01)*	0.97	-0.04(0.02)*	0.96		-0.02(0.01)	0.97		-0.03(0.04)	0.96		

변수	전체		대학(원)생		취업자		무직자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중학교 음주 횟수	-0.11(0.05)	0.89	-0.15(0.09)	0.85	-0.14(0.07)	0.86	0.17(0.12)	1.18
고등학교 음주 횟수	0.01(0.01)	1.01	0.03(0.02)	1.03	0.01(0.02)	1.01	-0.03(0.04)	0.96
중학교 돈걸고 도박 게임 횟수	0.01(0.02)	1.01	0.04(0.03)	1.05	0.01(0.04)	1.01	-0.13(0.05)*	0.87
고등학교 돈걸고 도박 게임 횟수	0.00(0.00)	0.99	0.00(0.01)	1.00	-0.01(0.01)	0.98	0.00(0.01)	0.99
Constant cut1	-1.52(0.63)	-1.52	-2.78(0.92)	-2.78	-1.67(1.16)	-1.67	-0.85(2.04)	-0.85
Constant cut2	0.79(0.62)	0.79	-0.24(0.90)	-0.24	0.41(1.15)	0.41	1.80(2.04)	1.80
Constant cut3	3.10(0.62)	3.10	2.15(0.90)	2.15	2.65(1.15)	2.65	4.26(2.04)	4.26
Constant cut4	5.78(0.62)	5.78	4.85(0.91)	4.85	5.38(1.16)	5.38	6.99(2.05)	6.99
N	5,277		3,028		1,624		625	
Log Likelihood	-5,854.22		-3,280.98		-1,815.52		-684.30	
Log Likelihood χ^2	1,707.78***		851.32**		607.95***		285.99***	
Pseudo R ²	0.13		0.11		0.14		0.17	

***p<.001, **p<.01, *p<.05

2) 5개년 경과기간별 자료 분석

(1) 전체 집단

결합자료(pooled data) 분석에 이어, 여기에서는 ‘KCYP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2017년~2021년)의 자료를 각 년도 별로 쪼개어 시간 경과에 따라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이자 청년인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10대시기 경험의 영향이 경과기간에 따라 특정한 경향으로 나타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집단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 집단부터 유지조사 1차 년도(2017년)부터 5차 년도(2021년) 각 조사시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순위로짓 모델로 실증 분석하고, 차수 간 분석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일관성 있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청소년기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현재 가정생활만족도 및 행복요인이 있을 뿐, 10대시기 경험 특성 중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10대시기 부정경험의 영향은 차수와 상관없이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3차 년도 자료에서 나타난 중학교시기 음주 경험 횟수의 부(-)의 영향이 유일하다.

다만, 전체적으로 10대시기 경험 특성 중 ‘패널유지조사’ 1차 년도와 2차 년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분석 자료에서 측정된 10대시기 경험 특성의 경우, 고교 졸업 직후 이른 시점에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영향력이 약해지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료가 갖는 한계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는데, 가령 10대시기 부정경험의 경우 해당자의 수가 적어 다수의 변수가 투입되는 모델에서 제대로 그 영향력이 분석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차수별로 드물게 보이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면, 앞서 분석된 결합자료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던 고등학교시기 해외방문 횟수(+)와 교육목적의 해외방문 체류일수(-), 교내동아리 활동 횟수(+), 중학교시기 교외동아리 활동 횟수(-)가 영향요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 장에서 실시될 설문조사 내용 설계 시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6. 경과기간(2017년~2021년) 각 차수별 자료 분석 : 전체 집단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성별(여자)	-0.39(0.15)**	0.67	-0.53(0.14)***	0.58	-0.09(0.13)	0.91	-0.06(0.14)	0.93	-0.07(0.14)	0.92
연령	-0.32(0.18)	0.72	-0.04(0.18)	0.96	0.06(0.18)	1.06	-0.06(0.18)	0.93	0.07(0.17)	1.07
거주지역(광역시)			0.20(0.22)	1.23	0.07(0.19)	1.07	0.39(0.20)*	1.49	0.13(0.18)	1.14
거주지역(도)			0.19(0.21)	1.21	0.02(0.18)	1.02	0.22(0.18)	1.24	0.11(0.17)	1.12
부모동거(비동거)			0.00(0.13)	1.00	0.17(0.13)	1.19	0.27(0.13)*	1.31	0.08(0.12)	1.09
현재상태(학생이면서 일)	0.11(0.29)	1.12	-0.03(0.16)	0.96	0.10(0.18)	1.11	0.29(0.19)	1.33	-0.30(0.22)	0.73
현재상태(취업이면서 공부)	0.11(0.22)	1.12	0.44(0.59)	1.56	0.11(0.38)	1.11	-0.23(0.34)	0.78	0.11(0.31)	1.11
현재상태(취업자)	0.01(0.23)	1.01	0.30(0.17)	1.36	-0.20(0.16)	0.81	-0.03(0.15)	0.96	0.37(0.16)*	1.45
현재상태(무직)			0.02(0.24)	1.02	-0.33(0.19)	0.71	-0.15(0.18)	0.85	-0.35(0.19)	0.70
청소년기만족도	1.35(0.09)***	3.87	0.56(0.08)***	1.76	0.87(0.08)***	2.40	0.71(0.07)***	2.04	0.59(0.07)***	1.81
기정생활만족도			1.29(0.09)***	3.64	1.29(0.09)***	3.65	1.27(0.09)***	3.58	1.12(0.08)***	3.07
행복요건(회복한가정)	0.67(0.23)**	1.95	0.37(0.19)	1.46	0.27(0.17)	1.31	0.98(0.17)***	2.67	0.79(0.16)***	2.21
행복요건(자아성취)	0.13(0.24)	1.14	0.16(0.22)	1.17	-0.23(0.26)	0.78	0.08(0.27)	1.09	-0.13(0.24)	0.87
행복요건(건강)	0.54(0.25)*	1.72	0.26(0.22)	1.30	0.45(0.21)*	1.57	0.31(0.20)	1.37	0.34(0.20)	1.41
행복요건(감사응답정도)	0.67(0.25)**	1.96	0.45(0.24)	1.56	0.86(0.22)***	2.37	1.09(0.23)***	2.97	0.74(0.22)**	2.11
행복요건(기타)	0.11(0.21)	1.12	0.13(0.20)	1.14	0.50(0.20)*	1.66	0.60(0.19)**	1.83	0.46(0.18)*	1.59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로그소득_중3시점	-0.11(0.24)	0.89	0.11(0.22)	1.12	-0.13(0.22)	0.87	-0.17(0.24)	0.83	-0.44(0.22)*	0.64
로그소득_고3시점	0.10(0.25)	1.11	0.19(0.23)	1.22	-0.03(0.23)	0.96	0.24(0.24)	1.27	0.57(0.22)*	1.77
중학교 가족여행 횟수	0.00(0.01)	1.00	0.00(0.01)	1.00	0.00(0.01)	0.99	0.01(0.01)	1.01	0.00(0.01)	0.99
고등학교 가족여행 횟수	0.01(0.01)	1.01	0.02(0.01)	1.02	0.02(0.01)	1.02	0.02(0.01)	1.02	0.03(0.01)**	1.03
중학교 문화활동 횟수	-0.01(0.00)	0.98	0.00(0.00)	0.99	0.00(0.00)	0.99	-0.01(0.00)*	0.98	0.00(0.00)	1.00
고등학교 문화활동 횟수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0.99	0.00(0.00)	1.00	0.00(0.00)	1.00
중학교 해외방문 횟수	0.15(0.10)	1.17	-0.01(0.09)	0.98	-0.04(0.10)	0.95	-0.04(0.10)	0.95	-0.09(0.09)	0.91
고등학교 해외방문 횟수	0.01(0.13)	1.01	-0.18(0.11)	0.82	0.09(0.12)	1.09	0.09(0.11)	1.10	0.26(0.11)*	1.30
중학교 교육목적해외방문 체류일수	0.00(0.00)	0.99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1.00
고등학교 교육목적해외방문 체류일수	0.00(0.00)	0.99	0.01(0.01)	1.01	0.00(0.00)	0.99	-0.01(0.00)*	0.98	0.00(0.00)	0.99
중학교 체험활동 횟수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0.99	0.00(0.00)	0.99
고등학교 체험활동 횟수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0.99
중학교 교내동아리활동 횟수	0.00(0.00)	1.00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1.00
고등학교 교내동아리활동 횟수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0.99	0.00(0.00)	1.00
중학교 교외동아리활동 횟수	0.00(0.00)	0.99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0.99	0.00(0.00)*	1.00
고등학교 교외동아리활동 횟수	0.00(0.00)	0.99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1.00

10대
시기
근정
경험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10대 시기 부정 경험	중학교 학교폭력 지속년수	0.34(0.19)	1.40	-0.32(0.18)	0.72	0.26(0.20)	1.29	0.08(0.18)	1.08	0.18(0.18)	1.19
	고등학교 학교폭력 지속년수	-0.13(0.25)	0.87	-0.30(0.24)	0.73	0.27(0.22)	1.31	-0.07(0.20)	0.93	0.29(0.20)	1.34
	중학교 담배피우기 지속년수	-0.17(0.28)	0.83	-0.12(0.25)	0.88	0.08(0.27)	1.08	-0.02(0.26)	0.97	0.10(0.23)	1.10
	고등학교 담배피우기 지속년수	0.00(0.16)	0.99	-0.02(0.16)	0.97	-0.17(0.17)	0.83	0.04(0.17)	1.04	-0.06(0.15)	0.93
	중학교 음주 지속년수	0.40(0.25)	1.50	0.34(0.22)	1.41	0.20(0.24)	1.22	0.00(0.23)	1.00	-0.19(0.22)	0.81
	고등학교 음주지속년수	-0.11(0.10)	0.88	0.02(0.09)	1.02	0.04(0.09)	1.04	0.02(0.09)	1.02	-0.03(0.08)	0.96
	중학교 돈걸고 도박 게임 지속년수	0.86(0.64)	2.37	0.03(0.54)	1.03	-0.28(0.47)	0.75	-0.34(0.48)	0.70	-0.12(0.43)	0.87
	고등학교 돈걸고 도박 게임 지속년수	0.00(0.29)	1.00	-0.17(0.26)	0.84	0.33(0.25)	1.39	-0.25(0.23)	0.77	0.10(0.24)	1.11
	중학교 학교폭력횟수	0.00(0.00)	0.99	0.00(0.00)	1.00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0.99
	고등학교 학교폭력횟수	0.00(0.00)	1.00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1.00
	중학교 담배피우기 횟수	0.02(0.06)	1.02	0.01(0.05)	1.02	0.10(0.08)	1.11	-0.06(0.08)	0.93	-0.07(0.06)	0.92
	고등학교 담배피우기 횟수	-0.01(0.02)	0.98	-0.03(0.02)	0.97	0.00(0.02)	0.99	0.00(0.03)	1.00	0.00(0.02)	0.99
	중학교 음주 횟수	-0.16(0.11)	0.84	0.00(0.13)	0.99	-0.30(0.12)*	0.73	0.09(0.13)	1.10	0.00(0.11)	0.99
	고등학교 음주 횟수	0.03(0.03)	1.03	0.00(0.03)	0.99	0.00(0.03)	1.00	0.00(0.03)	1.00	0.02(0.03)	1.02
	중학교 돈걸고 도박 게임 횟수	0.01(0.11)	1.01	0.06(0.05)	1.07	-0.04(0.05)	0.95	0.06(0.06)	1.06	0.08(0.05)	1.09
고등학교 돈걸고 도박 게임 횟수	-0.02(0.01)	0.97	0.01(0.01)	1.01	-0.02(0.01)	0.97	0.00(0.01)	1.00	-0.01(0.02)	0.98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Constant cut1	-6.61(3.91)	-6.61	3.74(4.12)	3.74	2.89(4.24)	2.89	1.63(4.45)	1.63	5.01(4.39)	5.01
Constant cut2	-4.47(3.90)	-4.47	6.26(4.11)	6.26	5.40(4.24)	5.40	4.82(4.45)	4.82	7.51(4.39)	7.51
Constant cut3	-1.81(3.89)	-1.81	9.11(4.11)	9.11	8.35(4.24)	8.35	7.29(4.45)	7.29	10.00(4.39)	10.00
Constant cut4	1.11(3.89)	1.11	11.78(4.12)	11.78	11.44(4.25)	11.44	10.48(4.46)	10.48	13.26(4.40)	13.26
N	931		1,056		1,063		1,082		1,145	
Log Likelihood	-953.29		-1,072.89		-1,040.98		-1,087.04		-1,171.33	
Log Likelihood χ^2	279.88***		507.27***		654.39***		632.45***		557.39***	
Pseudo R ²	0.12		0.19		0.23		0.22		0.19	

***p<.001, **p<.01, *p<.05

(2) 하위집단별 분석 : 대학(원)생 집단 → 취업자 집단 → 무직자 집단

전체 집단의 각 차수별 실증분석의 비교에 이어, 여기에서는 각 년도 조사시점 당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대학(원)생에 해당되는 이들만을 별도로 묶어 각 년도 별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경험 특성을 동일한 실증분석 모델(순위로짓)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기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현재 가정생활만족도 및 학교생활만족도가 차수에 상관없이 모든 차수가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갖는다는 것을 제외하고,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10대시기 경험 특성의 영향은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들 세 변수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은 학교생활만족도이다.

조사 차수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변수를 비교해보면, 성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그리고 대학의 소재지나 전공의 현재 특성은 2차 년도, 즉 고교졸업 후 대학입학 저학년시기에는 후기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만, 3차 년도 이후에는 그 영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사라진다. 한편, 전체 집단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10대시기 부정경험 영향이 차수에 따라 하나씩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기는 하나,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변수들이 제각각이며 일관된 경향성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취업자 집단의 분석 결과에서도 대학(원)생 집단 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청소년기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현재 가정생활만족도 및 직장생활만족도가 차수에 상관없이 모든 차수가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갖는다. 차수별 10대시기 경험 요인을 비교해보면, 일정한 경향성은 없지만, 대체로 중학교시기 경험 특성보다는 고등학교시기 경험 특성의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무직자 집단의 경우, 해당 표본이 없는 1차 년도를 제외하고 2차 년도부터 5차 년도까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앞선 분석들과 같이 무직자 집단 분석에서도 청소년기 전반에 대한 만족도나 가정생활만족도, 행복요건이 조사 차수에 상관없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가지, 앞선 대학(원)생이나 취업자 집단의 분석 결과와는 달리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10대시기 경험 특성 변수가 2차 년도에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는 고교졸업 직후 무직 상태에 있는 다양한 비진학 후기청소년들의 경우, 10대시기의 경험 영향이 가장 강한 집단이며, 특히 10대시기 부정경험의 영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임을 시사한다.

표 III -7. 경과기간(2017년~2021년) 각 차수별 자료 분석 : 대학원(생) 집단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성별(여자)	-0.53(0.18)**	0.58	-0.73(0.19)***	0.47	0.03(0.21)	1.03	0.06(0.22)	1.06	-0.12(0.29)	0.88
연령	-0.28(0.22)	0.74	-0.18(0.23)	0.83	-0.38(0.26)	0.68	0.31(0.33)	1.37	-0.16(0.37)	0.84
거주지역(광역시)	-	-	0.30(0.31)	1.35	0.25(0.33)	1.29	-0.08(0.38)	0.92	0.06(0.44)	1.07
거주지역(도)	-	-	0.08(0.29)	1.09	-0.03(0.30)	0.96	-0.29(0.33)	0.74	0.01(0.39)	1.01
부모동거(비동거)	-	-	-0.19(0.16)	0.81	0.16(0.19)	1.18	0.03(0.21)	1.03	0.04(0.24)	1.04
대학소재지(광역시)	0.20(0.22)	1.22	0.17(0.27)	1.18	0.14(0.31)	1.15	-0.26(0.35)	0.76	-0.69(0.41)	0.49
대학소재지(도)	-0.07(0.21)	0.92	0.51(0.26)*	1.68	0.24(0.28)	1.27	0.07(0.31)	1.07	-0.29(0.37)	0.74
대학유형(전문대)	-0.44(0.17)*	0.63	0.13(0.19)	1.13	0.50(0.28)	1.65	0.47(0.30)	1.61	0.28(0.36)	1.32
전공(인문)	0.48(0.31)	1.62	-0.14(0.32)	0.86	0.36(0.38)	1.44	0.33(0.39)	1.40	0.18(0.53)	1.20
전공(법률, 사회과학, 교육)	0.51(0.29)	1.67	-0.38(0.30)	0.67	-0.06(0.35)	0.94	-0.44(0.39)	0.64	-0.27(0.48)	0.75
전공(공학, 자연)	0.43(0.27)	1.53	-0.66(0.28)*	0.51	0.09(0.31)	1.10	0.11(0.32)	1.12	0.04(0.39)	1.04
전공(약학/간호)	0.48(0.30)*	1.62	-0.41(0.31)	0.66	0.35(0.36)	1.42	0.52(0.40)	1.68	0.28(0.49)	1.32
전공(예체능)	0.83(0.31)**	2.30	-0.52(0.34)	0.59	-0.10(0.41)	0.90	-0.74(0.43)	0.47	0.27(0.56)	1.31
전공(자유전공)	0.57(1.13)	1.77	-0.68(1.01)	0.50	-0.25(0.73)	0.77	-1.50(1.10)	0.22	-0.07(0.91)	0.92
현재상태(학생이면서 일)	0.12(0.29)	1.13	-0.05(0.17)	0.94	0.07(0.20)	1.07	0.41(0.21)	1.51	-0.35(0.25)	0.70
청소년기(민족도)	1.31(0.11)**	3.73	0.40(0.10)***	1.50	0.80(0.11)***	2.22	0.44(0.12)***	1.56	0.42(0.15)**	1.53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기정생활만족도	-	-	1.26(0.12)***	3.53	1.20(0.13)***	3.32	1.19(0.15)***	3.31	1.11(0.18)***	3.05
행복요건(회복한가정)	0.78(0.26)**	2.19	0.10(0.25)	1.11	0.05(0.24)	1.05	0.65(0.29)*	1.93	0.60(0.32)	1.82
행복요건(자아성취)	0.15(0.28)	1.17	-0.15(0.28)	0.85	-0.16(0.36)	0.84	0.18(0.40)	1.19	-0.73(0.44)	0.47
행복요건(건강)	0.51(0.30)	1.67	0.42(0.30)	1.53	0.33(0.30)	1.39	0.51(0.33)	1.66	0.50(0.39)	1.65
행복요건(감사경영태도)	0.52(0.28)	1.68	0.17(0.30)	1.19	0.29(0.29)	1.34	1.61(0.39)***	5.04	0.72(0.43)	2.05
행복요건(기타)	0.23(0.24)	1.27	-0.10(0.26)	0.90	0.23(0.30)	1.26	0.36(0.31)	1.43	0.05(0.35)	1.05
학교생활만족도	-	-	1.08(0.09)***	2.95	1.33(0.12)***	3.79	1.45(0.13)***	4.27	1.47(0.16)***	4.36
로그소득_중3시점	-0.06(0.27)	0.93	-0.07(0.28)	0.92	-0.22(0.33)	0.79	-0.51(0.41)	0.59	-0.56(0.4)	0.56
로그소득_고3시점	-0.09(0.29)	0.90	0.52(0.29)	1.68	0.18(0.34)	1.20	0.12(0.42)	1.12	0.65(0.43)	1.91
중학교 가족여행 횟수	0.01(0.01)	1.01	0.00(0.01)	1.00	0.00(0.01)	0.99	0.03(0.01)	1.03	0.02(0.01)	1.02
고등학교 가족여행 횟수	0.01(0.01)	1.01	0.02(0.01)	1.02	0.03(0.02)	1.03	0.00(0.02)	0.99	0.01(0.01)	1.01
중학교 문화활동 횟수	-0.01(0.00)	0.98	0.00(0.00)	0.99	0.00(0.00)	1.00	0.00(0.01)	0.99	0.00(0.01)	1.00
고등학교 문화활동 횟수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0.99	0.00(0.00)	0.99	0.00(0.01)	1.00
중학교 해외방문 횟수	0.06(0.11)	1.07	0.05(0.11)	1.05	-0.13(0.13)	0.87	0.08(0.14)	1.09	0.01(0.16)	1.01
고등학교 해외방문 횟수	0.10(0.15)	1.11	-0.20(0.14)	0.81	-0.01(0.17)	0.98	0.29(0.18)	1.34	0.29(0.19)	1.34
중학교 교육목적해외방문 체류일수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1.00
고등학교 교육목적해외방문 체류일수	0.00(0.01)	0.99	0.01(0.01)	1.01	0.00(0.01)	0.99	-0.02(0.02)	0.97	0.00(0.00)	0.99

10대
시기
긍정
경험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10대 시기 부정 경험	중학교 체험활동 횟수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0.99	0.00(0.00)	0.99
	고등학교 체험활동 횟수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1.00
	중학교 교내동아리활동 횟수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1.00
	고등학교 교내동아리활동 횟수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0.99	0.00(0.00)	1.00	0.00(0.00)	1.00
	중학교 교외동아리활동 횟수	0.00(0.00)	0.99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0.99	0.00(0.00)	1.00
	고등학교 교외동아리활동 횟수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0.99	0.00(0.00)	1.00
	중학교 학교폭력 지속년수	0.26(0.22)	1.30	-0.29(0.25)	0.74	-0.10(0.32)	0.89	-0.08(0.35)	0.91	-0.15(0.41)	0.85
	고등학교 학교폭력 지속년수	0.01(0.31)	1.01	-0.18(0.30)	0.83	0.55(0.31)	1.74	-0.23(0.34)	0.78	1.03(0.51)*	2.82
	중학교 담배피우기 지속년수	-0.13(0.37)	0.87	0.22(0.40)	1.25	-0.06(0.46)	0.93	-0.15(0.45)	0.85	-0.36(0.48)	0.69
	고등학교 담배피우기 지속년수	-0.02(0.21)	0.97	-0.06(0.24)	0.93	-0.19(0.27)	0.82	-0.57(0.31)	0.56	-0.02(0.27)	0.97
	중학교 음주 지속년수	0.31(0.30)	1.37	0.49(0.28)	1.63	-0.21(0.40)	0.80	0.14(0.42)	1.16	-0.82(0.59)	0.43
	고등학교 음주 지속년수	-0.11(0.12)	0.88	-0.04(0.11)	0.95	0.07(0.13)	1.07	0.18(0.14)	1.20	-0.03(0.16)	0.96
	중학교 돈걸고 도박 게임 지속년수	0.78(0.69)	2.19	0.30(0.71)	1.36	-0.52(0.81)	0.59	-1.38(0.76)	0.24	-0.45(0.66)	0.63
	고등학교 돈걸고 도박 게임 지속년수	-0.01(0.36)	0.98	-0.24(0.39)	0.78	0.50(0.47)	1.65	-0.17(0.40)	0.84	-0.12(0.66)	0.87
	중학교 학교폭력 횟수	0.00(0.00)	1.00	-0.03(0.01)*	0.96	0.00(0.01)	1.00	0.01(0.01)	1.01	0.00(0.01)	1.00
	고등학교 학교폭력 횟수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0.99	-0.02(0.02)	0.97
	중학교 담배피우기 횟수	0.02(0.12)	1.02	0.07(0.10)	1.07	0.36(0.17)*	1.43	-0.12(0.19)	0.88	0.04(0.29)	1.04
	고등학교 담배피우기 횟수	-0.03(0.04)	0.97	-0.04(0.04)	0.95	-0.06(0.05)	0.93	0.07(0.06)	1.07	0.00(0.05)	1.00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중학교 음주 횟수	-0.17(0.16)	0.84	0.07(0.17)	1.08	-0.07(0.21)	0.92	-0.21(0.50)	0.80	0.79(0.77)	2.21
고등학교 음주 횟수	0.06(0.05)	1.06	0.00(0.05)	0.99	0.04(0.06)	1.04	0.08(0.07)	1.09	0.08(0.05)	1.08
중학교 돈걸고 도박 게임 횟수	-0.07(0.06)	0.92	0.05(0.05)	1.05	0.06(0.18)	1.06	0.36(0.15)*	1.43	0.19(0.10)	1.21
고등학교 돈걸고 도박 게임 횟수	-0.02(0.02)	0.97	0.00(0.02)	1.00	-0.02(0.02)	0.97	0.00(0.02)	1.00	-0.03(0.11)	0.96
Constant cut1	-7.43(4.64)	-7.43	3.13(5.21)	3.13	-3.13(6.01)	-3.13	8.25(7.95)	8.25	1.79(9.36)	1.79
Constant cut2	-4.86(4.61)	-4.86	6.39(5.18)	6.39	0.39(5.99)	0.39	12.39(7.95)	12.39	4.60(9.35)	4.60
Constant cut3	-2.25(4.61)	-2.25	9.78(5.19)	9.78	3.77(5.99)	3.77	15.39(7.96)	15.39	7.81(9.34)	7.81
Constant cut4	0.70(4.61)	0.70	12.84(5.20)	12.84	7.73(6.00)	7.73	19.36(7.98)	19.36	11.79(9.37)	11.79
N	747		753		629		509		390	
Log Likelihood	-760.59		-675.41		-514.76		-429.08		-331.01	
Log Likelihood χ^2	212.76***		519.58***		514.84**		397.78***		297.96**	
Pseudo R ²	0.12		0.27		0.33		0.31		0.31	

***p<.001, **p<.01, *p<.05

표 III -8. 경과기간(2017년~2021년) 각 차수별 자료 분석 : 취업자 집단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성별(여자)	-0.22(0.42)	0.79	-0.22(0.44)	0.79	0.04(0.31)	1.04	-0.14(0.32)	0.86	0.00(0.26)	1.00
연령	-0.25(0.49)	0.77	-0.44(0.47)	0.64	0.22(0.43)	1.25	-0.29(0.36)	0.74	0.02(0.28)	1.02
거주지역(광역시)	-	-	-1.02(0.77)	0.35	-1.44(0.61)*	0.23	-0.08(0.57)	0.91	0.66(0.47)	1.95
거주지역(도)	-	-	-1.19(0.69)	0.30	-1.17(0.50)*	0.30	-0.28(0.53)	0.74	0.13(0.42)	1.14
부모동거(비동거)	-	-	0.21(0.36)	1.23	0.20(0.31)	1.22	0.21(0.24)	1.23	0.10(0.19)	1.10
직장소재지(광역시)	0.77(0.88)	2.16	0.37(0.66)	1.45	0.49(0.56)	1.63	0.83(0.54)	2.29	0.23(0.45)	1.26
직장소재지(도)	0.99(0.83)	2.71	0.60(0.57)	1.82	0.79(0.45)	2.21	0.66(0.49)	1.94	0.78(0.38)*	2.19
직종(관리,전문가)	-2.55(1.59)	0.07	0.44(0.83)	1.56	0.03(0.34)	1.03	0.12(0.31)	1.13	0.55(0.24)*	1.73
직종(사무,판매)	-0.05(0.65)	0.94	0.04(0.41)	1.04	-0.04(0.41)	0.95	0.03(0.35)	1.03	-0.11(0.27)	0.88
직종(기능,정차조작)	-1.62(0.67)*	0.19	0.97(0.60)	2.64	0.44(0.55)	1.55	-0.37(0.47)	0.68	-0.20(0.42)	0.81
직종(농어업,단순노무,군인)	-0.50(1.51)	0.60	0.18(0.56)	1.20	-0.61(0.60)	0.54	0.26(0.40)	1.30	-0.52(0.38)	0.59
종사상지위(임시일용)	-0.69(0.56)	0.49	-0.23(0.39)	0.79	0.01(0.35)	1.01	-0.38(0.30)	0.67	-0.24(0.25)	0.78
종사상지위(자영업자)	-3.06(1.79)	0.04	0.33(1.00)	1.48	1.11(0.61)	3.05	-0.17(0.54)	0.83	0.60(0.41)	1.82
종사상지위(무급가족)	-	-	2.41(1.75)	11.21	0.22(0.89)	1.24	-0.82(0.76)	0.43	0.99(0.86)	2.69
현재상태(일하면서 공부)	0.20(0.83)	1.23	-0.24(0.70)	0.78	0.34(0.46)	1.41	-0.54(0.40)	0.58	-0.82(0.34)*	0.43
청소년기(만족도)	2.10(0.27)***	8.22	0.56(0.22)*	1.75	0.37(0.16)*	1.44	0.63(0.14)***	1.88	0.48(0.11)***	1.61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기정생활만족도	-	-	1.63(0.25)***	5.13	1.30(0.19)***	3.70	1.22(0.17)***	3.39	0.98(0.12)***	2.37
행복요건(희박한가정)	0.07(0.54)	1.07	0.11(0.48)	1.12	0.46(0.35)	1.59	1.43(0.32)***	4.19	0.55(0.26)*	1.74
행복요건(자아성취)	-0.65(0.64)	0.51	0.03(0.65)	1.03	-0.50(0.54)	0.60	-0.16(0.64)	0.84	0.26(0.41)	1.30
행복요건(건강)	0.00(0.65)	0.99	-0.24(0.53)	0.78	0.36(0.48)	1.43	0.47(0.38)	1.60	0.41(0.31)	1.52
행복요건(감사영양태도)	1.70(0.75)*	5.50	0.40(0.84)	1.49	0.41(0.55)	1.51	1.09(0.45)*	3.00	0.39(0.36)	1.48
행복요건(기타)	-0.70(0.49)	0.49	0.01(0.46)	1.01	0.91(0.43)*	2.49	0.72(0.34)*	2.05	0.60(0.30)*	1.82
직장생활만족도	-	-	1.08(0.20)***	2.97	1.37(0.18)***	3.95	1.51(0.16)***	4.54	1.23(0.12)***	3.42
로그소득_중3시점	-0.94(0.72)	0.38	0.17(0.69)	1.19	-0.72(0.45)	0.48	-0.22(0.43)	0.79	-0.45(0.32)	0.63
로그소득_고3시점	1.27(0.68)	3.59	0.01(0.66)	1.01	0.17(0.48)	1.19	0.28(0.44)	1.32	0.40(0.34)	1.50
중학교 가족여행 횟수	-0.04(0.03)	0.95	0.01(0.03)	1.02	0.01(0.02)	1.01	0.01(0.01)	1.01	0.00(0.01)	0.99
고등학교 가족여행 횟수	0.02(0.05)	1.03	0.02(0.04)	1.03	0.04(0.03)	1.04	0.04(0.02)	1.04	0.06(0.02)*	1.06
중학교 문화활동 횟수	-0.01(0.01)	0.98	-0.02(0.02)	0.97	0.00(0.01)	0.99	-0.02(0.01)	0.97	0.00(0.01)	1.00
고등학교 문화활동 횟수	0.00(0.01)	0.99	0.00(0.01)	1.00	-0.01(0.01)	0.98	0.02(0.00)*	1.02	0.00(0.00)	0.99
중학교 해외방문 횟수	0.85(0.33)*	2.34	-0.20(0.32)	0.81	-0.28(0.25)	0.75	-0.03(0.22)	0.96	-0.10(0.17)	0.89
고등학교 해외방문 횟수	-0.76(0.38)	0.46	-0.69(0.38)	0.50	0.61(0.28)*	1.84	-0.23(0.21)	0.79	0.31(0.19)	1.37
중학교 교육목적해외방문 체류일수	0.00(0.00)	0.99	0.00(0.00)	0.99	0.01(0.00)**	1.01	0.00(0.00)	1.00	0.00(0.00)	1.00
고등학교 교육목적해외방문 체류일수	0.00(0.01)	0.99	0.26(0.11)*	1.30	-0.04(0.02)	0.95	0.00(0.01)	1.00	-0.01(0.01)	0.98

10대
시기
금정
경험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중학교 체험활동 횟수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0.99	0.00(0.00)	1.00	0.00(0.00)	0.99
	0.00(0.00)	1.00	0.00(0.00)	0.99	0.00(0.00)	1.00	0.00(0.00)	0.99	0.00(0.00)	1.00
중학교 교내동아리활동 횟수	0.01(0.00)	1.01	0.00(0.00)	0.99	0.00(0.00)	1.00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0.99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0.99	0.00(0.00)	1.00
중학교 교외동아리활동 횟수	0.00(0.01)	1.00	0.02(0.01)	1.02	-0.02(0.01)	0.97	0.00(0.00)	0.99	0.01(0.00)*	1.01
	-0.01(0.00)*	0.98	0.00(0.00)	0.99	0.00(0.00)	0.99	0.01(0.00)	1.01	0.00(0.00)	0.99
중학교 학교폭력 지속년수	0.80(0.47)	2.22	-0.01(0.44)	0.98	0.41(0.38)	1.51	-0.51(0.33)	0.59	-0.28(0.26)	0.75
	-1.9(0.92)*	0.14	-1.04(0.94)	0.35	1.00(0.60)	2.72	-0.47(0.48)	0.62	0.29(0.31)	1.33
고등학교 학교폭력 지속년수	0.13(0.60)	1.14	0.13(0.53)	1.14	-0.14(0.49)	0.86	0.07(0.55)	1.07	0.39(0.35)	1.48
	0.40(0.39)	1.49	-0.34(0.33)	0.71	-0.10(0.33)	0.90	1.00(0.32)**	2.74	0.04(0.23)	1.04
중학교 음주 지속년수	0.45(0.62)	1.57	-0.35(0.61)	0.70	0.19(0.51)	1.21	0.14(0.45)	1.15	0.00(0.36)	0.99
	-0.15(0.24)	0.85	0.00(0.21)	0.99	0.03(0.17)	1.03	-0.20(0.18)	0.81	-0.20(0.13)	0.81
중학교 돈걸고 도박 게임 지속년수	-1.39(3.72)	0.24	10.92(7.36)	1.55	0.59(1.29)	1.82	0.81(1.24)	2.26	0.12(0.88)	1.13
	0.58(0.76)	1.79	-1.05(1.08)	0.34	0.63(0.42)	1.88	-0.07(0.44)	0.92	0.68(0.38)	1.98
중학교 학교폭력 횟수	-0.01(0.00)	0.98	0.00(0.00)	1.00	-0.01(0.01)	0.98	0.00(0.00)	1.00	0.00(0.00)	0.99
	0.13(0.07)	1.14	-0.04(0.07)	0.95	-0.03(0.02)	0.96	-0.05(0.04)	0.94	0.00(0.00)	1.00
중학교 담배피우기 횟수	0.00(0.12)	0.99	0.02(0.10)	1.02	0.01(0.16)	1.01	-0.18(0.13)	0.83	-0.20(0.07)**	0.81
	-0.05(0.04)	0.94	-0.04(0.04)	0.95	0.00(0.05)	1.00	-0.09(0.05)	0.91	0.00(0.03)	0.99

10대
시기
부정
경험

변수	1차		2차		3차		4차		5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중학교 음주 횟수	-0.45(0.31)	0.63	0.00(0.36)	0.99	-0.14(0.21)	0.86	0.40(0.26)	1.50	-0.15(0.17)	0.85
고등학교 음주 횟수	0.03(0.07)	1.03	0.11(0.07)	1.11	-0.02(0.05)	0.97	-0.04(0.08)	0.95	0.07(0.05)	1.07
중학교 돈걸고 도박 게임 횟수	1.76(1.71)	5.84	-4.54(3.01)	0.01	-0.26(0.23)	0.77	0.00(0.09)	1.00	0.00(0.08)	1.00
고등학교 돈걸고 도박 게임 횟수	-0.04(0.02)	0.95	0.19(0.18)	1.21	-0.01(0.02)	0.98	-0.01(0.02)	0.98	-0.03(0.02)	0.96
Constant cut1	-0.88(10.14)	-0.88	-2.79(10.31)	-2.79	5.49(9.95)	5.49	0.05(8.42)	0.05	4.84(6.94)	4.84
Constant cut2	0.76(10.15)	0.76	0.08(10.30)	0.08	8.36(9.95)	8.36	3.74(8.42)	3.74	7.64(6.96)	7.64
Constant cut3	4.47(10.13)	4.47	3.30(10.29)	3.30	11.93(9.96)	11.93	6.85(8.42)	6.85	10.46(6.96)	10.46
Constant cut4	8.45(10.16)	8.45	6.88(10.31)	6.88	15.36(9.99)	15.36	11.03(8.44)	11.03	14.34(6.98)	14.34
N	184		221		290		387		542	
Log Likelihood	-150.35		-188.737		-248.88		-319.03		-486.54	
Log Likelihood χ^2	147.14***		182.34***		290.06***		401.95***		391.76***	
Pseudo R ²	0.32		0.32		0.36		0.38		0.28	

***p<.001, **p<.01, *p<.05

표 III -9. 경과기간(2017년~2021년) 각 차수별 자료 분석 : 무직자 집단

변수	2차		3차		4차		5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성별(여자)	2.71(0.92)**	15.15	-0.61(0.47)	0.54	-0.38(0.45)	0.68	-0.08(0.40)	0.91
연령	-	-	0.68(0.63)	1.99	-0.22(0.43)	0.79	0.21(0.41)	1.23
거주지역(광역시)	-3.62(1.79)*	0.02	0.55(0.87)	1.73	-0.27(0.71)	0.76	-0.57(0.58)	0.56
거주지역(도)	-1.58(1.62)	0.20	0.93(0.85)	2.54	-0.39(0.70)	0.67	-0.59(0.56)	0.55
부모동거(비동거)	-	-	-0.08(0.70)	0.92	0.55(0.52)	1.74	-0.28(0.41)	0.74
진학/취업준비여부(준비안함)	2.58(2.03)	13.25	5.84(2.46)*	345.78	-0.85(0.83)	0.42	1.48(1.25)	4.39
진학/취업가능성	1.48(0.44)	4.43	0.47(0.30)	1.60	-0.09(0.23)	0.91	0.85(0.26)**	2.34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현재 형제 특성 변수	5.05(2.16)	157.48	-3.64(2.37)	0.02	-3.75(2.00)	0.02	3.03(1.73)	20.89
	-	-	-4.92(2.30)*	0.00	0.00(omitted)	1.00	1.30(1.12)	3.68
청소년기만족도	0.66(0.39)	1.93	1.39(0.28)***	4.04	1.16(0.24)***	3.21	0.80(0.18)***	2.22
기정생활만족도	2.28(0.67)**	9.83	1.77(0.31)***	5.89	1.50(0.30)***	4.52	1.53(0.22)***	4.65
행복요건(회복한가정)	-0.50(1.20)	0.60	-0.32(0.59)	0.72	1.55(0.51)**	4.72	1.33(0.45)**	3.79
행복요건(자아성취)	-0.21(1.55)	0.80	0.59(1.08)	1.81	0.48(0.72)	1.63	-0.46(0.58)	0.62
행복요건(건강)	-3.50(1.36)*	0.03	0.53(0.82)	1.70	0.42(0.58)	1.52	-0.09(0.55)	0.91
행복요건(감사증정태도)	-3.26(1.54)*	0.03	2.30(0.84)**	10.06	0.34(0.58)	1.41	1.49(0.57)**	4.44
행복요건(기타)	-1.96(1.24)	0.14	0.57(0.72)	1.76	1.30(0.61)*	3.69	0.51(0.49)	1.67

변수	2차		3차		4차		5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로그소득_중3시점	3.90(1.54)*	49.50	0.95(0.81)	2.60	1.43(0.74)	4.19	0.39(0.88)	1.47
로그소득_고3시점	-2.02(1.42)	0.13	-1.43(0.86)	0.23	-1.01(0.72)	0.36	-0.36(0.86)	0.69
중학교 가족여행 횟수	0.13(0.07)	1.14	0.06(0.04)	1.06	0.00(0.02)	1.00	-0.01(0.03)	0.98
고등학교 가족여행 횟수	-0.33(0.12)**	0.71	-0.11(0.06)	0.89	0.00(0.04)	0.99	0.06(0.05)	1.06
중학교 문화활동 횟수	0.03(0.03)	1.03	-0.05(0.02)	0.95	-0.02(0.01)	0.97	-0.02(0.01)	0.97
고등학교 문화활동 횟수	0.00(0.02)	0.99	0.00(0.02)	1.00	0.00(0.01)	0.99	0.00(0.01)	0.99
중학교 해외방문 횟수	-0.82(0.58)	0.43	0.40(0.42)	1.50	0.12(0.25)	1.13	0.00(0.23)	1.00
고등학교 해외방문 횟수	-1.51(1.11)	0.21	0.28(0.48)	1.32	0.05(0.37)	1.06	0.27(0.41)	1.31
중학교 교육목적해외방문 체류일수	0.05(0.01)***	1.05	0.00(0.01)	0.99	-0.01(0.00)*	0.98	0.00(0.00)	1.00
고등학교 교육목적해외방문 체류일수	0.06(0.02)*	1.06	0.01(0.02)	1.01	-0.01(0.01)	0.98	-0.01(0.02)	0.98
중학교 체험활동 횟수	-0.02(0.01)	0.97	0.00(0.00)	1.00	0.00(0.00)	1.00	0.00(0.00)	1.00
고등학교 체험활동 횟수	0.00(0.00)	0.99	0.00(0.00)	1.00	0.00(0.00)	0.99	0.00(0.00)	0.99
중학교 교내동아리활동 횟수	0.00(0.01)	1.00	-0.01(0.00)	0.98	0.00(0.00)	1.00	0.00(0.00)	1.00
고등학교 교내동아리활동 횟수	0.02(0.00)***	1.03	0.00(0.00)	0.99	0.00(0.00)	1.00	0.00(0.00)	1.00
중학교 교외동아리활동 횟수	-0.12(0.04)**	0.88	0.03(0.02)	1.03	-0.01(0.01)	0.98	0.00(0.00)	1.00
고등학교 교외동아리활동 횟수	0.06(0.05)	1.06	0.00(0.01)	0.99	0.01(0.00)	1.01	0.00(0.00)	1.00

10대
시기
경쟁
경험

변수	2차		3차		4차		5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중학교 학교폭력 지속년수	1.51(1.28)	4.53	0.61(0.68)	1.85	-0.87(0.58)	0.41	1.02(0.58)	2.79
고등학교 학교폭력 지속년수	-3.85(1.79)*	0.02	0.66(0.87)	1.95	1.24(0.68)	3.48	0.18(0.56)	1.20
중학교 담배피우기 지속년수	0.75(1.08)	2.13	-0.12(1.03)	0.87	0.37(0.89)	1.44	1.53(1.22)	4.64
고등학교 담배피우기 지속년수	0.99(0.91)	2.71	0.73(0.64)	2.08	-0.38(0.50)	0.67	0.74(0.81)	2.10
중학교 음주 지속년수	3.17(1.34)*	23.85	0.83(0.89)	2.30	-1.17(0.75)	0.30	0.33(0.62)	1.40
고등학교 음주 지속년수	-2.14(0.93)*	0.11	-0.37(0.42)	0.68	-0.20(0.28)	0.81	-0.3(0.28)	0.73
중학교 돈걸고 도박 게임 지속년수	-	-	1.77(1.96)	5.92	-4.03(5.53)	0.01	-4.39(10.74)	0.01
고등학교 돈걸고 도박 게임 지속년수	-5.84(2.88)*	0.00	-2.72(2.03)	0.06	-0.32(1.90)	0.72	1.95(1.67)	7.09
중학교 학교폭력 횡수	-0.07(0.11)	0.92	0.00(0.01)	0.99	0.00(0.02)	0.99	-0.01(0.03)	0.98
고등학교 학교폭력 횡수	-0.04(0.01)*	0.95	-0.01(0.01)	0.98	0.00(0.00)	1.00	0.00(0.00)	0.99
중학교 담배피우기 횡수	-0.35(0.26)	0.70	1.17(1.63)	3.23	0.27(0.31)	1.32	-0.34(0.53)	0.70
고등학교 담배피우기 횡수	0.42(0.19)*	1.53	-0.27(0.14)	0.76	-0.01(0.10)	0.98	-0.11(0.18)	0.88
중학교 음주 횡수	-2.54(1.23)**	0.07	0.60(0.72)	1.82	0.36(0.27)	1.44	-0.06(0.27)	0.93
고등학교 음주 횡수	-0.08(0.25)	0.91	-0.07(0.20)	0.92	0.08(0.10)	1.08	0.06(0.13)	1.06
중학교 돈걸고 도박 게임 횡수	-	-	-0.11(0.10)	0.88	1.50(3.18)	4.51	3.79(9.98)	44.50
고등학교 돈걸고 도박 게임 횡수	1.18(0.55)*	3.26	0.04(0.03)	1.04	0.08(0.35)	1.08	-0.61(0.72)	0.53

10대
시기
부정
경험

변수	2차		3차		4차		5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추정계수 (표준오차)	Odds Ratio
Constant cut1	21.04(6.57)	21.04	25.56(15.87)	25.56	0.22(10.83)	0.22	10.61(10.34)	10.61
Constant cut2	23.51(6.58)	23.51	28.84(15.87)	28.84	4.99(10.83)	4.99	14.03(10.38)	14.03
Constant cut3	28.84(7.31)	28.84	32.82(15.93)	32.82	8.13(10.84)	8.13	17.18(10.40)	17.18
Constant cut4	32.95(7.55)	32.95	36.56(16.02)	36.56	11.88(10.85)	11.88	21.16(10.43)	21.16
N		82		144		186		213
Log Likelihood		-56.36		-114.08		-158.16		-189.75
Log Likelihood χ^2		106.62***		141.27***		170.35***		169.62***
Pseudo R ²		0.48		0.38		0.35		0.30

***p<.001, **p<.01, *p<.05

4. 소결 : 결과의 요약 및 설문조사 내용 설계의 방향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이 장에서는 19세~24세 후기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이들 영향요인이 현재 상태 또는 고교 졸업 후 시간경과에 따라 특정한 경향성을 있는가를 실증 분석하였음.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① 자료의 형태 및 조사차수와는 상관없이 청소년기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후기청소년의 현재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아, 생애 이전의 상태가 현재의 삶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단적으로 확인됨.
 - ② 후기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10대시기의 긍정경험과 부정경험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고교시기 가족과의 여행 횟수는 현재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되고, 고교시기 체험활동 횟수는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임.
 - ③ 시간경과에 따라 10대시기 경험 특성의 영향은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고교 졸업 후 이른 시기에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특히 고교 졸업 직후 무직상태에 있는 후기청소년에게서 10대시기 부정경험의 영향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발견됨.
- 도출된 결과는 다음의 제4장에서 실시될 설문조사의 내용에 청년의 현재 특성과 10대시기 경험 특성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문항으로 반영될 것이며, 설문조사 자료의 실증분석 결과 및 이어지는 심층면접조사의 결과와 함께 제6장에서 종합 분석 및 논의된 후 청소년-청년정책 연계에 위한 추진방향 및 목표설정,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과제의 도출에 반영될 것임.

본 장에서는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영향 요인과 요인의 영향력, 그리고 영향의 맥락과 과정을 본격적으로 파악하기에 앞서, 정책대상으로서 청소년과 청년의 연계지점에 있는 후기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특히 10대시기 경험 특성과 시간 경과에 따른 영향의 경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자료로 순위로짓모델(Ordered Logit Model)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5개년 결합자료(Pooled Data)를 생성하여 분석한 결과 후기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르며,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10대시기 경험 특성은 긍정경험과 부정경험이 동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는 경험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청소년기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또는 현재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된 하위집단(대학(원)생, 취업자, 무직자) 여부에 상관없이 후기청소년 현재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이며, 중고교시기 가족과의 여행 횟수가 경험 요인 중 가장 영향력 높은 변수로 분석되었다. 한 가지 고교시기 체험활동의 횟수는 오히려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0대시기 체험 활동이 대학 입시와 연계되는 비자발적 활동이 된다거나 활동의 양은 많으나 질적인 수준이 담보되지 않는다

고 할 때, 그 경험은 오히려 후기청소년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개년 자료를 조사 차수, 즉 년도 별로 쪼개어 고교 졸업 후 시간경과에 따라 후기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10대시기 경험 특성의 영향이 특정한 경향성을 나타내는가를 확인한 분석에서도 청소년기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일관성 있게 모든 차수에 후기청소년 현재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을 제외하고 나타나는 경향성 하나는 10대시기 경험 특성의 영향이 고교 졸업 후 이른 시점에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그 영향력이 약해지거나 없어진다는 점인데, 이러한 특성은 무직자 집단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무직상태에 있는 후기청소년의 경우 고교 졸업 직후 시점에 고교시기 부정경험(학교폭력피해 지속년수, 음주 지속년수, 도박게임 횟수 및 지속년수, 담배피우기 횟수) 등 10대시기 부정경험의 영향이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후기청소년 삶의 만족도 수준 향상은 물론 20대-30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생애단계에 있어 청소년과 청년의 고리역할을 할 수 있는 후기청소년 삶의 질 향상에 주목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은 무직 상태의 후기청소년이 갖는 10대시기 부정경험 영향의 완화 또는 상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상 본 장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제4장의 설문조사 내용 설계에 반영되고, 설문조사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그리고 제5장의 심층면접조사 결과와 함께 제6장에서 종합 논의된 후 청소년-청년 정책의 연계를 위한 고리 발견 및 정책추진 방향과 목표의 설정, 그리고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실증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 ————— 제4장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의 경험 :
주관적웰빙 수준의 영향 요인 분석

- 1. 조사개요 및 방법
- 2.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
경험 분석
- 3. 대상자 특성별 주관적웰빙
수준 비교 및 영향 요인 분석
- 4. 소결 :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 시사점

4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의 경험 : 주관적웰빙 수준의 영향 요인 분석*

1. 조사개요 및 방법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청년의 삶에 10대시기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청년의 삶의 질을 가능할 수 있는 주관적웰빙(subjective well-being)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 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조사내용 설계 및 문항 개발 후 여러 단계의 검토를 거쳐 조사문항을 확정하였고, 19세-34세 청년 총 1,2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청년의 주관적웰빙의 측정은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를 구성하는 주관적웰빙 측정의 세 가지 요소(①삶의 만족도, ②부정정서, ③긍정정서)를 준용하여 총 5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한 청년의 현재 특성과 10대시기 경험 특성(①성장환경, ②일반/긍정경험, ③부정경험, ④정책수혜 경험)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음.
- 조사는 웹기반 온라인 조사(Web-based online survey)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조사내용 및 실시와 관련된 사항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사전 심의 및 승인의 과정을 거쳤음.

1) 조사 추진 및 표본 구성

(1) 조사 추진 과정

앞선 제3장에서 '한국아동청소년패널2010' 중1 코호트 자료 및 유지조사 자료의 실증 분석을 통해 19세-24세 연령대, 즉 후기청소년이자 20대 초반 청년의 삶의 만족도에 10대시기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일관성 있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긍정경험과 부정경험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며, 고교 졸업 후 시간경과에 따라 10대시기 경험 요인의 영향이 특정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무직상태에 있는 후기청소년의 경우 졸업 직후에 10대시

* 이 장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과 송현주 대표가 분석하고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기 부정경험의 영향이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20대 초반의 제한된 연령층 대상의 2차 자료 분석만으로는 본 연구의 관심이자 주제인 10대시기 경험의 20대-30대 청년의 삶에 대한 영향력과 그 과정의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장에서는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¹⁴⁾, 삶의 만족도에 더하여 긍정 및 부정의 정서측면까지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주관적웰빙(subjective well-being)을 측정하여, 10대시기의 경험이 20대-30대 청년의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어떠한 요인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 및 영상자료와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신규정책의 동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앞서 제3장과 같이 2차 자료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참조한 후 설문조사의 표본 및 조사 방법, 그리고 조사 내용 구성의 초안을 설계하였고, 전문가 자문 및 실무회의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였다. 이후 확정된 내용을 구성의 틀로 삼아 구체적인 측정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작성된 문항에 대해 여러 차례 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수정을 거쳐 확정된 최종 문항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설문조사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그림 IV-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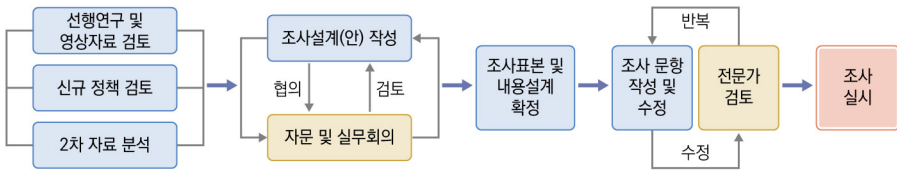


그림 IV-1. 설문조사 추진과정

(2) 표본 구성

앞의 설문조사 추진과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 설문조사의 대상은 전국의 19세-34세 청년이며,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 시점은 2022년 7월 1일로 설정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연구비 예산 제약을 고려하여 총 목표 표본 수 1,200명으로 설정하였고,

14)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단,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2.10.7. 검색 및 출력).

표집 방법은 예산 제약과 더불어 표집 틀(sampling frame)이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확률표집 방법 중 하나인 할당(quota sampling) 방법을 선택하였다. 구체적으로 표본의 할당은 세 가지 특성, 즉 지역(수도권, 광역시, 도), 성별(남, 여), 연령대(19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를 고려하여 이루어졌으며, 할당된 표본의 수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비례 할당으로 확정되었다. 최종 목표 표본의 구성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최소 표본 구성 및 할당

(단위: 명)

구 분	수도권		광역시		도		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세~24세	108	107	44	40	63	52	414
25세~29세	118	112	42	37	56	44	409
30세~34세	111	105	37	33	49	42	377
소계	337	324	123	110	168	138	1,200
계	661		233		306		1,200

2) 조사 내용 구성 및 문항 개발

(1) 조사내용 구성

설문조사의 내용은 <표 IV-2>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대-30대 청년 삶의 질과 관련한 ‘현재 특성’과 이들의 ‘10대시기 특성’으로 구성된다. 현재 특성 중 주관적웰빙은 실증분석의 종속변수로 분석되며, 그 외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행복요인은 10대시기 경험 특성과 함께 청년의 삶의 질, 즉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변수로 분석된다.

현재 특성으로 구성된 문항 중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총 8개 문항(①성별, ②연령, ③거주지역, ④현재 상태, ⑤최종학력, ⑥혼인 상태, ⑦1인 가구 여부, ⑧월평균 소득), 행복요인은 7개 문항(①재산 및 경제력, ②화목한 가정, ③하고자 하는 것 이루기, ④건강, ⑤삶에 대한 긍정태도, ⑥일/학업과 생활의 균형(워라밸), ⑦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그리고 주관적웰빙은 3개 구성 요소(①삶의 만족도, ②부정정서, ③긍정정서) 5개 문항(①삶의 만족도, ②걱정, ③우울, ④행복, ⑤일의가치)이다.

이러 10대시기 특성은 크게 성장환경 특성과 경험 특성으로 구성하였는데, 먼저 성장환

경 특성은 경제사회적 성장 여건 6개 문항(①거주 지역, ②고교학력 취득방법, ③기초생활 보장 수급 경험, ④지지자 유무, ⑤정기적 용돈 받은 경험, ⑥보호시설 거주 경험), 부모관련 특성 2개 문항(①부모이혼 경험, ②부모죽음 경험), 그리고 10대시기 전반에 대한 만족도 1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IV-2. 조사 내용의 구성

구분		구성 문항	
청년의 삶의 질 관련 현재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①성별, ②연령, ③거주지역, ④현재 상태, ⑤최종학력, ⑥혼인 상태, ⑦1인 가구 여부, ⑧월평균 소득	
	행복요인	- 7가지 행복 요인의 중요도 인식 수준 ①재산 및 경제력, ②화목한 가정, ③하고자 하는 것 이루기, ④건강, ⑤삶에 대한 긍정태도, ⑥일/학과와 생활의 균형(워라벨) ⑦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주관적웰빙	- '국민삶의질지표'의 주관적웰빙 측정 3개요소 5개 문항 ①삶의 만족도, ②긍정정서(행복, 일의가치), ③부정정서(걱정, 우울)	
성장 환경 특성	경제사회적 성장 여건	①거주 지역, ②고교학력 취득방법, ③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 ④지지자 유무, ⑤정기적 용돈 받은 경험, ⑥보호시설 거주 경험	
	부모관련 특성	①부모이혼 경험, ②부모죽음 경험	
	10대시기에 대한 주관적 평가	-10대시기 자신의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	
10대 시기 특성	경험 특성	일반/긍정 경험	①가족과 여행, ②가족 외 여행, ③해외 연수/교육, ④팬덤 활동, ⑤교내외 활동(학생회, 동아리, 단체 등)
		부정경험_가정	①가족문제로 인한 학업중단, ②가출, ③가족 돌봄, ④부채상속/상환, ⑤정서학대, ⑥신체폭력, ⑦성추행/성폭력
		부정경험_학교	①따돌림(왕따) 피해, ②신체폭력 피해, ③성추행/성폭행 피해, ④학업중단, ⑤징계, ⑥괴롭힘 가해
		부정경험_사회	①신체폭력 피해, ②성추행/성폭행 피해, ③돈떼임/사기피해, ④도박게임 중독, ⑤술, 담배, 약물 중독, ⑥게임과몰입(중독), ⑦우울감 및 자살충동
		정책수혜 경험	5가지 정책지원 수혜 경험 유무 ①심리상담 지원, ②진로상담 지원, ③취업지원, ④학업지원, ⑤문화예술지원 - 10대시기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했던 지원

이어 10대 경험 특성은 일반/긍정의 경험 5개 문항(①가족과 여행, ②가족 외 여행, ③해외 연수/교육, ④팬덤 활동, ⑤교내외 활동협), 가족관련 부정경험 7개 문항(①가족문제
 제로 인한 학업중단, ②가출, ③가족 돌봄, ④부채상속/상환, ⑤정서학대, ⑥신체폭력피해, ⑦성추행/성폭력피해), 학교생활관련 부정경험 6개 문항(①따돌림(왕따) 피해, ②신체폭력
 피해, ③성추행/성폭행 피해, ④학업중단, ⑤징계, ⑥괴롭힘 가해), 사회생활 및 교차
 (cross-cutting)된 부정경험 7개 문항(①신체폭력 피해, ②성추행/성폭행 피해, ③돈때임
 /사기피해, ④도박게임 중독, ⑤술, 담배, 약물 중독, ⑥게임과몰입/중독, ⑦우울감/자살충
 동), 그리고 정책수혜 경험 5개 문항(①심리상담 지원, ②진로상담 지원, ③취업지원, ④학
 업지원, ⑤문화예술지원)으로 구성되었다.

(2) 조사문항 개발

① 조사 문항의 개발 과정

구성된 문항을 작성하고 최종 확정하기까지의 과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연구진이 작성한 조사 문항의 초안에 대해 전문가 1차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이 단계에서는 ①개념과 의미 측정의 명확성, ②측정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③문항의 응답자 범위의 적절성이 검토되었고, 2단계 검토에서는 ①수정 내용의 확인과 ②누락 또는 추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발견이 이루어졌다. 3단계 검토는 응답자 시각에서의 종합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응답하기 어려운 문항이나 용어, 응답 측정 방식이 검토되었다.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최종 조사표 초안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및 승인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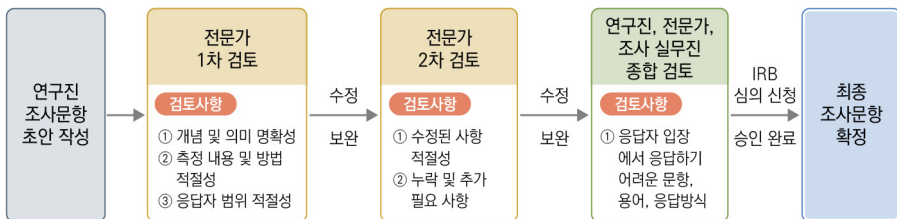


그림 IV-2. 조사문항 개발 과정

② 조사 문항 및 문항작성의 근거

문항은 연구진 작성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일부 문항은 기존에 개발된 설문 문항을 활용하거나 수정 사용하였다. 예컨대 현재 특성의 하나로 구성된 7가지 행복 요인의 경우,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중1코호트 유지조사에서 10가지 선택 항목 중 1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측정한 문항을 수정 활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10개 선택항목 중 응답률이 높은 순으로 7개의 항목만을 발췌하고 각각 0~10점 척도로 수정하여 활용하였다.¹⁵⁾ 또 같은 조사에서 5점 척도(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5. 매우 만족한다)로 측정한 10대시기 전만 삶의 만족도 측정 또한 0점~10점의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주관적웰빙은 통계청 국가지표체계의 ‘국민삶의질지표’에서 주관적웰빙 측정 지표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 작성 「사회통합실태조사」의 측정 문항(통계청 국가지표체계 누리집, 2022.5.2. 검색 및 출력)을 사용하였다.

표 IV-3. 조사 문항 및 문항 작성의 근거

구분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또는 작성 근거	
		주문항	하위문항		
현재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 성별	①-1		연구진 작성
		• 현재 거주지역	①-2		
		• 현재 상태	①-3	①-3-1	
		• 최종학력	①-4		
		• 혼인상태	①-5		
		• 1인 가구 여부	①-6	①-6-1	
		• 월평균 소득	①-7-8		
	행복 요인	• 현재 삶의 질 7가지 사항의 중요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2010 중1코호트 유지조사(2020) 문6. 수정 활용
		- 재산 및 경제력	⑧-6		
		- 화목한 가정	⑧-7		
		- 하고자 하는 것 이루기	⑧-8		
	- 건강	⑧-9			
	- 삶에 대한 긍정태도	⑧-10			
	- 일/학업과의 생활 균형(위라벨)	⑧-11			

1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2021)에서의 행복요건 측정 방식 문6. 귀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재산·경제력, 2. 화목한 가정, 3. 자아성취, 4. 건강, 5. 감사·긍정적 태도, 6. 종교생활, 7. 직업·직장, 8. 연금(이성관계 등), 9. 친구·대인관계, 10. 꿈·목표의식

구분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또는 작성 근거	
		주문항	하위문항		
주관적웰빙	-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⑧-12		통계청 '국민삶의질 지표' 주관적웰빙 지표,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주관적웰빙 측정 문항 활용	
	• 주관적웰빙 측정 5가지 문항				
	- 어제의 행복 정도(0~10점)	⑧-1			
	- 어제의 걱정 정도(0~10점)	⑧-2			
	- 어제의 우울 정도(0~10점)	⑧-3			
	- 삶의 전반 만족도(0~10점)	⑧-4			
	- 하고 있는 일의 가치(0~10점)	⑧-5			
10대 시기 특성	성장환경 특성	• 거주 지역	②-1		연구진 작성
		• 고교학력 취득 방법	②-2		
		• 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 유무	②-3		
		• 부모 이혼 경험	②-4	②-4-1	
		• 부모 죽음 경험	②-5	②-5-1	
		• 지지자 유무	②-6	②-6-1	
		• 정기적 용돈 받은 경험	②-7	②-7-1	
		• 보호시설 거주 경험	②-8	②-8-1	
	• 10대시기 전반 만족도	②-9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조사2010 중1코호트 유지조사 (2020) 문4. 활용	
	일반/긍정 경험	• 1박 이상 가족여행 경험	③-1	③-1-1 ③-1-2	연구진 작성
• 1박 이상 가족 외 여행 경험		③-2	③-2-1 ③-2-1		
• 해외 교육/연수 경험		③-3	③-3-1 ③-3-2		
• 팬덤활동 경험		③-4	③-4-1 ③-4-2		
• 교내외 활동 경험		③-5	③-5-1 ③-5-2		
부정경험 가정	• 가족문제로 인한 학업중단 경험	④-1	④-1-1 ④-1-2	연구진 작성	
	• 하루 이상 가출경험	④-2	④-2-1 ④-2-2		
	• 6개월 이상 부모/조부모 등 돌봄 경험	④-3	④-3-1 ④-3-2		
	• 부모/조부모 부채상속/상환 경험	④-4	④-4-1 ④-4-2		
	• 가족으로부터 정서학대 경험	④-5	④-5-1		

구분	문항 내용	문항 번호		출처 또는 작성 근거
		주문항	하위문항	
			4-5-2	
	• 가족으로부터 신체폭력 경험	4-6	4-6-1 4-6-2	
	• 가족으로부터 성추행/성폭력 경험	4-7	4-7-1 4-7-2	
부정경험 학교	• 따돌림(왕따) 피해 경험	5-1	5-1-1 5-1-2	연구진 작성
	• 신체폭력 피해 경험	5-2	5-2-1 5-2-2	
	• 성추행/성폭력 피해 경험	5-3	5-3-1 5-3-2	
	• 친구/교사로 인한 학업중단 경험	5-4	5-4-1 5-4-2	
	• 징계받은 경험	5-5	5-5-1 5-5-2	
	• 괴롭힘 가해 경험	5-6	5-6-1 5-6-2	
부정경험 사회	• 가족/학교 무관 성인으로부터 신체폭력	6-1	6-1-1 6-1-2	연구진 작성
	• 가족/학교 무관 성인으로부터 성추행/성폭력	6-2	6-2-1 6-2-2	
	• 성인으로부터 돈 떼임, 사기 피해	6-3	6-3-1 6-3-2	
	• 도박중독	6-4	6-4-1 6-4-2	
	• 술, 담배, 약물 중독	6-5	6-5-1 6-5-2	
	• 게임 과몰입(중독)	6-6	6-6-1 6-6-2	
	• 우울감/자살충동	6-7	6-7-1 6-7-2	
정책지원 수혜 경험	• 심리상담 경험 유무	7-1		연구진 작성
	• 진로상담 경험 유무	7-2		
	• 취업지원 경험 유무	7-3		
	• 학업지원 경험 유무	7-4		
	• 문화예술지원 경험 유무	7-5		
	• 10대시기 가장 필요했던 지원	7-6		
	• 현재 가장 필요한 지원	7-7		

③ 연구윤리 심의 및 승인

앞서 조사문항의 개발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실시에 앞서 최종 작성된 조사표 초안의 내용을 비롯하여 설계된 조사 전반의 내용이 연구대상자 보호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심의를 통하여 검토 및 확인받았다. 심의 결과 “연구계획과 조사도구에 연구대상자의 인권침해 및 윤리적 침해의 소지가 없고 조사 안내문과 동의서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절차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승인 통보(승인번호: 202206-HR-고유-010, 통보일: 2022.6.10.)를 받은 후 조사가 실시되었음을 밝힌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1) 자료수집 방법

최종 확정된 조사 문항은 웹 기반 조사 프로그램으로 구현되기 전 과정에서 다시 한번 문항 작성의 오류 검토 및 수정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웹 조사 프로그램 구현 이후에는 응답 내용 및 과정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오류(Debugging)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응답형태 및 상황을 가정한 가상 응답테스트를 통해 응답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본 연구의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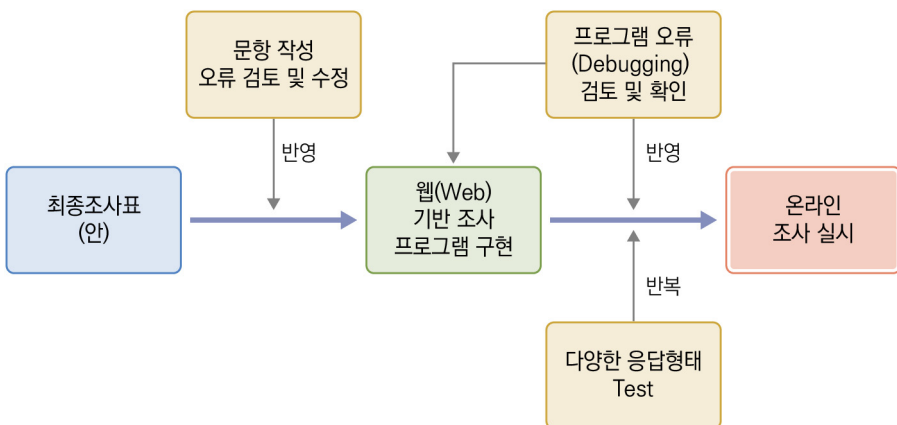


그림 IV-3. 온라인 조사도구 개발 과정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응답 자료의 수집은 2022년 7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으며, 최종 응답 표본 수는 <표 IV-4>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1,220명으로 목표 표본의 수 1,200명을 초과한다. 주민등록인구통계에 기반하여 표본 할당의 수가 정해진 것이기는 하나, 최종 응답자 수를 할당 기준 세 가지 특성의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성이 633명으로 여성(587명)보다 많고, 연령대별로는 19~24세가 426명으로 상대적으로 만 25~29세(408명)나 30~34세(386명)보다 많다. 거주 지역에 따라서는 도 지역이 564명으로 서울(333명)이나 광역시(323명)보다 많은 표본 수가 확보되었다.

표 IV-4. 자료수집 결과 : 최종 표본 수

(단위: 명)

구 분	수도권				광역시				도				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목표	최종	목표	최종	목표	최종	목표	최종	목표	최종	목표	최종	
19세~24세	108	106	107	111	44	45	40	45	63	63	52	56	414
25세~29세	118	116	112	107	42	42	37	40	56	57	44	46	409
30세~34세	111	115	105	104	37	39	33	34	49	50	42	44	377
소계	337	337	324	322	123	126	110	119	168	170	138	146	1,200
계	목표	661			233				306				1,200
	최종	659			245				316				

(2) 자료 분석 내용 및 방법

① 주요 분석 방법의 구성

온라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응답 대상자의 특성을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파악한 후,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 경험 특성의 차이와 주관적웰빙 수준의 차이를 측정 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검증 통계(χ^2 -test, t-test, GLM-test)를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 ①성장환경의 특성 해당 비율, ②일반/긍정경험 비율, ③정책수혜경험 비율에 대한 차이 검증과, 현재 주관적웰빙 수준을 ①대상자 특성별, ②10대시기 성장환경 특성별, ③10대시기 일반/긍정 및 부정경험 유무별, ④10대시기 정책수혜경험 유무별로 나누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된 특성을 중심으로 19세-34세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모델(Robust OLS Model)로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은 주관적웰빙과 이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 각각을 종속변수로 하는 분석을 전체집단과 하위집단(성별, 연령대별, 현재상태별, 거주지역별)으로 나누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되었다.

표 IV-5. 주요 분석 내용 및 방법

	분석 내용	분석 방법
대상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통계 -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 경험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환경 특성 비율 및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 • 일반/긍정 경험 및 부정경험 비율 및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 • 특성별 10대시기 정책지원 수혜 경험 및 차이 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통계 -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 차이 검증 -χ^2-test, t-test, GLM-test
대상자 특성별 주관적웰빙 수준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특성별 주관적웰빙 수준 비교 - 주관적웰빙 및 37가지 구성요소(삶의만족도, 부정정서, 긍정정서) • 성장환경 특성별 주관적웰빙 수준 비교 • 일반/긍정 경험 및 부정경험에 따른 주관적웰빙 수준 비교 • 정책지원 수혜 경험에 따른 주관적웰빙 수준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통계 -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 차이 검증 -χ^2-test, t-test, GLM-test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경험 요인 - 전체 및 하위집단별(성별, 연령대별, 현재상태별, 거주지역별) • 주관적웰빙 구성 요소에 미치는 영향 10대시기 경험 요인 - 전체 삶의만족도, 부정정서, 긍정정서 영향 요인 - 하위집단별 영향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bust OLS Model - 오차항의 이분산성 (heteroskedasticity) 문제를 고려한 추정 모델

② 실증 분석 모델의 선정

실증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경험 요인을 파악하고, 각 요인별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는데 가장 적절한 분석 모델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최종 분석 모델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종속변수로 분석될 주관적웰빙의 값이 0점~10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므로 널리 쓰이는 최소제곱(OLS: Ordinary Least Square, 이하 OLS)방식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다중선형회귀모형(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부터 검토하였다.¹⁶⁾ 일반적으로 OLS로 추정된 값이 좋은 추정량, 즉 가장 좋은 선형불편추정량(BLUE: Best Linear

16) $y_i = \beta_0 + \beta_1 x_{1i} + \beta_2 x_{2i} + \dots + \beta_k x_{ki} + e_i$

Unbiased Estimator)이 되기 위해서는 5가지 기본 가정(①실제 모형이 선형, ②오차항 기댓값이 영'0', ③오차항의 동분산, ④오차항 간 서로 독립, ⑤오차항의 정규분포)이 충족되어야 한다(민인식, 최필선, 2009, p.124, p.139). 이들 가정이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분석되는 회귀분석의 값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의 종속변수로 분석될 주관적웰빙의 측정값과 주관적웰빙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즉 삶의만족도, 부정정서, 긍정정서의 측정값이 OLS추정 방식의 회귀분석모형을 적용하는 데 적합한가를 검증하였으며, 검증결과 5가지 기본가정 중 오차항의 동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⁷⁾ 따라서 일반적인 다중회귀분석 모형으로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의 문제를 고려한 분석 방법을 검토하였다.

이분산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분산성의 형태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추정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 형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계량 경제학자들은 GLS(Generalized Least Squares)로 추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기는 하나,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분산성의 형태가 비례적 이분산이어야 한다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선택으로 선택되고 있는 Robust OLS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는데, 이 방식은 OLS로 모수를 추정하는 것은 같지만, 추정계수 값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 계수의 표준오차를 수정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값을 갖도록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다(민인식, 최필선, 2009, p.211).

③ 모델 분석 변수의 선정 및 구성

실증분석 모델에 투입된 변수는 <표 IV-6>과 같다. 종속변수인 주관적웰빙의 값은 0~10점으로 측정한 하위 3가지 요소(삶의만족도, 부정정서, 긍정정서)들의 총합이고, 삶의 만족도는 단일 항목, 부정정서(어제의 우울과 걱정 정도)와 긍정정서(어제 행복도와 자신 일의 가치)는 각각 2개 항목으로 측정값의 합이다. 단, 주관적웰빙 총합을 위해 부정정서의 값은 역산하여 반영하였다.

설명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하였는데, 하나는 분석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행복요인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된 현재 특성이고, 다른 하나는 본 연구에서 궁극적인

17) 동분산 검증(Breusch-Pagan / Cook-Weisberg test for heteroskedasticity: Ho: Constant variance)결과: 주관적웰빙(chi²(1)= 9.84, Prob)chi²=0.0017), 삶의 만족도(chi²(1)= 8.39, Prob)chi²=0.0038), 부정정서(chi²(1)= 0.00, Prob)chi²=0.9580), 긍정정서(chi²(1)=23.71, Prob)chi²=0.0000)

관심이자 주제인 10대시기의 특성이다. 10대시기 특성은 성장환경과 경험(일반/긍정, 부정, 정책수혜 경험)으로 구성하였다. 최종 분석모델에 포함할 설명변수는 단계적 선택 방법(stepwise selection)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된 변수의 수가 분석모델의 설명력을 높지 않으면서 너무 많아 모두 반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술통계과정에서 차이검증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이면서, 현재시점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10대시기 성장환경, 일반/긍정경험, 부정경험, 정책수혜경험 각각의 실증분석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를 중심으로 최종 분석모델에 투입될 설명변수를 확정하였다.

최종 확정된 설명변수들의 변수 형태를 살펴보면, 먼저 현재 특성인 분석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경우, 성별(남/여)과 거주지역(서울, 광역시, 도), 현재상태(대학(원)재학, 취업자, 무직자), 혼인상태(기혼/미혼)가 가변수 형태로, 연령과 0~10점으로 측정된 7가지 각 행복요인이 연속변수로 투입되었다. 10대시기 성장환경 특성은 부모이혼경험(있음, 없음)와 지지자 유무(있음, 없음)가 가변수로, 5점 척도(1.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5.매우 만족스러웠다)로 측정된 10대시기 전반 만족도가 연속변수로 분석되었다. 10대시기 일반/긍정경험 특성은 가족여행경험(있음, 없음), 해외교육/연수경험(있음, 없음), 팬텀활동경험(있음, 없음), 교내·외활동경험(있음, 없음)이 모두 가변수로 투입되었으며, 부정경험은 이보다 많은 2가지의 가족에서의 경험(가족문제로 학업중단경험, 가족의 정서학대경험), 4가지 학교에서의 경험(왕따경험, 신체폭력경험, 성추행/성폭행경험, 징계받은경험), 그리고 3가지 사회에서의 경험(술, 담배, 약물 중독경험, 게임과몰입/중독경험, 우울감/자살 충동경험)이 모두 유무(있음, 없음)로 측정된 가변수로 분석되었다. 10대시기 4가지의 정책수혜 경험(심리상담, 진로상담, 취업지원, 문화예술지원) 또한 동일한 방식의 유무(있음, 없음)의 가변수로 분석되었다.¹⁸⁾

이들 분석 변수의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모두 10 이하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는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분석에 투입하였다. 투입된 변수는 <표 IV-6>에 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기초통계량은 <표 IV-7>과 같다.

18) 아래 바' 표기된 것이 준거집단

표 IV-6. 실증분석 변수 유형

	변수	측정 척도 및 준거집단	변수 유형
종속 변수	주관적웰빙	삶의만족도+부정정서+긍정정서 총합	연속변수
	- 삶의만족도		
	- 부정정서	0점~10점	연속변수
	- 긍정정서		
설명 변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여성	가변수
	연령	만나이	연속변수
	거주지역	서울, (광역시), 도	가변수
	현재상태	(대학(원)생), 취업자, 무직자	가변수
	최종학력	교육년수	연속변수
	혼인상태	(기준), 미혼	가변수
	행복요인_재산 및 경제력		
	행복요인_화목한 가정		
	행복요인_하고자하는 것 이루기		
	행복요인_건강	0점~10점	연속변수
	행복요인_삶에 대한 긍정태도		
	행복요인_위라벨		
	행복요인_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10대시기 성장환경>		
	부모이혼경험	있음, (없음)	가변수
	지지자 유무		
	10대시기 전반 만족도	1.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5. 매우 만족스러웠다	연속변수
	<10대시기 일반/긍정경험>		
	가족과 여행		
해외교육/연수	있음, (없음)	가변수	
팬덤활동			
교내외활동			
<10대시기 부정경험>			
가족문제로 학업중단 경험			
가족의 정서학대 경험			
학교 왕따경험 경험			
학교 신체폭력 경험			
학교 성추행/성폭행 경험	있음, (없음)	가변수	
학교 징계받음 경험			
술, 담배, 약물 중독 경험			
게임과몰입/중독 경험			
우울감/자살충동 경험			
<10대시기 정책지원 수혜경험>			
심리상담 경험			
진로상담 경험	있음, (없음)	가변수	
취업지원 경험			
문화예술지원 경험			

표 IV-7. 실증분석변수 기초 통계량

(n=1,220)

	변수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구성비
종속 변수	주관적웰빙				100.0
	- 삶의만족도	5.25(2.52)	0	10	
	- 부정정서	5.09(2.37)	0.00	10	
	- 긍정정서	5.90(2.48)	0.00	10	
설명 변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	1.48(0.50)	1	2	
	남성				51.9
	여성				48.1
	연령	26.71(4.54)	19	34	
	19세 ~ 24세				34.9
	25세 ~ 29세				33.4
	30세 ~ 34세				31.6
	거주지역	2.19(0.84)	1	4	
	서울				27.3
	광역시				26.5
	도				46.2
	현재상태	1.93(0.65)	1	5	
	대학(원)생				24.8
	취업자				56.9
	무직자				18.3
	최종학력	1.88(0.93)	1	6	
	고졸				49.4
	2~3년제 졸업				13.1
	4년제 대학졸업				37.5
	혼인상태	1.16(0.37)	1	3	
	미혼				83.7
	기혼				16.3
행복요인_재산 및 경제력	8.07(1.97)	0	10	100.0	
행복요인_화목한 가정	8.15(2.09)	0	10	100.0	
행복요인_하고자하는 것 이루기	7.90(2.03)	0	10	100.0	
행복요인_건강	8.53(1.94)	0	10	100.0	
행복요인_삶에 대한 긍정태도	7.64(2.11)	0	10	100.0	
행복요인_위라벨	7.62(2.10)	0	10	100.0	
행복요인_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7.57(2.08)	0	10	100.0	
(10대시기 성장환경)					
부모이혼경험	1.84(0.37)	1	2		
경험 있음				16.5	
경험 없음				83.5	
지지가 유무	1.22(0.41)	1	2		
경험 있음				78.4	
경험 없음				21.6	
10대시기 전반 만족도	2.97(1.13)	1	5	100.0	

변수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구성비
<10대시기 일반/긍정경험>				
가족과 여행 경험 있음	1.22(0.42)	1	2	77.8
경험 없음				22.2
해외교육/연수 경험 있음	1.88(0.33)	1	2	12.1
경험 없음				87.9
팬덤활동 경험 있음	1.69(0.46)	1	2	31.5
경험 없음				68.5
교내·외활동 경험 있음	1.36(0.48)	1	2	64.3
경험 없음				35.7
<10대시기 부정경험>				
가족문제로 학업중단 경험 경험 있음	1.93(0.25)	1	2	6.7
경험 없음				93.3
가족의 정서학대 경험 경험 있음	1.73(0.44)	1	2	26.6
경험 없음				73.4
학교_왕따경험 경험 경험 있음	1.60(0.49)	1	2	39.5
경험 없음				60.5
학교_신체폭력 경험 경험 있음	1.83(0.37)	1	2	16.6
경험 없음				83.4
학교_성추행/성폭행 경험 경험 있음	1.97(0.17)	1	2	3.1
경험 없음				96.9
학교_징계받음 경험 경험 있음	1.89(0.31)	1	2	10.7
경험 없음				89.3
술, 담배, 약물 중독 경험 경험 있음	1.84(0.36)	1	2	15.7
경험 없음				84.3
게임과몰입/중독 경험 경험 있음	1.73(0.44)	1	2	26.8
경험 없음				73.2
우울감/자살충동 경험 경험 있음	1.65(0.48)	1	2	34.8
경험 없음				65.2
<10대시기 정책지원 수혜경험>				
심리상담 경험 경험 있음	1.85(0.36)	1	2	15.2
경험 없음				84.8

변수	평균(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구성비
진로상담 경험	1.44(0.50)	1	2	
경험 있음				55.7
경험 없음				44.3
취업지원 경험	1.86(0.35)	1	2	
경험 있음				14.2
경험 없음				85.8
문화예술지원 경험	1.88(0.33)	1	2	
경험 있음				12.0
경험 없음				88.0

* 주: 경험 유무에 대한 변수에서 “1 = 있다, 2 = 없다”

2.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 경험 분석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응답자 총 1,220명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평균 연령 27.2세로 남성이 51.9%를 차지하고, 도 지역에서 무직자의 비율이 서울이나 광역시에 비해 5%p 높음. 기혼자의 비중은 전체의 16.3%이고 월평균 소득은 244.99만원이며, 행복요인으로 건강(8.5점)을 가장 높게 평가함.
- 자신의 10대시기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2.97/5점이고, 응답자 중 19세-24세 연령대 청년이 평균 3.13/5점으로 25세 이상 청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10대시기 전반에 대한 평가 수준이 높음.
- 10대시기 부정경험 중 가족관련 경험 중에는 정서학대(26.6%), 학교관련 경험에서는 왕따(39.5%), 사회 및 교차(cross-cutting) 경험에서는 깊은 우울 및 자살충동(34.8%)이 각 환경영역에서 가장 높은 경험율로 나타남.
- 10대시기 5가지 지원정책 중 정책수혜율이 가장 높은 것은 진로상담으로 55.7% 수준임.

1) 분석대상자 특성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 1,220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의 51.9%가 남성이고, 성별 비중은 현재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어 취업자의 경우 남성(57.3%)의 비율이 높지만, 대학(원)생(50.5%)과 무직자(61.9%)의 경우 여성의 비율이 높다.

평균 연령은 27.24로, 취업자의 평균연령(29.11세)이 가장 높다. 거주 지역에 따라 비교해 보면, 대학(원)생이나 취업자 비중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무직자 비중은 도 지역이 서울이나 광역시에 비해 5%p 가량 높은 수준을 보인다. 무직자의 비중은 고졸이하의 학력(61.9%)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거주 지역의 무직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고려해 볼 때, 도 지역에 거주하는 고졸이하 무직자가 비중이 높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체적으로 기혼자의 비중은 16.3%이고, 평균 연령이 높은 취업자 집단에서의 기혼자 비중은 21.3%로 높으며, 동시에 취업자 집단은 1인 가구의 비중(30.3%)도

전체 평균(22.5%)을 크게 상회한다. 전체 응답 대상자의 월평균 소득은 224.99만원이고, 취업자는 이보다 높은 299.48만원이다.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함께 설문조사 응답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행복요인 7가지에 대한 주관적 중요도(0점~10점)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건강'에 대한 중요도가 8.5점으로 가장 높고, '화목한 가정'과 '재산 및 경제력'의 중요도 점수가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로 나타난다.

표 IV-8. 분석 대상자 특성

(단위: 명, %, 점)

특성		전체 1,220 (100.0)	하위집단(현재 상태)		
			대학(원)생 303(24.8)	취업자 694(56.8)	무직자 223(20.8)
			303(100.0)	694(100.0)	223(100.0)
성별	남성	633 (51.9)	150(49.5)	398(57.3)	85(38.1)
	여성	587 (48.1)	153(50.5)	296(42.7)	138(61.9)
연령	19~24세	426 (34.9)	252(83.2)	107(15.4)	67(30.0)
	25~29세	408 (33.4)	45(14.9)	284(40.9)	79(35.4)
	30~34세	386 (31.6)	6(2.0)	303(43.7)	77(34.5)
	평균 연령(편차)	27.24 (4.55)	22.62(2.84)	29.11(3.67)	27.68(4.52)
거주 지역	서울	333 (27.3)	88(29.0)	194(28.0)	51(22.9)
	광역시	323 (26.5)	77(25.4)	185(26.8)	60(26.9)
	도	564 (46.2)	138(45.5)	314(45.2)	112(50.2)
최종 학력	고졸이하	603 (49.4)	240(79.2)	225(32.4)	138(61.9)
	2,3년제졸업	160 (13.1)	13(4.3)	119(17.1)	28(12.6)
	4년제대학졸업	157 (37.5)	50(16.5)	350(50.4)	57(25.6)
	평균 교육년수(편차)	13.76(2.02)	12.77(1.54)	14.40(1.96)	13.12(2.03)
혼인 상태	미혼	1,021 (83.7)	295(97.4)	546(78.7)	180(80.7)
	기혼	199 (16.3)	8(2.6)	148(21.3)	43(19.3)
1인 가구	해당	274 (22.5)	40(13.2)	210(30.3)	24(10.8)
	비해당	946 (77.5)	263(86.8)	484(69.7)	199(89.2)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609 (49.9)	221(72.9)	204(29.4)	184(82.5)
	200만원~300만원 미만	236 (19.3)	16(5.3)	210(30.3)	10(4.5)
	300만원~400만원 미만	164 (13.4)	20(6.6)	131(18.9)	13(5.8)
	400만원 이상	211 (17.3)	46(15.2)	149(21.5)	16(7.2)
	평균 월소득(편차)	224.99(199.45)	152.08(216.74)	299.48(166.40)	92.25(160.60)
행복 요인	재산 및 경제력	8.10(1.97)	7.96(1.97)	8.13(1.94)	8.03(2.09)
	화목한 가정	8.10(2.10)	8.18(2.04)	8.13(2.07)	8.18(2.24)
	하고자 하는 것 이루기	7.90(2.02)	8.13(1.91)	7.82(2.01)	7.83(2.22)
	건강	8.50(1.94)	8.50(1.95)	8.55(1.92)	8.50(2.01)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7.60(2.10)	7.71(2.03)	7.65(2.11)	7.53(2.21)
	일/학업과 생활 균형	7.60(2.10)	7.62(2.20)	7.68(2.01)	7.45(2.20)
	타인과 원만한 관계	7.60(2.08)	7.72(2.07)	7.60(1.98)	7.28(2.37)

2)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 경험

(1) 성장환경 경험 및 특성에 따른 차이

앞서 살펴본 대상자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어서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의 성장환경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10대시기 성장환경으로 측정한 8가지 사항(① 성장한 지역에서 현재 거주, ② 지지자 존재, ③ 정기적으로 용돈 받은 경험, ④ 정규학교 졸업 외 고교학력 취득, ⑤ 기초생활보장 수급경험, ⑥ 부모이혼경험, ⑦ 부모죽음경험, ⑧ 보호시설 거주 경험)에 대한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IV-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경험율이 보편적으로 높은 세 가지 항목과 그렇지 않은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구분된다.

현재 10대시기에 성장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79.1%로 경험율이 가장 높고, 78.4%가 10대시기 지지자가 존재했으며, 68.4%가 정기적으로 용돈 받은 경험이 있다. 이들 세 가지 경험은 절반 이상의 높은 경험율을 보이는 항목이다. 이와는 달리, 다수가 경험하지 않는 항목들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경험의 비율이 22.1%이고, 부모이혼 경험자가 16.5%, 정규학교 졸업 외 고교학력 취득자가 6.7%, 부모죽음 경험자가 5.2%, 보호시설 거주 경험자가 3.7%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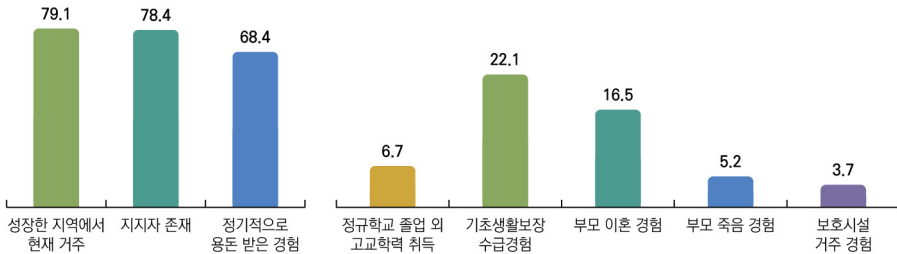


그림 IV-4. 10대시기 성장환경 각 특성 유경험 비율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들 8가지 항목의 유경험 비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검증(χ^2 -test)을 실시한 결과 몇 가지 특성에 따라 10대시기 성장환경 각 특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IV-5] 및 이하 그림 자료들은 보고서 지면 할애를 고려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특성의 결과들만을 추려 그래프로 제시한 것이다.

우선 10대시기 성장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현재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현재 도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 10대시기 성장했던 지역에서 살고 있는 비율이 85.3%로 서울(73.6%)이나 광역시(78.9%)에 비해 높다. 두 번째 10대시기 지지자가 존재 했던 비율은 연령과 현재 상태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연령대의 경우 30대(17.8%)를 기점으로 20대와 차이를 보이고, 현재 상태에 따라서는 무직자(61.4%)가 대학(원)생(88.1%)나 취업자(79.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다. 무직자의 경험률이 낮은 것은 10대시기 정기적으로 용돈 받은 경험에서도 가장 낮은 비율(58.7%)을 보인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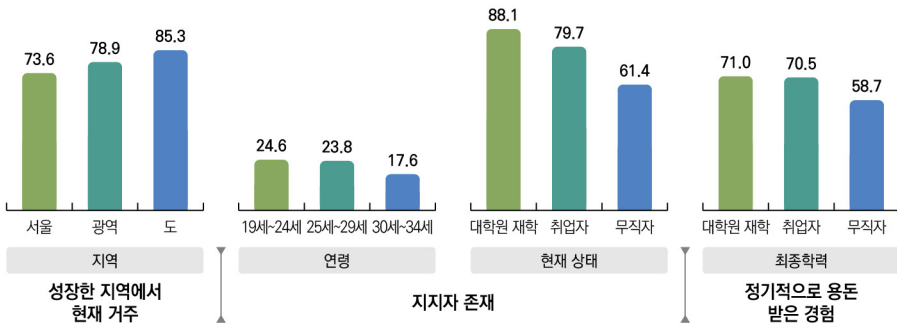


그림 IV-5.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 성장환경 각 특성 유경험 비율 차이(1)

다음으로 10대시기 취약한 성장환경과 관련된 항목들을 살펴보면, 정규학교 졸업 외 고교학력 취득 유경험은 대상자의 최종학력수준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 즉 4년제 대학졸업자의 정규학교 이외 고교학력 취득 경험 비율(3.1%)이 고졸(9.0%)이나 20-3년제 대학졸업(8.8%)에 비해 현격하게 낮다. 이는 정규학교 이외 검정고시 등을 통한 고교 학력 취득자의 경우 4년제 대학과 같이 고등교육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10대시기 기초생활보장수급 경험 비율은 연령대, 즉 30대를 경계로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19세-24세(24.6%)나 25세-29세(23.8%)의 수급경험 비율은 큰 차이가 없지만, 30대는 17.6%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소득 및 자산 양극화에 따라 빈곤계층의 증가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정비되어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0대 청년들보다 20대 청년들 중 수급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또 10대시기 보호시설

거주 경험의 경우, 현재 1인 가구 청년들 중 경험 비율(6.6%)이 1인 가구가 아닌 청년들의 경험 비율(2.9%)의 2배 정도 높다. 이는 10대시기 보호시설에서 거주했던 청소년들이 시설 퇴소와 함께 1인 가구 청년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높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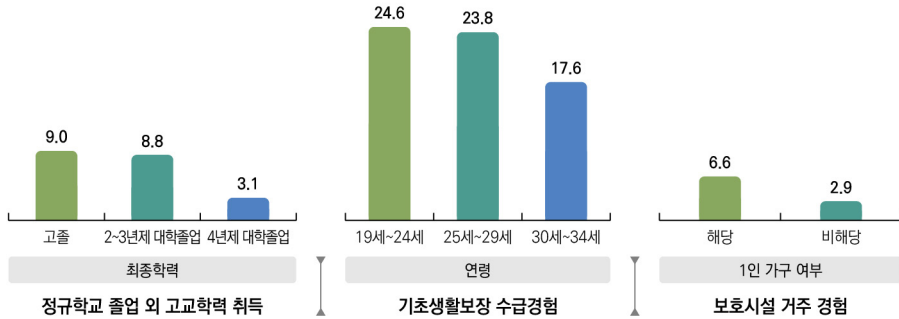


그림 IV-6.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 성장환경 각 특성 유경험 비율 차이(2)

한편, 부모와 관련한 10대시기 성장환경 특성인 부모이혼 경험과 부모죽음 경험 비율이 대상자의 어떤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이혼 경험은 경험시기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부모죽음 경험 또한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이혼 경험은 유경험자들 중에서도 어느 시기에 경험을 하였느냐는 경험 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초등학교시기에 부모이혼 경험율(9.7%)이 중학교시기(4.3%)나 고등학교시기(2.5%)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생애 이른 시기부터 불안정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이들의 비중이 사춘기시기에 경험한 이들에 비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모이혼 경험율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서울(10.1%)에 비해 광역시(18.4%)나 도 지역(18.8%)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도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10대시기 부모죽음 경험율(7.1%)도 서울(3.9%)이나 광역시(3.4%)에 비해 눈에 띄는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 도 지역에 거주하는 19세-34세 청년들이 10대시기 부모이혼이나 죽음으로 인해 빚어지는 부정경험에 노출되거나 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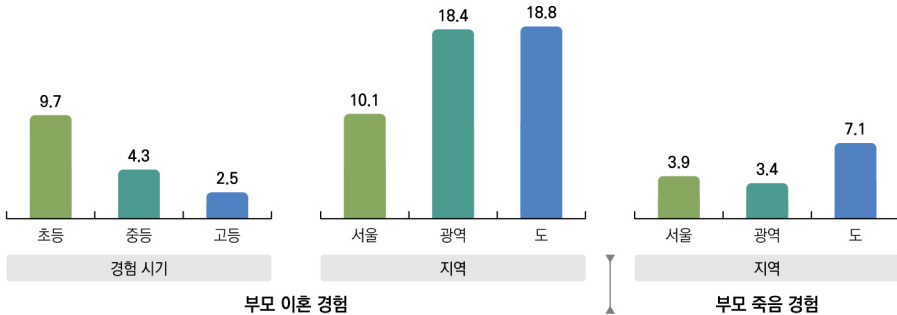


그림 IV-7.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 성장환경 각 특성 유경험 비율 차이(3)

이상에서 살펴본 10대시기 성장환경의 특성과 더불어 청년들은 자신의 10대시기 전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함께 대상자 특성에 따른 차이검증(GLM-test)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검증 결과 연령대에 따라 10대시기 전반 만족도 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5점 척도(1.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5.매우 만족스러웠다)로 측정된 10대시기 전반 만족도의 전체 평균은 2.97인데, 19세-24세는 평균보다 높은 3.13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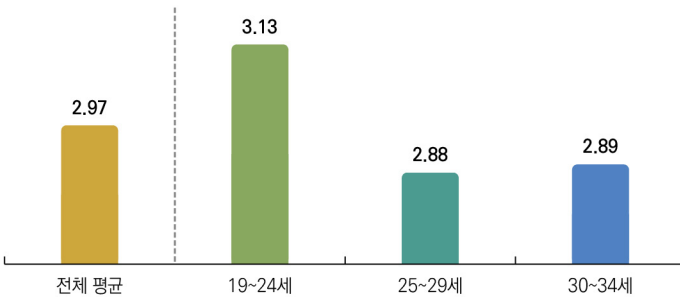


그림 IV-8. 10대시기 전반 만족도

(2) 일반/긍정과 부정경험 및 특성에 따른 차이

① 일반/긍정 경험 비율 및 특성에 따른 차이

10대시기 성장환경 특성에 이어 여기에서는 5가지 항목(①가족과 여행, ②가족외 사람

들과 여행, ③해외연수, ④팬덤활동, ⑤교내외활동)으로 측정한 10대시기 일반/긍정경험의 경험 비율을 살펴보고, 같은 방식으로 대상자 특성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만을 추려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먼저, 10대시기 절반이상의 경험율을 보이는 것은 세 가지 항목으로 ‘가족과 1박 이상 여행’ 경험 비율이 77.8%로 가장 높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1박 이상 여행한 경험율로 71.0%로 높고, 교내외 활동경험도 64.3%를 보인다. 이들 항목과는 달리 경험율이 낮은 것은 10대시기 팬덤활동 경험(31.5%)과 해외연수 경험(12.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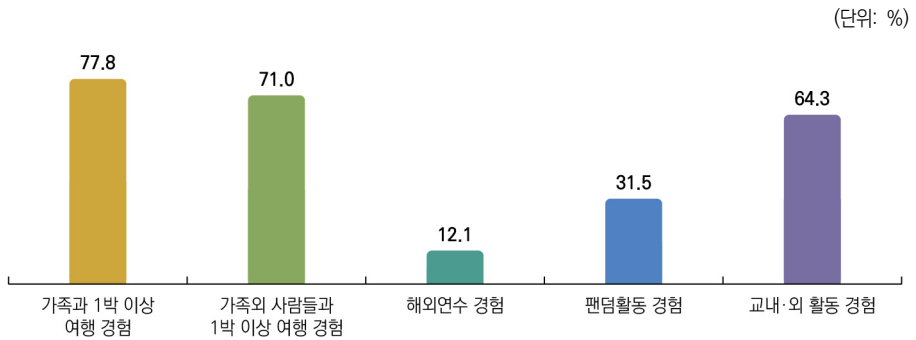


그림 IV-9. 10대시기 일반/긍정 각 경험별 유경험 비율

이들 5가지 항목의 10대시기 일반/긍정의 경험이 대상자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한 결과, 가족과 1박 이상 여행한 경험은 응답 대상자의 현재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원)생이 86.8%로 가장 높은 경험율을 보이고 그 다음 취업자(78.2%)와 무직자(64.1%)순인데, 무직자와 대학(원)생의 경험율 차이는 상당하다. 이는 가족과의 여행 경험이 10대시기 성장환경의 안정성을 대리할 수 있는 특성이라고 한다면, 현재 무직상태에 있는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10대시기 안정적인 가족환경에 있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석될 수 있다.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1박 이상 여행한 경험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래 [그림 IV-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대와 30대에 아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30대 청년들의 10대시기와 20대 청년들이

성장할 당시에 주어진 제도적 기회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10대시기 해외연수 경험은 대상자의 학력수준과 현재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의 경험율이 17.5%인데 반해, 2-3년제 대학졸업자(8.1%)나 고졸자(9.1%)의 경우 절반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상태에 따라서도 대학(원)생의 경험율이 17.2%로 무직자(6.3%)의 2.7배에 달하는 것으로 큰 격차를 보인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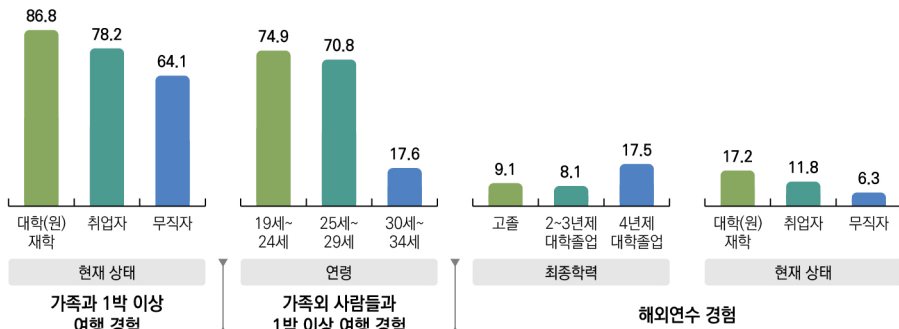


그림 IV-10.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 긍정/일반 경험 비율 차이(1)

이들 경험 외, 10대시기 팬덤활동이나 교내외 활동 경험에 있어서도 대상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팬덤활동의 경우 응답 대상자의 성별과 1인 가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성별로는 여성의 경험 비율(44.5%)이 남성(19.4%)에 비해 2.3배가량 높고, 1인 가구 여부에 따라서는 1인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이들(33.2%)이 해당자(25.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교내외 활동 경험도 연령대 및 현재 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연령대의 경우 25세-29세 집단(60.0%)과 30세-34세 집단(57.3%) 간의 교내외 활동 유경험 비율이 그다지 크지 않으나, 이들 연령집단과 19세-24세 연령대와(74.9%)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상태에 따라서도 대학(원)생(73.3%)과 취업자(64.0%), 무직자(53.4%)의 비율 간에도 차이가 작지 않다. 대학(원)생의 평균연령이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청년층 내에서도 최근 고등학교를 졸업한 세대가 그 이전 세대에 비해 교내외 활동 기회와 경험의 비율이 확연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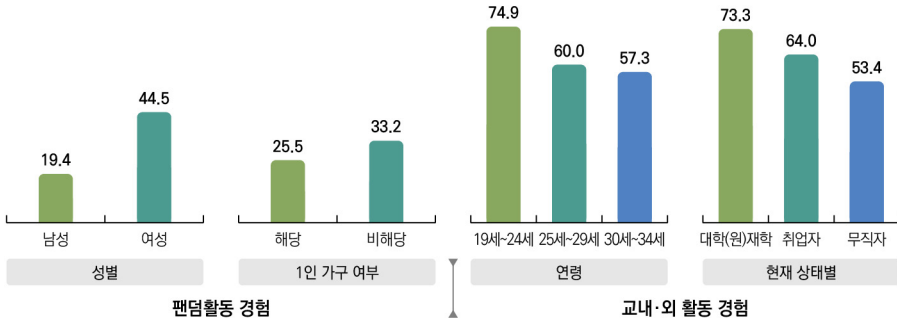


그림 IV-11.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 긍정/일반 경험 비율 차이(2)

② 부정경험 비율 및 특성에 따른 차이 :

5가지 항목(①가족문제로 학업중단 경험, ②하루 이상 가출경험, ③(조)부모 돌봄경험, ④부채상속/상환경험, ⑤가족의 정서학대경험)으로 측정된 10대시기 가족환경에서 경험했던 부정적인 경험을 살펴보면, 가족으로부터 정서학대 경험율(26.6%)이 가장 높다. 하루 이상 가출했던 경험은 14.4%, 부모나 조부모 돌봄경험 비율도 7.6%이고 가족문제로 학업 중단한 경험도 6.7%이며, 부모나 조부모의 부채상속 경험율은 3.5% 정도이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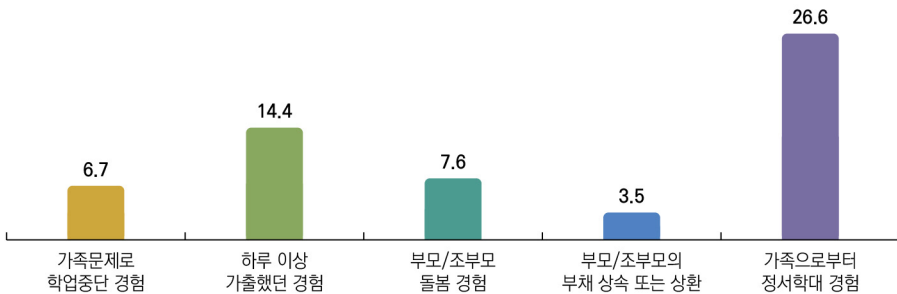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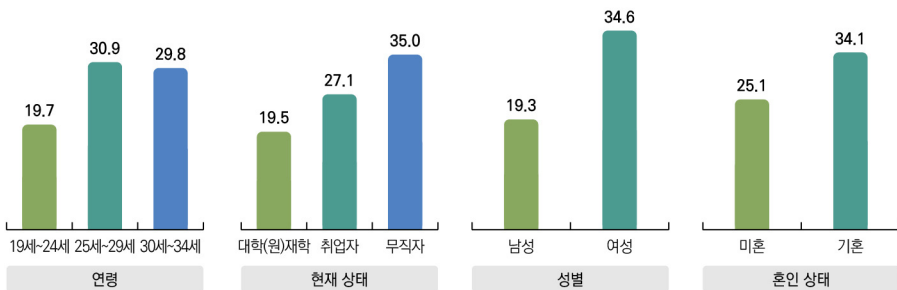


그림 IV-12. 10대시기 가족관련 부정경험 비율

가장 높은 경험율을 보이는 가족으로부터의 정서학대 경험율을 대상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연령과 현재 상태 그리고 성별과 혼인상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별로는 25세를 기점으로 19세-24세

연령대(19.7%)와 25세-29세 연령대의 경험율(30.9%) 차이가 크게 나타나며, 25세-29세 연령대와 30세-34세 연령대의 경험율(29.8%)은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대의 높은 정서학대 경험은 연령이 높은 기혼자(34.1%)에서도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현재 상태별로는 무직자(35.0%)가 취업자(27.1%)나 대학(원)생(19.5%)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성별에 있어서도 여성(34.6%)이 남성(19.3%)보다 크게 높다. 이는 현재 25세 이상 무직상태에 있는 여성 청년이 10대시기 가족으로부터 정서학대 경험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 %)



가족으로부터 정서학대 경험

그림 IV-13.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 가족관련 부정경험 비율 차이

③ 부정 경험 비율 및 특성에 따른 차이 : 학교 경험

가족환경에서의 부정경험에 이어 학교생활에서의 부정경험율도 6가지 항목(①따돌림(왕따)경험, ②신체폭력경험, ③성추행/성폭행피해경험, ④친구/교사로 인한 학업중단경험, ⑤징계경험, ⑥괴롭힘 가해경험)으로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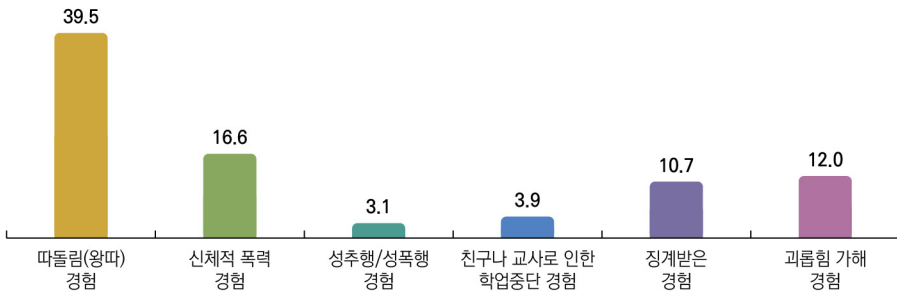


그림 IV-14. 10대시기 학교관련 부정경험 비율

측정된 10대시기 학교생활에서 경험했던 부정적인 경험을 살펴보면, 따돌림(왕따) 경험(39.5%)로 압도적으로 높은 경험율을 보인다. 신체폭력은 이보다 낮은 16.6%, 괴롭힘 가해 경험은 12.0%, 징계 받은 경험은 10.7%로 이들 항목은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그 외 학업중단(3.9%)과 성추행/성폭행피해경험(3.1%)로 낮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험율을 보이는 따돌림(왕따)경험과 신체폭력 경험율은 공통적으로 성별과 현재 상태의 대상자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따돌림(왕따) 경험의 경우 여성(48.4%)과 무직자(51.1%)의 경험율이 비교집단을 크게 상회하며, 신체폭력의 경우 남성(22.3%)과 무직자(20.2%)가 여성(10.4%)이나 대학(원)생(10.2%)의 경험율과 큰 차이가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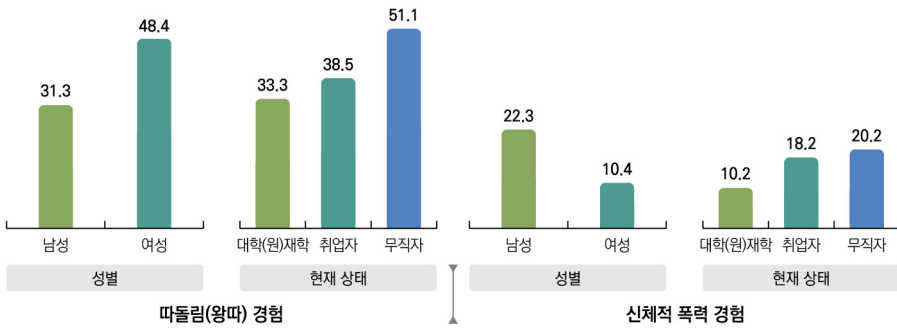


그림 IV-15.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 학교관련 부정경험 비율 차이

④ 부정 경험 비율 및 특성에 따른 차이: 사회 및 교차(cross-cutting) 경험

가족환경과 학교생활에 이어 사회 및 10대시기 교차 경험에 대해서도 7가지 항목(①가족이나 학교와 무관한 성인으로부터 신체폭력피해경험, ②가족이나 학교와 무관한 성인으로부터 성추행/성폭력피해경험, ③가족이나 학교와 무관한 성인으로부터 사기피해경험, ④도박중독경험, ⑤술/담배/약물 중독경험, ⑥게이과몰입(중독) 경험, ⑦깊은 우울감/자살충동경험)의 경험율을 비교하였다.

10대시기 깊은 우울감이나 자살충동 경험율(34.8%)이 가장 높고, 게임과몰입(중독) 경험율(26.8%)과 술/담배/약물 중독경험율(15.7%)이 그 다음 순위로 높다. 그 외 항목은 3%~5% 내외 수준의 경험율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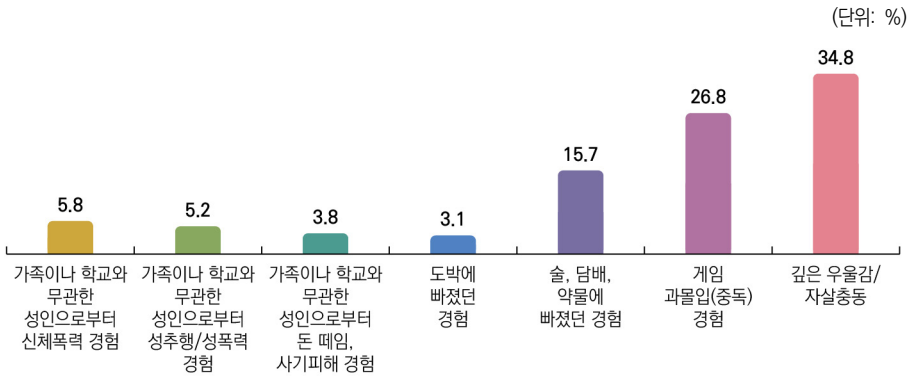


그림 IV-16. 10대시기 사회관련 부정경험 비율

가장 높은 경험율을 보이는 10대시기 깊은 우울감이나 자살충동 경험율은 대상자 특성 중 성별과 최종학력, 그리고 현재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성별의 경우 여성의 경험율(44.8%)이 남성(25.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최종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자(40.6%)가 2-3년제 대졸자(30.0%)나 4년제 대졸자(28.7%)에 비해 높으며, 무직자(47.1%)가 대학(원)생(33.7%)이나 취업자(31.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경험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 중 현재 무직상태의 고졸 여성 청년들이 10대시기 깊은 우울감이나 자살충동의 경험율이 높고, 이들이 취약한 정신건강 고위험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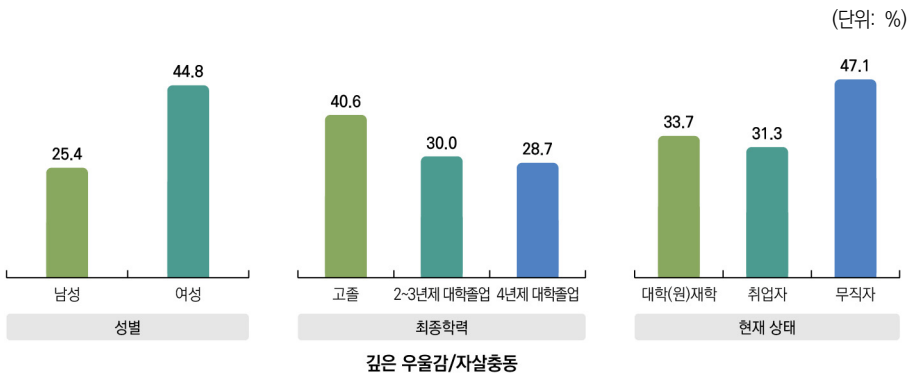


그림 IV-17. 대상자 특성별 10대시기 사회 및 교차경험 관련 부정경험 비율 차이

(3) 10대시기 정책수혜 경험 및 특성에 따른 차이

10대시기 성장환경 경험에 이어 여기에서는 정부의 정책지원을 5가지(①진로상담지원, ②학업지원, ③심리상담지원, ④취업지원, ⑤문화예술지원)로 구성하고 이에 대한 경험을 비교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5.7%가 10대시기 진로상담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학업지원(25.7%), 심리상담 지원(15.2%), 취업 지원(14.2%), 문화예술지원(12.0%)의 순으로 지원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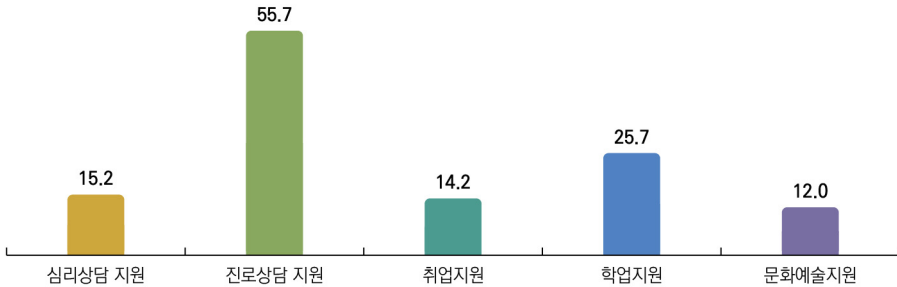


그림 IV-18. 10대시기 5가지 정책지원 수혜 경험 비율

이를 대상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5가지 정책지원이 모두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대체로 25세를 기점으로 19세-24세 후기청소년이자 20대 초반 청년들과 25세 이상 청년들 사이에 정책수혜 경험율에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25세-29세와 30세-34세 청년들 사이의 차이는 있더라도 그다지 크지 않다. 이는 후기청소년 세대가 제도의 확대발전으로 그 이전 세대에 비해 정책지원 수혜율이 높음을 의미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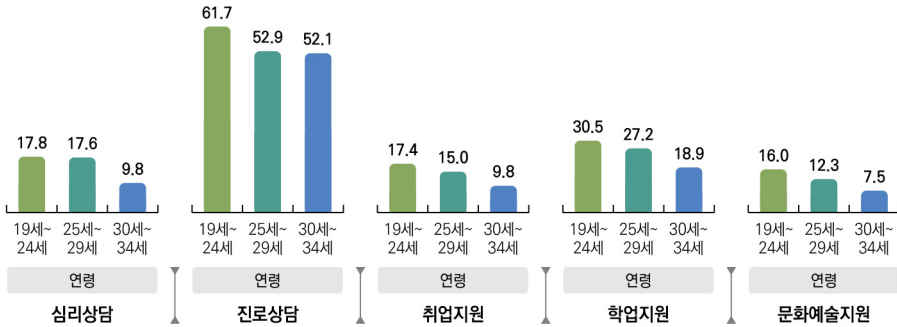


그림 IV-19. 연령별 10대시기 정책지원별 수혜 경험율 차이

10대시기 성장환경 특성에 따라서도 5가지 정책지원의 경험율을 비교해보면, 대체로 절대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 유경험자의 경험율이 전반적으로 높는데, 특히 심리상담지원과 취업지원, 학업지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험율을 보인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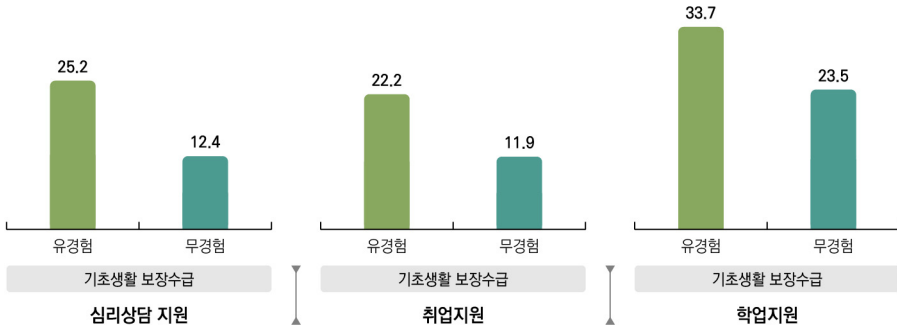


그림 IV-20. 10대시기 기초생활보장수급 유경험자의 정책지원 수혜율

3. 대상자 특성별 주관적웰빙 수준 비교 및 영향 요인 분석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대상자 특성을 비롯하여 10대시기 성장환경 특성 및 경험 유무에 따라 주관적웰빙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증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Robust OLS 모델로 실증 분석하였음.
- 실증모델 분석 결과, 전체 집단 및 하위집단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세 가지로 ①행복에 삶에 대한 긍정태도의 중요성과 ②10대시기 전반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웰빙 수준이 높고, 10대시기 우울감이나 자살충동 유경험의 경우 무경험에 비해 주관적웰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공통요인 이외, 미혼, 행복에 재산 및 경력력의 중요도, 10대시기 게임과몰입(중독) 유경험이 부(-)의 영향을, 행복에 건강의 중요도, 10대시기 가족과여행 유경험, 문화예술지원 유경험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특성별로 나누어 본 하위집단 분석 결과에 따른 영향요인은 전체집단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변수들 이외, 전체 집단 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특성이 요인으로 발견되었음.

1) 특성별 주관적웰빙 수준 비교

(1) 대상자 및 성장환경 특성별 주관적웰빙 수준의 차이 비교

앞서 살펴본 10대시기 성장환경 및 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응답 대상자인 19세-34세 청년들의 주관적웰빙 수준을 특성에 따라 비교하고,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10대시기 경험 특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의 주관적웰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실증 모델 분석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한다.

먼저, 0점~10점으로 측정된 주관적웰빙 점수의 전체 평균은 5.77점이다. 이 점수가 대상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표 IV-9>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다섯 가지 특성(①성별, ②현재 상태, ③최종학력, ④혼인상태, ⑤월평균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성별의 경우 남성(5.92점)이 여성(5.61점)보다 높고, 대학(원)생(6.02점)이 취업자(5.89점)이나 무직자(5.14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또한 최종학력수준에 있어서도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웰빙 점수가 높아 3가지 범주의 최종학력 중 4년제 대졸자(6.00)의 점수가 가장 높고, 혼인상태에 따라서는 기혼(6.08점)이 미혼(5.71점)에 비해 점수가 높다. 한편 월평균 소득의 경우, 월 300만원~400만원 미만 수준의 소득 집단(6.10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표 IV-9. 대상자 특성별 주관적웰빙 수준 : 차이검증

(단위 : 점)

구분	주관적웰빙	삶의만족도	부정정서	긍정정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77(2.09)	5.25(2.52)	5.09(2.37)	5.90(2.48)	
성별	남성	5.92(2.01)	5.46(2.45)	4.95(2.30)	6.02(2.44)
	여성	5.61(2.15)	5.03(2.57)	5.24(2.42)	5.77(2.51)
	t-test	2.616**	3.042**	-2.177*	1.756
연령	19~24세	5.91(2.14)	5.38(2.55)	4.95(2.50)	6.06(2.51)
	25~29세	5.66(2.11)	5.21(2.59)	5.24(2.39)	5.79(2.53)
	30~34세	5.72(1.99)	5.16(2.40)	5.08(2.17)	5.83(2.37)
	GLM-test	1.701	.828	1.605	1.429
거주지역	서울	5.79(1.92)	5.34(2.34)	5.11(2.25)	5.94(2.34)
	광역시	5.97(2.10)	5.39(2.53)	4.88(2.40)	6.14(2.38)
	도	5.64(2.16)	5.13(2.61)	5.19(2.41)	5.74(2.60)
	GLM-test	2.601	1.321	1.187	2.807
현재상태	대학(원)재학	6.02(2.13)	5.49(2.52)	4.85(2.43)	6.23(2.44)
	취업자	5.86(2.01)	5.43(2.43)	5.02(2.30)	5.99(2.40)
	무직자	5.14(2.16)	4.39(2.61)	5.61(2.40)	5.18(2.64)
	GLM-test	13.250***	16.553***	7.387**	12.771***
최종학력	고졸이하	5.64(2.18)	4.99(2.57)	5.14(2.48)	5.69(2.60)
	2,3년제졸업	5.61(2.09)	5.16(2.56)	5.23(2.21)	5.71(2.62)
	4년제대학졸업	6.00(1.93)	5.63(2.38)	4.96(2.25)	6.24(2.20)
	GLM-test	4.586*	8.551***	1.091	6.931**
혼인상태	미혼	5.71(2.10)	5.16(2.54)	5.10(2.37)	5.78(2.50)
	기혼	6.08(2.00)	5.73(2.36)	5.01(2.35)	6.49(2.26)
	t-test	-2.337*	-2.948**	.520	-3.981***
1인가구 여부	해당	5.69(2.08)	5.28(2.47)	5.15(2.38)	5.72(2.43)
	비해당	5.79(2.09)	5.25(2.53)	5.07(2.36)	5.95(2.49)
	t-test	-.672	.228	.524	-1.369
월평균 소득	200만원 이하	5.58(2.11)	5.02(2.60)	5.22(2.38)	5.64(2.56)
	200만원~300만원미만	5.76(2.18)	5.19(2.43)	5.02(2.38)	5.86(2.50)
	300만원~400만원 미만	6.10(1.83)	5.71(2.34)	4.78(2.20)	6.16(2.11)
	400만원 이상	6.06(2.05)	5.63(2.42)	5.01(2.44)	6.49(2.36)
	GLM-test	4.356**	5.137**	1.684	6.892***

같은 방식으로 10대시기 성장환경 특성에 따른 현재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 여섯 가지 특성(①10대시기 거주 지역, ②고교학력 취득 방법, ③부모이혼 경험, ④지지자 존재 유무, ⑤보호시설 거주 경험, ⑥10대시기 전반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10. 10대시기 성장환경 특성별 주관적웰빙 수준 : 차이검증

(단위 : 점)

구분		주관적웰빙	삶의만족도	부정정서	긍정정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77(2.09)	5.25(2.52)	5.09(2.37)	5.90(2.48)
10대시기 거주지역	서울	5.78(1.85)	5.28(2.34)	5.13(2.16)	5.98(2.35)
	광역시	6.04(2.10)	5.52(2.50)	4.83(2.38)	6.22(2.41)
	도	5.62(2.17)	5.10(2.59)	5.20(2.45)	5.69(2.55)
	GLM-test	4.298*	3.049*	2.714	4.936**
고교학력 취득방법	고교졸업	5.82(2.07)	5.30(2.50)	5.04(2.34)	5.95(2.45)
	그 외	5.17(2.03)	4.78(2.66)	5.82(2.30)	5.34(2.60)
	t-test	2.691**	1.815	-2.875**	2.150*
기초생활보장 수급	경험 있음	5.71(2.3)	5.27(2.69)	5.24(2.57)	5.84(2.75)
	경험 없음	5.79(2.04)	5.25(2.47)	5.04(2.31)	5.91(2.39)
	t-test	-.549	.093	1.124	-.381
부모 이혼 경험	경험 있음	5.34(2.18)	4.92(2.54)	5.42(2.37)	5.26(2.63)
	경험 없음	5.88(2.04)	5.35(2.48)	5.00(2.34)	6.07(2.39)
	t-test	7.269***	4.017*	3.517*	11.560***
부모 죽음 경험	경험 있음	5.31(1.86)	5.09(2.39)	5.66(2.24)	5.28(2.55)
	경험 없음	5.79(2.10)	5.26(2.52)	5.06(2.37)	5.93(2.47)
	t-test	-1.799	-.524	1.979*	-2.054*
지지자 존재	경험 있음	6.03(1.99)	5.58(2.40)	4.90(2.31)	6.25(2.30)
	경험 없음	4.81(2.15)	4.05(2.57)	5.75(2.44)	4.63(2.66)
	t-test	8.635***	9.022***	-5.221***	9.004***
정기적 용돈 받은 경험	경험 있음	5.82(2.01)	5.31(2.46)	5.04(2.35)	5.97(2.37)
	경험 없음	5.54(2.14)	5.05(2.54)	5.29(2.34)	5.63(2.59)
	t-test	3.07*	1.542	2.108	3.230*

구분		주관적웰빙	삶의만족도	부정정서	긍정정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보호시설 거주 경험	경험 있음	5.42(2.30)	5.24(2.71)	5.66(2.69)	5.60(2.89)
	경험 없음	5.78(2.08)	5.25(2.51)	5.07(2.35)	5.91(2.46)
	t-test	-1.141	-.026	1.643	-.826
10대시기 전반 만족도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4.23(2.44)	3.53(2.86)	6.37(2.65)	3.94(3.01)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5.28(1.91)	4.75(2.45)	5.57(2.07)	5.43(2.45)
	보통이다	5.76(1.71)	5.24(2.02)	5.02(2.11)	5.78(2.03)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6.43(1.90)	5.92(2.34)	4.53(2.30)	6.77(2.06)
	매우 만족스러웠다	7.19(2.07)	7.05(2.47)	3.96(2.74)	7.49(2.19)
	GLM-test	49.335***	41.786***	25.541***	53.129***

가령 10대시기 광역시에 거주했던 청년의 주관적웰빙 점수(6.04점)가 서울 거주자(5.78점)이나 도 지역(5.62점)에 거주했던 이들에 비해 높고, 정규고등학교를 졸업자(5.82점)가 정규 학교 외 검정고시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학력을 취득한 경우(5.17점)에 비해 점수가 높다. 또 10대시기 부모이혼을 경험한 이들이(5.34점) 경험이 없는 경우(5.88점)에 비해 현재 주관적웰빙 점수가 낮지만, 지지자가 있던 이들(6.03점)과 정기적으로 용돈 받은 경험이 있었던 청년(5.82점)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주관적웰빙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10대시기 전반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의 주관적웰빙 수준도 높아,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평가하는 집단(7.19점)의 주관적웰빙 수준은 전체 평균(5.77점)을 크게 상회한다.

(2) 일반/긍정 경험 및 부정경험 유무별 주관적웰빙 수준 비교

① 10대시기 일반/긍정 경험에 따른 주관적웰빙 수준 차이 비교

일반/긍정 경험 5가지 중 가족여행 경험과 가족외 사람들과의 여행경험, 그리고 교내외 활동 경험에 따라 주관적웰빙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일반/긍정 경험 유무별 주관적웰빙 수준

(단위 : 점)

구분		주관적웰빙	삶의만족도	부정정서	긍정정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77(2.09)	5.25(2.52)	5.09(2.37)	5.90(2.48)
가족여행경험	경험 있음	5.97(2.02)	5.47(2.45)	4.92(2.34)	6.14(2.37)
	경험 없음	5.06(2.17)	4.49(2.60)	5.67(2.37)	5.04(2.65)
	t-test	6.437***	5.764***	-4.633***	6.584***
가족외 여행경험	경험 있음	5.85(2.04)	5.34(2.46)	5.04(2.34)	6.05(2.41)
	경험 없음	5.57(2.18)	5.03(2.65)	5.20(2.43)	5.54(2.59)
	t-test	2.145*	1.956	-1.056	3.231**
해외연수경험	경험 있음	6.03(1.82)	5.90(2.39)	5.32(2.35)	6.60(2.15)
	경험 없음	5.73(2.12)	5.17(2.52)	5.06(2.37)	5.80(2.50)
	t-test	1.824	3.338**	1.282	4.150***
팬덤활동경험	경험 있음	5.63(1.97)	5.16(2.52)	5.40(2.28)	5.97(2.43)
	경험 없음	5.83(2.14)	5.30(2.52)	4.94(2.39)	5.87(2.50)
	t-test	-1.584	-.920	3.111**	.690
교내외 활동 경험	경험 있음	5.94(2.00)	5.45(2.45)	4.99(2.34)	6.15(2.34)
	경험 없음	5.46(2.20)	4.90(2.60)	5.26(2.40)	5.44(2.64)
	t-test	3.893***	3.714***	-1.948	4.689***

가족여행 경험(5.97점)과 가족 외 여행경험이 있는 경우(5.85점)에 경험이 없는 경우(각 5.06점, 5.57점)에 비해 주관적웰빙 수준의 점수가 높고, 교내외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5.94점) 없는 이들(5.46점)에 비해 점수가 높다.

② 10대시기 가족관련 부정 경험에 따른 주관적웰빙 수준 차이 비교

가족관련 부정경험 따른 주관적웰빙 수준의 차이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10대시기 가족 관련 부정경험이 있을 경우 없는 이들에 비해 주관적웰빙 점수가 낮다. 특히 가족문제로 학업중단한 경험 유경험자(5.02점)이나 성추행/성폭행피해 경험 유경험자(5.07점)의 주관적웰빙 점수는 가장 낮은 점수에 위치한다. 가족으로부터 정서학대 경험

(5.13점)이나 부채상속 유경험(5.15점), 신체폭력피해 경험(5.21점)과 가출 경험(5.29점) 또한 전체 주관적웰빙 평균(5.77점)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IV-12. 부정 경험 유무별 주관적웰빙 수준 : 가족관련 경험

(단위 : 점)

구분		주관적웰빙	삶의만족도	부정정서	긍정정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77(2.09)	5.25(2.52)	5.09(2.37)	5.90(2.48)
가족문제로 학업중단	경험 있음	5.02(1.92)	5.07(2.60)	6.39(2.21)	5.50(2.65)
	경험 없음	5.82(2.09)	5.27(2.51)	4.99(2.35)	5.93(2.46)
	t-test	-3.378**	-.674	5.218***	-1.512
가출	경험 있음	5.29(2.13)	4.85(2.71)	5.59(2.43)	5.40(2.71)
	경험 없음	5.85(2.07)	5.32(2.48)	5.00(2.35)	5.98(2.43)
	t-test	-3.289**	-2.327*	3.063**	-2.880**
가족돌봄	경험 있음	5.39(2.03)	5.13(2.82)	5.74(2.43)	5.73(2.55)
	경험 없음	5.80(2.09)	5.26(2.49)	5.03(2.35)	5.91(2.47)
	t-test	-1.815	-.449	2.784**	-.681
부채상속/상환	경험 있음	5.15(2.20)	4.77(3.15)	5.84(2.58)	5.19(2.95)
	경험 없음	5.79(2.08)	5.27(2.49)	5.06(2.35)	5.93(2.45)
	t-test	-1.979*	-1.040	2.119*	-1.925
정서학대	경험 있음	5.13(2.17)	4.64(2.62)	5.77(2.33)	5.28(2.74)
	경험 없음	6.00(2.01)	5.48(2.44)	4.84(2.33)	6.12(2.34)
	t-test	-6.521***	-5.017***	6.186***	-4.945***
신체폭력	경험 있음	5.21(2.23)	4.70(2.70)	5.66(2.40)	5.31(2.72)
	경험 없음	5.95(2.01)	5.43(2.43)	4.90(2.33)	6.09(2.36)
	t-test	-5.087***	-4.138***	4.862***	-4.380***
성추행/성폭력	경험 있음	5.07(2.22)	4.71(2.57)	6.10(2.72)	5.56(2.65)
	경험 없음	5.79(2.08)	5.27(2.51)	5.05(2.35)	5.91(2.47)
	t-test	-2.181*	-1.416	2.789**	-.890

③ 10대시기 학교관련 부정 경험에 따른 주관적웰빙 수준 차이 비교

학교관련 부정경험에 따른 주관적웰빙 수준의 차이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여섯 가지 항목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10대시기 학교에

서의 부정경험 유무가 현재 삶의 주관적웰빙 수준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관적웰빙 점수로 측정되는 청년의 삶을 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10대시기 가정과 학교에서의 경험을 살펴야 적절한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는 학교 경험은 성추행/성폭행피해 경험(4.68점)이고, 평균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인다. 학교의 친구나 교사로 인한 학업중단 경험(5.00점)이 그 다음 순으로 낮다. 피해의 경험뿐만 아니라 징계(5.13점) 또는 괴롭힘 가해의 경험(5.19점)도 낮은 점수의 주관적웰빙 수준을 보인다. 학교에서의 부정경험 중 가장 높은 비율의 경험으로 나타난 따돌림(왕따) 경험(5.31점)과 신체폭력 경험(5.27점)도 평균보다 낮다.

표 IV-13. 부정 경험 유무별 주관적웰빙 수준 : 학교 경험

(단위 : 점)

구분		주관적웰빙	삶의만족도	부정정서	긍정정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77(2.09)	5.25(2.52)	5.09(2.37)	5.90(2.48)
따돌림(왕따)	경험 있음	5.31(2.19)	4.80(2.67)	5.56(2.42)	5.43(2.64)
	경험 없음	6.06(1.96)	5.55(2.37)	4.78(2.28)	6.20(2.31)
	t-test	-6.095***	5.036***	5.727***	-5.221***
신체폭력	경험 있음	5.27(2.26)	4.81(2.65)	5.55(2.50)	5.25(2.86)
	경험 없음	5.87(2.04)	5.34(2.48)	5.00(2.33)	6.03(2.37)
	t-test	-3.464**	-2.621**	3.033**	-3.614***
성추행/성폭력	경험 있음	4.68(2.54)	4.66(2.75)	6.42(2.51)	4.87(3.04)
	경험 없음	5.80(2.06)	5.27(2.51)	5.04(2.35)	5.93(2.45)
	t-test	-3.282**	-1.485	3.547***	-2.613**
친구/교사로 인한 학업중단	경험 있음	5.00(2.08)	4.53(2.35)	5.97(2.62)	5.09(2.73)
	경험 없음	5.80(2.08)	5.28(2.52)	5.05(2.35)	5.93(2.46)
	t-test	-2.576*	-2.009*	2.609**	-2.303*
징계	경험 있음	5.13(2.26)	4.52(2.70)	5.72(2.43)	5.31(2.88)
	경험 없음	5.84(2.05)	5.34(2.48)	5.01(2.35)	5.97(2.41)
	t-test	-3.719***	-3.331**	3.234**	-2.514*
괴롭힘 가해	경험 있음	5.19(2.29)	4.71(2.72)	5.65(2.42)	5.29(2.81)
	경험 없음	5.85(2.04)	5.33(2.48)	5.01(2.35)	5.98(2.42)
	t-test	-3.619***	-2.627**	3.102**	-2.864**

④ 10대시기 사회 및 교차관련 부정 경험에 따른 주관적웰빙 수준 차이 비교

사회 및 교차관련 경험에 따른 주관적웰빙 수준 차이 검증에서는 7가지 항목의 사회 및 교차관련 부정 경험의 특성 중 두 가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술/담배/약물 중독 경험과(5.14점)이고 다른 하나는 우울감 및 자살충동경험(5.11 점)이다. 이들 특성 외 성인으로부터 신체폭력이나 사기피해의 경우 주관적웰빙의 하위 세 가지 구성요소인 삶의 만족도, 부정정서, 긍정정서 각각의 차이검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이를 통합한 주관적웰빙 점수의 비교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IV-14. 부정 경험 유무별 주관적웰빙 수준 : 사회 및 교차 경험

(단위 : 점)

구분		주관적웰빙	삶의만족도	부정정서	긍정정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77(2.09)	5.25(2.52)	5.09(2.37)	5.90(2.48)
가족/학교 무관 성인의 신체폭력	경험 있음	5.24(1.34)	4.48(2.86)	5.77(2.56)	5.06(2.94)
	경험 없음	5.37(1.13)	5.30(2.49)	5.04(2.35)	5.95(2.44)
	t-test	-.924	-2.368*	2.528*	-2.511*
가족/학교 무관 성인의 성추행/성폭행	경험 있음	5.43(1.27)	4.92(2.94)	5.85(2.76)	5.44(3.13)
	경험 없음	5.36(1.13)	5.27(2.49)	5.05(2.34)	5.92(2.43)
	t-test	.443	-.931	2.267*	-21.196
돈때임/사기 피해	경험 있음	5.17(1.39)	4.11(2.58)	6.21(2.42)	4.67(2.58)
	경험 없음	5.37(1.13)	5.30(2.50)	5.04(2.34)	5.95(2.46)
	t-test	-1.204	-3.159**	3.284**	-3.437**
도박게임 중독	경험 있음	5.62(1.20)	4.84(2.93)	6.08(2.47)	5.74(3.02)
	경험 없음	5.36(1.14)	5.27(2.50)	5.06(2.36)	5.90(2.46)
	t-test	1.417	-1.025	2.631**	-.338
술, 담배, 약물 중독	경험 있음	5.14(1.23)	4.40(2.77)	5.55(2.65)	5.29(2.90)
	경험 없음	5.40(1.12)	5.41(2.44)	5.00(2.30)	6.01(2.37)
	t-test	-2.92**	-4.742***	2.682***	-3.226**
게임과몰입(중독)	경험 있음	5.28(1.18)	4.78(2.65)	5.37(2.41)	5.65(2.64)
	경험 없음	5.39(1.12)	5.43(2.44)	4.99(2.34)	5.99(2.41)
	t-test	-1.593	-3.882***	2.490***	-2.056*
우울감/자살충동	경험 있음	5.11(1.15)	4.20(2.74)	5.59(2.41)	4.92(2.68)
	경험 없음	5.50(1.11)	5.82(2.19)	4.63(2.34)	6.42(2.19)
	t-test	-5.683*	-10.504***	9.177***	-9.950***

(3) 정책지원 수혜 경험에 따른 주관적웰빙 수준 비교

10대시기 부정경험에 이어 정책지원 수혜 경험에 따라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차이 유무를 검증한 결과, 5가지 정책지원 중 심리상담 경험과 진로상담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지원 경험에 따라 주관적웰빙 점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0대시기 심리상담 지원 경험이 있는(5.40점)은 없는 이들(5.84점)에 비해 현재 주관적 웰빙 수준이 낮는데, 이는 심리상담 지원이 취약한 성장환경에 놓이거나 부정경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되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진로상담이나 문화예술지원의 경우, 지원 수혜 경험이 있는 이들(각각 5.92점, 6.23점)이 없는 경우(각각 5.52점, 5.71점)에 비해 주관적웰빙 점수가 높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문화예술지원 유경험자들의 주관적웰빙 점수(6.23점)가 평균을 상회할 뿐만 아니라, 가장 높다는 점이다. 이는 10대시기 문화예술지원의 효과가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표 IV-15. 정책수혜 경험 유무별 주관적웰빙 수준

(단위 : 점)

구분		주관적웰빙	삶의만족도	부정정서	긍정정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77(2.09)	5.25(2.52)	5.09(2.37)	5.90(2.48)
심리상담 지원	경험 있음	5.40(2.21)	4.82(2.75)	5.51(2.50)	5.55(2.63)
	경험 없음	5.84(2.06)	5.33(2.47)	5.01(2.33)	5.96(2.44)
	t-test	-2.646**	-2.392*	2.641**	-2.070*
진로상담 지원	경험 있음	5.96(2.05)	5.47(2.45)	4.96(2.39)	6.19(2.36)
	경험 없음	5.52(2.10)	4.98(2.57)	5.24(2.33)	5.47(2.57)
	t-test	3.667***	3.433**	-2.046*	4.570***
취업지원	경험 있음	5.70(2.07)	5.47(2.39)	5.44(2.41)	6.10(2.46)
	경험 없음	5.78(2.09)	5.22(2.54)	5.3(2.41)	5.87(2.48)
	t-test	-.441	1.241	2.098*	1.142
학업지원	경험 있음	5.84(1.98)	5.42(2.51)	5.16(2.32)	6.14(2.38)
	경험 없음	5.74(2.12)	5.20(2.52)	5.06(2.32)	5.81(2.50)
	t-test	.711	1.385	.639	2.030*
문화예술지원	경험 있음	6.23(1.86)	5.86(2.28)	4.89(2.37)	6.64(2.27)
	경험 없음	5.71(2.11)	5.17(2.54)	5.11(2.37)	5.80(2.49)
	t-test	2.866**	3.145**	-1.053	3.888***

이상에서 살펴본 10대시기 성장환경 및 경험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특성을 중심으로 다음에서는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모델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2)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Robust OLS

(1) 전체 집단 분석 결과

① 주관적웰빙 수준 영향 요인 : 전체

앞서 대상자 특성과 10대시기 성장환경 특성, 일반/긍정경험 및 부정경험, 그리고 정책 수혜경험 유무에 따른 주관적웰빙 수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특성들을 중심으로 19세-34세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Robust OLS 모델로 분석하였다. 분석 모델과 변수에 대해서는 본 장의 ‘자료 분석 내용 및 방법’에서 이미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실증모델 분석의 주요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표 IV-16〉에 제시된 실증모델 분석 결과와 같이, 4개의 부(-)의 영향 요인과 같은 수의 정(+)의 영향요인이 동시에 발견되었다. 즉 혼인상태와 재산 및 경제력의 행복요인, 10대시기 게임과몰입(중독) 유경험과 우울감이나 자살충동 유경험이 부의 영향요인으로, 건강 및 삶에 대한 긍정태도의 행복요인 각각과 10대시기 전반에 대한 만족도, 가족과의 여행 유경험, 문화예술지원 유경험이 정(+)의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혼보다는 기혼의 주관적웰빙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행복에 재산 및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인식할수록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이 낮다. 또 10대시기 게임과몰입이나 중독 유경험자가 경험이 없는 이들에 비해, 그리고 10대시기 우울감이나 자살충동 유경험자가 경험이 없는 이들에 비해 주관적웰빙 수준이 낮다. 이와는 달리, 행복에 건강과 삶에 대한 긍정태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10대시기 전반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이 높고, 10대시기 가족과의 여행 경험이 있고, 문화예술지원 수혜 경험이 있는 이들이 없는 이들에 비해 주관적웰빙 수준이 높다.

영향의 방향에 이어 영향 요인의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그림 IV-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10대시기 우울감이나 자살충동의 영향력이 가장 큰 영향력(-0.215)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10대시기 전반 만족도(0.193), 삶에 대한 긍정태도(0.172), 재산 및 경제력의 중요도(-0.162), 건강의 중요도(0.125)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주관적웰빙 수준 영향 요인 : 전체

변수	표준화계수 $\beta(t)$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 여성	-0.022(-0.760)
연령	-0.005(-0.160)
거주지역(광역시)_서울	-0.034(-1.150)
거주지역(광역시)_도	-0.043(-1.420)
현재상태(대학(원)재학)_취업자	0.023(0.610)
현재상태(대학(원)재학)_무직자	-0.049(-1.470)
최종학력	-0.038(-1.190)
혼인상태(기혼)_미혼	-0.076(-2.720)**
행복요인_재산 및 경제력	-0.162(-4.080)***
행복요인_화목한 가정	0.050(1.310)
행복요인_하고자하는 것 이루기	-0.007(-0.200)
행복요인_건강	0.125(2.960)**
행복요인_삶에 대한 긍정태도	0.172(4.760)***
행복요인_위라벨	-0.055(-1.420)
행복요인_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0.007(0.210)
<10대시기 성장환경>	
부모이혼경험(없음)_있음	-0.026(-0.890)
지지가 유무(없음)_있음	0.038(1.190)
10대시기 전반 만족도	0.193(5.860)***
<10대시기 일반/긍정 경험>	
가족과 여행 경험(없음)_있음	0.057(2.090)*
해외교육/연수경험(없음)_있음	0.012(0.530)
팬덤활동 경험(없음)_있음	-0.023(-0.890)
교내의 활동 경험(없음)_있음	0.036(1.310)
<10대시기 부정 경험>	
가족문제로 학업중단 경험_있음	-0.039(-1.310)
가족의 정서학대 경험_있음	0.032(1.110)
학교 왕따 경험_있음	-0.023(-0.810)
학교 신체폭력 경험_있음	-0.017(-0.570)
학교 성추행/성폭행 경험_있음	-0.046(-1.460)
징계받은 경험_있음	-0.017(-0.590)
술, 담배, 약물중독 경험_있음	-0.030(-0.930)
게임과몰입/중독 경험_있음	-0.059(-2.140)*
우울감/자살충동 경험_있음	-0.215(-6.480)***
<10대시기 정책지원 수혜 경험>	
심리상담 지원_있음	0.045(1.530)
진로상담 지원_있음	0.036(1.320)
취업지원_있음	-0.028(-1.030)
문화예술지원_있음	0.070(2.790)**
N	1,220
F	13.8
R ²	0.2753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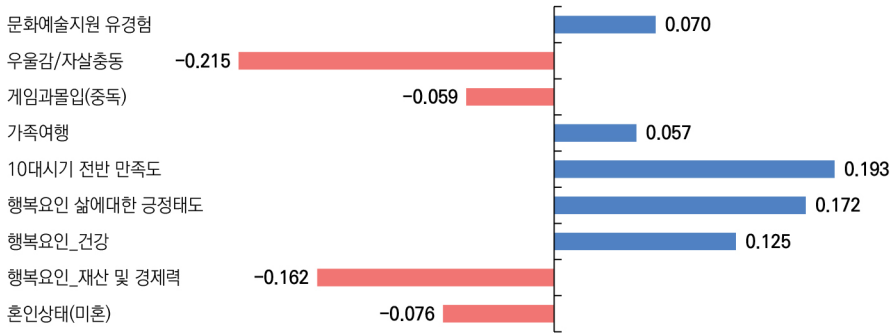


그림 IV-21. 주관적웰빙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전체

② 주관적웰빙 수준과 세 가지 구성 요소의 관계

주관적웰빙의 수준은 세 가지 구성 요소, 즉 삶의 만족도, 부정정서, 긍정정서로 구성된 항목들을 0점~10점 척도로 측정하고, 각 요소의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된 점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합산 값인 주관적웰빙 점수와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의 상관관계를 계수로 산출하고, 주관적웰빙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표 IV-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주관적웰빙 수준과 세 가지 요소들 간의 상관관계 계수 값을 산출해보면, 세 가지 요소 중 부정정서(-.877)와 주관적웰빙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 주관적웰빙 수준과 3가지 구성 요소 간 상관관계

	긍정정서	부정정서	삶의 만족도	주관적웰빙
긍정정서	-	-	-	-
부정정서	-.544***	-	-	-
삶의 만족도	.723***	-.534***	-	-
주관적웰빙	.833***	-.877***	.824***	-

***p<.001

상관관계 분석에 이어, 주관적웰빙 수준에 이들 세 가지 요소의 영향력을 회귀분석 모델의 표준화 계수를 통해 비교해 보았다. 〈표 IV-18〉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긍정정서(.318)와 삶의 만족도(.305)에 비해 부정정서(-.541)의 영향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며, 삶의 만족도에 비해 긍정 정서 요인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크다는 것 또한 확인되었다.

표 IV-18. 3가지 요소가 주관적웰빙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비표준화 계수		β	t
	B	표준오차		
(상수)	5.285	.029		181.210
긍정정서	.268	.003	.318***	77.197
부정정서	-.477	.003	-.541***	-160.634
삶의 만족도	.253	.003	.305***	74.580
<i>Adj. R²</i>	.991			
<i>F</i>	43989.752***			

*** $p < .001$

이상과 같이 세 가지 요소와 주관적웰빙 간의 관계 및 영향력의 정도를 확인 한 후, 다음에서는 주관적웰빙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인 삶의 만족도, 부정정서, 긍정정서의 영향 요인 각각을 같은 실증모델로 분석하였다.

③ 주관적웰빙 3가지 구성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세 가지 구성요소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표 IV-1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앞서 분석한 주관적웰빙 수준의 영향요인 이외, 각 요소별로 주관적웰빙 수준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몇 가지 요인들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예컨대 삶의 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에서는 주관적웰빙 수준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지지자 유무'(+)가, 부정정서 영향 요인 분석에서는 가족문제로 학업 중단한 경험(+)과 취업지원 정책 수혜경험(+), 긍정정서 영향 요인 분석에서는 행복에 화목한 가정의 중요도(+)와 10대시기 해외교육/연수 유경험(+), 부모이혼 유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10대시기 지지가가 있었던 이들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고, 가족문제로 학업중단 유경험자와 취업지원 수혜 유경험자의 경우 부정정서 수준이 높으며, 행복에 화목한 가정이 중요할수록, 10대시기 해외교육/연수 유경험자가 긍정정서 수준이 높지만, 부모이혼 유경험자들은 긍정정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표 IV-19. 주관적웰빙 3가지 구성 요소 각각의 영향 요인 : 전체

변수	삶의만족도	부정정서	긍정정서
	$\beta(t)$	$\beta(t)$	$\beta(t)$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 여성	-0.033(-1.150)	0.008(0.270)	-0.018(-0.630)
연령	-0.041(-1.160)	-0.023(-0.630)	-0.012(-0.330)
거주지역(광역시) 서울	-0.016(-0.570)	0.034(1.040)	-0.037(-1.270)
거주지역(광역시) 도	-0.022(-0.740)	0.034(1.070)	-0.047(-1.620)
현재상태(대학(원)재학) 취업자	0.049(1.280)	0.004(0.110)	0.007(0.200)
현재상태(대학(원)재학) 무직자	-0.053(-1.580)	0.057(1.600)	-0.044(-1.340)
최종학력	0.005(0.170)	0.048(1.480)	-0.013(-0.430)
혼인상태(기혼) 미혼	-0.096(-3.630)***	0.019(0.640)	-0.110(-4.080)***
행복요인 재산 및 경제력	-0.197(-5.150)***	0.139(3.870)***	-0.121(-3.140)**
행복요인 화목한 가정	0.063(1.740)	-0.023(-0.620)	0.097(2.610)**
행복요인 하고자하는 것 이루기	0.052(1.420)	0.052(1.360)	0.009(0.250)
행복요인 건강	0.026(0.60)	-0.155(-4.000)**	0.082(2.070)*
행복요인 삶에 대한 긍정태도	0.206(5.490)***	-0.068(-1.780)	0.214(5.390)***
행복요인 워라벨	-0.042(-1.120)	0.015(0.430)	-0.072(-1.850)
행복요인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0.023(-0.650)	-0.026(-0.750)	-0.019(-0.510)
<10대시기 성장환경>			
부모이혼경험(없음) 있음	-0.008(-0.300)	-0.014(-0.490)	-0.084(-2.840)**
지지자 유무(없음) 있음	0.063(2.050)*	-0.000(-0.020)	0.060(1.830)
10대시기 전반 만족도	0.175(5.140)***	-0.146(-4.250)***	0.196(5.900)***
<10대시기 일반/긍정 경험>			
가족과 여행 경험(없음) 있음	0.041(1.520)	-0.046(-1.610)	0.051(1.900)
해외교육/연수경험(없음) 있음	0.037(1.510)	0.034(1.220)	0.049(2.100)*
팬덤활동 경험(없음) 있음	-0.014(-0.530)	0.049(1.750)	0.016(0.610)
교내외 활동 경험(없음) 있음	0.022(0.830)	-0.021(-0.730)	0.042(1.590)
<10대시기 부정 경험>			
가족문제로 학업중단 경험 있음	0.012(0.410)	0.088(3.060)**	0.007(0.250)
가족의 정서학대 경험 있음	0.048(1.560)	-0.001(-0.030)	0.053(1.710)
학교 왕따 경험 있음	-0.007(-0.250)	0.032(1.090)	-0.011(-0.410)
학교 신체폭력 경험 있음	-0.005(-0.190)	0.002(0.100)	-0.044(-1.490)
학교 성추행/성폭행 경험 있음	-0.009(-0.340)	0.052(1.880)	-0.034(-1.140)
징계받은 경험 있음	-0.026(-0.890)	0.020(0.680)	0.003(0.100)
술, 담배, 약물중독 경험 있음	-0.051(-1.640)	0.009(0.320)	-0.017(-0.570)
개입과물입/중독 경험 있음	-0.088(-3.140)**	0.034(1.220)	-0.039(-1.510)
우울감/자살충동 경험 있음	-0.196(-6.080)***	0.172(5.510)***	-0.201(-6.360)***
<10대시기 정책지원 수혜 경험>			
심리상담 지원 있음	0.025(0.840)	-0.036(-1.270)	0.041(1.430)
진로상담 지원 있음	0.038(1.370)	-0.026(-0.910)	0.038(1.420)
취업지원 있음	0.013(0.480)	0.062(2.230)*	0.013(0.490)
문화예술지원 있음	0.062(2.430)*	-0.041(-1.480)	0.084(3.230)**
N	1,220	1,220	1,220
F	14.44	7.13	16.22
Adj. R ²	0.2689	0.1496	0.2990

***p<.001, **p<.01, *p<.05

(2) 하위집단 분석 결과

전체 집단 분석에 이어 대상자의 주요 특성 네 가지(①성별, ②연령대, ③현재상태, ④거주지역)의 하위집단별 주관적웰빙 수준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세부 집단 분석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개발 시, 보다 구체적인 정책 표적(target) 대상의 설정과 내용을 제안하는데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에 전체 집단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청년 대상자 특성에 따른 하위집단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성별 주관적웰빙 수준의 영향 요인

<표 IV-20>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로 집단을 나누어 주관적웰빙 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각각 분석해보면, 대체로 전체 집단 분석에서 발견된 요인들과 함께 나타나지 않았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추가된다.

예컨대 행복에 워라밸의 중요도 및 가족문제로 학업중단한 경험은 전체 집단 분석에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변수이다. 또한 전체 집단 분석에서 발견된 요인들을 성별에 따라 나누어 분석했을 때,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4가지로, ①행복에 재산 및 경제력(-)과 ②삶에 대한 긍정태도(+), ③10대시기 전반에 대한 만족도(+), ④우울감 또는 자살충동 경험(-)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공통 영향요인 이외, 남성의 주관적웰빙 수준에는 행복에 화목한 가정의 중요도, 10대시기 문화예술지원 수혜 경험이 정(+의 영향을, 미혼, 행복에 워라밸의 중요도, 10대시기 가정문제로 학업 중단 유경험이 부(-)의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주관적웰빙 수준에는 행복에 건강의 중요도와 10대시기 가족과의 여행 경험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향 요인에 이어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그림 IV-2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성의 경우 10대시기 전반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력(0.257)을 보이며, 우울감 또는 자살 충동 유경험(-0.185)이 그 다음 순이다. 여성의 경우 우울감 또는 자살 충동 유경험이 가장 큰 영향력(-0.222)을 갖고, 행복에 건강의 중요성(0.171)이 다음 순이다.

표 IV-20.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성별

변수	남성	여성
	$\beta(t)$	$\beta(t)$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 여성		
연령	0.000(0.010)	0.005(0.080)
거주지역(광역시) 서울	0.010(0.230)	-0.067(-1.620)
거주지역(광역시) 도	-0.020(-0.470)	-0.052(-1.160)
현재상태(대학(원)재학) 취업자	0.051(1.030)	-0.022(-0.370)
현재상태(대학(원)재학) 무직자	-0.042(-0.990)	-0.073(-1.400)
최종학력	-0.043(-0.940)	-0.041(-0.900)
혼인상태(기혼) 미혼	-0.086(-2.780)**	-0.063(-1.330)
행복요인 재산 및 경제력	-0.168(-3.150)**	-0.138(-2.540)*
행복요인 화목한 가정	0.113(1.980)*	-0.021(-0.440)
행복요인 하고자하는 것 이루기	0.060(1.130)	-0.079(-1.350)
행복요인 건강	0.036(0.560)	0.171(3.150)**
행복요인 삶에 대한 긍정태도	0.168(3.260)**	0.159(3.010)**
행복요인 위라벨	-0.144(-2.930)**	0.100(1.680)
행복요인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0.058(1.180)	-0.073(-1.320)
<10대시기 성장환경>		
부모이혼경험(없음) 있음	-0.030(-0.780)	-0.015(-0.360)
지자 유무(없음) 있음	0.025(0.620)	0.047(1.010)
10대시기 전반 만족도	0.257(5.400)***	0.145(3.080)**
<10대시기 일반/긍정 경험>		
가족과 여행 경험(없음) 있음	0.032(0.880)	0.091(2.210)*
해외교육/연수경험(없음) 있음	0.055(1.600)	-0.036(-1.130)
팬덤활동 경험(없음) 있음	0.007(0.210)	-0.037(-1.000)
교내외 활동 경험(없음) 있음	0.006(0.160)	0.062(1.510)
<10대시기 부정 경험>		
가족문제에 학업중단 경험 있음	-0.069(-2.040)*	-0.026(-0.560)
가족의 정서학대 경험 있음	0.019(0.500)	0.057(1.330)
학교 왕따 경험 있음	-0.025(-0.640)	-0.030(-0.770)
학교 신체폭력 경험 있음	-0.023(-0.570)	-0.003(-0.080)
학교 성추행/성폭행 경험 있음	-0.024(-0.650)	-0.087(-1.760)
징계받은 경험 있음	-0.016(-0.400)	-0.026(-0.580)
술, 담배, 약물중독 경험 있음	-0.006(-0.130)	-0.041(-0.940)
게임과몰입/중독 경험 있음	-0.050(-1.330)	-0.073(-1.810)
우울감/자살충동 경험 있음	-0.185(-3.790)***	-0.222(-4.980)***
<10대시기 정책지원 수혜 경험>		
심리상담 지원 있음	0.015(0.390)	0.076(1.740)
진로상담 지원 있음	0.029(0.770)	0.043(1.090)
취업지원 있음	-0.038(-1.040)	-0.015(-0.380)
문화예술지원 있음	0.071(2.090)*	0.064(1.680)
N	633	587
F	8.17	7.16
R ²	0.3100	1.8841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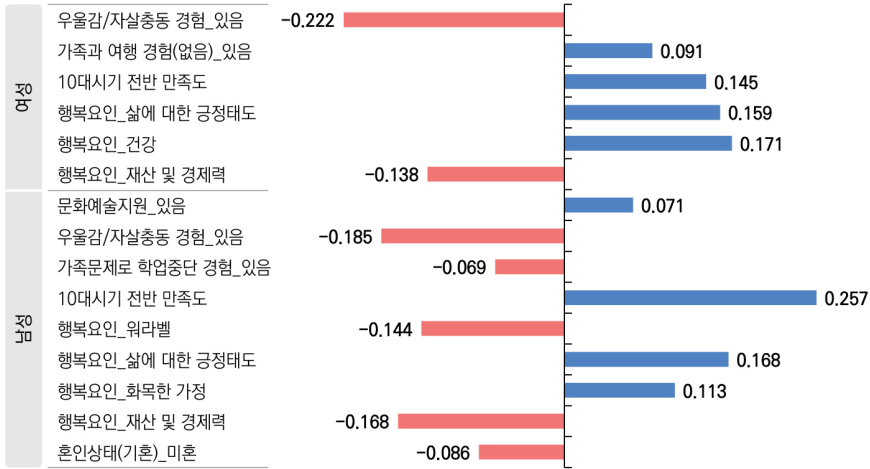


그림 IV-22. 주관적웰빙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성별

② 연령대별 주관적웰빙 수준의 영향 요인

〈표 IV-21〉에 제시된 연령대별 주관적웰빙 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집단 분석이나 앞서 살펴본 성별 분석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두 가지 요인이 발견된다. 하나는 19세-24세 연령대의 부(-)의 영향 요인으로 나타난 학교 성추행/성폭행 유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25세-29세 연령대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행복에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이다.

연령대에 상관없이 나타난 공통 영향 요인은 3가지(①삶에 대한 긍정태도의 중요도, ②10대시기 전반 만족도, ③10대시기 우울감 또는 자살충동 경험)이다. 이들을 제외하고 19세-24세 연령대 영향 요인부터 살펴보면, 행복에 건강이 중요한 정도가 정(+)의 영향을, 행복에 위라벨의 중요도 및 학교에서의 성추행/성폭행 유경험이 부(-)의 영향을 미친다. 25세-29세 연령대의 경우, 재산 및 경제력의 중요도,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10대시기 게임과몰입(중독) 유경험이 부(-)의 영향을, 가족과의 여행 유경험이 정(+)의 영향 요인이다. 30세-34세 연령대의 경우, 미혼, 재산 및 경제력의 중요도, 부모미혼 유경험이 부(-)의 영향을, 10대시기 문화예술 지원 수혜 경험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연령대별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그림 IV-23]과 같이, 19세-24세는 10대시기 우울감 또는 자살충동 유경험(-0.227)이, 25세-29세는 삶에 대한 긍정태도의 중요도(0.207)가, 30세-34세는 재산 및 경제력의 중요도(-0.253)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이다.

표 IV-21. 주관적웰빙 수준 영향 요인 : 연령대별

변수	19세-24세	25세-29세	30세-34세
	$\beta(t)$	$\beta(t)$	$\beta(t)$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 여성	0.020(0.410)	-0.027(-0.490)	-0.038(-0.720)
연령			
거주지역(광역시) 서울	-0.003(-0.060)	-0.070(-1.260)	-0.032(-0.560)
거주지역(광역시) 도	-0.062(-1.180)	-0.026(-0.490)	-0.036(-0.640)
현재상태(대학(원)재학) 취업자	0.036(0.720)	-0.024(-0.370)	-0.015(-0.150)
현재상태(대학(원)재학) 무직자	-0.013(-0.310)	-0.110(-1.560)	-0.140(-1.240)
최종학력	-0.048(-0.990)	-0.015(-0.300)	-0.051(-0.950)
혼인상태(기혼) 미혼	-0.087(-1.920)	0.032(0.630)	-0.172(-3.610)***
행복요인 재산 및 경제력	-0.075(-1.270)	-0.199(-2.620)**	-0.253(-3.540)***
행복요인 화목한 가정	-0.037(-0.640)	0.137(1.750)	0.086(1.240)
행복요인 하고자하는 것 이루기	0.016(0.230)	-0.057(-0.810)	0.023(0.380)
행복요인 건강	0.136(2.260)*	0.126(1.510)	0.110(1.380)
행복요인 삶에 대한 긍정태도	0.154(2.260)*	0.207(3.440)**	0.205(3.810)***
행복요인 워라벨	-0.152(-2.210)*	0.011(0.180)	0.031(0.450)
행복요인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0.097(1.450)	-0.169(-3.020)**	0.022(0.350)
<10대시기 성장환경>			
부모이혼경험(없음) 있음	0.021(0.450)	0.028(0.520)	-0.135(-2.350)*
지지자 유무(없음) 있음	0.081(1.320)	0.053(1.000)	0.008(0.150)
10대시기 전반 만족도	0.212(3.530)***	0.170(2.930)**	0.175(2.960)**
<10대시기 일반/긍정 경험>			
가족과 여행 경험(없음) 있음	0.024(0.480)	0.128(2.680)**	-0.019(-0.400)
해외교육/연수경험(없음) 있음	-0.012(-0.280)	0.019(0.470)	0.000(0.010)
팬덤활동 경험(없음) 있음	0.005(0.120)	-0.044(-1.010)	-0.006(-0.140)
교내외 활동 경험(없음) 있음	0.077(1.510)	0.018(0.370)	0.013(0.270)
<10대시기 부정 경험>			
가족문제에 학업중단 경험 있음	-0.008(-0.180)	-0.049(-1.080)	-0.025(-0.450)
가족의 정서학대 경험 있음	-0.005(-0.120)	-0.011(-0.220)	0.063(1.100)
학교 왕따 경험 있음	-0.069(-1.360)	0.003(0.070)	-0.006(-0.130)
학교 신체폭력 경험 있음	0.028(0.530)	-0.002(-0.040)	-0.057(-1.160)
학교 성추행/성폭행 경험 있음	-0.091(-2.060)*	-0.077(-1.400)	0.023(0.360)
징계받은 경험 있음	-0.057(-1.210)	0.088(1.650)	-0.077(-1.590)
술, 담배, 약물중독 경험 있음	0.029(0.50)	-0.079(-1.320)	-0.026(-0.470)
게임과몰입/중독 경험 있음	-0.006(-0.130)	-0.122(-2.500)*	-0.004(-0.100)
우울감/자살충동 경험 있음	-0.227(-3.730)***	-0.227(-4.030)***	-0.224(-3.790)***
<10대시기 정책지원 수혜 경험>			
심리상담 지원 있음	0.051(1.040)	0.076(1.530)	0.005(0.100)
진로상담 지원 있음	0.029(0.580)	0.045(0.950)	-0.012(-0.260)
취업지원 있음	-0.027(-0.540)	-0.035(-0.770)	-0.029(-0.680)
문화예술지원 있음	0.082(1.910)	0.059(1.340)	0.097(2.460)*
N	426	408	386
F	6.17	7.45	6.91
R ²	0.2942	0.3293	0.3426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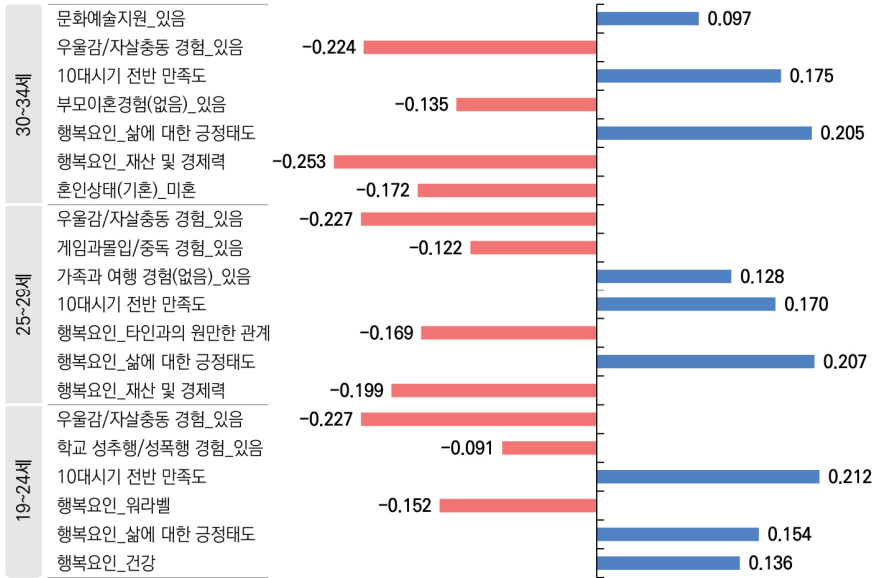


그림 IV-23. 주관적웰빙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연령대별

③ 현재 상태별 주관적웰빙 수준의 영향 요인

〈표 IV-22〉에 제시된 현재상태별 주관적웰빙 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분석된 결과들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한 가지 요인, 즉 거주지역의 가변수(dummy variables) 중 도 지역 거주에 대한 부(-)의 영향이 발견된다. 현재 상태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두 가지 요인은 삶에 대한 긍정태도(+)와 10대시기 우울감 또는 자살충동 경험(-)이다.

이들 공통 요인을 제외하고 각 집단별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대학(원)생 집단의 경우 행복에 위라벨의 중요도가 부(-)의 영향을 미치고, 취업자 집단은 미혼과 재산 및 경제력, 게임과몰입(중독) 경험이 부(-)의 영향을, 건강의 중요도 및 삶에 대한 긍정 태도, 10대시기 전반 만족도, 가족여행 경험, 문화예술지원 수혜 경험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무직자 집단은 건강의 중요도와 삶에 대한 긍정태도, 10대시기 전반만족도가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그림 IV-24]와 같이, 대학(원)생 집단은 10대시기 전반만족도(0.383)가, 취업자 집단은 재산 및 경제력의 중요도(-0.227), 무직자는 10대시기 우울감 또는 자살충동 경험(-0.359)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표 IV-22. 주관적웰빙 수준 영향 요인 : 현재상태별

변수	대학(원)생	취업자	무직자
	$\beta(t)$	$\beta(t)$	$\beta(t)$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 여성	0.050(0.900)	-0.070(-1.730)	0.011(0.170)
연령	0.095(1.700)	-0.026(-0.650)	-0.026(-0.390)
거주지역(광역시) 서울	0.004(0.070)	-0.044(-1.040)	-0.132(-1.980)
거주지역(광역시) 도	-0.050(-0.780)	-0.006(-0.150)	-0.142(-2.140)*
현재상태(대학(원)재학) 취업자			
현재상태(대학(원)재학) 무직자			
최종학력	0.012(0.200)	-0.056(-1.360)	-0.046(-0.700)
혼인상태(기혼) 미혼	-0.022(-0.590)	-0.095(-2.490)*	-0.073(-0.860)
행복요인 재산 및 경제력	-0.084(-1.220)	-0.227(-4.570)***	-0.165(-1.730)
행복요인 화목한 가정	0.107(1.560)	0.026(0.460)	-0.004(-0.060)
행복요인 하고자하는 것 이루기	0.031(0.420)	0.003(0.070)	-0.084(-0.960)
행복요인 건강	-0.008(-0.100)	0.182(3.020)**	0.194(2.880)**
행복요인 삶에 대한 긍정태도	0.245(3.030)**	0.144(2.920)**	0.203(2.780)**
행복요인 위라벨	-0.207(-2.510)*	0.012(0.250)	-0.011(-0.130)
행복요인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0.028(0.300)	-0.007(-0.170)	0.014(0.160)
<10대시기 성장환경>			
부모이혼경험(없음) 있음	0.013(0.260)	-0.057(-1.370)	0.000(0.010)
지지자 유무(없음) 있음	0.029(0.410)	0.033(0.810)	-0.055(-0.730)
10대시기 전반 만족도	0.111(1.740)	0.176(4.030)***	0.383(4.830)***
<10대시기 일반/긍정 경험>			
가족과 여행 경험(없음) 있음	0.096(1.680)	0.076(1.980)*	0.047(0.770)
해외교육/연수경험(없음) 있음	0.038(0.710)	-0.010(-0.320)	0.003(0.080)
팬덤활동 경험(없음) 있음	0.075(1.370)	-0.034(-0.950)	-0.083(-1.490)
교내외 활동 경험(없음) 있음	0.004(0.080)	0.058(1.600)	0.019(0.260)
<10대시기 부정 경험>			
가족문제로 학업중단 경험 있음	-0.043(-0.760)	-0.063(-1.490)	0.030(0.460)
가족의 정서학대 경험 있음	-0.098(-1.630)	0.059(1.440)	0.110(1.670)
학교 왕따 경험 있음	-0.021(-0.350)	-0.011(-0.280)	-0.046(-0.760)
학교 신체폭력 경험 있음	0.052(0.800)	-0.034(-0.830)	-0.051(-0.830)
학교 성추행/성폭행 경험 있음	-0.098(-1.730)	-0.031(-0.800)	-0.063(-0.650)
징계받은 경험 있음	-0.093(-1.380)	0.002(0.060)	-0.005(-0.080)
술, 담배, 약물중독 경험 있음	0.049(0.750)	-0.082(-1.950)	-0.060(-0.800)
게임과몰입/중독 경험 있음	-0.060(-1.060)	-0.077(-2.060)*	-0.021(-0.320)
우울감/자살충동 경험 있음	-0.359(-5.220)***	-0.135(-2.950)**	-0.254(-3.630)***
<10대시기 정책지원 수혜 경험>			
심리상담 지원 있음	0.046(0.690)	0.040(0.980)	0.086(1.380)
진로상담 지원 있음	0.078(1.310)	0.021(0.570)	0.018(0.320)
취업지원 있음	-0.056(-0.960)	-0.058(-1.520)	0.062(1.150)
문화예술지원 있음	0.092(1.720)	0.073(2.070)*	0.094(1.560)
N	303	694	223
F	5.09	6.61	7.70
R ²	0.340	0.2468	0.4291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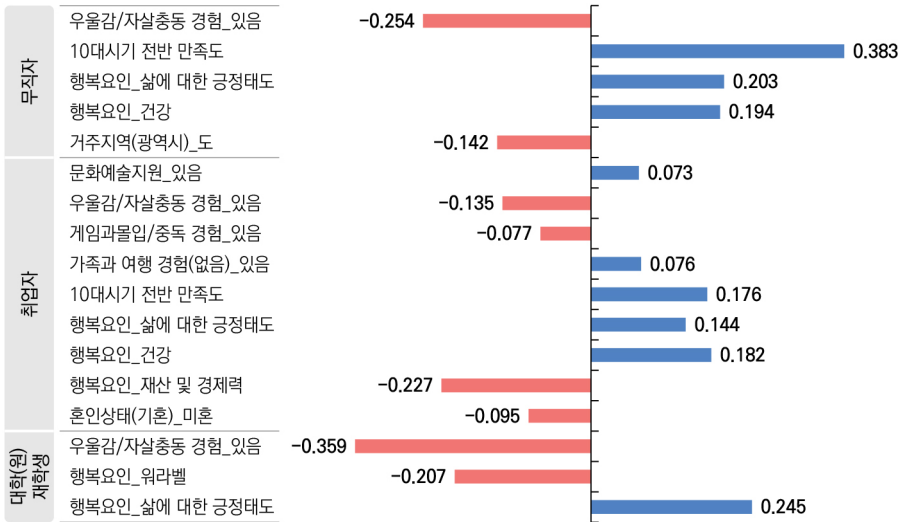


그림 IV-24. 주관적웰빙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현재상태별

④ 거주지역별 주관적웰빙 수준의 영향 요인

〈표 IV-23〉에 제시된 거주지역별 주관적웰빙 수준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앞서 분석된 결과들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두 가지 요인이 발견된다. 하나는 서울지역 거주자들에게 무직상태가 부(-)의 영향을, 광역시 거주자들에게는 하고자하는 것 이루기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나타난 공통된 정(+)의 요인은 삶에 대한 긍정태도, 10대시기 전반 만족도와 우울감 또는 자살충동 경험이다.

이들 공통 요인을 제외하고 각 집단별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미혼과 재산 및 경제력 중요도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고, 광역시에서는 최종학력과 취업지원 수혜 경험이 부(-)의 영향을, 건강의 중요도와 문화예술지원 수혜 경험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도 지역은 공통 요인을 제외하고 재산 및 경제력의 중요도가 부(-)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영향 요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해보면 [그림 IV-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서울(-0.189)과 광역시(-0.233)에서는 10대시기 우울감 또는 자살충동 경험이, 도 지역에서는 10대시기 전반 만족도(0.256)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주관적웰빙 수준 영향 요인 : 거주지역별

변수	서울	광역시	도
	$\beta(t)$	$\beta(t)$	$\beta(t)$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별(남성) 여성	-0.079(-1.340)	-0.031(-0.510)	0.008(0.190)
연령	0.005(0.080)	-0.030(-0.430)	0.005(0.100)
거주지역(광역시) 서울			
거주지역(광역시) 도			
현재상태(대학(원)재학) 취업자	-0.087(-1.160)	0.088(1.120)	0.062(1.030)
현재상태(대학(원)재학) 무직자	-0.134(-2.170)*	0.058(0.890)	-0.047(-0.900)
최종학력	-0.016(-0.250)	-0.126(-2.180)*	-0.009(-0.220)
혼인상태(기혼) 미혼	-0.106(-2.190)*	-0.103(-1.790)	-0.052(-1.240)
행복요인 재산 및 경제력	-0.169(-2.270)*	-0.156(-1.880)	-0.152(-2.620)**
행복요인 화목한 가정	0.015(0.220)	0.105(1.480)	0.047(0.750)
행복요인 하고자하는 것 이루기	0.004(0.060)	-0.165(-2.360)*	0.071(1.220)
행복요인 건강	0.070(0.840)	0.198(2.560)*	0.083(1.190)
행복요인 삶에 대한 긍정태도	0.151(2.170)*	0.198(2.890)**	0.140(2.340)*
행복요인 위라벨	-0.100(-1.270)	0.019(0.290)	-0.032(-0.540)
행복요인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	0.030(0.430)	0.026(0.390)	-0.021(-0.380)
<10대시기 성장환경>			
부모이혼경험(없음) 있음	0.015(0.220)	-0.092(-1.480)	-0.018(-0.460)
지지자 유무(없음) 있음	0.061(0.910)	0.016(0.300)	0.037(0.770)
10대시기 전반 만족도	0.159(2.570)*	0.153(2.350)*	0.256(5.180)***
<10대시기 일반/긍정 경험>			
가족과 여행 경험(없음) 있음	0.070(1.270)	0.089(1.710)	0.020(0.500)
해외교육/연수경험(없음) 있음	0.019(0.360)	0.013(0.340)	0.019(0.570)
팬덤활동 경험(없음) 있음	-0.012(-0.250)	0.046(0.840)	-0.046(-1.20)
교내외 활동 경험(없음) 있음	0.025(0.460)	-0.017(-0.320)	0.045(1.070)
<10대시기 부정 경험>			
가족문제로 학업중단 경험 있음	-0.089(-1.470)	0.049(0.970)	-0.054(-1.200)
가족의 정서학대 경험 있음	0.019(0.310)	0.047(0.820)	0.039(0.920)
학교 왕따 경험 있음	-0.043(-0.730)	-0.092(-1.740)	0.009(0.220)
학교 신체폭력 경험 있음	0.057(0.970)	-0.074(-1.210)	-0.026(-0.610)
학교 성추행/성폭행 경험 있음	-0.057(-0.900)	-0.063(-1.120)	-0.044(-0.890)
징계받은 경험 있음	-0.040(-0.620)	-0.055(-0.920)	0.021(0.520)
술, 담배, 약물중독 경험 있음	0.050(0.730)	-0.042(-0.700)	-0.062(-1.360)
게임과몰입/중독 경험 있음	-0.030(-0.530)	-0.030(-0.550)	-0.061(-1.480)
우울감/자살충동 경험 있음	-0.189(-2.690)**	-0.233(-3.850)***	-0.213(-4.440)***
<10대시기 정책지원 수혜 경험>			
심리상담 지원 있음	0.091(1.600)	0.010(0.150)	0.037(0.890)
진로상담 지원 있음	0.055(0.910)	-0.007(-0.150)	0.033(0.810)
취업지원 있음	-0.038(-0.780)	-0.124(-2.530)*	0.029(0.720)
문화예술지원 있음	0.065(1.310)	0.111(2.340)*	0.048(1.300)
N	333	323	564
F	4.29	7.93	6.53
R ²	0.2764	0.3810	0.2881

***p<.001, **p<.01,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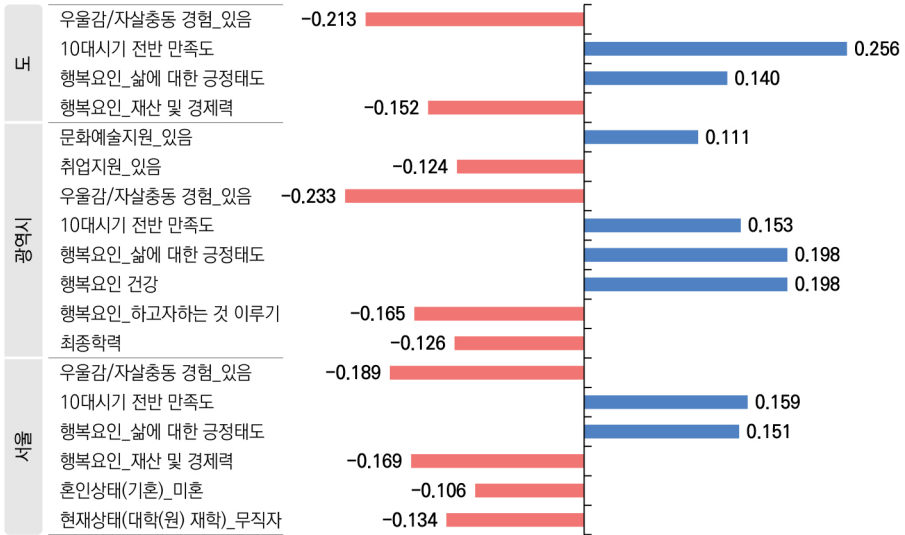


그림 IV-25. 주관적웰빙 수준 영향 요인의 영향력 비교 : 거주지역별

4. 소결 : 주요 분석결과 및 정책 시사점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본 장에서는 19세-34세 청년의 현재 특성을 비롯하여 10대시기 성장환경 특성 및 긍정 또는 부정, 정책수혜 경험율의 차이를 검증하고, 이들 특성에 따라 주관적웰빙 수준의 차이도 검증 비교하였으며,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Robust OLS 모델로 실증 분석하였음.
- 실증분석 결과, 주관적웰빙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삶의 만족도, 부정정서, 긍정정서) 중 부정정서가 주관적웰빙 수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청년의 현재특성과 10대시기 긍/부정의 경험 요인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부정적인 영향 요인들의 영향력 완화와 더불어 긍정적인 영향 요인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함.
- 도출된 요인 중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세 가지는 ①삶에 대한 긍정태도의 중요도, ②10대시기 전반 만족도, ③10대시기 우울감 및 자살 충동 유경험이고, 이들 요인 중 10대시기 우울감 및 자살 충동 유경험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결과는 청년들이 현재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긍정적인 태도도 중요하지만, 10대시기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낮거나, 특히 우울감이나 자살충동의 경험의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는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이 나아질 수 없음을 의미함.
- 10대시기 우울감 또는 자살충동 경험이 있던 청년들이 당시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생애단계를 이행할 때, 즉 청년이 되어서도 그 상태가 지속되고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실증분석에서 그대로 포착되었으므로, 우울감 및 자살 충동 경험의 영향에 취약한 20대 여성, 특히 대학(원)생과 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심리-정서,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가 집중될 필요성이 제기됨.
- 10대시기 전반의 만족도가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두 번째로 큰 영향력을 보인다는 결과에 비추어볼 때, 이 요인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도 지역 거주, 19세-24세 남성 무직자를 일차 표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 공통요인 이외, 정(+)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10대시기 경험 요인으로서 ①가족과여행 및 ②문화예술 지원 수혜경험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10대시기 게임과몰입(중독)경험이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도 주목하여 정책과제 도출 필요

본 장에서는 19세-34세 청년의 삶의 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관적웰빙 수준에 대한 10대시기의 성장환경과 경험의 영향력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19세-34세 청년 1,220명의 10대시기의 성장환경 및 경험에 관한 자료를 현재 특성과 함께 조사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일차적으로 대상자 특성과 성장환경 특성에 따라 10대시기의 경험(일반/긍정경험, 가족관련 부정경험, 학교관련 부정경험, 사회 및 교차관련 부정경험, 정책지원 수혜경험) 측정 각 항목의 경험율로 산출되었다. 산출된 경험율은 대상자 특성 및 10대시기 성장환경 경험에 따라 차이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그에 대한 주요 결과는 그래프로 시각화되어 간략한 설명과 함께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10대시기 성장환경 및 경험에 대한 경험을 분석에 이어, 다음 단계에서는 10대시기 경험 특성 및 대상자 특성에 따라

청년의 삶의 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관적웰빙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고, Robust OLS 모델 분석을 통해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앞서 분석결과 설명에 기술된 바와 같이, 주관적웰빙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①삶의 만족도, ②부정정서, ③긍정정서) 중, 부정정서가 주관적웰빙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19세-34세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전략 수립 및 정책 추진 방향 설정이 필요할 때, 그 방향은 청년들의 부정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에 집중하여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삶의 만족도나 긍정정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부정정서를 완화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갖는데 보다 나은 선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정서 수준에 10대시기 우울감 또는 자살충동 유경험이 가장 큰 영향력(0.172)을 발휘한다는 결과를 고려했을 때, 10대시기 우울감 또는 자살충동 경험에 대한 예방 및 사후 지원의 중요성은 전략 수립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10대시기 우울감 또는 자살충동은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중요한 요인이다. 전체 집단 분석에서는 물론, 대상자 특성에 따른 하위집단 분석에서도 일관성 있게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이는 집단은 청년들 중 대학(원)생 집단이다. 이들 분석에서 우울감 또는 자살충동 유경험의 영향력(-0.359)은 전체 집단 분석에서의 영향력(-0.215)을 비롯하여 다른 하위집단 분석에서의 영향력(-0.135~0.227)을 크게 상회한다. 이는 10대시기 우울감 또는 자살충동의 경험이 있었던 청년들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학(원)에 진학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대학(원)생들이 청년 마음 건강 및 정신건강 지원의 일차 표적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대학(원)생들과 더불어 여성(0.220), 20대(19세-24세, 25세-29세: 각각 0.227), 광역시 거주자(0.233) 또한 청년 마음건강이나 정신건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일차 표적이 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10대시기 우울감 또는 자살충동 유경험에 이어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요인은 10대시기 전반 만족도이다. 전체 집단 및 하위집단 분석에서 일관성 있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10대시기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청년들의 현재 삶의 주관적웰빙 수준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생애과정에 있어 이전 단계인 10대시기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낮다면, 현재의 삶에 있어 주관적인 웰빙 수준의 평가도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10대시기 전반 만족도 요인의 일관성 있는 정(+)의 방향의 작지 않은 영향력(0.193)은 본 연구의 주제이자 연구문제이기도 한 ‘10대시기 경험이 청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답을 한 문장으로 제공할 수 있다. 즉 10대시기의 경험을 포함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은 높다. 이 요인의 하위집단 분석에서의 영향력 크기를 살펴보면, 도 지역 거주(0.256), 19세-24세(0.212), 남성(0.257), 무직자(0.383) 집단에서 전체 집단 분석에서 나타난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력 크기를 보인다. 특히 현재 청년들 중 무직 상태에 있는 이들은 10대시기 전반 만족도가 현재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압도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다. 이와 같은 결과는 후기청소년 지원 정책에 있어 도 지역의 남성 무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지원 사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과 같이 영향력이 큰 요인들 이외,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주관적웰빙 수준을 높이는 10대시기 가족여행 유경험과 주관적웰빙 수준을 낮추는 게임과몰입(중독) 유경험도 청년소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계 방안 수립을 위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0대시기 가족여행 유경험의 긍정적인 영향은 여성(0.091)과 25세-29세 연령대(0.128), 취업자(0.076) 집단 분석에서 발견되고, 10대시기 게임과몰입(중독)의 부정적인 영향은 25세-29세(-0.122), 취업자(-0.077) 집단 분석에서 발견된다. 종합해보면, 청년들 중 25세-29세 연령대의 취업자들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10대시기 게임과몰입(중독)의 부정영향과 가족여행에 따른 긍정영향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지만, 게임과몰입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10대시기 게임과몰입(중독)의 경험을 완화해야 주관적웰빙 수준으로 가늠되는 청년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전략 방향이 설정된다.

이상과 같은 본 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앞선 제3장의 후기청소년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결과와 이어지는 제5장 심층면접조사 결과와 함께 제6장에서 통합 분석되고 종합 논의를 거쳐 본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된 청소년-청년정책 연계의 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실증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 제5장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경험의 맥락과 과정 :
심층면접조사

- 1. 조사개요
- 2. 결과 분석 : 10대시기 경험과
영향, 그 과정의 맥락
- 3. 소결 : 도출된 의미의 요약

5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경험의 맥락과 과정 : 심층면접조사 *

1. 조사개요

1) 심층면접조사 실시 목적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10대시기 경험의 맥락과 과정, 특히 해당자 수가 적어 설문조사와 같은 양적인 조사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돌봄과 부채상속 등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와 연계된 면접조사를 설계하고, 설문조사 응답 완료자 중 이어지는 심층면접조사 참여에 동의한 이들의 명단을 참여 가능자로 확보하였음.
- 참여 가능자들 중 연구진이 설정한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및 섭외 기준에 부합하고, 단계적 섭외 과정 및 연구진행 일정에 따라 계획된 일시 및 장소에 참여 동의한 총15명을 대상으로 1:1 방식의 심층면담 형태로 실시되었음.

앞서 제4장에서 청년의 삶의 질, 즉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영향력의 크기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과 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삶의 만족도, 부정정서, 긍정정서)에 10대시기 일부의 경험과 전반 만족도가 20대-30대 청년의 삶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작지 않은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양적인 실증분석만으로는 10대시기의 경험이 20대-30대 청년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맥락과 과정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4장에서 선행된 설문조사 및 실증분석에 이어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제이자 궁극적인 연구문제이기도 한 10대시기 경험이 청년의 삶에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양적

* 이 장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하고 집필하였음.

인 분석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10대시기 경험의 맥락과 과정, 그리고 결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 의미를 도출하여 구조화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에 이어 실시되는 심층면접조사는 제1장 서론에서 기술된 ‘순차적 통합방법설계(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에 따라 실시되었다. ‘10대시기의 경험이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하나의 주제이자 연구문제 하에 앞선 단계의 내용과 분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이전 단계의 분석된 내용을 반영함과 동시에 각 단계에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심층면접조사의 결과는 앞서 실시된 양적 실증분석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되어 정책함의로 도출되고, 도출된 정책 함의에 기초하여 청소년-청년정책 연계에 필요한 정책추진의 방향과 목표 설정,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마련하는데 경험적 근거자료로 활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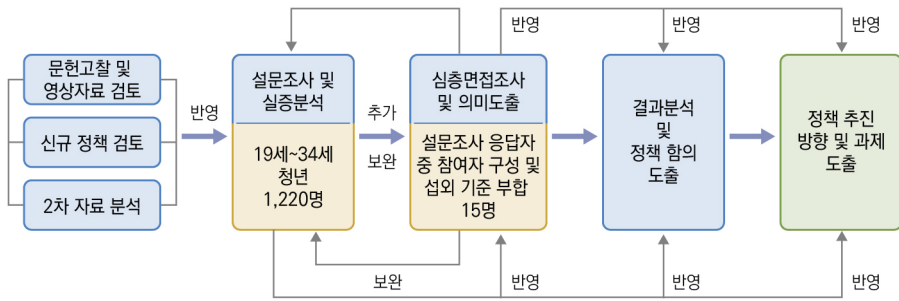


그림 V-1. 연구추진 과정에서 심층면접조사의 위치 및 활용

2)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1)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및 섭외 기준

설문조사에 이어 연계성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의 참여자 구성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앞선 단계인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과정에서 설문응답 완료 전 이어지는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포함하여 섭외를 위한 연락에 동의여부를 표기하도록 하고, 동의한 이들을 심층면접조사 참여 가능자 목록으로 작성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설문조사 응답 완료자라는 전제 하에 추가적인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및 섭외 기준을 설정하였다. 기준 하나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10대시기 주요 경험, 즉 (조)부모나 형제자매를 6개월 이상 장기간 돌보았던 가족 돌봄 경험 유경험자이거나 (조)부모 부채상속 경험 유경험자 또는 따돌림(왕따) 경험에 대한 유경험자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한 성별이나 연령 또는 10대시기 거주 및 성장지역의 비중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족 돌봄 경험과 부채상속, 그리고 일명 왕따 경험을 심층면접대상자 선정의 주요 경험으로 설정한 것은 가족 돌봄이나 부채 상속의 경우 설문조사와 같은 양적 분석 연구에서는 해당자를 포착하기 어렵고, 설령 조사에서 포착한다 할지라도 그 수가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제대로 분석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해당자 수가 적거나 응답을 꺼려 실제보다 낮은 응답(under-report) 경향성은 10대시기 전반 부정적인 성장 환경이나 부정경험 유무를 측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경험 비율이 낮아 설문조사에서 제대로 분석되기 어렵다는 측면과 함께 입법과 제도 측면에서 청소년-청년정책을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였다. 왜냐하면 제1장 서론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법무부에서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해 ‘민법’ 개정을 예고한 상태이고, 올해 2월 보건복지부에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가족 돌봄 청년(영케어러)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기에, 이들 정책입안 이후 실제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안하고 실행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왕따’ 경험의 경우 최근 ‘왕따였던 어른들’과 같이 주목받는 영상자료들을 통해 10대시기 ‘왕따’ 경험이 비단 10대시기 스쳐 지나가는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이후 청년의 삶 전반 깊숙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청소년 시기에서만 다루어질 뿐 청년정책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조금 다른 정책 측면이 고려되었다.

유경험 비율이 낮고 응답회피 하는 다른 10대시기의 부정 경험을 생각해 본다면,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성희롱 또는 성폭력 피해 경험도 이에 해당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험에 대한 경험 유무를 심층면접조사 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면담의 과정에서 10대시기부터 현재까지 삶을 회고하는 내용이 다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부정경험을 회고하는 것이 참여자에게 심라정

서적으로 힘든 과정일 수도 있으며, 참여자 섭외를 위한 사전 주요 경험 확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해 사건에 대한 회고가 당사자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을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이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즉 성별의 비중과 20대와 30대에 걸쳐 있는 연령대의 비중, 그리고 10대시기에 거주하고 성장했던 지역이 서울, 광역시, 도 지역 중에서 어느 한쪽 지역으로 쏠리지 않도록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각 특성별 한쪽 특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참여자를 구성하였다.

표 V-1.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및 섭외 기준

구분	구성 및 섭외 기준
설문조사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면접조사에 앞서 실시된 온라인 설문조사 응답 완료자 중 심층면접조사 참여 의사가 있고 이후 섭외를 위한 개인 연락에 동의한 자 • 연구추진 일정에 따른 면접조사 기간 내 사전 협의하여 확정된 일시 및 장소에 참여 가능한 자
10대시기 주요 경험 유경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이지 않고 해당자 수가 적으나 정책 측면에서 입법과 제도 수립 계획이 발표된 신규정책과 관련한 경험과 문헌 및 영상자료 검토를 토대로 청소년-청년정책 고리 잇기를 위한 주제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 부정경험 선정 • 세 가지 부정경험(가족 돌봄, 부모 부채상속/상환, 왕따) 중 해당되는 경험이 2개 이상인 유경험자부터 우선 섭외
참여자 사회인구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쪽 성별의 비중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20대 또는 30대 중 하나의 연령대 비중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 10대시기 거주 및 성장지역의 비중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

(2)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및 특성

①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이상과 같은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및 섭외 기준에 따라 참여자 범위를 설정하고, 계획된 심층면접조사 기간 내 일정 및 장소에 참여 가능한 이들을 참여 가능자 목록에서 순차적으로 섭외하여 최종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표 V-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최종 구성된 총 15명의 심층면접조사 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6명, 여성 9명, 연령별로는 가장 낮은 연령이 20세이고 가장 높은 연령이 34세로, 20세 1명을 제외한 참여자들은 20대 중후반 7명,

30대가 8명이다. 10대시기 거주 및 성장 지역의 경우 서울 6명, 광역시 2명(인천, 광주), 도 지역 7명(춘천, 인제, 안산, 거제, 고창, 홍성, 순천)으로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성장한 배경을 갖는다. 또 대학중퇴를 포함하여 6명이 최종학력이 고졸이고, 9명이 대졸학력이며, 현재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을 하고 있는 취업자이다.

또한 참여자 구성 및 섭외 기준으로 설정한 10대시기 주요 부정경험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중 해당되는 경험이 많은 이들을 우선적으로 섭외하였는데, 총 15명의 참여자 중 5명이 세 가지(가족 돌봄, 부채상속, 왕따) 모두 경험이 있고, 그 외 10명은 두 가지 부정경험이 있는 이들로 구성되었다.

표 V-2.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구분	성별	연령	10대시기 거주 및 성장 지역	최종학력	현재 상태	주요 부정경험
1	남	28	강원도 춘천시	대졸	취업자	가족 돌봄, 왕따
2	남	32	서울특별시	고졸	취업자	가족폭력 등 문제로 학업중단, 왕따
3	여	26	강원도 인제군	고졸	취업자	가족 돌봄, 부채상속/상환
4	남	31	서울특별시	대졸	취업자	부채상속/상환, 왕따
5	남	33	서울특별시	대졸	취업자	부채상속/상환, 왕따
6	여	30	경기도 안산시	대학중퇴	취업자	부채상속/상환, 왕따
7	여	29	서울특별시	대졸	취업자	가족 돌봄, 부채상속/상환, 왕따
8	여	20	경상남도 거제시	고졸	무직자	가족 돌봄, 왕따
9	여	26	인천광역시	고졸 검정고시	취업자	가족 돌봄, 부채상속/상환, 왕따
10	여	32	전라북도 고창군	대졸	취업자	가족 돌봄, 왕따
11	남	34	충청남도 홍성군	고졸	무직자	가족 돌봄, 왕따
12	여	26	전라남도 순천시	고졸	취업자	가족 돌봄, 왕따
13	여	29	광주광역시	대졸	취업자	가족 돌봄, 부채상속/상환, 왕따
14	여	34	서울특별시	대졸	취업자	가족 돌봄, 부채상속/상환, 왕따
15	남	34	서울특별시	대졸	취업자	가족 돌봄, 부채상속/상환, 왕따

②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배경 특성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하는 총 15명의 배경 특성을 살펴보면, 본 연구의 참여자 구성 및 섭외 기준에 10대시기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나 부모의 이혼 등 안정적인 생활환경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측면도 기준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자의 다수가 10대시기 저소득층 가정에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면서 성장한 특성이 있다.

특히 학령기 전 시점이나 초등학교시기에 부모가 이혼을 하여 ‘한부모가정’에서 성장한 참여자들이 전체 15명 중 6명으로 40%의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부모의 이혼 후 주거지를 옮겨 이동하거나 불안정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이르게 독립하여 생활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는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조사에서 살펴보고자 한 10대시기 주요 부정경험 세 가지, 즉 가족 돌봄, 부채상속/상환, 그리고 왕따 경험이 경제적 취약계층과 불안정한 가족 환경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경험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바를 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심층면접조사 참여자의 주요 부정경험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학창 시절 따돌림, 일명 ‘왕따’ 경험을 절대 다수가 경험했다는 특성이 있다. 앞선 제4장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왕따 경험율이 전체 1,220명 중 482명으로 39.5%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20대-30대 청년 세대의 40% 정도가 10대 청소년 시기에 왕따 경험을 했고,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 참여자들이 취약계층 가정에서 성장한 이들이 많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본 연구의 참여자들과 같은 취약계층 청년들이 학창시절 왕따의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심층면접조사 참여자의 배경 특성에서 나타난 성장환경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10대시기 성장환경과 경험들이 20대-30대 청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가족 돌봄과 부모의 부채상속 또는 상환, 학교에서의 왕따의 경험이 성인이 되어 청년기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어떠한 방식과 과정의 맥락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1:1 심층면담을 통하여 파악하고,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심층면접조사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가족 돌봄, 부채상속 또는 상환, 왕따의 경험을 하나의 선발의 틀로 활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들 세 가지 경험에 한정되어 심층면접조사가 실시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이고 긍정적인 경험들과 더불어 다른 부정경험들도 한 개인의 생애사적 흐름과 시각에서 이루어졌음을 밝힌다.

표 V-3.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배경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주요 부정경험	배경 특성
1	남	28	가족 돌봄, 왕따	•광주 출생 태어나 아버지의 직업으로 인해 전국으로 잦은 이사, 어머니의 높은 교육열로 중학교 시절 해외연수 유경험, 장기간 할머니 돌봄 유경험, 현재 건설사 근무 2년차 직장인
2	남	32	가족폭력 등 문제로 학업중단, 왕따	•서울 출생, 12세 때 부모 이혼 후 아버지와 누나와 생활, 아버지의 알코올중독 및 잦은 폭력에 노출, 10대 후반 이혼 독립생활 시작, 현재 일과 학업 병행
3	여	26	가족 돌봄, 부채상속/상환	•인천 출생, 5세 때 부모이혼 후 강원도로 이사, 아버지와 남동생과 생활, 기초생활보장수급, 고3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교 졸업 후 7년차 직장인
4	남	31	부채상속/상환, 왕따	•서울 출생, 11세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와 누나와 생활하다가 고1 때 어머니 재혼. 현재 간호사로 근무 3년차 직장인
5	남	33	부채상속/상환, 왕따	•서울출생, 부모의 사업실패로 인한 부채상환을 하다가 어머니가 파산 신청함. 현재 보안요원으로 근무 1년차
6	여	30	부채상속/상환, 왕따	•인산출생, 태어나서 100일 안되어 부모 이혼, 어머니와 생활했으나 자녀 돌봄 소홀, 현재 병원 근무 중
7	여	29	가족 돌봄, 부채상속/상환, 왕따	•서울출생, 차상위계층 정부지원 수급, 중1 때 부모 이혼 후 어머니와 언니와 생활. 현재 어머니의 부채 상환 중이며 복지재단 근무 중
8	여	20	가족 돌봄, 왕따	•가제도출생, 고교 졸업하고 상경, 부모와의 갈등 심하 로 현재 소식을 끊은 상태. 학령기 내내 심한 왕따와 폭력 유경험, 현재 무직상태
9	여	26	가족 돌봄, 부채상속/상환, 왕따	•인천출생, 중3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와 생활, 부채 상환을 위해 고교 진학 포기하고 검정고시, 공채 시험에 합격 후 현재 은행 근무 중
10	여	32	가족 돌봄, 왕따	•고창 출생, 현재 경기도 거주 4년차, 장기간 차매 할머니 돌봄 유경험, 초등학교시기부터 왕따 경험
11	남	34	가족 돌봄, 왕따	•부천 출생, 초등학교시기부터 잦은 이사 후 현재 홍성 거주, 저소득층 부모의 자녀 돌봄 소홀, 초등학교 군대까지 왕따와 폭력 경험, 군대시기 자살시도 경험
12	여	26	가족 돌봄, 왕따	•순천 출생, 19세에 취업, 초3 때 부모 이혼 후 엄마와 언니와 생활하다 중2 때 어머니 재혼
13	여	29	가족 돌봄, 부채상속/상환, 왕따	•광주 출생, 초3 때 부모이혼 후 아버지, 오빠와 생활하다가 아버지 병환으로 어머니가 다시 합가. 10대시기 다양한 활동 참여 경험
14	여	34	가족 돌봄, 부채상속/상환, 왕따	•서울 출생,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로 인해 엄마가 경제활동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돌봄 경험, 기혼자로 5세 자녀가 있음.
15	남	34	가족 돌봄, 부채상속/상환, 왕따	•서울 출생, 위암 아버지 돌봄 경험, 병원비 등으로 발생한 가족의 부채 상황이 현재까지 계속

3) 심층면접조사 내용 및 방법

(1) 심층면접조사의 내용 구성

설문조사에 이어 이루어지는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의 내용은 설문조사의 내용과 다르지 않으며 주요 내용의 구성과 흐름, 즉 10대시기 ‘성장환경→일반/긍정경험→부정경험(가정, 학교, 사회)→정책지원 수혜 경험’의 순으로 반 구조화된 질문으로 구성하되, 설문조사와 같이 질의하고 응답하는 방식이 아닌, 큰 주제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여 참여자가 자신이 살아온 10대시기부터 살아온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야기는 초등학교시기부터 청취하였는데, 참여자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아닌, 특정한 경험부터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경우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시점을 옮기지 않고 해당 내용부터 이야기를 청취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진행하였다.

면담 시작에 앞서 심층면접조사 면담자인 연구자는 본 연구를 왜 하는지,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기 동의한 바 있는 녹취에 대한 동의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이에 다수의 참여자들은 섭외 단계에서 연구의 취지와 주제에 관한 설명을 이미 들었고 ‘필요하고 의미 있다고 판단되어 기꺼이’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심층면접조사 참여 동기를 밝히기도 하였다. 연구의 취지와 목적 설명에 이어 본격적인 참여자들과의 면담의 시작은 본 연구의 주제이자 연구문제이기도 한 ‘생애에서 10대시기 전반의 경험이 참여자들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진입로가 될 수 있는 도구 질문이다. 이 질문에 이어 심층면접조사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그림 V-2]와 같이 단계적으로 구성하고 그 내용을 청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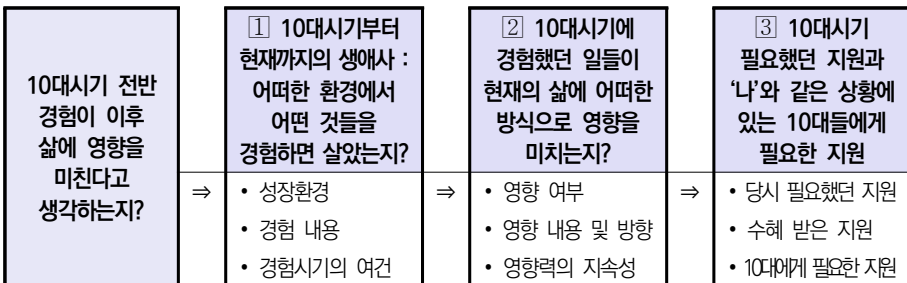


그림 V-2. 심층면접조사의 주요 내용 구성 및 진행 흐름

(2) 심층면접조사의 방법 및 연구윤리 심의

① 심층면접조사 방법

앞서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및 섭외기준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심층면접조사 참여자가 확정된 후 연구계획 일정에 따라 확정된 기간인 8월 6일~8월 20일 사이에 참여자와 협의된 일정과 장소에 맞추어 연구자와 1:1 방식으로 면담하였다. 면담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명의 연구자가 총 15명 모두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1일 총 3명의 참여자를 초과하지 않는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 1인당 면담은 1회, 시간은 최대 1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였으며, 면담 시작하면서 원하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음을 알리고, 기록을 위한 녹취에 대한 사전 동의를 확인하였으며 이미 섭외과정에서 설명된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다시 상세히 설명하였다.

표 V-4. 심층면접조사 방법

구분	내용
참여자 섭외 및 참여자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설문에 응답 완료 전, 이후 실시되는 심층면접조사에 대한 참여 의사 유무 및 섭외를 위한 개인연락에 동의 여부 확인 • ① 참여의사가 있고 개인연락에 동의한 응답자들을 데이터화 하고 → ② 이들 중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및 섭외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을 선별하여 우선 섭외 순서를 확정하고 → ③ 개별 연락을 취하여 참여의사를 확인한 후 연구추진계획에 따라 확정된 기간 내 참여 가능한 자의 여부를 확인 → ④ 참여 일시 및 장소, 면접조사 방식, 사전 배경 정보 제공 등 심층면접조사 참여에 대한 최종 동의 후 확정
면담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면접조사를 위해 대여한 시설(공간)로 참여자 내방
면담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8월 6일~ 8월 20일(15일 간)
면담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와 1:1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총 15명의 참여자 면담을 연구책임자가 모두 진행하여 일관성 유지와 더불어 면담을 진행단계에서도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1일 총 3명을 초과하여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진행
면담 횟수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1인당 면담 횟수는 1회, 면담 시간은 90분~120분으로 하되, 최대 1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
기록 및 녹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을 시작하면서 참여자가 구술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아도 되며, 면담과정에서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음을 참여자들에게 알리고, 기록을 위해 면담의 내용을 녹취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구한 후 실시
면담자	연구진

② 연구윤리 심의 및 승인

앞선 제4장의 온라인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에 대해서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에 연구윤리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심의 결과 “기 승인된 설문조사 과정에서 면접조사 대상자들에게 이미 동의서를 취득하였고, 연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의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절차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어 승인으로 판단함”의 내용으로 승인받은 후 심층면접조사가 실시되었음을 밝힌다(승인번호: 202206-HR-고유-010, 통보일: 2022.8.5.).

(3) 심층면접조사 자료의 분석

녹음된 면담자료는 전문속기사에 의해 전사되었고, 전사된 자료는 면담과정에서 연구진이 참여자별로 기록한 메모 자료와 함께 우선 주제별로 분류되었다. 분류된 자료를 연구진이 여러 차례 읽고 재분류한 후 범주화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으며, 확인 및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된 범주화 틀에 맞추어 구조화한 후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10대시기 전반의 경험과 청년의 현재의 삶을 연결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주제들을 연결하고 생애 단계의 과정으로서 10대시기 경험이 이후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을 구조화하는 데 있어, 종합적 사고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전 과정을 심층면접조사의 면담을 진행한 연구진이 직접 수행하였으며, ‘주제 분류→재분류→범주화→구조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하고 퇴고하는 과정으로 자료가 분석되었다.

2. 결과 분석 : 10대시기 경험과 영향, 그 과정의 맥락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심층면접조사 참여자들은 이구동성 10대시기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이후 생애 단계인 청년의 삶의 질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의 지속성이 큰 것으로 인식함.
- 10대시기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장환경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되는데, 하나는 경제적 취약계층 여부와 다른 하나는 부적절한 부모의 역할 및 태도로, 부정경험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는 경우 영향력이 크고 지속성이 강하여 쉽게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단, 사회적 지지가 있거나 긍정경험이 있을 경우 부정경험의 영향력은 완화되거나 상쇄될 가능성이 있음.
- 10대시기 긍정/일반 경험은 부정경험의 영향을 상쇄하거나 완화하고 영향의 방향을 전화하기도 하나,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긍정/일반 경험이 거의 없고, 부정경험이 누적적으로 중첩되는 문제 발견됨.
- 10대시기의 경험은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통합'의 결과로 영향을 미치는데, 청년의 삶에 긍정 또는 부정 영향의 방향 결정은 종이 한 장 차이이고, 지지자의 존재는 부정경험을 극복의 핵심 기제로 작용

1) 10대시기의 경험 구성과 영향

(1) 10대시기 경험 구성과 영향 과정의 맥락

앞서 심층면접조사 내용에 관한 설명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본격적인 심층면담에 앞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질문으로서 '10대시기의 경험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모든 참여자들에게 물었다. 이 질문에 대해 절대 다수의 참여자들은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는데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인지된 10대시기의 경험 영향은 크게 두 가지, 즉 경험 영향의 '시간 지속성'과 '방향성' 측면으로 구분된다.

먼저 '시간 지속성' 측면은 10대시기의 경험이 단순히 청년기의 삶뿐만 아니라 이후 생애단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한다는 점을 말한다. 이 같은 의견은 인간의 발달이 전 일생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는 '엘더(Elder)의 생애이론 (life-span approach)'의 기본 입장(정옥분, 2008, pp.75-76)과 같은 선상에서 설명될 수 있다.

“저는 되게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평생 가는 것 같아요.10대 때 특히 이제 많은 걸 좀 자극을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때의 경험이 저는 진짜 평생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참여자2)

“지금 개인적으로는 많이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계속 쪽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굳이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정신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한 번 성격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쪽 가는 것처럼 10대 때 무슨 어떤 계기가 있지 않은 한 계속 쪽 가는 것 같아요.” (참여자15)

10대시기 경험 영향의 ‘시간 지속성’과 함께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또 다른 측면은 영향이 다다른 곳, 즉 ‘방향성’과 관련된다. 참여자들은 10대시기의 경험 영향이 학업 또는 진로와 같은 가시적 성취보다는 개인의 성격발달, 사회성 및 관계, 그리고 심라정서 측면에 부인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때 성인이 되어 다른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고 보았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이나 심라정서 측면의 영향이 큰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10대시기의 경험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후 단계의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로 개인의 성격과 심라정서 발달 측면에서 내면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요. 없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중학교 때랑 그러니까 초중고를 공부도 공부인데 다른 걸 엄청 많이 했었고. 지금 20대 때에 그것에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 라고 하면 오히려 학업보다는 친구 관계 이런 것들에 좀 더 영향이 있다고 보죠.” (참여자1)

“아무래도 10대 때 살았던, 학교생활 하면서 거기 적응하면서 성격들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제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20대, 30대 때도 영향이 많이 미쳤던 것 같아요.” (참여자5)

그렇다면 어떠한 과정과 맥락으로 10대시기의 경험이 청년의 삶, 즉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이론(the ecology of development)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10대시기의 경험은 ‘가족-학교-사회’라는 청소년을 둘러싼 미시환경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다(정옥분, 2008, pp.72-74). 물론 현 시점의 10대 청소년이라면 ‘사이버 공간’을 미시체계와 함께 핵심 생활환경체계로 고려해볼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 참여자들이 현재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족-학교-사회’ 범주를 중심으로 10대시기의 경험의 영향 과정을 살펴보았다.

총 15명의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10대시기 경험이 청년의 삶, 구체적으로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그림 V-3]과 같다. ‘가족-학교-사회’라는 미시적인 성장환경의 요인이 10대시기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 경험은

크게 일반적으로 10대시기에 경험하는 일들 또는 그것이 긍정적인 경험인 것들이 있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정경험들로 구성되는데, 부정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을 긍정경험이 상쇄하는 역할을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긍정/일반경험과 부정경험은 경험한 것 그 자체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대체로 경험의 '통합'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개인의 상황인식과 의지 그리고 가족의 지지 또는 사회적 지지가 있을 때 통합된 경험의 영향력을 크기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제(key mechanism)'로 작용한다는 것 또한 발견되었다. 핵심 기제들이 완충 효과를 가진다거나 10대시기의 경험의 영향이 작다면, 시간의 흐름에 그 영향이 희석되어 20대 중반이후 청년의 삶의 질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통합된 10대시기의 경험은 지속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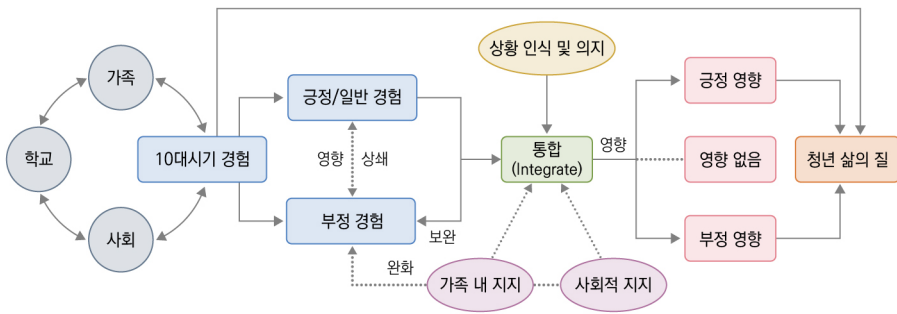


그림 V-3. 10대시기 경험 구성과 영향 과정의 맥락

이와 같은 흐름의 10대시기 경험의 영향 과정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에서는 이 과정을 상세히 살펴보고, 각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방식의 맥락 그리고 의미를 도출하였다.

(2) 10대시기 경험 구성과 주요 성장 환경 요인

① 불안정한 가족환경 : 경제적 어려움, 부모이혼과 죽음, 가정폭력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요약할 수 있는 10대시기 경험 구성의 일차적인 성장환경 요인은 '가족'에 있다. 가족의 경제적 여건과 부모가 어떠한 양육행태와 부모됨을 보이는지에

따라 10대시기 경험 내용의 구성이 달라진다. 즉 10대시기 경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핵심(key) 요인이 가족환경인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그에 이어지는 부모의 이혼과 사망, 가정폭력의 경험으로 증첩되는 안정될 수 없는 가정환경은 10대시기 부정경험의 출발선이기도 하다. 앞서 참여자 특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대 빈곤층부터 차상위계층, 그리고 일명 ‘워킹푸어(working poor)’라고 일컬어지는 근로 빈곤의 가정 배경을 갖는 이들의 비중이 적지 않은데, 이들이 회고하는 10대시기 성장환경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비롯된 결과들로 구성된다. 부모의 반복된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기에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모님의 직업 자체가 일용직과 같이 불안정하여 안정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지 않은 경제적 여건은 참여자들이 어려운 성장과정을 갖게 된 주요 배경이 된다.

“사업체 운영을 하시다가 이제 그걸 이제 중단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잠시 일을 안 하셨는데, (빛이) 일로만 커버가 안 되니까 다른 빚 같은 걸 끌어오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터지게 된 거죠. (제가) 성인이 됐을 때도 여전히 경제적이 라는 부분이 쉽지 않으니까.” (참여자5)

“그때 저희 집이 식당을 했는데 식당이 IMF 때문에 망했어요. 한순간에 거의 딱지 붙일 수준까지 돼가지고, 다 급하게 정리해서 전셋집을 구해서 5명 가족이 지하로 내려가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어려웠어요. (중략) 이후에 아빠가 회복을 못 하시고 계속 방황하시고 엄마가 바로 취업하셨는데 5인 가족 최소 생계비가 되겠어요? 어려웠죠. 진짜 공과금, 전기 끊긴 건 처음 경험해봤어요.” (참여자7)

“저희 집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높낮이가 심했었어요. 아버지가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노가다 같은 거 많이 다니시고, 어머니는 어릴 적에 고기집이랑, 그리고 흔히 말하는 재벌 2세, 재벌 집 파출부도 하시고 몇, 몇 군데 하시고.” (참여자11)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해 중고등학교시기에 아르바이트로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 경우 방과 후 및 주말은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으로 채워진다. 다른 이들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생활을 이룬 시점에 하게 되는 것이다.

“그 (기초생활보장) 수급비가 제가 성인 취업하기 전까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걸로 일단 생활을 하고. 근데 동생 기숙사비가, 기숙사비하고 생활비까지 주려면 이걸로는 모자는 거예요.

제가 한 폰도 안 쓰고 쓴다고 해도.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알바를 했어요. (중략) 뭐 많이 했어요. 미용실도 해보고 식당도 많이 하고. 식당을 오래 했거든요. 제가 2년 반 동안 하고. (중략) 미용실에서 스텝 알바도 해보고. 편의점도 해보고. 웬만한 아르바이트라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참여자3)

“호텔 이런 데 하루하루 단기 알바 이런 게 있어요. 호텔에서 연예 행사나 결혼식이나 서빙이나 아니면 세팅하는 거. 그런 거는 미성년자도 제가 했을 때는 일할 수 있었어요. (중략) 거의 주 5일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주말 뭐 켜서라도. 그 다음에는 거의 편의점 알바를 고1, 한 18살 때부터는 편의점 알바를 많이 해서. 편의점을 야간을 했어요.” (참여자9)

도래들보다 이르게 시작된 경제활동과 사회생활 경험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빠른 현실 인식과 진로선택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 나타난 이런 일 경험의 영향은 ‘열심히 일하면 가난하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지로 모아지기도 하고, ‘나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한 생각에 닿기도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살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며 진로선택에 이르기 도 한다.

“일단은 열심히 살면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가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쿠팡 알바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하도 그게 인기가 많다고 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런 게 있었다면...’ 쿠팡에서 하루 일하고 다음 날 바로 돈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오는 사람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물건 옮기고 하는 거. ‘우리 아빠도 이런 데서 일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하루 일하고 다음 날 쉬어도 되니까. 그리고 제가 알바를 하면서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았던 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이 들었고.” (참여자3)

“경제적으로 예민해짐과 동시에 독하게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그때도.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심한 사람도 부지기수고, 길거리 지나가면 솔직히 말하면 폐업해서 빈 상가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막상 보상 받은 건 없다고 좀 조금밖에 안 받은 그런 사람들 보면, 나는 그냥 어렵다고는 하는데 저 사람들에 비해선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참여자15)

“저는 약간 진로 선택을 좀 빠리한 편에 속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빨리 결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저 중학교 3학년 때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이 세상에 있을 텐데 내가 뭐로 먹고 살면 좋을까?” (참여자7)

“그냥 은행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요. 은행 딱 갔을 때 쾌적하잖아요. 그게 되게 왜냐하면 저는 전기세 이런 것도 걱정돼서 막 난방이나 에어컨을 집에서 잘 틀지 못했거든요. 엄마랑 같이 막 그때 살 때 그래서 그냥 여름에 시원하고 뭘지, 겨울에는 따뜻하고 되게 쾌적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싶고 이게 좀 있었나 봐요. 제 나름. 그리고 안정적인 게 제일 컸어요.” (참여자9)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주 부양자의 질병, 부모의 사망과 이혼 경험을 가져온다. 10대시기에 경험하는 부모의 죽음은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가족환경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개인의 심리정서적인 불안정성을 갖는 생애 주요 사건이 되기도 한다. 또 부모의 죽음과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학업중단의 배경이자 원인이 되기도 한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부도를...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가지고 그 이후 때부터 저희가 좀 가정이 많이 무너졌죠.” (참여자4)

“사회적으로는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그냥 심리적으로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빠가 돌아가신 게 아무래도 뭔가 살아오면서 뭔가 행복하다고는 느끼지 못했어요. 그 돌아가신 이후로는. (중략) 저 열여섯 살에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희생 신청도 한 상태였고, 거의 파산 수준이었기 때문에...돌아가시고 제가 아는 것은 빚밖에 남은 게 없어서. 고등학교 배정을 받고 3월까지의 갔죠.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본 거예요.” (참여자9)

부모의 죽음에 이어 이보다 강도 높게 성장환경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부모의 이혼이라는 것이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쉽게 파악된다. 앞서 <표 V-3>의 참여자의 성장환경 특성에서 간략하게 요약된 바와 같이, 총 15명의 참여자 중 6명이 10대시기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였다. 부모의 이혼은 단순히 어느 쪽 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 나타난 부모의 이혼은 우선 ①자은 이사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②생계를 위해 장시간 일하는 부모로 인해 자녀는 적절하게 돌봄을 받을 수 없고 ③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해지고, 무엇보다도 ④부모의 부정적인 상태, 감정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옮겨 내면화되어 불안과 깊은 우울을 갖는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원래는 인천에서 태어났는데,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시면서 아빠 고향이 강원도라 강원도로 내려오게 됐어요. 5살 때. 어렸을 때 엄마 기억은 아예 하나도 없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 지금은 만나긴 해요.(중략)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첫 생리를 13살 때 했거든요. 이게 뭘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엄마가 안 계셨으니까 이게 교육도 제대로 안 됐었고. 그러니까 저는 몰랐던 거죠 그런. 그제 아직도 생각이 나면은, 아직도 생각을 하면 좀 약간 좀 서글팠던 것 같아요.”(참여자3)

“저 같은 경우도 아버지가 집에 잘 안 계시고 12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일찍 엄마랑 떨어져서 살고. 그런데 또 아버지도 경제활동도 잘 안 하시고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누나랑만 같이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참여자2)

“(이혼한) 저희 아빠는 그 의무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뭐 저만 생각한 건 아니겠지만 그 의무도 중요시하지 않았으니까. 애를 낳고 끝. 약간 이런 느낌. (중략) 엄마는 일단은 한 부모가 되기 전부터 계속 자기가 가장 노릇을 하니까, 뭐 여자가 가장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같이 해야 되는 걸 혼자 하니까 계속 좀 신경이 과민해질 수밖에 없고. 뭐가 계속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중략) 부모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건강하지가 않으면 그게 아이한테 고스란히 가더라고요. 그 사람의 건강이나 경제 상태, 뭐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다.” (참여자7)

부모의 이혼이 물리적, 공간적 이동 및 어느 한 쪽 부모의 부재에서 빚어지는 상태로 인해 성장환경의 불안정성을 높인다면, 같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은 부모의 이혼 이상으로 10대시기의 불안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쉽게 회복되지 못하는 치명적인 정신건강의 문제를 남긴다. 특히 이혼의 원인 또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심한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들은 폭력 장면을 목격하거나 당한 경험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를 한 적이 있음을 덤덤하게 이야기 한다. 이와 같은 참여자들의 경험은 청년 대상 정신건강 정책, 특히 취약 계층 청년을 포함하는 정책이 단순히 이 시대 다수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취업문제만을 전제로 설계되고 접근될 때 그 한계가 명확해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아버지가 알코올중독에 도박 빼고 다 하셨어요. 바람도 피시고 가정폭력에 알코올중독에 그렇다고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칼’을 많이 꺼내셨어요. 수시로 꺼내서 이제 위협하고. 들이밀고. 진짜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고 아직도 꿈에 나오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줄곧 그랬으니까. 많이 진짜 거의 진짜 야만인처럼 살았어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진짜 어머니도 많이 맞으면서 그런 거 어릴 때 다 기억이 있죠. 엄마 샌드백처럼 두들겨 맞는 모습이라든지. 피가 난자한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중략) 18살. 고2 4월에. 그때 제가 중압감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어요. (아버지의 가정폭력 때문에) 그런 상황이 좀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약간 강박증 같은 게 좀 심했거든요. 정신적으로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심했어요.” (참여자2)

“가정폭력이라고 할까요? 아빠 음주폭력이 있었던 말이에요. 오늘도 얼마나 처먹고 와서 휘두를까 싶고 얼마나 또 싸울까 싶고,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무슨 준비물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중략) 뭐 예를 들어 제가 따돌림 경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뭘 다 하겠어요. 슬 먹고 다 두들겨 부수는데. (그런 환경에서) 저는 뭔가 착착 알아서 해내야 될 것 같은 압박. 그래서 제가 성인기에 강박증 약을 먹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이거랑 굉장히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참여자7)

② 부모의 역할 부재와 낮은 수준의 양육 능력

경제적 어려움과 부모의 죽음, 이혼과 가정폭력 등으로 빚어지는 불안정한 가족환경과 더불어 10대시기 경험 구성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주요 성장환경 요인은 부모의 역할과 양육 능력이다. 참여자들의 회고적 경험 속에서 발견된 것은 부모의 역할 부재와 양육능력이 낮은 수준일 때, 10대시기 부정경험으로 이어지게 되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심리-정서의 상태가 20대-30대 청년의 정서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경제적 취약계층 또는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한 쪽의 보호자가 장시간 노동을 해야 했던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것은 부모역할의 부재가 장시간 노동이라는 사회구조적 환경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즉 ‘10대시기 경험’이라는 것이 구성되고 그 경험의 폭이 확장되는 데에는 일차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핵심이 되고, 그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의 일상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는 여유이다.

참여자들의 회고적 경험 속에 하루 24시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하는 부모에게 자녀들과의 대화 시간을 할애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우리사회가 건강한 미래세대를 길러내기를 원하면서도 저소득층의 저임금장시간 근로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순인지가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증언된다.

“어렸던 시절이라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다 경제적인 책임을 지시고 이렇게 살아오시느라,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있었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같이 살긴 했지만 하루 동안 어머님이랑 있었던 시간은 별로 없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이제 빛도 깊어야 되지. 이제 저희도 케어를 하려면.” (참여자4)

“같이 (고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나마 아버지가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문제는 그때 아버지가 퇴근을 안 하셨어요. 한창 바쁘실 때라서 거의 새벽에 오시다 보니까 정말 지랄 살던 시절에는. 굉장히 바쁘셨어요. 이것저것. (중략) 엄마는 퇴근하면 피곤하니까

말하지 말고 일단 빨리 씻고 자라고 하고, 얘기하러 가면 피곤하니까 엄마 바쁘니까 얘기하지 말라 하고.” (참여자8)

“가족하고의 시간이 진짜 많이 없었어요. 저는 사실 제 사랑의 언어가 시간이거든요. 저희 엄마는 사랑의 언어가 보면 봉사세요. 그러니까 집에 오시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같이 앉아서 얘기도 좀 하고, 엄마는 어땠는지, 내 삶은 어땠는지 좀 나누고 싶은데 저희 엄마는 진짜 밤까지 자기 전까지 일만 하셨거든요.” (참여자14)

시간 제약에 따른 부모 역할의 부족 또는 부재의 문제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부모와 관련된 한 가지 중요한 성장환경 요인은 낮은 수준의 양육능력이다. 단순히 양육태도라는 용어에 그 의미를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부모됨’ 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부족하거나 아예 부재할 때, 즉 부모가 부모다운 수준의 양육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10대시기 경험의 구성은 달라진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취약계층의 10대시기 경험이 부족하거나 경험의 범위가 한정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부모가 낮은 수준의 양육능력을 가져 부모답지 못할 경우, 10대시기에 경험은 아예 형성되지 않아 발달지체의 문제로 이어지고, 경험의 기회는 일차적으로 차단된다.

“아빠는 또 돈 벌어야 되니까 바빠서 그제 안 뵈고 엄마는 그냥 게을렀던 사람이에요.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 이어서 저한테 뭔가 알려주는 건 없었고 그냥 그 어린 나이에 저도 이제 막 집안일(부업) 해야 되고 엄마가 이제 엄마의 유희 생활로 인해서 생활비가 다 나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식비) 1년 치가 밀렸을 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고요. 이제 이제 엄마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아빠 연락처를 알아내 가지고 아빠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집에서) 부업을 하게 된 것도 어렸을 때는 학교 다니기 전에는 그냥 엄마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그냥 했었던 거고 크고 나서는 이제 초등학교 좀 고학년 돼서는 빚이 생겼어요. (중략)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집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집에서도 생계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과는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어릴 때부터 같이 놀아야지 아이들, 친구들 또래랑 유대감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중학교 들어가서는 이제 어울리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참여자6)

부족한 ‘부모됨’은 10대시기 자녀의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나기도 한다. 앞서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및 특성 설명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수의 참여자들은 학교에서 일명 ‘왕따’라고 하는 집단따돌림 피해를 갖는다. 학교폭력의 일종인 왕따 피해에 대한 지원 상담과정에서 요구되는 보호자 상담을 보호자가 ‘낙인’이 두려워 보호자

로서의 역할을 기피한 사례도 포착된다. 이 경우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모를 통한 일차적인 보호와 위로의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고, 피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 인한 상처가 커져이 쌓이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한다.

“(왕따 피해) 상담을 갔었는데... 엄마가 죽어도 가기 싫다고 너무 창피하다고 막 낙인 찍냐. 이래가지고 저만 계속 (상담) 받았거든요. 좀 그런데... 만약 엄마가 좀 더(상담 받았더라면) 좀 관계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간다는, 거기, 위 센터에 간다는 자체가 약간 낙인을 찍고, 이상한 사람이다. 좀 안 좋은 부정적인 거의 낙인이...(될까봐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가게를 하셔가지고 엄마가 아무래도 손님, 광주 판이 좁아서 알까 봐. 좀 타인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신 것 같아요. 엄마는 인정하기 싫었나 봐요. 제가 좀 힘들고 아프다는 걸.” (참여자13)

③ 지지자의 존재 : 무너지지 않게 일으키는 힘

앞에서 기술된 불안정한 가족환경과 부모의 역할 부재 및 낮은 수준의 양육 능력이 10대시기 경험의 부정적 측면의 성장환경 요인이었다면, ‘지지자의 존재’는 이들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거나 영향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성장환경 요인이 된다. 유사한 가족환경 배경을 가지면서도 10대시기 경험 구성과 20대-30대 현재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던 이들의 차이를 살펴보면,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 누군가가 존재했으며, 그 지지자의 역할이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데 중요한 핵심 기제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지자들은 가족 안에 또는 가족 밖의 사회적 지지자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공통적으로 파악되는 것은 부모가 낮은 수준의 양육능력을 가졌을지라도 함께 자란 형제자매가 지지자로서 존재할 때 가정 밖에 존재하는 지지자들에 비해 보다 강한 영향력이 발휘된다는 점이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교회 교사 등이 지지자로 존재할 때 불안정하고 결핍된 환경 하에서 10대시기 부정경험보다는 긍정경험을 구성해 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 또한 발견된다. 이는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있어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우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엄마가 그렇게 (가정폭력으로) 힘든 와중에 같이 살았을 때. 한 번도 안 빼먹고 주말마다 교회를 데려 가셨고. 가면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니까. 그렇게 하셨고 그래도 엄마는 되게 따뜻하게

저희를 양육해 주셨어요. 전혀 정반대의 사랑이라고 따뜻하게 해 주셨고 긍정적으로 항상 이렇게 해 주셨고. 엄마랑 같이 살았을 그 시기에... 그런 애착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약간 견딜 수 있는 그게 아니었나. 그것마저 없었으면 되게 힘들었겠죠.” (참여자2)

“제가 누나라도 없었으면 평소라도 이렇게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으면 더 악화가 됐었겠죠. 더 영향을 주고. 저는 10대 때 제 정서적으로 이렇게 기댈 사람이 누나 말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너무 아버지가 힘들게 하셔서 제가 또 학교 다니는 것도 좀 힘들었어요. (힘든 것은) 마찬가지로인데 의지할 때가 있나 없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지할 대상. 저에게는 신앙이었고 누나였고 그게 없었으면 저도 아마 엇나갈 기회가 되게 많았거든요.” (참여자2)

“사실 근데 어머니랑 누나가 그래도 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이제 든든한 댁처럼 이렇게 지켜주셔서 가지고. 뭐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는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누나가 조금 더.” (참여자4)

가족이라고 모든 가족이 지지자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고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가족이 지지자가 되지 못할 때, 10대시기 경험의 구성이 부정경험으로 채워질 수도 있고, 그 부정경험의 영향이 끊어지지 못하고 지속되기도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말할 수 없었던 10대시기는 성인이 된 20대-30대에도 지속되는데, 심층면담 참여자들은 지나온 시간들을 외로웠던 고립의 시간이라고 기억하고 회고한다.

“엄마도 본인 판에는 본인도 일단 학폭을 겪었어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른 걸 몰라요. 엄마가 ‘야 너보다 심한 애들 수두룩하게 봤어’ 라고 하는데 당연히 저보다 심한 애들 수두룩하게 많죠. 세상에 별별 학폭이 다 있는데. 나도 나보다 심한 애들 수두룩하게 많은데. 근데 그러든지 말든지 제가 당한 건 제가 당한 거잖아요. 점차 중학교 때는 ‘왜 네가 그걸 극복을 못 해내냐. 할 때 되지 않았냐...제 동생은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돌아와서 집에서 울고 있으면요, 동생이 ‘쳐 울지 말라’면서 견어쳤어요.” (참여자8)

“근데 생각보다 의지할 수 있는 상대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근데 부모님도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어 가지고... 그때는 부모님도 너무 바빴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한테도 이런 얘기도 못했고 언니한테도 이런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상담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 고민을. (중략) (오늘 심층면담에서와 같이) 이런 (‘나’의) 얘기를 해본 사람이 (이제껏)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지금 이 직장에 들어온 뒤부터 약간 언니하고 조금 약간 얘기를 하지 그 전까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참여자10)

가족 이외 일상에서 마주하는 학교 교사를 비롯한 이들의 사회적 지지도 10대시기의 긍정적인 경험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기제가 된다. 참여자들이 회고하는 이야기 속에 나타난 사회적 지지는 계획되거나 가시적으로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유형의 지지가 아니다.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나’에 대한 관심이 표현되어 있을 때, 그 작은 표현과 일상의 친절함으로 보이는 표현들 속에서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사회서비스의 시작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즉 전달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상기되는 지점이다.

“(보호관찰처분 받고 고1때) 담임 선생님이 이제 때리면서 좀 공부를 좀 가르쳐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막 머리가 완전 이렇게 나쁜 건 아니었나 봐요. 가능성을 보셨는지. 이제부터 하면 그래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조금 계속 조언을 많이 해 주시고, 많이 맞기도 했지만. (중략) 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 같은 학생들 참 많이 봤지만 그래도 내가 너한테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 없었으면 난 그냥 지나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서, 어떻게 그분 입장에서서는 빈말일 수도 있었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좀 많이 힘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자4)

“제가 3년 정도 넘게 봉사를 하던 사회복지사 선생님. 그분이 약간 진로 선택이나 복지 정보 같은 거에 도움을 주시거나 제 입시 같은 거에 도움을 주셔서.” (참여자7)

“초등학교 3학년 그럴 때였었는데 그때 교회 선생님이 뭐 자기 집에 초대해서 밥을 만들어준다든지, 자기 결혼식에 초대해 주신 다든지 되게 소소한 그런 거 챙겨주시는. 그런 사랑이 되게 좋았었고.” (참여자14)

(2) 부정적 경험 영향을 상쇄 또는 완화하는 긍정 경험

① 가족과의 여행 : 한 번의 경험만 있어도 기억되는 경험

청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의 일반적이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가족과의 여행’이다. 앞선 제4장에서 ‘10대시기에 가족과 1박 이상 여행을 한 경험이 있느냐?’로 측정한 경험 유무의 값은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된 바 있다. 단순한 질문으로 보이지만, 가족과의 경험은 10대시기 어떠한 환경에서 성장했는가를 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간주되어도 될 만큼 영향력이 작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¹⁹⁾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부모가 이혼한 성장배경을 갖는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10대시기 가족과의 여행 경험이 없거나 한두 번 정도의 경험에 불과하다. 생애 한두 번 있던 일들이기에 쉽게 잊혀질 수도 있겠으나, 20대-30대 성인이 된 현 시점에서 그 경험을 또렷하게 기억하였다. 참여자들이 가족과의 여행을 상세하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은 10대시기 가족과의 여행이 단순 가족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취약계층에서 성장한 이들에게 초·중고 시절 가족과의 여행은 친구들에게 ‘나’와 ‘너’의 경험이 다르지 않음을 설명하는 좋은 소재거리가 되기도 하고, 자신감 있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items)가 되기도 한다.

“두 번밖에 안 돼요. 기억에 남는 여행은. 여행을 갈 그제 없어서...(중략) 아빠한테. 오늘 일어나야 된다. 하면 오늘 일 가시는 거예요. 오늘 쉬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쉬는 거예요. 여행이 기억에 남았던 게 춘천 소양강 댐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속초를 한 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거 말고는 여행을 가본 적은 없어요.” (참여자3)

“저는 1번 밖에 없어서 기억이 나요. 딱 1번 (부모) 이혼하기 전에 고모부 차를 빌려가지고, 속초로 여행을 갔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참여자7)

“어렸을 때 보통 보면 친구들이 ‘나는 방학 때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솔직히 엄청나게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작성해야 되는데 방학숙제로. 저는 거를 쓸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에 그냥 찾아가고 그걸로 쓴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행 같은 것들이 조금 나한테도 좀 뭔가 긍정적인 영향도 주고 뭔가 친구들한테 얘기할 소재거리도 되기도 하고.”(참여자10)

② 교내외 활동: 결핍감을 메우고 ‘나’를 찾는 경험

누구나 갖는 경험으로 간주되는 ‘가족과의 여행’이 취약한 성장환경을 갖는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경험이 아닌, 시간이 지나도 또렷이 기억하는 특별한 경험이었고 그것이 학교생

19) 제4장의 설문조사 결과, 절대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경험이 있는 이들의 가족과의 여행 경험율이 수급경험이 없는 경우나 전체 평균 경험율에 비해 낮고, 부모가 이혼한 경험이 있는 이들, 특히 초등학교 시기에 부모가 이혼한 경험이 있는 이들의 경험율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 경험자들에 비해서도 낮다.

성장환경		가족여행 경험(%)				성장환경		가족여행 경험(%)		
		있음	없음	χ^2				있음	없음	χ^2
기초생활보장수급경험	있음	68.5	31.5	17.238***	부모이혼경험	경험 없음	80.2	19.8	30.826***	
	없음	80.4	19.6			초등시기	58.5	41.5		
전체		77.8				중학교시기	71.2	28.8		
						고교시기	83.9	16.1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원자료

활에 자신감을 갖는 도구로 작동했던 것과 같이, 10대시기 학교 안과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 또한 이들에게는 일반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는다.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공공의 돌봄 서비스는 취약한 가족환경에서의 결핍감을 지원활동을 통해 채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실례가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 속에서 포착되었다.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수련관 제가 좀 오래 다녀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다녔거든요. 제가 제일 오래 다녔더라고요. 그때 캠핑도 처음 가보고. 저는 그때 오히려 좀 낯선 사람들하고 친해진, 라포 형성이 잘 되고 오히려 가족들은 못 보내니까 좀 외부한테서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참여자13)

돌봄 서비스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수가 경험하는 것은 교내외 동아리 활동이다. 동아리 활동은 제한된 범위이기는 하나 10대시기 자신의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 낼 수 있는 통로가 되며, 그 시절 자신의 의지로 무엇을 할 것인지, 얼마나 할 것인지 등 자율성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것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가족과의 여행 경험이 10대시기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였거나 부모가 이혼한 경험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교내외 활동경험은 취약한 성장환경 여부와 의 차이가 없다²⁰⁾. 본 연구에서 청취한 심층면접조사의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도 성장환경 그 자체보다는 취약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당사자의 의지에 따라 교내외 활동 경험의 구성이 달라진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그때가 밴드. OO지역에서 꽤 유명했어요. 고등학교들 내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저 포함해서 7명. 베이스랑 기타 둘, 드럼이랑 키보드, 보컬, 그리고 이제 총괄해주는 친구. (제가) 기타를 계속 쳤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참여자1)

20) 앞서 각주 2)에 제시된 가족여행 경험과는 달리, 10대시기 교내외 활동 경험율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경험이나 부모의 이혼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성장환경		교내외 활동 경험(%)				성장환경		교내외 활동 경험(%)		
		있음	없음	χ^2				있음	없음	χ^2
기초생활보장수급경험	있음	68.1	31.9	2.187	부모 이혼 경험	경험 없음	64.3	35.7	2.620	
	없음	63.6	36.7			초등시기	68.6	31.4		
전체		64.3				중학교시기	55.8	44.2		
						고교시기	64.5	35.5		

자료: 본 연구 설문조사 원자료

“(고등학교 때) 학생회도 했고, 그 금융 자격증 따는 동아리에서도 학년 장도 했었고. 그 다음에 천안 바로 옆에 아산이라고 아산에 충무공 행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매년 리더십 캠프 같은 걸 해요. 거기서도 리더를 맡았었고. 아, 교내 단체 활동은 동아리 활동 이런 거고. 교외에서도 글짓기하고, 충무공 리더십 캠프.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중학교 때는 제가 체육 활동만 단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유도를 했어서.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중학교도 유도부가 신설 되가지고.” (참여자3)

“고등학교 때 1년 동안 잠깐 댄스 동아리를 한 적은 있어요. 축제 공연하러, 그래도 나름 저희 OO에서 유명한 댄스 동아리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제가 원래 춤을 좋아해서 들어간 건데 거기를 들어가니까 공부할 시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알바도 가야 되는데 이제 공부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만 다니고, 나머지 2년 그냥 공부했어요.” (참여자12)

교내외 활동의 경험은 10대시기 부정경험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긍정적인 기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20대-30대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당시에는 쉽게 발견되지 않았던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동된다는 사실이다. 가령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10대시기 활동경험의 영향으로 발휘되기도 하고, 학창 시절에 대한 좋은 추억과 함께 20대-30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일상의 자신감으로 묻어나기도 한다.

“(댄스동아리 활동이) 너무나 재미있는 추억이고, 그때 당시에는 되게 힘들었지만 언니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춤추면서 다른 학교 가서 공연을 한다는 게 너무, 너무나 설레는 일이고. 그때 당시에는 저도, 지금도 춤을 좋아하지만, 그때는 더 좋아했으니까 그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시절을 떠올리면 행복했고, 그런 게 또 나중에 자신감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참여자12)

“제가 장교로 군 생활을 했고 나와서도 회사 다니면서도 대외 활동을 많이 해야 되요. 그런 파트에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밴드 활동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참여자1)

“일단은 제가 성인이 되고 회사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단체 생활을 할 때도 학교 다닐 때 모르는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단체 활동을 했었던 경험이... 이게 좀 적응하기가 쉽다고 해야 되나? 내가 먼저 다가가갈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그 구성원이 아니고 그 구성의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책임감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참여자3)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했다는 그 자체가 사회생활 적응에 윤희유가 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10대시기 다양한 활동의 경험이 어색하고 어려운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 구성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소재 거리가 많아 어려운 관계형성을 해나가 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형성을 어려워하는 또래 청년들과는 다른 장점을 갖는 것이다.

“나 이런, 이런 활동했다.’ 회사에 들어와서도 이제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말아서 하려는 성격들이나 그 구성원들 이끌어가려는 그런 것들이나. 이런 게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제 보여지는 것 같고. 유도를 했다고 하나까 이제, 여자애가 유도한다는 게 좀 특이하 잼아요. 그러니까 좀 어른들도 좀 좋아하시게 되시고. 최근에 사내 방송도 나왔었거든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죠. 이런 활동들이.” (참여자3)

“일을 할 때는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업무 자체는 다르고 다 새로 처음부터 배워야 되는 거라서 그런 거는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사회생활 뭐 이런 거는 경험을 한 건 있었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도움은 땀던 것 같아요.” (참여자5)

③ 팬덤 활동 : 마음속 응어리의 발산과 ‘나’를 지탱하는 도구

교내외 동아리 활동과 더불어 10대시기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내는 또 다른 창구 중 하나는 팬덤 활동이다. 앞서 기술한 교내외 활동경험과 같이,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취약계층의 성장환경에 따른 팬덤 활동 경험률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아, 이 또한 취약한 성장환경 그 자체보다는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10대시기 경험으로 구성되는지의 여부가 달라지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²¹⁾

10대시기 팬덤 활동이 생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청소년 시기에 팬덤활동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인다거나(이정만·정혜원, 2018), 기본심리욕구와 공동체의식을 매개로 하여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 갖는다거나(조안나이은경, 2020), 또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오세현·강현아, 2018)는 결과가 보고된 연구들이 있는데,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도 10대시

21) 앞서 각주 3)에 제시된 교내외 활동 경험과 같이, 10대시기 팬덤 활동 경험률은 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 경험이나 부모의 이혼 경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성장환경		팬덤 활동 경험(%)			성장환경	팬덤 활동 경험(%)			
		있음	없음	χ^2		있음	없음	χ^2	
기초생활보장 수급경험	있음	33.0	67.0	0.356	부모 이혼 경험	경험 없음	31.0	69.0	4.487
	없음	31.1	68.9			초등시기	31.4	68.6	
전체		31.5				중학교시기	44.2	55.8	
						고교시기	25.8	74.2	

자료: 본 연구 온라인설문조사 원자료

기 팬덤 활동 따른 소속감이나 동질감에서 비롯되는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을 포착할 수 있었다.

“아이돌그룹이요. 저 학교 다닐 때 드림 콘서트도 가고 이랬었어요. 팬클럽들은 차 대절 이런 것도 해줘가지고 학교 앞으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전주나 광주에 가서 하면 거기서 차 태워 주거든요. 거기서 타고 서울 가서 응원하고 내려오고 그때 당시에 나는 누구 팬이야 이러면 그 안에서는 소속감이 생겨가지고 더 얘기할 수 있는 거리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참여자10)

“저는 OOOO팬이 됐어요. 열심히. 솔직히 팬이면 사이버에서 만나다가 진짜 오프에서 만나면 되게 반갑기도 하고, 뭔가 처음에 어색하긴 했는데 딱 팬이라는 동질감 하나로 이렇게 뭉칠 수 있다는 걸 저는 좀 ‘단합’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학교에서... 솔직히 학교랑 가정에서 좀 겹들었는데 덕질 할 때는 덕메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뭔가 편하고 막 그런.” (참여자12)

팬덤 활동을 경험한 참여자들이 말하는 소속감이나 공동체의식은 단순히 동일한 스타를 향한 이들의 모임이라는 측면에서만 읽히는 것은 아니다. 즉 10대시기 팬덤 활동은 가정과 학교에서 ‘나’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연결되지 못하였던 결핍감을 팬덤 활동에서 만나는 이들을 통해 채우기도 하고, 응어리로 담아두었던 ‘나다움’을 분출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되는 것이다. 또한 스타라는 대상에 집중함으로 인해, 취약한 가족 환경과 적응하기 힘든 학교 환경에서 발생하는 힘겨운 상황들에서 한 발 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지탱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이기도 한 것이다.

“초등학교 때는 근데 사실 저는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냥 언니하고 같이 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니까 언니가 같은 팬인 저를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뭘 사고,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언니랑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아무튼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중학교 때는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중학교 때였거든요. 저희 가족이 다 아빠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던 시기여서. (중략) 그 가수들의 음악을 들으면서 일단 마음에 어떤 치유가 좀 되고, 뭔가의 마음이 뻗기고 가니까 상대적으로 좀 힘든 마음들이 좀 더 줄어드는 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14)

“(팬덤 활동을 해서) 그게 약간 성격을 바꾸는 데도 많이 도움 되기는 했어요. 제가 약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 좀 약간 이렇게 학교폭력 당한 요인이 내성적이고, 약간 이 요인이 조금 크다고 생각되기는 했거든요. (중략) 팬 활동을 하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랑 채팅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많이 도움 됐었어요. 콘서트를 가게 되면 이 사람을 실제로 만나기도 하고, 약간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성격 자체도 뭔가 좀 더 외향적으로 달라지고 친구들 다가가는 것도 좀 더 쉽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좀 변화가 되기는 하더라고요.” (참여자10)

2) 10대시기 쉽게 드러나지 않는 세 가지 부정 경험의 맥락과 영향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이 때까지 정책영역에서 '돌봄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었던 청소년은 가족 안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몸이 불편한 부모나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돌보는 일상의 돌봄 제공자(care giver)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책임감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얽힌 상태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그 경험은 10대시기 당시 학습권과 놀권리를 침해하고 압박감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크지만, 청년들이 회고하는 영케어러(young carer)로서의 경험은 긍정 영향과 부정 영향이 공존
-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사망과 함께 부모의 빛을 상속해야 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문제 또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10대시기에 겪게 되는 경험이고,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도움을 청할 곳에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설사 법률조력자가 존재한다 해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사안이 처리되며, 적절한 법적 대응이 되지 못할 경우 청년기가 오르지 부채 상환을 위한 힘겨운 시간으로 채워짐.
-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신체폭력과는 달리, 파가해 사실을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따돌림, 일명 '왕따'의 경험은 초등학교시기부터 시작되어 결국에는 내내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만성질환이 되어 20~30대 청년이 된 현재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있어 '왕따'는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피할 수 없는 디폴트(default)로 이루어지는 경험이며 게임몰입은 '왕따'라는 현실을 잠시 잊게 하는 탈출구

(1) 영케어러(Young Carer)로서 돌봄 경험

① 돌봄제공자(Care giver)로 인식되지 않는 일상생활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부모나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돌보거나, 가사를 돕고 감정측면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영케어러(young carer)'라고 칭하며 서구 선진국에서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이들을 지원한다(조성민, 2022.2.24., p.1; 허민숙, 2022, p.1; 시부야 도모코, 2021, p.6; 일본케어러연맹(日本ケアラー連盟)누리집, 2022.8.4. 검색 및 인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청년정책이 정책 영역 및 분야의 확장을 가지면서, 가족을 돌보느라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는 청년에 대한 관심으로 가족돌봄자, 일명 '영케어러'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대응이 시작되었다. 공식적인 정책 대응은 2021년 제6차 청년정책조정회의(2022.2.14)에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고, 후속으로 보건복지부가 「가족돌봄 청년(영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2022.2.14.)한 데서 출발한다. 이 계획에 따라 현재 소관부처를 중심으로 ①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정책 대상자로서의 정의(definition) 설정, ②중·고교재학생부터 34세 이하 청년 대상 실태조사 실시, ③특별법 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그리고 ④시범사업(서대문구)이 추진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22.2.14.).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태조사가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청년연령(19세~34세)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19세 미만 중·고교생을 실태조사에 포함하고, 학교밖청소년

년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청년정책의 관점에서 관심을 갖는 정책의 대상은 18세 미만의 영케어러(young carer)가 아닌 '청년 영케어러(young adult carer)'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청년 영케어러'에 초점을 둔 시각으로는 18세 미만 영케어러의 실태를 제대로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미 착수된 실태조사에는 영케어러의 생애단계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초등학생들이 누락되어 있는 한계가 있다. 생애 어느 시점과 단계에서 가족 돌봄이 시작되는지, 일차 간병자인지 또는 조력자인지에 따라 고려할 사항과 지원방법이 달라져야 한다(시부야 도모코, 2021, p.9). 그렇기에 개념정의와 용어의 사용, 지원의 목적과 대상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될 때 적절한 정책지원이 가능하다.

실제 영케어러의 가족 돌봄은 그보다 더 어린 초등학교시기부터 수행되고 있고, 돌봄 대상자는 조부모인 경우가 다수이다. 본 연구에서 청취한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도 일상에서 조부모에 돌봄을 제공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포착된다. 조부모의 일차적인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이는 부모이고 참여자들은 부모의 돌봄 노동을 돕는 '조력자'로서 위치하지만, 그들의 경험 속에 나타난 돌봄의 내용은 단순한 조력자의 역할이 아닌, 부모가 부재한 짧은 시간에 일차 간병인의 역할을 적지 않게 수행한다.

“(초등학교때) 외할머니가 멀리 (정읍에) 계셨는데 약간 치매... 그때 다른 이모들이나 이모부들이 못 모신다 해서 아마 저희 집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중략) (어머니가) 퇴근하고 오시면... (그 때까지) 그 빈 시간에 제가 외할머니랑 같이 있는 시간들이 많았죠. 고스톱 치고, 필요한 거 갖다 드리고.” (참여자1)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때 할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쓰러지셨거든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고 그때는 퇴원을 하면 누군가는 돌봐야 되는 상황이 다 보니까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거를 케어를 했었어요. 밥을 할머니 밥을 챙겨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엄마가) 미리 조금 해놓고 일가시면 저희가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할머니 앉혀드리고 거기에 밥 드실 수 있게 해드리고. 국 같은 거 있으면 혼자서 못 드시니까 그거는 같이 먹여드리고. 말씀도 좀 어눌하셔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어렸을 때는 좀 그게 좀 많이 힘들기는 했었어요.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가고, 집에서 공부하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약간 소리 지르시고, 이러면 보통 화장실 가고 싶을 때여서 그럴 때 언니랑 저랑 같이 이렇게 해서 화장실 해드리고.” (참여자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돌봄 제공자의 역할은 당사자는 물론 역할에 대한 책임을 부여 하는 부모 또한 돌봄 제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개입할 여지가 없는 사적영역의 일이고, 영케어러의 역할은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효’이자 ‘도리’라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식이 절대적인 우리사회에서 영케어러는 돌봄 제공자로 인식조차 되지 않고, 이들의 돌봄 제공은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인식되지 않는 일상으로 반복된다.

“엄마가 거동이 불편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하는 것도 불편해지니까 제가 주말에 한 번씩 (외할머니에게) 모셔다드리고 같이 얼굴 보고 오고 그런 식이었어요. 자식이자 보호자였죠, 뭐” (참여자6)

“아빠가 그 병원이 제가 중고등학교 붙어 있는 데를 다녀가지고 같은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아빠가 부르면 좀 쉬는 시간에 나갔다 오고 점심시간에 나갔다 오고 그랬어요. (중략) (저는) 그냥 뭐 말벗. 그때. 거의 중학교, 본격적으로 입원하신 게 중학교 1학년부턴 계속,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쭉.” (참여자13)

② 돌봄제공자로서의 역할: 부여된 책임감과 ‘인정’의 갈구

반복되는 돌봄의 일상은 경제적 어려움이 동반될 때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기도 한다. 다시 말해, 부모의 간병과 돌봄, 거기에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까지 삼중고에 내몰리고, 가족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린 돌봄 제공자의 역할은 그만큼 늘어난다. 그러한 상황에 놓인 10대시기의 경험에는 청소년시기에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학업과 교내외 활동은 물론 그 외 개인적인 시간이 허용되지 않는다. 삼중고 경험을 갖는 영케어러에 대해 우리사회는 ‘효자’라고 하겠지만, 당사자는 ‘철이 든 삶’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강제된 삶’으로 회고한다.

“(중1부터 아버지 돌봄) 그냥 병원 같이 가 가지고 약 가져오라 하면 약 가져오고, 위암이 있어 가지고 항암 치료를... 지금도 다른 부분에서 지옥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병적인 걸로 좀 지옥 이어가지고 솔직히 병도 병이지만 경제적인 것도 아프면 그냥 순간 그냥 말 그대로 빗이니까. (중략) 여유가 없고, 부모님이 아픈데 뭐 경제적인 일을 해야 되고, 병원도 가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시간은 아예 없었죠. (중략) 철이 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살아왔다는 거죠. 말 그대로 눈치 보고 살아왔다는 거죠. 생각할 겨를 자체가 없었어요. 부모님이 아픈데 그리고 또 병원비도 엄청 나오는데 그것들을 어쩔 수 없이 그냥 해결을 하자라는 삶을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15)

부모와 조부모에 대한 돌봄 제공을 하는 데는 가족의 상황이라는 것이 크게 작용하여 삼중고에 내몰리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특히 조부모에 대한 돌봄 역할은 부모가 부여하는 책임감과 전통적인 가족문화에서 거부할 수 없는 역할로 수행된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돌봄 역할의 수행이 부모의 요구나 도리에 의해서만 작동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영케어러의 내재된 욕구를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부모가 부여하는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써 ‘칭찬’ 또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즉 어린 돌봄제공자들의 역할 수행은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부모가 심어주는 책임,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얽힌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머니가) 오늘도 할머니랑 시간을 보내서 잘했다. 고맙다. 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어느 정도 성취감? 물론 난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나는 칭찬을 들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도 그냥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참여자1)

“이거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참여자10)

③ 긍정과 부정의 영향이 공존하는 돌봄 제공자의 경험

10대시기 돌봄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당사자들의 평가는 어떠한지 살펴보면,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공존한다. 긍정적인 영향은 10대시기와 그 이후에 미친 영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돌봄을 제공하는 당시 시점의 긍정적인 영향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지만, 20대-30대 성인이 된 이후 삶에 돌봄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은 타인과의 관계 측면에서 돋보인다.

영국에서 분석한 영케어러 경험의 긍정적 영향 여섯 가지(①나이에 비해 생활력 강함, ②멀티태스킹이 능숙, ③다른 사람의 이야기 경청, ④인내심이 강함, ⑤질병과 장애에 대한 이해 깊음, ⑥타인 배려; 시부야 도모코, 2021, p.15)를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평가하는 긍정적인 영향과 비교했을 때, 대체로 10대시기 이후 영향에 해당할 만큼 돌봄 당시의 긍정적인 측면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본 연구의 참여자의 경험 속에서 포착된 긍정적인 영향은 두 가지의 심리-정서적인 측면이었는데, 하나는 돌봄 당시 방과 후 나 홀로 아동이 되었을 상황에 조부모를 돌보게

되어 오히려 그 시간이 외롭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인이 된 이후 조부모를 돌보았던 경험 덕분에 또래 세대에 비해 직장에서 나이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이다.

“그때 당시에 아버지와 같이 안 살았거든요. 어머니도 나가실 때가 있었으니까. 나랑 같이 있는 누군가가 있다. 근데 그게 (외할머니가) 지병을 앓고 계셨어 가지고 좀 케어를 해드리는 입장이었지만 ‘누군가가 나랑 같이 있다’라는...그러면서 그냥 외할머니랑 시간을 보낸 그게 커서 봤을 때 어른들한테 좀 더 잘할 수 있는 계기인 것 같아요.” (참여자1)

“(조부모 돌봄 경험) 뭐가 그래서 회사에서도 아빠보다는 조금 한 10살 정도 어리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다른 직원들은 좀 이분들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로 하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얘기를 잘 못하시고 하는데 저는 엄청 잘 해요.” (참여자10)

긍정적인 영향과는 달리, 부정적인 영향은 돌봄 경험이 있었던 10대시기 당시에 학교생활 측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난다.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 나타난 부정적인 영향은 우선 공부와 숙제에 시간을 쓰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보니 학교 숙제와 준비물을 챙기지 못하는 일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숙제는 안 했어요. 숙제는 안했고, 학원은 다니기는 했었는데 학원 숙제도 안했습니다. 준비물도 안 챙겨갔어요.”(참여자1)

“(학교에서 챙겨갖고 오라는 것을) 안 가져 간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그거를 챙겨주시는 것도 잘 안 됐어가지고. 그래서 위에서도 안 챙겨주니까 혼자 놓고 가면 빌려 쓰거나 살 수 있는 것은 문구점에 가서 사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참여자10)

돌봄 조력자의 역할부터 영케어러의 역할이 시작되지만, 나이가 많아지면서 돌봄의 양이 늘고, 성별 차이도 있어 집안일과 돌봄의 비율은 여성의 수행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시부야 도모코, p.59). 본 연구의 참여자의 경험에서도 돌봄에 대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힘든 상황을 잠시나마 피해보고자 했던 알려진 기출을 시도한 사례도 10대 시기 당시 부정적 영향의 하나로 포착되었다.

“너무 힘들거나 하면 집을 나갔어요. 어렸을 때 가출 아닌 가출도 여러 번 했었어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친구네 집에서 자고 다음 날에 오고 이런 거 여러 번 했었어요. 의무감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아는데 어린 나이다 보니까 놀고 싶기도 하고, 이 나이에 왜 내가 이것까지 다 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참여자10)

(2) 부모 부채 상속 또는 상환 경험

① 갑자기 생긴 부채와 상환 의무

「민법」에서 규정하는 부모 사망 후 상속은 나이를 고려하여 성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인 10대시기에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부모의 빚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과정이 이루어진다. 상속의 순위는 사망자의 자녀(아들 또는 딸)가 1순위이고, 그 다음은 손자녀→부모→조부모→형제자매→3, 4촌의 순이며, 앞 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진다(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21, p.10).

부모 사망에 의한 상속처리는 일반 성인들도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속관련 법률 사안에 대한 이해가 있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미성년자인 10대 청소년이 상속에 관한 법률과 법률에 따른 처리 내용을 알아 대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러한 이유로 법률에서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즉 친권자나 후견인이 그 과정을 대신하게 하지만, 문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또한 잘 알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남긴 빚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걸 말씀을 잘 안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병원에 취업을 했을 때. 그때 얘기하시더라고요. ‘빚이 많이 남아 있는데 내가 도저히 혼자 갚기에는 벅겁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가지고 그때부터. 이게 원래 아버님 빚이 저한테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상속으로, 그래가지고 어차피 내가 갚아야 빛이면 내가 갚겠다고 해서. 지금 한 4년 됐죠. 처음부터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머니도 거기에 대해서 아예. 저도 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냥 흘러갔던 것 같아요. 전혀 몰랐죠. 그냥 계속 갖고 있었던 거죠. 이자가 높아 질 때까지.” (참여자4)

이에 더하여 법률 지식의 문제만이 아닌, 친권자가 부모역할이나 부모됨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나 부모가 없거나 존재하지만 이혼 등의 사유로 오랜 기간 연락 없이 지냈을

경우 법정대리인을 확정하는 것부터가 큰 난제가 된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과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부모가 사망한 후 남겨진 재산과 그보다 많은 부채, 그리고 그 상속의 1순위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라도 주변의 성인의 도움이 없이는 빛이 대물림되지 않게 단절시키는 법률적 방법을 알기는 어렵다.

“일단은 제가 그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좀, 상속 이런 거 알아보다가 이제 ‘상속 포기’라는 거를 알아보게 됐어요. 혼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왜냐면 변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근데 고모가... 고모 도움 받아서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상속 포기하고.” (참여자3)

무엇보다도 미성년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매우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일어난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 참여자들 중 부모 부채상속 또는 상환을 했던 경험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쉽게 발견된다. 전혀 모르고 있던 일들이 하나둘씩 겹겹이 쌓이고, 막막한 상황에서 홀로 마음 졸이다 주변 친인척의 도움을 받거나 법률지원서비스의 도움을 구하기도 한다.

“아빠의 부채가 있다는 거는 그...(사망)신고할 때였던 것 같아요. 운전면허증이랑 주민등록증 반납하고 서류를 발급을 받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부채가 있다는 거는 몰랐고 아빠 앞으로 재산이 있다는 거를 알았거든요. 근데 자동차 하나하고 집,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세금이 계속 나올 것이다 라고만 전달받았어요. (중략) 실질적으로 부채가 있었던 걸 알게 된 것은 (고모가 소개해 준)변호사가 이제 다른 게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 알았어요.” (참여자3)

“그때 뭔가 일이 많았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짐 정리, 그때 하필 집 그때 살던 데가 재개발이 돼가지고 쫓겨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가지고, (중략) 아빠가 부채가 있다는 거를 그전까지는 몰랐어요. 갑자기 어느 날 제 이름으로 고소장이 날라 와 가지고 처음으로 법원 옆에 대한법률구조공단도 가보고, 오빠가 아무래도 군대에 갈 그때여가지고 제 이름으로 온 것 같아요. 멘붕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너무 그때 막막했죠.” (참여자13)

② 이해하지 못하고 처리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주변의 도움으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까지 접근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상속자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부모 빚의 이전을 단절시키는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던지, 아니면 물려받을 재산 한도 내에서 부채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으로 처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급한 부채상속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당사자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부모의 부채 상속이 처리가 되었는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부채를 상환하지 않게 상속문제가 처리되었다는 결과만 알 뿐, 본인이 상속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속포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상속자의 지위는 유지하되, 재산으로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한정승인'이 된 것인지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상속 관련 법률 지원이 성인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미성년 상속 당사자에게는 그 내용이 더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에 있어 청소년 친화적 인적지원의 필요성이 제시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변호사가 상속 포기해야 된다. 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그때 보험사에서 구상이 들어왔었더라고 요. 그러니까 이제 구상 들어가면 이게 계속 붙어날 걸아니까. 이거를 빨리 막아야 되는데. 변제 능력이 저희가 없으니까 당장. 그래서 상속 포기 바로 진행하고 이제 나머지, 아빠가 이제 읍에나 이런 자동차세 밀렸던 거는 바로 제가 내고.” (참여자3)

“그다음에 오빠랑 대한법률구조 갔는데 오빠가 그때 학교 다닐 때인데 군대 준비할 때라 제가 대한법률구조공단 가고, 막 맨날 거의 들락날락거렸거든요. 그래도 학교랑 가까워가지고 뭐 학교 끝나고도 가고 그랬는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우선 출석을 하라 해가지고 하고, 또 5년 후에 코로나 전에도 막 서울지방법원 가서 1번 출석했는데 그 뒤로는 또 고소장을 안 보내더라고요. 다행히.” (참여자13)

③ 길고 긴 부채 상황: 내 인생의 시간과 발목을 잡은 어둠의 터널

현행법상 「민법」 제1026조제2호 규정²²⁾에 따르면, 부모가 남긴 재산보다 부채(채무)가

22)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 한 때(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2.10.3 검색 및 발췌)

더 많아 법률에 따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부채를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 갚아야 한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민법」 제1019조제1항 규정²³⁾과 같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가 되어야 하는데, 법률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이 기간을 인지하고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날에 곧바로 상속개시가 되기 때문에 부모님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사망한 부모의 최종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미성년자 명의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21, p.16)을 해야 하지만, 미성년자는 물론 법정대리인도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여 단순승인, 즉 그대로 부모 빚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도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청취할 수 있었고, 단순승인으로 상속한 부모 빚의 상환은 성인이 된 이후는 물론 현 시점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다.

“아버가 개인한테 돈을 빌리셨는지... 그분이 직접 저한테 연락을 한 적도 있거든요. 빚 갚아야 된다. 너네 아빠가 못 갚았으면 너라도 갚아야 된다. 근데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게 제가 학교 고등학교 3학년인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등기를 보낸 거예요. 그분도 분명히 아빠 돌아가신 거 아실 텐데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법적으로 처리했다. 했으니까 더 이상 등기 보내면 저도 가만히 안 있겠다고 얘기하고서... 근데 털렸죠. 그때는 약간 좀 불행했던 것 같아요. 왜 나만 이런, 이렇게 해가지고. (중략)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좀 나 혼자 비참하고, 나 혼자 이걸 처리해야 되는 된다는 약간 불안함. 이런 게 컸었죠.” (참여자3)

“상속, (한숨) 그렇죠. 엄마 명의로 된 빚이니까. 그런데 그분은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갚고 있는 거고요. 저 혼자. 원금이랑 이자가 다 있는데 그걸 제가 경제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 갚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아빠랑 연이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빚은 온전히 저랑 언니가 나눠서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중략) 저는 그때 당시 어려가지고 ‘그냥 내가 빚 갚지, 뭐’ 이렇게 호기롭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 7천만 원 남았어요.” (참여자7)

23)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2.10.3 검색 및 발췌).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표 V-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①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신 설>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하였다라도 상속 채무 초과사실을 안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 성년이 되기 전에 본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 2. 성년이 된 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경우: 안 날부터 6개월 내

* 출처: 법무부(2022.8.9.), '미성년자 및 대물림 방식을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p.4

성인이 된 이후 상속할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제1019조제4항을 신설하는 것이다(법무부, 2022.8.9.). 개정 법률안 내용 그대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때,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측면의 제한은 다소 완화되는 효과는 있겠으나, 법률지원을 받기까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와 과정에서 높은 장벽은 여전히 남기 때문에 법률 개정 이후 후속적으로 필요한 제도시행 및 보완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학교폭력 ‘왕따’ 경험

① 초등학교 시기부터 정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만성질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정의 규정²⁴⁾을 살펴보면, 일명 ‘왕따’로 불리는 따돌림은 엄연한 학교폭력 범주 안에 있지만, 학교폭력의 사안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고 다른 언어적·신체적 폭력행위 또는 강요나 강제적 심부름 등이 동반되었을 때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쉽다.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의 여러 유형 중에서 따돌림이라는 ‘왕따’에 주목하는 것은 사안으로 명확하게 처리하기도 어려움과 동시에 여간해서는 제3자가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왕따로 인한 상처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20대-30대 청년의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최근 유튜브 영상자료 등을 통해 증언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상자료 어린 시절, 또래 아이들의 폭력적인 언어와 괴롭힘이 아니더라도 무시와 경멸의 태도는 한 사람의 존엄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성인이 되어서 떠올리는 학창시절은 그리운 추억보다는 외롭고 두렵고 잔인한 시절로 상기된다(씨리얼, 2019, p.13). 왕따로 받은 상처는 쉽게 드러나지도 않지만 쉽게 회복되지도 않으며, 청년기에도 지속되는 깊은 우울감 등의 심리·정서 문제 발현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청취한 참여자들의 왕따 경험을 들여다보면, 왕따의 피해는 초등학교 저학년시기부터 시작되며 학령기 내내 지속되기도 한다. 너무 이른 시기부터 정신적 스트레스가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그냥 왕따를 시킨 거죠. 그때 당시에 저도 초등학생이고 개네들 초등학생인데 너는 성격이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왕따가 시작됐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배제를 시키고 그랬었죠. 저는 눈치가 없었어가지고 왕따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축구 꺼달라 그러고.” (참여자1)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냥 딱 (초등학교) 입학해서부터 어떻게든 좀 친구를 사귀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마음처럼 안 되니까. 그때도 엄청 괴롭히고 뭐 때리거나 뭐 그런 건 다행히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저를 멀리한다든지 뭔가를 할 때 끼워주지 않는다든지, 특별 과제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022.10.3 검색 및 발췌).

같은 거 할 때도 저랑 같이 하는 걸 싫어한다든지. 이게 눈에 보이니까 저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참여자6)

“가기 싫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학교는 가야 되니까 가는데 이렇게 밖에 생각 안 들었고. 중학교 때는 가기가 싫었죠. 그냥 의무교육이니까 가야지 어떡하지 약간. (중략) 약간 은따 라고 하죠. 은근히 그러니까 약간 껴주는 척하면서도 그 안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잘못하거나. 그런 게 좀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심했다고는 들어요. 그래서 더 가기 싫었던 것도 있어요.” (참여자9)

초등학교시기부터 시작된 왕따 경험은 학령기 내내 반복되고 누적되기도 하는데, 학교 급이 올라갈 수도 그 강도는 세지고, 다른 신체적 폭력이나 사이버 폭력이 동시에 동반된다. 지속된 따돌림의 상황으로 위축된 마음과 무너진 존엄성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러한 상태는 대학에 들어가서도 반복된다.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포착되는 왕따 경험은 10대시기, 즉 초등학교시기에 발현되어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질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초등학교 때 입학한 지 이틀 만에 애들하고 멀어지게 됐어요. 별 큰 계기는 아니었어요. 반에서 꼬집혔거든요. 진짜 말 그대로 꼬집혔어요. 책 가지러 가는데 딱 책꽂이 옆에 앉은 애가 저를 꼬집었다가 (제가) 운 거 하나 때문에 그걸 본 애들이 다 단체로 놀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왕따가 시작된 거예요. (중략) 중학교 때는 처음에는 그냥 찌따였다가 옆 반에서 ‘그런 찌따가 있대’ 그렇게 되다가 점점... 애들이 그 강도가 많이 세졌다 보니까 저도 애들을 기피하고. 고등학교 때는 한창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1학년 때 뮤지컬 부를 했을 때 저를 왕따시키던 저 괴롭히던 애 중 하나가 무대 뒤에서 저의 목을 졸랐어요. 남자애들은 보통 그런데 여자애들은 은근히 이제 뒤에서 뒷담화 하던가...(중략) 사이버폭력은 자기들끼리 단체 톡 방 파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애다가 올려놓고 자기들끼리 욕하고 하는데 근데 저 빼고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참여자8)

“그때는 뭘 모르니까 더 약간 좀 이렇게 짓궂게도 많이 하고, 재는 더러우니까 재랑 놀면 안 돼. 약간 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 그게 한 1년 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나마 그래도 약간 유치원 때부터 같이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놀고 이랬는데 2학년 때 하고 한 3학년 때 초반 정도까지는 친구가 없었어요. (중략) 대학가서도 그렇게 잘 지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OT에도 참석을 안 했고. 그러다보니까 더 약간 소외되고. 개강을 했는데 혼자 거의 왕따처럼 있고. 이런 게 계속 생활화되다 보니까 더 위축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여자10)

② 왕따의 게임몰입: 괴로움을 잊기 위한 탈출구

왕따 피해로 인한 일상의 스트레스는 어느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기 어렵고, 당시 자신의 상태가 왕따로 인해 빚어지는 괴로움인지에 대해서도 인지하기 어렵다. 초등학교시기부터 시작된 왕따는 중·고등학교 시기가 되면 피해의 양상이 심해지는데, 그때 당사자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현실 회피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발견된 왕따 피해자들의 현실 회피의 도구로 선택된 것은 게임인데 참여자들은 중독이 되었다고 인식되었을 만큼 게임에 몰입했다고 회고한다. 당시의 게임은 즐거운 오락거리가 아닌,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탈출구였던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청소년 게임몰입 또는 중독을 이해함에 있어, 단순히 게임이라는 매체의 유해성이나 이용 시간의 양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게임이용자의 상태와 배경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게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게임은) 그 순간만큼은 잊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게 더 심할수록 더 좀 어떻게 보면 오래 더 할 수는 있겠죠. 시간에, 현실로 다시 돌아오면 다시 또 그 현실에 대해 안 좋은 것들을 다시 또 마주쳐야 되니까. 저는 그런데 오히려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가 좀 더 심했던 것 같고요. 가정적으로도 좀 약간 불우한 부분이 좀 고등학교 때가 좀 더 악화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참여자5)

“제가 딱 (왕따와 폭력 피해가 심했던) 중2, 중3에 (게임에) 빠졌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가 그때가 고2, 고3인 거잖아요. 근데 저희 언니가 또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막 진짜 밤새서 했거든요. 게임을. 엄마가 팍 돌으신 거예요. 내가 미쳤대. 고3인데 이렇게 게임. 그래서 엄마가, 진짜 부시려고 그랬어요. 컴퓨터를 자판기 막 진짜 날려버리시고, 진짜 부시려고 비싼 컴퓨터를. 그런 엄마의 모습을 처음 봐서 저희도 진짜 손이 떨릴 정도로 너무 무서웠거든요. 엄마가 화내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언니랑 우리 절대 하지 말자. 그래서 너무 하고 싶었지만, 진짜 정말 중독 현상이었거든요. 그때는. 저희 스스로도 인정을 했어요. 이건 중독 현상이다.” (참여자14)

③ 취약계층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디폴트(default)

앞서 심층면접조사 참여자 구성과 특성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심층면담에 참여한 총 15명 중 14명이 10대시기 왕따 경험을 가지며, 근로빈곤층 또는 부모의 이혼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의 경우 모두가 왕따 경험을 한 바 있다. 이는 왕따의 경험이 취약한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초등학교도 무난한 듯 보이는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어울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친구들 방식과는 달랐던 거죠.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건데. (중략) 집에서 엄마가 담배를 피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칸방에서 담배를 피우니까 냄새가 저한테 옮기면서 친구들이 담배 냄새 난다고 놀리고. 급식비를 내야 되는데... 계속 밀리다가 1년 정도가 밀리니까 이제 선생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집에 무슨 사정 있냐. 그런 말도 하고. 뒤에서 몰래 챙겨주시는 분도 있지만 앞에서 대놓고 ‘너 뭐 급식비 얼마 밀렸다. 몇 달 치 밀렸다’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참여자6)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부모의 이혼이 또래 아이들의 놀림감 소재가 되어 그것이 결국 왕따 경험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부모 이혼이라는 불안정한 가족환경으로 인해 자신이 또래 친구들에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관계 형성을 긍정적인 태도로 할 수 없었으며, 그것이 당시 자신이 가졌던 자괴감이었을 것이라 토로한다.

“저는 솔직히 처음 왕따를 당한 게 부모님 이혼해가지고, 그게 제가 말하고 다니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말했냐? 그래가지고 제가 10살 때. 저는 그래서 왕따를 당한 것 같아요.” (참여자13)

“이제 중학교 들어와서 중1 때 사실 크게 반 친구들이 왕따를 시켰던 경험이 있었어서 그제 한 몇 개월 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잘 풀어져 있었다가. 이제 중2 때 이제 조금 친구들을,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가정이 불화되면, 이제 가족이 이렇게 온전치 않으면 이제 약간 나쁜 길로 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시기가 있다 보니까.” (참여자4)

“왕따 당했을 때 진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막 그랬었어요. 제일 처음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부모님이) 이혼한 시기. 그 시기쯤이었어요. 진짜 사소한 거. 그냥 뭐 얘기하다가 뭐 말다툼을 했는데 그러면서 애들이 점점 멀리하는 거죠. 그때는 제가 또 더 예민해져 있는 시기고 엄마, 아빠 막 이혼했으니까 막 뭔가 그때 어릴 때는 내가 막 불쌍한 것 같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괜히 내 욕하는 것 같고 애들이. 자괴감이 엄청 많이 들고 막 하나씩 또 예민해서 애들한테 막 대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죠.” (참여자12)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이 빈곤가정에서 성장했던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는 취약한 가정환경과 상태에 있는 이들이 왕따의 대상은 물론 신체 폭력의 대상으로 쉽게 대상화되고 있음이 포착되었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가해자들이 쉬운 상대로 보고 폭력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의 예방이 왜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하는지 상기되는 지점이다.

“학교가 되게 사각지대가 많아요. 안 보이는. 그런 데서 (선배들에게) 많이 맞았죠. 맨손으로. (이유는) 마음에 안 든 것도 있고, 쳐다봤다고 그런 것도 있고, 실제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 기분 나쁘니까 그런. 근데 제가 이런 폭력에 있어서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딱 하나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만 들었어요.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재보다는 좀 잘 살아야지. 약간 이 생각.” (참여자3)

“뭐 초등학교에 가도 어린애들도 벌써 파벌을 형성을 해요. 제가 약간 좀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안 그런데 (주눅 들어) 사람 눈을 잘 못 쳐다봤어요. 이려고 있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되면서 약간 은은하게 왕따처럼 번지다가 제가 진짜 뺨을 맞았어요. 물건 뺏기고 중학교 3학년 때. (중략) 제가 덩치가 이만한데 요만한 애한테 맞으니까 진짜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모두가 방관했어요. CCTV도 있었어요. 학교에.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 그런데 이게 비단 저 뿐이 아니라 학교에 공공연하게 일어나던 일이었어요. 저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거 말 안 했어요. 엄마가 듣고 일어나면 제가 더 괴롭힘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저도 살려고 말 안 한 거죠.” (참여자7)

3) 20대-30대에 나타난 10대시기 경험의 영향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10대시기 '가정-학교-사회'에서 경험한 중첩된 부정경험의 영향은 20대-30대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로 귀결되는데, 특히 불안정한 성장환경과 왕따, 그리고 돌봄 경험과 부채상속 경험이 총체적으로 중첩되면서 회복되지 않은 심리정서의 문제는 청년의 우울과 불안, 강박 증상으로 나타나며,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소극적 태도의 낮은 자신감의 형태로 나타남.
- 10대시기 부정경험 중 '왕따' 영향의 지속성은 그 어떤 부정경험보다 강하게 나타나는데, 참여자들은 왕따로 빚어진 학교폭력의 상처는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인식함. 왕따로 인한 억울함과 분노는 표출되지 않을 뿐 잠재되어 있고, 악몽으로 그 순간이 반복 재현되기도 하며, 왕따 경험으로 인한 타인의 시선과 반응에 대한 집중은 삶의 에너지를 소진시킴.

(1) 중첩된 부정 경험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① 불안정한 성장환경에서 비롯된 우울, 불안, 강박 증상의 악화

청년의 삶에 있어 10대시기의 경험 영향, 그중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은 20대-30대 정신건강의 문제로 압축되어 나타난다. 가족환경은 불안정하고, 학교에서는 왕따가 되고, 갑작스럽게 부모의 사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돌봄의 주체가 되기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내는 10대시기의 경험 구성은 종합적으로 20대-30대의 삶으로 연결된다.

누적된 부정경험의 영향은 심리정서를 넘어 정신건강의 문제로 악화되는데, 심층면담 참여자들은 우울과 불안 강박 증상의 진단과 치료 경험이 있으며, 그 증상이 갑자기 발현된 것이 아니라 생활에 이미 녹아 있었던 것인데 인지하지 못하였다가 증상이 악화된 후 진단받고서야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20대-30대 청년의 정신건강 지원 대책이 어떠한 측면에서 확장되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며, 그 시작점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어릴 때 친구들이 ‘재는 왜 맨날 저렇게 입고 다녀’ 이러면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약간 강박처럼 돼서 성인이 돼서는 빨래 그런 걸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퇴근을 하면 옷을 다 바로바로 빨고, 전날 입었던 거는 똑같이 안 입고, 계속 옷도 교체해서 입고. 약간 그게 조금 강박처럼 많이 생기는 하더라고요. 중학교때부터는 뭔가 씻지 않으면 밖에 안 나가고, 이게 조금 많이 생겼어요.” (참여자10)

“저도 20살 때 제가 공황장애 증상 처음 겪었는데...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기차에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뭔가 감정이. 이게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건데... 그때 우울 에피소드가 있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20대 초반에 우울감이 빵 터진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있고 저는 너무 그랬거든요. 사춘기도 없이 살은 줄 알았는데 결국 우울로.” (참여자7)

② 불신과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대인관계

10대시기 누적된 부정경험은 심라정서나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증상으로만 그 영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이혼과 그 과정에서 겪어내야 했던 가정폭력, 부모의 부채 상속 및 상환의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의 인식, 그리고 아르바이트라는 이른 일 경험을 통해 사회에서 만나는 어른들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타인을 신뢰하지 않는 자신만의 보호막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이야기 속에는 그와 같은 태도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수단이기 보다는 10대시기와 같이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학습된 두려움이 해소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이 드러난다.

“(부모이혼과 가정폭력 상황에서 정서적 학대, 고아원 가라는 말 등) 그러니까 저는 충격과 공포 이런 거였는데.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는 강박 같은 것도 있었고. 저는 가정을 꾸리겠다는 생각도 안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왜냐하면 엄마처럼 될까 봐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중략) 그래서 저는 약간 강박이 생겼다면 언니는 불안 같은 게 생겼던. 불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하는 걸 보면 정말로 사람들 안 믿더라고요. 아빠 영향이요, 제가 봤을 때.” (참여자7)

“지금은 진짜 많이 회복된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가정폭력)아빠의 나이에 그런 어른들한테 대하는 게 되게 어렵고, 좀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남자가 화낼 때의 모습을 보는 게 되게 무서운 거. 좀 정신적으로 되게 스트레스가 확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남자들한테 되게 많이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참여자14)

“뭔가 인간과 인간 간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할 때 그 사회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뭔가 이 사람하고 깊어지고 싶고 한데 그게 좀 어려웠어요. 취업하고 이랬을 때. (중략) 사람이랑 사귄 때 경계심이라고 하죠. 그게 좀 많이 혼자만의 마음의 벽이 생겨가지고.” (참여자9)

③ 성격변화: 소극적 태도와 낮은 자신감

심층면담 참여자들이 이야기하는 10대시기 경험 영향은 진단이 필요한 상태에 이를 정도의 정신건강문제, 불신과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개인의 성격 측면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장과정에서 상처로 인해 소극적이거나 낮은 자신감을 갖는 상태로 변하거나, 그 반대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친 성격을 택하기도 한다.

“이렇게 죽 여태까지 이렇게 자라오면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격이 조금 더 소극적으로 좀 바뀌는 성향, 뭐 성격적인 부분이 좀 가장. 자신감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결여될 수도 있는.” (참여자5)

“막말로 씹땀이 된 거예요. 뭐만 하면 그냥 싸워버리고. (중략) 이제 하도 상처받으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만 상처받아? 이런 생각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6)

(2) 결코 잊을 수 없는 일 : 아물지 않는 ‘왕따’의 상처

① 잠재된 억울함과 분노

앞서 학교폭력 ‘왕따’ 경험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시기부터 시작되는 왕따의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15명 중 14명이 경험한 왕따는 20대-30대 청년의 상당수가 그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가해자의 명확한 사과 또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처리되기 어려운 왕따 경험은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오늘의 삶에 잊히기는커녕 또렷한 기억으로 남는다. 참여자들이 이야기 속에는 어린 시절 소외된 기억과 타인에게 받은 지워지지 않은 상처로 왕따 경험이 남아있고, 당시 피해 상황에서 느꼈던 섬세한 감정들이 선명한 기억들로 회고된다. 회고된 기억들에는 여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와 당시의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 잠재되어 있다. 이는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을 지원이 현행과 같이 단지 초·중·고생으로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지원이 청년정책 안으로 연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왕따였던 학교생활이 군대에서도 다르지 않았어요. (군대에서) 지원 보급이라 그것 때문에 많이 맞고 그랬죠. 거기에서 맞고, 끝내 그러니까 상병 휴가 때 자살 기도했어요. 그것도 부모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성격이 많이 바뀌었죠. 어릴 적에는 그래도 그냥 참고 그랬는데 조금만 이제 화나도 막 소리 지르고.” (참여자11)

“플 데도 없고 잊지도 못하고 잊을 수도 없고요. 진짜로 맞아서 아픈 건, 저는 거의 없었는데 그 굴욕감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않아도 될 걸 너 따위에게’ 이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무릎 꿇고 사과해도 용서를 해줄 수가 없어요. (중략) 그 (가해자)...지금 쇼핑몰 사장님이어서 역대 연봉을 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정말 폭파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화폭을 당했거나, 가폭을 당했거나 이런 친구들의 유형이... 일단 저만 예를 들면 약간의 그런 억울함, 분노 이런 게 좀 잠재돼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7)

“(왕따 상처를) 회복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상대방한테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니고, 똑같이 내가 보복한 것도 아니고 당하기만 했는데 솔직히 저는 당해가지고 솔직히 (가해자) 찾고 싶거든요. 찾아서 말 그대로 어떻게 처리를 하든지 간에 일단 찾고 싶죠. 그 심정을 솔직히 당한 사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이해해요.” (참여자15)

② 악몽으로 반복 재현

회복되지 않는 왕따의 상처는 크고 작은 트라우마가 되어 악몽으로 반복하여 재현되기도 한다. 심층면담 참여자들은 스스로가 회복이 안 된 상태임을 인지하며, 일상에서 피해 당시의 상황의 기억이 떠오르면 여지없이 악몽으로 재현된다고 토로한다. 반복되는 악몽은 우울을 깊게 하며,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계속해서 괴롭히기도 한다. 이는 10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프로그램이 20대 청년들에게도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며, 그 과정에서의 치료와 회복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청년대상 마음건강 사업의 지속과 확장에 있어 학교폭력 피해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악몽인지 아닌지... 그 꿈을 가끔씩 꾸고 그랬거든요. 대학 때까지 힘들었던 게 확 올라왔다가 갑자기 기분이 좀 내려가고. 응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13)

“계속 남아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보는 애들을 왠지 모르게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고, 기피하게 되고. 솔직히 말하자면 아직도 그거... 굉장히 회복이 안 됐어요. 그걸로 악몽도 아직 여전히 많이 꾸고 있고 애초에 그것 때문에 파생되어 나온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집에서도 그렇고.” (참여자8)

“저는 견디면 사라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견뎌도 남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그제 조금 뭔가 유사한 것... 딱 뭔가 잘못 견드리면 그때 기억이 확~ 되살아나는 게 계속 생기는 하더라고요. 제대로 그때 시절을 잘 보내지 않았었던 상황이면. 그래서 뭔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참여자10)

③ 소진되는 삶의 에너지 : 타인의 시선과 반응에 집중

심층면담에 참여한 이들은 왕따 경험이 일상의 생활과 습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한다. 그 영향이 미치는 방식은 ‘나’에 대한 타인의 시선과 반응에 집중한다는 것인데, 일상의 에너지가 업무보다는 주변 사람들 신경 쓰는데 모두 소진되어 다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결국 그러한 에너지 소진 상태는 20대-30대 업무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일상을 지배하게 된다.

“(왕따의 여파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마주하든 제가 뭔가 너무 예민해져 있고 엄청 눈치를 봐요. 그냥 별, 남들이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니었을 텐데 저는 말 한마디 하다가 뭔가 표정이 달라지면 ‘아, 내가 실수한 건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냥 평소처럼 얘기를 하다가도 저 사람은 바빠서 무신경할 수도 있는 건데 ‘아, 내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했나?’ 이렇게.” (참여자6)

“(왕따를 겪고 나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랑 친해야 안도감을 느끼고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도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집에 오면 그냥 바로 뻗어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다 약간 뭔가 신경을 다 쓰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도 집중도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주위에 말하는 것만 더 이렇게 귀에 더 들어오고. (중략) 그래서 정신과 치료도 받기는 했었거든요. 너무 이게 약간 예전의 기억도 계속 이렇게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에너지 소모도 힘들고. 근데 주위 사람들은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약간 이래가지고 그때 조금 그게 있었어요. 우울증도 같이 오고 약간 공황도 약간 좀 비슷하게 오고 해가지고 대학병원 다니면서 좀 치료도 받고.” (참여자10)

3. 소결 : 도출된 의미의 요약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심층면접조사 참여자들의 경험 속에서 파악된 '10대시기 경험 구성과 맥락의 과정이 20대-30대 청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경험 과정에서 도출된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① 10대시기 경험 구성은 성장환경에 따라 달라지며, 성장환경 특성 중 경제적 여건과 부모의 역할 및 태도가 경험 구성의 핵심요인이 됨.
- ② 성장환경에서 비롯되는 부정경험의 영향은 지지자가 존재할 때 완화되거나 상쇄되며, 지지자 존재 이외 긍정경험의 또한 부정경험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기제로 작용함.
- ③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은 일반/긍정경험이 거의 구성되지 않고 부정 경험이 시간 누적적으로 중첩되며, 개인의 상황인식 및 의지 또는 지지자가 부재 할 때 발현된 부정적인 영향은 20대-30대 청년기에 악화되어 나타남.
- ④ 10대시기 모든 경험들은 '통합'의 과정을 거쳐 그 영향력이 발휘되며 영향의 방향이 긍정 또는 부정이든 상관없이 대체로 20대-30대 청년의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 측면에 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파악됨.
- 도출된 결과는 다음 장인 제6장에서 양적으로 분석된 실증결과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된 후 상애단계를 고려한 청소년-청년정책 연계 및 추진을 위한 방향 및 구체적인 추진과제의 도출에 반영될 것임.

본 장의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도출된 10대시기 경험 영향의 맥락과 그 과정, 그리고 각 단계를 통해 도출된 의미는 [그림 V-4]에 요약된 바와 같다. 20대-30대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의 경험은 어떠한 성장환경 배경을 갖는지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지며, 구성이 된 경험의 영향은 각 경험마다의 단일한 영향을 미치기보다 시간 누적적으로 통합(integrate)된 결과로서 20대-30대 청년의 삶의 질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10대시기 구성된 경험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지지자 존재의 유무와 긍정적인 경험이 있을 때, 부정 경험의 영향을 완화하거나 상쇄시키는 기제로 작동하며, 이때 부정경험의 영향력은 10대 이후 시간 경과가 된 20대-30대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영향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남은 10대시기 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인 경우, 그 영향의 지속성과 강도는 작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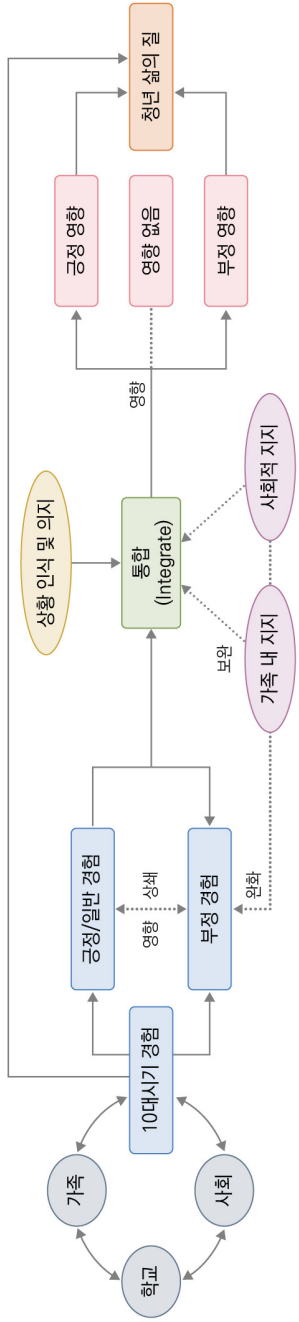
20대-30대 삶의 질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의 경험은 대체로 중첩된 부정경험들이며, 이들 경험은 대체로 취약계층에게 집중된다. 취약한 성장환경 하에서 자란 청년들은 10대시기 쉽게 드러나지 않는 (조)부모 돌봄이나 부모의 채무인 빚 상속,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동반되는 '왕따'라는 따돌림의 문제를 반복적이고 누적적으로 경험하였고, 그 경험의 총체는 20대-30대 삶을 살아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취약계층 청소년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개인의 의지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지지자가 없이 10대시기를 지나 청년이 되었을 경우, 시간 누적적으로 증첩된 부정경험의 영향은 시간 경과에도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나타난다. 그 악화된 형태는 우울과 불안, 강박, 공황장애의 진단과 두려움과 불신으로 시작되는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의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문제로 수렴된다. 특히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왕따 경험은 20대-30대 피해 청년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이자, 쉽게 회복되지 않는 상처임이 확인되었다. 학창시절 왕따 경험은 '잠재된 억울함과 분노'로 어둡게 자리 잡고 있으며, 때로는 악몽으로 재현되기도 하고 일상의 삶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요인으로 여전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년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청년대상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 사회구조적인 영향, 즉 낯잡은 일자리로의 취업이 어려운 점, 주거문제와 같이 생활자립 여건 형성의 어려운 점 등의 측면에서만 설명되었던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의 확장이나 정신건강 지원의 강화가 왜 필요한지, 또 다른 측면에서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청년 정신건강 지원정책의 확장 및 강화를 결정하는데 이제까지 설명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필요 사유를 더 하는 논리와 실증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초중고 재학생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지원이 19세~34세 대상 청년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하는지, 그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청소년정책과 청년 정책을 연결하는 고리가 어느 정책영역에서부터 형성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그 지점을 표적(targeting)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 중에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생애단계를 고려한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 연계 강화의 우선 대상은 취약계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취약한 성장환경 요인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인적 지지체계의 안정적인 구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불안정한 가족환경은 준비되지 않은 이른 독립의 계기가 되며, 이른 시기에 부모를 떠나 독립생활을 하는 경우 원가구(부모가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1인 청년 가구'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본 연구의 결과는 청년 1인 가구 지원이 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떠한 측면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 것인지 정책 확대의 필요성과 정책지원의 내용과 우선 지원 대상의 범위 등을 설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실증 근거가 될 수 있다.



<주요 발견>
 (1) 10대시기 경험 영향의 주요 성향(경요인)
 ⇒ 경제적 취약계층
 ⇒ 부적절한 부모 역할 및 태도(양육능력)

취약 계층	부모 역할	높음	낮음
해당	부정 영향 상대 가능	부정 영향 20-30대 이하	부정 영향 20-30대 이하
비해당	부정 영향 없거나 낮음	부정 영향 20-30대	부정 영향 20-30대

- (1-1) - 부정 경험의 원인이 부모에게 있는 경우 영향력, 지속성 크고 쉽게 회복되지 않음
- 단, 용제 제재의 지지, 사회적 지지가 있을 경우 부정 경험의 영향은 완화/약화 또는 상쇄 가능
- (1-2) 10대시기 공통의 긍정 영향이 있는 경험 요인 ⇒ 가족 여행
- (1-3)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긍정/일반 경험이 거의 없고, 부정 경험이 누적적으로 증폭되는 문제 발견

<주요 발견>



- (2) 긍정/일반 경험은 부정 경험의 영향을 상쇄하게나 완화하고, 영웅의 영향을 진화(?) 도함
- (3) 10대시기 경험은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통합'의 결과로 영향을 미침

<긍정/일반 + 부정 경험 단순화>

긍정/일반	부정	유	무
유	부정	영양 없거나 약함	긍정 영향 지속 또는 영향 없음
무	부정	부정 영향 크거나 지속	영양 없음

<주요 발견>
 <낮은 개인 의지 + 부정 경험 + 지지자 유무>

의지	부정 경험	지지자	결과
낮음	유	유	영양력 강화 극복 가능
낮음	무	무	영양력 강화 영양력 강화 /약화

- (4) '긍정' 또는 '부정'의 방향 결정은 '중이 한 장' 차이
- 돌봄 경험의 여상, 긍정 경험
- 10대 시기 부정적인 경험이지만 20-30대 사회생활 시, '관계'의 상충함으로써 발전되기도 함
- <부정 경험>**
- 청년 1인 가구, 준비되지 않은 독립 ⇒ 부모로부터 탈출
- 생애 '만성질환' 으로 남은 양파
- 인생의 발목 잡는 부모 부재
- 회복될 수 없는 상처, 이차 트라우마, 폭력(가족, 학교, 사회)

그림 V-4. 심층면접조사에서의 주요 발견

○ ————— 제6장 종합논의 및 정책제언

- 1. 주요 실증결과의 논의 및
종합 결과 도출
- 2. 청소년-청년정책 연계 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
- 3.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

1. 주요 실증결과의 논의 및 종합 결과 도출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을 연계하는 정책 연결고리(policy chaining) 발견을 위해 순차적 통합방법 설계(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에 따라 구성된 연구 방법을 통해 10대시기 경험과 20대-30대 청년 삶의 질의 연계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청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경험 요인과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종합결과를 도출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음.
- 본 연구의 실증결과를 종합한 결과, ①10대시기의 경험은 청년의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②성장환경에 비롯되는 부정경험 및 10대시기 우울 또는 자살충동, 게임과몰입(중독)과 같은 부정경험을 방지하고, ③10대시기 부정경험 완화를 위한 지지자와 같은 인적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④10대시기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긍정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⑤전반적으로 부정경험이 중첩되는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⑥청년의 정신건강 등 10대시기 부정경험의 영향력 완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음.

1) 주요 실증분석 결과의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생애 중간과정의 일정 연령대 ‘대상자’인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설계 시, 정책구조 측면에서의 생애단계 연계성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연령대에 따라 각기 분절적으로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는 현행 정책구조 하에서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을 연계하는 ‘연결 고리(chaining key)’의 발견이 중요하다는 문제제기에서 시작되었다.

어떠한 지점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실증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 및 영상자료, 그리고 정책자료 고찰을 통해 ‘순차적 통합방법설계(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의 실증 연구방법을 구성하고, 단계적으로 10대

* 이 장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시기와 20대-30대 생애과정의 연계성을 확인하였다. 연계성은 10대시기 경험이 후기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그리고 20-30대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어떠한 요인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가에 대한 체계적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되었으며, 10대시기의 경험이 어떠한 맥락과 과정으로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경험 근거도 심층면담 자료 분석을 통해 확보되었다.

크게 3단계(2차 자료 분석→온라인 설문조사→심층면접조사)로 구성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결과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2차 자료 분석

먼저 2차 자료 분석은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10대시기의 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본격적으로 조사분석하기에 앞서, 제한적이긴 하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중1 코호트 유지조사 5개년 자료를 활용하여 19세-24세 후기청소년이자 20대 초반 청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경험 요인을 순위로짓모델(Ordered Logit Model) 분석을 통해 우선 발견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10대시기 경험 요인이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10대 청소년기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후기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수준도 높아 10대시기와 20대 초반 시기의 연계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였다. 10대시기의 경험은 고교졸업 후 20대 초반 5개년 동안의 시간 경과에 따라 영향의 경향성을 보이지는 않으나, 상대적으로 고교 졸업 후 이른 시기에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무직자의 경우 고교 졸업 직후 시점에 10대시기 부정경험의 부정적인 영향, 즉 학교폭력피해 지속년수와 음주 지속년수, 도박게임횟수 및 지속년수, 담배피우기 횟수의 부정경험이 후기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10대에서 20대로의 이행기 초기에 10대시기 부정경험에 따른 부정적 영향력이 강하게 발휘되기 때문에, 후기청소년정책은 이행 초기 시점을 정책개입 지점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고교 졸업 직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무직상태의 후기청소년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대상 후기청소년이 갖는 10대시기 부정경험과 그에 따른 영향력의 수준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적절한 지원이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강조될 수 있다.

(2) 온라인 설문조사 분석

앞선 2차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30대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경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의 내용이 설계되었다. 설문조사는 19세-34세 청년 1,220명을 대상으로 웹기반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자료가 수집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삶의 만족도를 포함하여 부정정서 및 긍정정서까지 포괄하는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기술통계 및 차이검증, 그리고 Robust OLS 모델을 통해 단계적으로 분석되었다.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주관적웰빙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삶의 만족도, 부정정서, 긍정정서) 중 부정정서가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중요성 인식과 10대시기 전반 만족도, 그리고 10대시기 우울감 또는 자살충동 경험이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청년이 인식하는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정정서를 높이는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2차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10대시기에 대한 만족도가 20대-30대 청년의 삶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제 조건은 10대시기 삶의 만족도에 있으며, 10대시기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울 또는 자살충동과 같은 경험에 대한 개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임이 확인되었다. 10대시기 삶의 만족도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강하게 받는 집단은 도 지역에 거주하는 19세-24세 남성 무직자이고, 우울 또는 자살충동에 대한 개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집단은 광역시 거주 20대 여성, 대학(원)생이다. 이는 지역 거점 대학 중심의 여자 대학(원)생에 대한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지원 서비스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며, 무직 후기청소년 지원에 있어 도 지역 거주 남성에 대한 우선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한편 2차 자료 분석에서 후기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던 가족과의 여행은,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 영향 요인 분석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주요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여행'이 단순히 가족의 경제적 노력만이 아니라, 부모의 시간 제약, 그리고 부모의 역할 및 태도까지 다양한 성장환경의 측면을 함축하여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10대시기 하나의 성장환경 지표로 사용해도 될 만큼 의미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설문조사 분석에서 가족과의 여행 경험 여부가 측정되고 분석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양적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0대시기 게임과몰입(중독) 경험도 횟수가 중요하지 않고, 경험 유무가 중요한 요인이며, 시간이 경과했을지라도 게임과몰입(중독) 유경험은 20대-30대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결과는 10대 게임과몰입의 예방과 중독에 대한 치유 정책이 비단 10대 청소년에 한정된 것이 아닌, 청년을 비롯한 이후 전 생애단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므로, 생애 전반기 시점에 국가가 효과적으로 개입하여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온라인 설문조사 분석에서 10대시기 5가지(심리상담, 진로상담, 취업지원, 학업지원, 문화예술지원) 정책지원 중 문화예술지원 수혜 경험만이 20-30대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심리 상담이나 진로상담, 취업지원이나 학업지원이 지원 시점과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이 되고 그에 따른 영향력이 단기간 내로 좁혀져 있는데 반해, 문화예술지원은 지원 시점과 상태에 초점을 맞추어 대상자를 선정한다 할지라도 그에 대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도 영향력이 발휘됨을 시사한다.

(3) 심층면접조사 분석

온라인 설문조사에 이어 실시된 심층면접조사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들 중 면접조사 참여자 구성 및 섭외 기준에 부합하는 총 15명을 대상으로 1:1 심층면담이 이루어졌으며, 여기에서는 양적인 실증연구에서 파악되기 어려운 10대시기의 경험 구성의 맥락과 과정, 그리고 설문조사에서는 해당자 수가 적어 쉽게 드러나지 않는 10대시기 ①가족 돌봄, ②부채상속, ③왕따 경험에 대한 맥락과 영향 내용에 대한 생생한 경험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심층면접조사의 결과는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발견은 10대시기 경험의 구성에 있어 가족의 경제적 여건과 부모의 역할 및 태도가 경험 구성의 핵심이 되며, 응원과 지지를 해주는 지지자의 존재 또는 긍정경험이 많을 때 10대시기의 부정경험이 완화되거나 상쇄된다는 것이다. 이는 10대시기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경험 구성에 있어 일차적으로 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중요하지만, 부모가 어떠한 역할과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경험의 구성은 달라지고, 무엇보다도 부정경험이 있을지라도 지지자가 존재하거나 다른 긍정경험이 많다면,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은 낮아지거나 없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부정경험이 시간 누적적으로 증첩되고, 부정경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20대-30대 청년이 된 후 악화되어 나타난다는 결과는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우선 연계대상은 취약계층 청소년이 되어야 하고, 연계 지점은 취약계층 청소년이 청년으로 이행하는 시점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세 번째, 초등학교 저학년시기부터 (조)부모 돌봄이 이루어지고, 역할 또한 단순 조력을 넘어 일차 간병인 역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을 돌봄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뿐, '돌봄 제공자'로는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에서 가족 돌봄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들이 쉽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0대시기 부모가 남긴 채무의 상속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법률에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제도화하고는 있지만 청소년들이 법률조력자를 찾는 일부터 부채 상속포기의 전 과정을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크다. 이는 법률 내용만이 아니라 법률서비스 까지 닿는 과정에 있어 10대 청소년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네 번째, 10대시기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등 교내외 활동에 몰입하는 것과 게임에 몰입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이고,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은 20대-30대 청년의 삶에 있어 하나의 활력소이자 삶의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의 긍정적인 영향은 앞서 논의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증분석에서 문화예술 지원 수혜 경험이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을 높인다는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동일한 취약계층일지라도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10대시기 다양한 긍정경험을 구성한 반면, 10대시기 게임에 몰입했던 청년들은 게임 이외 다른 긍정경험의 구성이 없을 만큼 긍정경험의 구성이 빈약하다. 바로 그 차이가 심층면접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는 문화예술 활동과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10대시기 부정경험의 영향을 완화하고 청년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 번째, 10대시기의 모든 경험은 '통합'의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또는 영향이 상쇄되어 없어지는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청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경험의 영향력은 부정적인 것이 더 강하며, 그 영향력은 정신건강 측면으로 집중 발휘된다. 10대시기 증첩된 부정경험의 영향은 우울과 불안, 강박의 증상으로 청년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증상의 이면에는 불안정한 성장환경에서 비롯된 상처와 왕따로 인한 잠재된 억울

함과 분노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

무엇보다도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불안정한 가족환경에서 비롯되는 부정경험(경제적 어려움, 부모이혼과 죽음, 가정폭력, 가족돌봄, 부채상속 등)과 학교에서의 왕따의 경험 등이 중첩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10대시기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채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10대시기뿐만 아니라 20대-30대에도 확대·강화 되어야 한다. 특히 10대시기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어지지도 못하고, 문제를 드러내지도 못한 채 고스란히 왕따와 이어지는 학교폭력피해를 안고 20대-30대가 된 청년들이 갖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악몽으로 재현되는 상처의 지속은 그동안 다루지 못한 학교폭력피해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의 고려가 일차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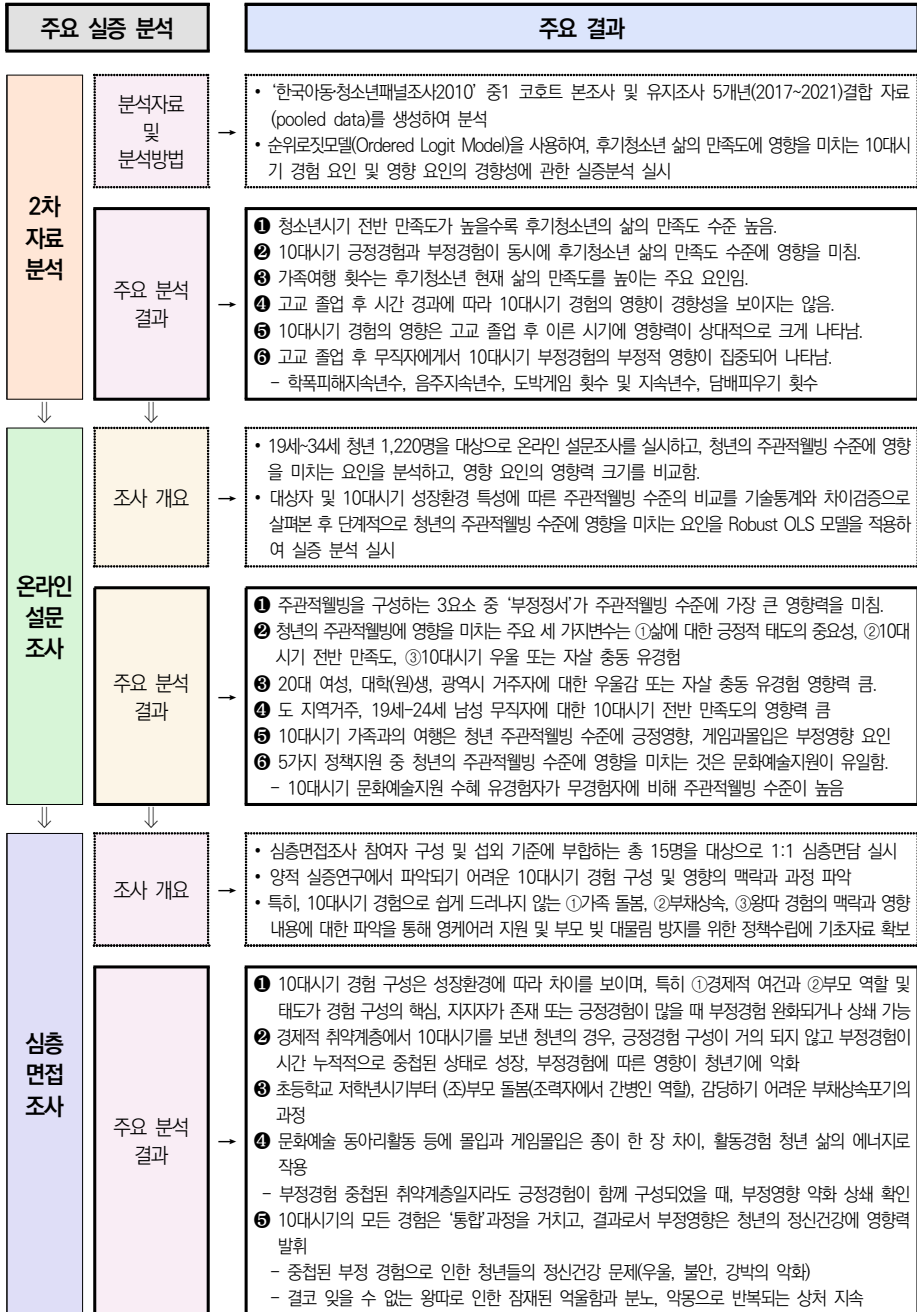


그림 VI-1. 주요 실증분석 결과 요약

2) 종합결과 도출 및 정책 개입 방향

(1) 실증분석 결과의 종합분석

앞선 주요 실증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에 이어, 여기에서는 이들 결과를 종합분석하고 본 연구의 종합결과를 도출하였다. 각 단계의 실증분석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10대시기의 경험은 20대-30대 청년의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으로 인해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10대시기 부정경험의 영향은 청년의 부정정서에 강한 영향력으로 발휘된다.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파악된 10대시기 경험의 구성과 영향의 맥락과 과정을 틀로, 2차 자료 분석 결과와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는 [그림 VI-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10대시기 경험 구성의 핵심은 경제적 취약계층 여부와 부모 역할 및 태도이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10대시기 부정경험을 형성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지자가 부재하거나 개인의 의지 또한 부재할 경우, 증첩된 부정경험을 하게 된다. 취약한 성장환경의 청소년들은 부정경험이 증첩되는데, 가령 왕따를 기본으로 우울 또는 자살충동, 게임과몰입(중독), 가족돌봄의 영케어러, 부채상속이 누적적으로 증첩된다. 이러한 경험이 부정적 영향력을 가질지, 아니면 갖지 않도록 상쇄될지 그 핵심 과정에 개인의 의지도 있어야 하지만, 그 보다는 '지지자'의 존재 유무가 가장 중요한 기제가 된다.

물론 지지자의 존재만이 부정경험의 영향을 상쇄시키거나 완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지지자의 존재와 더불어 '가족여행'이나 '교내외 동아리활동' 또는 '문화예술지원'의 수혜 경험 또한 10대시기에 긍정경험으로서 충분히 구성되어 있다면, 취약한 성장환경에서 비롯되는 부정경험의 영향은 상쇄되고 완화된다. 다만, 그것 사람, 즉 인적인 지지자가 함께 존재할 때 활동을 통한 긍정적 영향력이 부정경험의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 발휘된다.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의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험 구성은 대체로 게임과몰입과 같은 단일 경험으로 채워진다.

부정경험 영향에 대한 하나의 여과과정으로 지지자존재와 긍정경험의 상쇄와 완화과정을 거친 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정적 영향은 청년의 부정정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울 또는 자살충동 경험의 영향력은 청년의 부정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20대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시간 경과에 따라 약화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종합분석의 결과는 청년의 마음건강 또는 정신건강에 대한 대응이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점을 명확하게 지적한다고 할 수 있다.

19세~24세 후기청소년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	19세~34세 청년 주관적 웰빙 수준 영향요인	19세~34세 청년 10대시기 경험 영향의 맥락과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대시기 전반 만족도가 높을 수록 후기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수준 높음. 10대시기 긍정경험 부정경험 동시 영향 미침. 무직 상태 후기청소년에게 10대시기 부정경험의 영향 집중되어 나타남. 10대시기 경험 요인의 특정한 경향성은 없음. 가족여행은 후기청소년 삶의 만족도 높이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정정서 수준을 낮추는 방향 설정 필요 10대시기 긍정경험과 부정경험과 더불어 현재 특성 동시 영향 미침. 10대시기 우울 및 자살충동 유경험이 가장 큰 영향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대, 여성, 대학(원)생, 광역시 거주자가 상대적 취약 집단 10대시기 전반 만족도가 두번째로 큰 영향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세~24세, 남성, 무직자, 도지역거주자가 상대적 취약 집단 10대시기 가족여행은 청년의 주관적 웰빙 수준 높이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25세~29세, 취업자 10대시기 게임과몰입(중독)은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 낮추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세~29세, 취업자 10대시기 문화예술지원 수혜 경험은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을 높이는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취업자, 광역시, 30세~34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의지를 제외한 10대시기 경험 구성의 핵심 성장환경 요인은 ①경제적 여건과 ②부모 역할 및 태도 10대시기 모든 경험은 통합 과정을 거치며, 이때 지지자의 존재가 부정경험 영향 완화에 중요 기제 취약계층 청소년은 10대시기 긍정경험 구성이 거의 되지 않고, 부정경험 중점된 상태로 성장, 청년이 된 후 회복되지 않은 부정경험 영향 악화 돌봄 제공자로 인식조차 되지 않는 10대시기 가족 돌봄 경험은 초등 저학년시기 (조)부모 돌봄 조력자부터 간병일까지 넓은 범위의 역할 수행 내용과 과정이 모두 어려운 10대시기 부채상속 포기 및 한정승인의 법적 처리 과정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몰입과 게임몰입은 종이 한 장 차이, 10대시기 교내외 활동의 긍정경험 청년 삶의 에너지 불안정한 가족환경과 왕따 피해경험은 청년의 정신건강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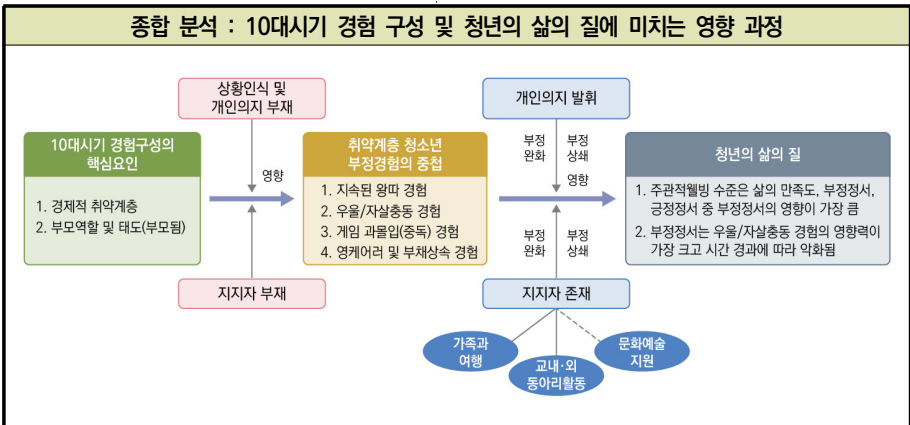


그림 VI-2. 실증분석 결과의 종합 분석

(2) 종합결과 및 정책함의의 도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VI-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크게 10대시기와 후기청소년 및 청년시기로 구분해 볼 때, 10대 청소년 시기에 청소년정책 안에서 지원되어야 할 사항들, 그리고 청년정책에서 지원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명확해 지며, 어떠한 사항이 이들 두 시기를 연계하는데 핵심이 되어야 하는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해, 현 시점의 생애 전반기 대상자 지원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10대 청소년정책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항과 20대-30대 청년정책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항, 그리고 이들 정책의 핵심 연계 고리(key chaining)가 명확해 진다.

종합결과 분석을 토대로 결과의 정책함의를 도출해 본다면, 10대시기 청소년정책에서 지향해야 할 것은 “부정경험 방지”이고, 20대 후기청소년 및 청년정책에서 주력해야 할 것은 “부정경험 영향력의 완화”에 있다. 10대시기 부정경험은 성장환경 또는 특정 사건에서 비롯된다. 그렇기에 취약한 성장환경으로 인해 부정경험이 증첩되는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기반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족 돌봄이나 부채상속과 같이 소수에게 증첩되는 경험에 대해서는 우리사회가 청소년을 돌봄 제공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부모의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계는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그러한 부정경험을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실태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령 기반의 강화와 더불어 생활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

각 실증분석 결과 및 종합분석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불안정한 가족환경을 비롯한 성장과정에서 지지자의 존재는 동일한 부정경험을 갖더라도 그 경험이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발휘되지 못하게 상쇄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이는 공공의 인적 지지체계의 중요성과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적 지지와 함께 중요한 것이 부정경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긍정경험의 축적인데, 실증분석 및 종합분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0대시기 문화예술지원 수혜 경험이 갖는 긍정경험의 영향은 시간이 경과되어도 청년의 삶에 영향력을 발휘한다. 따라서 10대시기 교내·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와 강화가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10대시기에 대한 결과와 정책함의에 이어, 후기청소년 및 청년시기에 해당하는 결과와 정책함의를 도출해 본다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력이 강하게 발휘되는 10대시기 “부정경험 영향력의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10대시기 부정경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청소년이 청년이 되었을 때, 부정경험 영향력에 대한 완화 또한 이루어져야 생애단계에 이어지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종합결과에 기초해 볼 때, 취약계층 청소년의 부정경험 관리가 청소년-청년 지원 연계정책의 핵심 고리(key chain)가 되는 것이다.

대상자 측면에서 취약계층 청소년, 그리고 이들이 청년으로 이행하는 시점과 시기가 연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면, 정책분야 측면에서는 정신건강 정책이 핵심 고리가 되어야 한다. 앞서 실증분석 및 종합분석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통합과 여과의 과정을 거치고도 상쇄되지 않은 부정경험의 영향은 대체로 청년의 심리·정서, 정신건강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발휘된다. 특히 광역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대학(원)생은 청년의 부정정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우울 또는 자살충동 경험에 있어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그간 청년정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마음건강 사업이 도입확대되어 왔지만, 대학의 상담센터의 강화, 광역시 마음건강사업 강화 등의 보완적 지원사업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우울 또는 자살충동의 취약집단과 중첩될 수도 있는 10대시기 왕따 등 학교폭력피해 경험 청년에 대한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지원 사업 또한 요구된다. 현재 학교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피해학생 및 가족 전담지원기관을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어, 청년정책안에서 회복되지 않은 학교폭력피해자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또 다른 대상자 측면에서 주목해야할 대상은 도 지역에 거주하는 19세-24세 남성 후기 청소년이자 청년들인데, 이들 집단은 10대시기에 대한 낮은 만족도가 청년의 삶의 질도 낮추는 집단이며, 특히 무직상태인 경우 10대시기 부정경험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되는 집단이기도 하다. 이들에 대한 10대시기 부정경험 영향의 완화와 더불어 문화예술 활동을 비롯한 긍정적인 활동, 즉 상담과 결합된 활동 지원으로 이들 취약집단이 건강한 청년의 삶의 살아갈 수 있도록 부정경험의 영향력 완화를 위한 우선 표적(target) 집단으로 설정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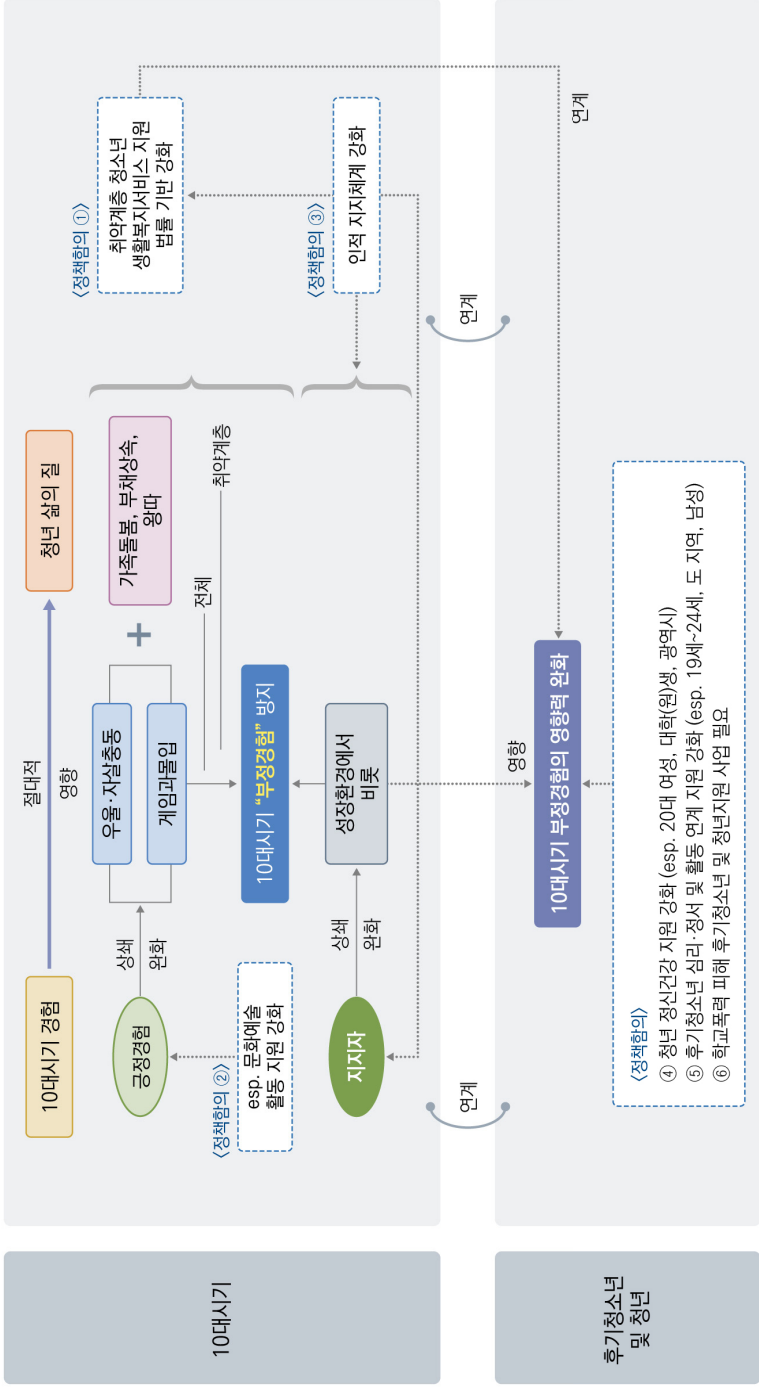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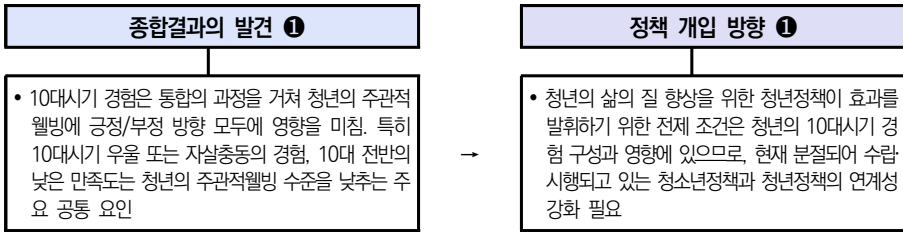


그림 VI-3. 종합결과 및 정책함의 도출

(3) 종합결과에 기초한 정책 개입의 방향

도출된 종합결과 및 정책함의에 대한 논의에 이어 여기에서는 종합결과의 내용을 여섯 가지(①청년의 삶의 질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10대시기 부정경험, ②10대시기 부정경험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중첩누적되어 청년기까지 영향, ③지지자가 존재했을 때, 10대시기 부정경험의 영향은 상쇄되거나 완화, ④10대시기 다양한 활동경험의 긍정영향은 부정경험의 영향을 상쇄하거나 완화, ⑤회복되지 않은 10대시기 부정경험 영향의 치유를 위한 지원 강화, ⑥무직상태의 20대 초반 후기청소년 및 청년, 심라정서 지원과 활동 지원 강화)로 요약하고 각 사항에 대응하는 정책 개입의 방향을 설정하였다.

① 청년의 삶의 질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10대시기 부정경험



본 연구의 제4장에서 분석된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10대시기 전반 만족도나 가족과의 여행 경험은 주관적웰빙 수준을 높이지만, 게임과몰입(중독)경험이나 우울 또는 자살충동 경험은 주관적웰빙 수준을 낮추는 영향요인으로 긍정과 부정 방향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이들 경험이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통합(integrate)'의 과정을 거쳐 그 영향력이 상쇄 또는 완화의 과정을 거친 후 긍정 또는 부정의 영향력으로 발휘된다는 과정의 맥락 또한 확인되었다.

통합의 과정을 거친 10대시기 우울 또는 자살충동 경험이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 청년집단을 분석했을 때 가장 크고(전체: -0.215), 특히 대학(원)생 집단에서의 그 영향력(-0.359)은 이 보다 더 크게 나타난다. 우울 또는 자살충동 경험에 이어 10대시기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두 번째로 큰 영향력(전체: 0.193)을 갖는데, 특히 무직자 집단에서의 영향력(0.383)은 대학(원)생 집단에서의 우울 또는 자살충동 경험의 영향력을 상회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10대시기 전반 만족도와 우울 또는 자살 충동 경험으로 설명될 수 있는 성장환경과 경험이 20대 청년의 주관적웰빙의 측면에서 측정된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향후 수립되는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에서는 생애단계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구조의 설계와 그에 따른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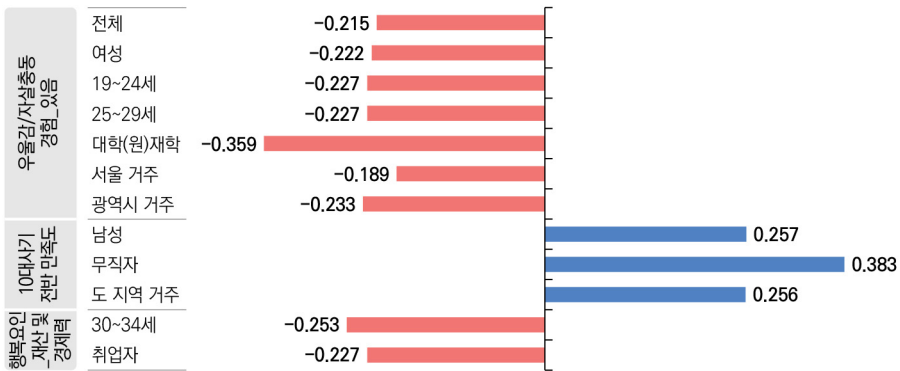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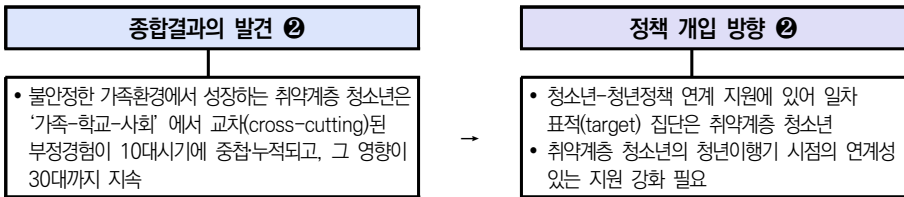


그림 VI-4. 대상자 특성별 주관적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

② 10대시기 부정경험은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중첩·누적되어 청년기까지 영향



본 연구의 종합결과로 도출된 바와 같이, 10대시기 경험의 구성과 그 영향의 맥락과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불안정한 성장환경에서 자란 청년들이 10대시기 다수의 중첩되고 누적된 부정경험을 갖고, 그 경험으로 인해 벗어지는 부정적인 영향이 오늘을 살아가는 청년의 일상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제4장에서 수집·분석된 온라인 설문조사 자료의 10대시기 성장환경 특성 및 가지와 드러나지 않는 부정경험 유무 비율을 비교해 보면, 절대빈곤 상태의 기초생활보장수급

경험이 있었던 이들의 10대시기 경험한 부정경험의 비율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아닌 이들의 경험 비율과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표 VI-1. 경제적 취약계층 여부에 따른 10대시기 부정경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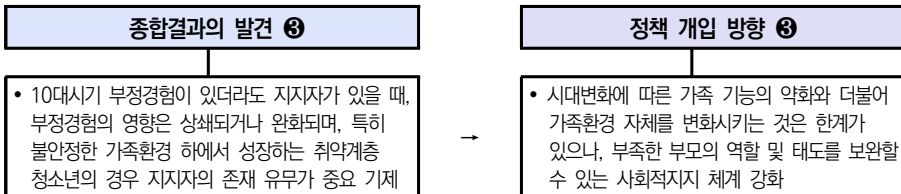
(단위: 명, %)

10대시기 경험	기초생활보장수급	경험 있음	경험 없음
		270(100.0)	950(100.0)
부모이혼 경험		32.2	12.0
부모죽음 경험		13.3	2.9
보호시설거주 경험		10.4	1.8
가족문제로 학업중단 경험		18.1	3.5
가족 돌봄 경험		14.1	5.8
부채상속 경험		9.6	1.8
왕따 경험		49.6	36.6

* 자료: 제4장 온라인 설문조사 원자료

또한 제5장의 심층면접조사의 결과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불안정한 가족환경은 취약계층 청소년의 준비되지 않은 ‘이른 독립’의 계기가 된다. 독립생활을 하면서 부모(원가구)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1인 청년가구’가 청소년시기에 이른 독립을 할 이룰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상태에 있는 1인 청년가구 중 누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지원의 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지, 즉 정책대상을 표적화(targeting)하고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연계에 있어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은 경제적 취약계층 청소년이 되어야 하며, 이들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이행하는 시점을 정책 연계 고리(policy chaining) 설정의 핵심 지점으로 설계하는 것이 요구된다.

③ 지지자가 존재했을 때, 10대시기 부정경험의 영향은 상쇄되거나 완화



앞서 '종합결과 및 정책함의의 도출'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10대시기 경험 구성 및 영향의 맥락과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에서 10대시기 지지자의 존재가 가족-학교-사회 및 교차(cross-cutting) 환경 하에서 구성되는 부정경험의 영향력 상쇄 또는 완화의 핵심 기제(mechanism)가 된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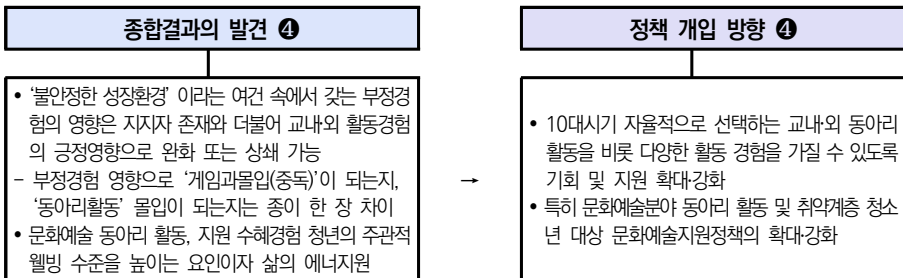
표 VI-2. 지지자 유무에 따른 부정경험 영향력 완화^{주)}

의지	부정 경험	지지자	결과
낮음	유	유	영향력 완화, 극복 가능
낮음	무	무	영향력 심화/악화

* 주: 제5장 심층면접조사 결과 내용 구조화

면접조사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 속에서 파악되는 지지자의 역할은 10대시기 모든 경험들이 '통합(integrate)'될 때, 주된 여과장치(filter)가 되어 부정경험의 영향이 상쇄 또는 완화될 수 있도록 돕는다. 가령 부정경험을 갖는다 하더라도 자신에 대해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부정경험의 영향력은 완화될 수 있다. 그러나 지지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특히 취약한 가족환경에서 성장해야 하는 이들에게 닿는 그 부정경험의 영향력은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심화되거나 악화되어 30대 청년의 일상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에 10대시기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인적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요구되는 것이다.

④ 10대시기 다양한 활동경험의 긍정영향은 부정경험의 영향을 상쇄하거나 완화



본 연구의 제4장 실증분석 결과와 제5장의 심층면접조사, 그리고 앞선 ‘종합결과 및 정책함의 도출’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지지자의 존재와 더불어 10대시기 부정경험 영향을 완화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다양한 긍정경험이다. 특히 제5장의 심층면접조사를 통해서 불안정한 성장환경의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10대시기 긍정경험이 구성되지 않거나 빈약한 경우가 많고 그러한 상태에 이들이 선택하는 유일한 탈출구는 ‘게임과몰입(중독)’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동일한 취약한 가족환경을 갖는 청소년일지라도 10대시기 다양한 활동을 통한 긍정경험이 구성되어 있을 경우, 10대시기 당시는 물론 20대-30대 청년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주관적웰빙 수준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에너지가 되는 긍정적인 영향도 함께 발견되었다.

표 VI-3. 부정경험 영향에 대한 긍정경험의 완화 작용^{주)}

긍정경험 영향 \ 부정경험 영향	부정경험 영향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영향 없거나 약함	긍정 영향 지속 또는 영향 없음
없음	부정 영향 크거나 지속	영향 없음

* 주: 제5장 심층면접조사 결과 내용 구조화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된 10대시기 문화예술지원 수혜 경험은 주관적웰빙 수준을 높이며, 주관적웰빙을 구성하는 3가지 요인(삶의 만족도, 부정정서, 긍정정서) 중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를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즉 10대시기 정부의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수혜 경험은 청년의 삶의 만족도와 긍정정서를 높임으로써 부정경험의 영향을 완화시키고 청년의 삶의 질에 긍정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이는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증장기 효과를 나타내는 실증 근거이며, 향후 정부의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 지원 정책이 왜 확대·강화되어야 하는가의 논리적 근거이기도 하다.

표 VI-4. 청년 주관적웰빙 수준에 미치는 10대시기 문화예술지원 수혜 경험의 영향력

영향요인	주관적웰빙	삶의 만족도	부정정서	긍정정서
문화예술지원 수혜 유 경험	0.070	0.062	-	0.084

* 자료: 제4장의 표IV-17, 표 IV-20의 결과 일부 발췌

⑤ 회복되지 않은 10대시기 부정경험 영향의 치유를 위한 지원 강화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요 발견 중 하나는 10대시기 경험의 영향이 '통합'의 과정을 거치고, 이후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20대-30대 청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체로 부정경험의 영향력이며, 이는 대체로 우울, 불안, 강박과 같은 정신건강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불안정한 성장환경과 시간 누적적 또는 취약한 환경에서 빚어지는 중첩된 부정경험으로 인한 10대시기 우울 또는 자살충동의 경험은 적지 않은 시간이 경과한 30대 이후의 삶에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우울 또는 자살충동 경험의 영향력은 [그림 VI-5]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대보다는 30대 초반 청년들에게 더 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이는 10대시기 우울 또는 자살충동의 경험의 영향이 생애 전반기 삶뿐만 아니라, 이후 생애단계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청소년-청년을 연계한 지원에 있어 핵심적으로 개입해야 할 분야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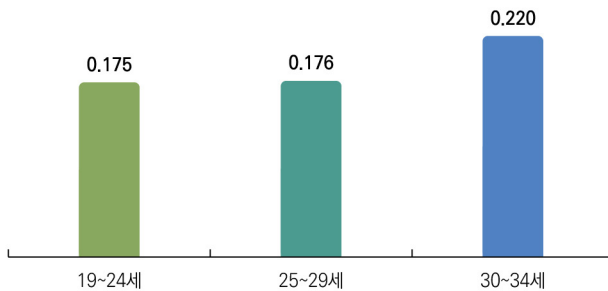


그림 VI-5. 연령대별 우울 또는 자살충동 경험의 부정정서에 대한 영향력

⑥ 무직상태의 20대 초반 후기청소년 및 청년, 심라정서 지원과 활동 지원 강화



2차 자료를 활용한 제3장의 실증분석과 온라인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제4장의 실증 분석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무직상태의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이자 청년 인 이들에게 10대시기 부정경험의 영향이 집중되어 나타나고, 이들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0대시기 전반에 대한 만족도이다. 10대시기 전반 만족도는 전체 청년의 주관적웰빙 수준에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요인인데, 무직자 집단에 대한 이 요인의 영향력(0.383)은 전체 집단에 대한 영향력(0.193)의 두 배 정도 된다.

표 VI-5. 청년 주관적웰빙 수준에 미치는 '10대 전반 만족도'의 영향력

분석 집단		10대 전반 만족도 요인의 영향력	
전체		0.193	
하위 집단	남성	0.257	②
	19세-24세	0.212	④
	무직자	0.383	①
	도 지역	0.256	③

* 자료: 제4장 온라인 설문조사 원자료 및 제4장의 표 IV-17, 표 IV-20의 결과 일부 발췌

특히 제3장의 실증분석에서 시간 경과에 따라 영향력이 완화되기는 하나, 고교 졸업 직후 연령대, 즉 19세-20세 무직청년들에게 10대시기 부정경험의 영향이 집중된다는 발견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부정경험의 영향이 이후 생애단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에 기초해 볼 때, 무직상태의 후기청소년에 대한 심라정서 개입 및 10대시기에 부족했던 다양한 활동을 통한 긍정경험의 축적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2. 청소년-청년정책 연계 추진 방향 및 목표 설정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앞서 도출된 종합결과와 정책개입 방향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청소년-청년정책 연계 추진의 기본적인 방향과 목표의 설정,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한 4가지 전략과 각 전략하의 추진과제를 발굴하였음.
- 본 연구에서 설정한 청소년-청년정책 연계 추진이자 정책 고리 잇기(policy chaining) 실현의 궁극적인 목표는 '청소년-청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부정경험 형성 및 영향력 완화'이고 이를 위한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은 네 가지, 즉 ①10대시기 부정경험 영향 형성의 상쇄, ②취약계층 청소년의 부정경험 방지 기반 강화, ③10대시기 부정경험 영향력의 완화, ④10대시기 부정경험 피해 청년 회복지원으로 설정하였음.
-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네 가지의 각 정책추진 방향에 따른 추진 전략 네 가지, 즉 ①인적 지지체계 및 지원 강화, ②법령 기반 강화, ③지자체 역할 강화, ④연계사업 확대강화를 도출하고, 각 추진 전략에 따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총 12개를 발굴하였음.

1) 정책 목표 설정

정책 목표	• 청소년-청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부정경험 형성 및 영향력 완화	
정책 추진 방향	10대시기 부정경험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10대시기 부정경험 영향 형성의 상쇄 ② 취약계층 청소년의 부정경험 방지 기반 강화
	10대 부정경험 영향력의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10대시기 부정경험 영향력의 완화 ④ 10대시기 부정경험 피해 청년 회복지원

앞서 도출된 종합결과 및 정책함의, 그리고 이를 토대로 논의된 정책개입 방향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생애 전반기 대상자 정책으로서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이 생애단계를 고려한 연계성을 갖추으로써 정책의 효율성과 수요자 중심의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 방안을 마련하였다.

마련된 방안에는 실증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발견하고 발굴하고자 했던 청소년-청년 연계의 정책 고리(policy chain)로서 주목해야 하는 정책대상과 분야, 그리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사항들을 실증 근거에 기초하여 구성하였다. 그 구성의 첫 번째 시작점은 구체적인 정책 목표의 설정이며, 본 연구에서는 앞선 논의들을 토대로 ‘청소년-청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부정경험 형성 및 영향력 완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추진의 방향을 네 가지(①10대시기 부정경험 형성의 상쇄, ②취약계층 청소년의 부정경험 방지 기반 강화, ③10대시기 부정경험 영향력의 완화, ④10대시기 부정경험 피해 청년 회복지원)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네 가지 정책추진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10대시기 청소년정책 측면에서 “10대시기 부정경험 방지”이고 다른 하나는 20대 후기청소년 및 20대-30대 청년을 위한 청소년 및 청년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10대시기 부정경험 영향력 완화”이다. 네 가지 정책추진의 방향 중 ‘①10대시기 부정경험 형성의 상쇄’와 ‘②취약계층 청소년의 부정경험 방지 기반 강화’는 10대시기 부정경험 방지의 축의 내용으로, ‘③10대시기 부정경험 영향력의 완화’와 ‘④10대시기 부정경험 피해 청년 회복지원’은 청년이 갖는 10대시기 부정경험 영향력 완화 측면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2) 추진 전략 및 전략별 추진과제

설정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정책추진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책추진 방향에 맞추어 네 가지(①인적 지지체계 강화, ②법령 기반 강화, ③지자체 역할 강화, ④연계사업 확대·강화)로 설정하였다.



그림 VI-6. 4가지 정책 추진 전략

첫 번째 정책추진 방향인 '10대시기 부정경험 영향 형성의 상쇄'에 맞추어 설정된 전략은 '①인적 지지체계 강화'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모든 경험이 '통합(integrate)'의 과정을 거치면서 영향이 상쇄되어 없어지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는데, 이때 지지자의 존재가 매우 중요한 기제가 된다. 이에 따라 첫 번째 부정경험의 영향을 상쇄시키고자 하는 정책추진 방향의 전략을 '인적 지지체계 강화'로 정하였다.

두 번째 정책추진 방향 '취약계층 청소년 부정경험 방지 기반 강화'에 맞추어 설정된 전략은 '②법률 기반 강화'이다. 앞서 각 단계마다 논의된 바와 같이, 생애단계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구조의 설계가 되었을 때 숨겨진 취약계층의 발견과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실증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되고 도출된 정책함의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취약한 성장환경에서 경험하는 부정경험은 여전히 쉽게 드러나지 않는 가족 돌봄이나 부채상속과 같이 아직 제도화 진척도가 낮거나 최근 정책이슈로 주목받는 영역에서 이미 중첩되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취약계층 청소년의 부정경험 방지를 위한 기반 강화는 제도화의 가장 기본이며,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률 기반 강화를 전략으로 선택하였다.

세 번째 정책추진 방향 '10대시기 부정경험 영향력의 완화'에 맞추어 설정된 전략은 '③지자체 역할 강화'이다. 부정경험에 따른 영향력을 완화하고 지원의 중점대상이 되는 취약계층 청소년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생활지역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체감도 높은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주지에서 신속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경험 영향력 완화 서비스는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 정책추진 방향 '10대시기 부정경험 피해 청년 회복지원'에 맞추어 설정된 전략은 '④연계사업 확대 및 강화'이다. 누적된 10대시기의 부정경험의 영향으로 20대-30대 청년의 심라정서 및 정신건강의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 그것이 10대시기의 경험 영향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기존 청소년 또는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되어온 사업들의 시행 대상과 범위 또는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0대시기 삶의 상처를 갖는 20대-30대 청년의 회복지원을 위해 연계될 수 있는 사업들을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4가지 정책추진 전략 하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추진 과제를 [그림 VI-7]과 같이 발굴하였다. 정책과제 발굴은 선언적인 내용이 아닌, 실현가능성에

무게 중심을 두어 여러 단계를 거친 숙고 과정의 산물이며, 그 과정에서 다수의 법률과 정책 자료는 물론, 해당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 및 논의가 있었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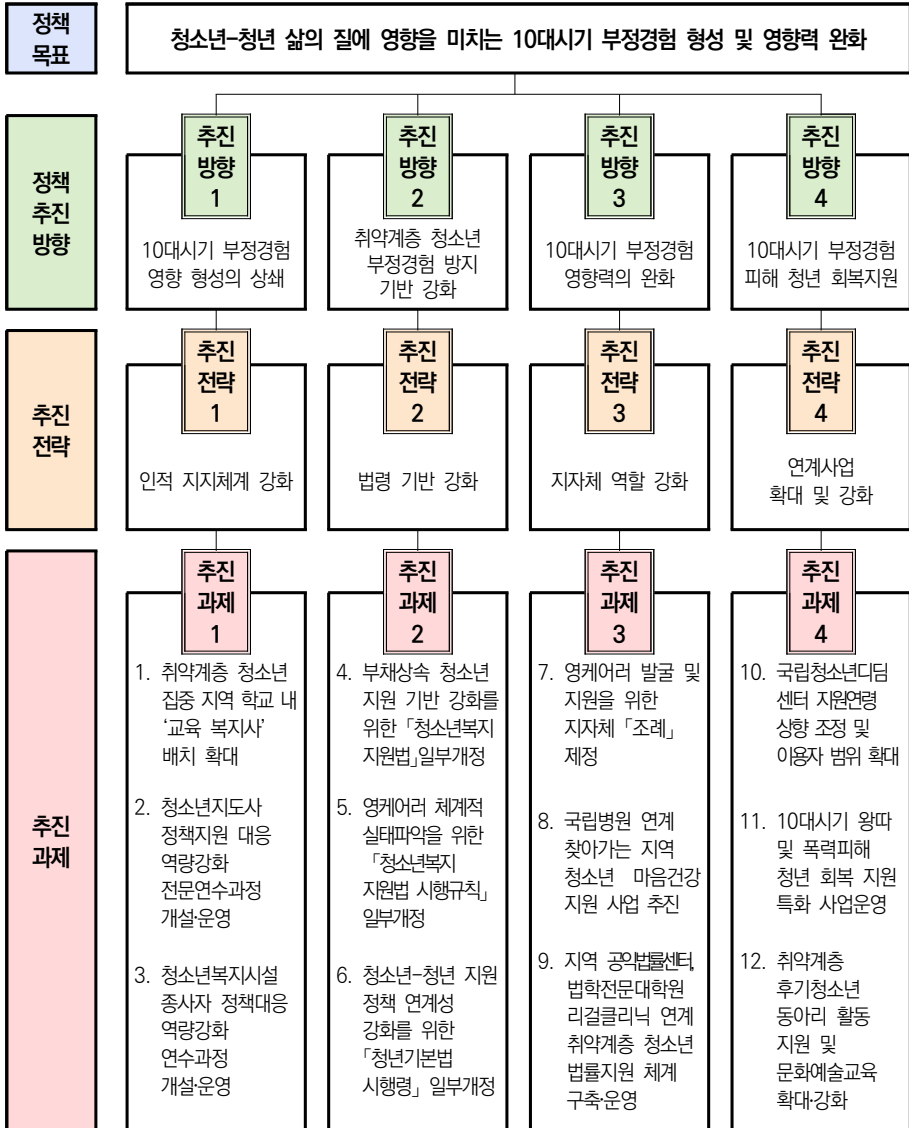


그림 VI-7. 청소년-청년정책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추진의 기본체계

3.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

주요 내용 (Main Contents)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네 가지 정책추진 방향과 추진방향에 따른 네 가지 추진전략의 설정에 이어 여기에서는 각 추진전략에 대응하도록 발굴·선정된 구체적 추진과제 총 12개를 발굴·선정하였음.
- 인적지지체계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①취약계층 집중 지역 학교 내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②청소년지도사 정책지원 대응 역량강화 전문연수과정 개설운영, ③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정책 대응 역량 강화 연수과정 개설운영을 제안하였음.
- 법령 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①부채상속 청소년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②영케어러(young-carer) 체계적 실태파악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③청소년-청년지원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제안하였음.
-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①영케어러(young-carer)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②국립병원 연계 찾아가는 지역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추진, ③지역 공익법률센터, 법학전문대학원 연계 취약계층 청소년 법률지원 체계 구축운영을 제안하였음.
- 연계사업 확대 및 강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①'국립청소년디딤센터' 지원연령 상향 조정 및 이용자 범위 확대, ②10대 시기 왕따 및 폭력피해 청년 회복 지원 특화 사업운영, ③취약계층 후기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확대강화를 제안하였음.

1) 인적 지지체계 강화

(1) 취약계층 청소년 집중 지역 학교 내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추진 과제 1		취약계층 청소년 집중 지역 학교 내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복지사 배치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마다 관내 학교단위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수를 파악하도록 함.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 선정을 위한 취약계층 학생의 비율 범위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협의하여 확정하여 지역 간 양적·질적 격차 완화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증액 지속 필요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 교육부훈령 제332호(2020.5.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과제 추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재개정 ()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액 필요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시도교육청 → 교육지원청(교육복지안전망센터) → 학교(배치교 vs 미배치교) 		

① 과제 제안을 위한 검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는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지원(①교육·복지·문화프로 그램 등을 제공, ②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원의 세부 내용을 교육부훈령 제332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9.29. 검색 및 인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취약계층 학생²⁵⁾이 밀집한 지역의 학교를 지정하고, 이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제공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11년 지방사업으로 이양되어 현재 시도교육청 자체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의 전담인력으로 교육복지사가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배치·활용되고 있다(교육부, 2022.8.22. 보도자료).

교육부 훈령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학교 배치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취약계층 학생의 ①학교생활 적응 지원과 ②학생이 겪는 문제원인 해결에 관한 교육, ③지역사회 자원 연계·활용, 그리고 ④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2022.9.29. 검색 및 인출)이지만, 실제 현장에서 교육복지사의 제 역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은 매우 밀착도 높게 이루어진다.

표 VI-6. 교육복지우선사업 전담인력의 주요 업무

구분	내용
학교배치 전담인력의 업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 사업대상학생을 위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에 관한 교육 • 사업대상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 •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지원 등

* 출처: 교육부 훈령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전담인력의 배치·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8400>) 에서 2022.9.29. 검색 및 인출)

25) 지원대상 취약계층 학생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규정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7. 기타 교육상 지원이 필요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의 자녀

예컨대 초등학교 배치 교육복지사의 경우 방과 후 아버지와 함께 사는 여학생을 위해 함께 옷을 구매하거나 빨래 정리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에게 학생과 함께 시장 본 물건을 전달한다거나 불편한 부모를 대신해 생일파티준비를 같이 해주기도 하며, 지역 단체 또는 기관과 연계하여 주거공간을 수리하거나 마련해주는 등(한국정책방송 영상자료, 2022.8.31.) 지원의 내용과 방식이 학생의 세세한 일상생활을 지지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지원은 불안정한 가족환경에서 성장하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실제 취약계층 청소년을 돕는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비율은 매우 낮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자료로 공개된 전국 17개 시도 교육복지사가 배치 비율은 13%에 불과하며, 특히 취약한 가족환경의 청소년들이 많은 도 지역의 배치 비율이 광역시에 비해 낮다. 또한 일반고 대비 취약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직업계고의 경우 전혀 배치가 되지 않은 지역이 9개에 달하며, 대체로 5명 내외 수준이다(강득구의원실, 2021.10.12; 교육플러스, 2021.10.12.).

표 VI-7.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교육복지사 인원	316	151	142	123	94	58	19	9	135	106	34	83	132	88	90	51	20	1,651
배치 비율 ^{주)}	22.3	23.4	30.6	22.4	28.8	17.8	7.1	8.9	4.9	13.9	6.6	9.7	16.2	10.1	9.3	4.8	8.0	13.0
직업계고 배치인원	0	0	0	3	0	5	4	0	3	9	0	2	5	3	0	0	0	34

* 출처: 강득구의원실(2021.10.12.), 202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직업계고 교육사각지대 만드는 요인들 차고 넘쳐', p.2 교육플러스(2021.10.12.). [2021 국감] 학교 내 교육복지사 배치율 13%..경남 4.8%, 경기 4.9% 저조,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4> 에서 2022.9.29. 인출)

* 주: 관내 전체 학교 수 대비 학교사회복지사(교육복지사)가 활동하는 학교의 비율

낮은 비율의 배치 인력 현황도 문제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11년에 시도교육청으로 사업이 이관되어 시행되다 보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학교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주체인 각 교육청에 따라 배치 기준과 예산 상황이 달라 실제 요구되는 수요에 비해 절대적으로 공급도 부족하고, 지원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강득구의원실, 2021.10.12.; 여성가족부, 2022.3)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미 제도화되어 있으나, 수요 및 지원의 중요성 대비 여전히 미미한 교육복지사 배치·활용의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청소년을 지원하는 인적지원체계를 강화를 정책추진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② 주요 제안 내용

앞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두 가지 사항이 요구된다. 하나는 체계적인 수요자 파악이고, 다른 하나는 예산지원의 증액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교육복지사 배치를 위한 학교선정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관내 학교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취약계층 학생 수 및 비율 파악이 매년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교육청별 자체계획에 따라 “취약계층 학생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학교”(교육부, 2022.8.22, p.7)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로 선정하고 있고, 교육부 훈령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의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기준을 참고하고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는 지역별 양적질적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복지사 배치 증원의 단기 및 중장기 목표 비율을 협의하여 설정하도록 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증액지원을 제안한다.

(2) 청소년지도자 정책지원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연수과정 개설운영

추진 과제 2		청소년지도자 정책지원 대응 역량 강화 전문연수과정 개설운영	
<p>■ 주요 제안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통해 시행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과정’에 청소년지원 신규정책과 제도 변화에 관한 모듈 또는 콘텐츠 추가 개설운영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직무연수 내용 중 ‘청소년사회안전망의 이해’ 또는 청소년상담복지분야 관련 신규정책이나 제도변화 내용 추가 또는 내용 보완 		<p>■ 추진 전략</p>	
<p>■ 근거 법령 (또는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기본법」 제20조,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p>■ 과제 추진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p>■ 소관 부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p>■ 예산 증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예산 소요 없음 			
<p>■ 추진 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지도자 양성사업 → 전문연수과정 활용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직무연수사업 활용 			

① 과제 제안을 위한 검토

학교 이외 현장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의 중요한 인적 지지체계가 될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청소년지도자이다. 「청소년 기본법」 제20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8조에는 청소년지도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과정의 경비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VI-8.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관련 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20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 ① 생략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022.10.20. 검색)

본 연구의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가족 돌봄 청소년이나 부채상속으로 법률상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청소년들을 마주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상황 인식과 포착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이나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족 돌봄 청년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항과 같이 청소년을 지원하는 신규정책이 도입되거나 기존 정책이 개선되는 상황에 대해 청소년지도자의 이해가 선행될 때,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 또는 연계될 수 있다.

② 주요 제안 내용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미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 제도를 활용하여, 신규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모듈 또는 콘텐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정책대응 역량 강화를 높이는 과정 개설 및 운영을 제안한다. 현재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이나 연수, 보수교육이외 전문연수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누리집, 2022.10.19. 검색), 이 과정에 신규 정책과 변화하는 정책제도 및 서비스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모듈을 추가 개설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 유관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직무연수과정을 활용도 제안한다. 즉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 청소년상담사 및 유관기관 종사자 직무연수 과정의 ‘청소년사회안전망의 이해’의 내용(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누리집, 2022.10.19. 검색) 또는 청소년상담복지 분야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콘텐츠로 신규정책과 제도에 대한 내용을 추가 또는 교육내용 보완을 제안한다.

(3)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정책 대응 역량강화 연수과정 개설·운영

추진 과제 3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정책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운영 및 정례화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복지시설 (①청소년쉼터, ②청소년자립지원관, ③청소년치료재활센터, ④청소년회복지원시설종사자) 대상 연 2회(상반기/하반기) 정기 연수과정 운영 • 청소년복지시설 유형별 및 종사자 직무별 등 대상을 구분하여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과정으로 나누어 연수 실시 • 4가지 시설 중 취약계층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세 가지 시설(쉼터, 자립지원관, 회복지원시설)부터 연간 정기교육 정례화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기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재개정 ()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예산확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시설 협회 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① 과제 제안을 위한 검토

앞서 학교 이외 현장에서 청소년을 만나는 청소년지도사의 신규정책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기존 전문연수 또는 직무연수과정 내용의 추가 또는 보완에 이어, 여기에서는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책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개설·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모두 네 가지(① 청소년쉼터, ② 청소년자립지원관, ③ 청소년치료재활센터, ④ 청소년회복지원시설)로, 이들 시설에서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제외한 세 가지 시설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 또는 종사자들이 만나는 청소년은 대체로 취약계층 청소년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쉼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지원하는 시설이고,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 제3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해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정기간 보호·지원하는 시설이며,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일정기간 자립생활의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시설의 종사자들이 법률 개정을 통한 신규정책의 도입 또는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기존 지원제도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역량 수준이 높을 때, 시설 거주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및 연계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신규정책 대응 역량강화 연수과정을 개설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② 주요 제안 내용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연수과정으로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이 해마다 실시되었다. 예컨대 2018년에는 3회 실시되었었고, 2019년에는 종사자의 연차 및 직무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실시하기도 하였고, 실시 횟수 또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회하여 7회까지 실시된 바 있다(여성가족부, 2019.4.3.).

본 연구에서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정책대응 역량 강화, 특히 신규정책 및 제도변화에 대한 이해 및 대응 역량 강화를 강조하는 것은 이들이 대면하고 일상적으로 만나는 청소년들이 취약계층 청소년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설정된 정책목표가 ‘청소년-청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부정경험 형성 및 영향력 완화’이고 이 목표달성을 위한 일차적 표적(target) 집단이 취약계층 청소년인 만큼, 취약계층 청소년을 일상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는 ‘취약계층 청소년 부정경험 방지 기반 강화’라는 정책추진 방향 하에 ‘인적 지지체계의 강화’라는 전략 실행을 위한 과제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들

이 취약계층 청소년의 부정경험 영향을 완화시키는 지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복지시설 유형 및 종사자 직무 등 대상을 구분하여 연 2회(상 하반기) 정기 연수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한다.

2) 법률 기반 강화

(1) 부채상속 청소년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추진 과제 4		부채상속 청소년 지원 기반 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법」 개정으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청 기한의 제약은 완화될 수 있으나, 청소년 당사자 관점에서 여전히 문제로 남는 것은 법률 처리 내용 그 자체가 어렵다는 것과 법률지원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쉽지 않다는 것임. 기초지원체계까지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법률지원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일부 개정 제안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회의의 통과('22.8.9) 「민법」 일부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재개정 (○)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예산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사업 도입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① 과제 제안을 위한 검토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현행 「민법」 제1019조에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고, 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10.19. 검색).

사망한 부모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데,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부모사망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거주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거나 상속 포기 신청을 하지 못 할 경우, 그 청소년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고 채무상환으로 정상적인 청소년과 청년시기를 살아갈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를 보완하

기 위한 「민법」 개정이 추진되어 지난 8월 9일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이다 (법무부, 2022.8.9.).

법률 개정은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 아닌,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가 ①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②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을 때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제1019조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표 VI-9. 「민법」 일부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①② (생략)	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상속 채무 초과사실을 안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 성년이 되기 전에 본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 2. 성년이 된 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경우: 안 날부터 6개월 내

* 출처: 법무부(2022.8.9.), '미성년자 및 대물권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p.4

제5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국무회의 통과이후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위한 '3개월'이라는 기간측면의 제한은 완화될 수 있으나, 법률지원에 대한 정보와 접근이 아직까지는 청소년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가 남기 때문에 청소년 입장에서 법률서비스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실제 법률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 지원하는 것이 청소년과 청년지원정책의 과제로 남는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미성년자 부모 빚 대물림'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한 2019년부터 두 가지 형태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법률 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근거기반을 마련하였다. 조례 유형 하나는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로 현재 총 21개 지자체에 제정되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로 총 33개 지자체에 제정되어 있다.

표 VI-10. 지자체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명	공포번호	시행일
서울	서울특별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	제7624호 '20.7.16
	서울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제1511호 '21.9.24
	서울 관악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제1360호 '21.7.8
	서울 구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제1572호 '21.5.13
	서울 노원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제1554호 '21.9.30
	서울 도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제1438호 '20.10.8
	서울 동대문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제1458호 '22.2.17
	서울 동작구	미성년자의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1512호 '20.6.11
	서울 서초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제1313호 '21.03.26
	서울 양천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제1552호 '20.7.16
	서울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제1497호 '21.12.30
	서울 은평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제1464호 '21.11.11
	서울 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 지원 조례	제1568호 '21.7.20
	서울 중랑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제1470호 '21.11.11
	광역시	광주광역시 남구	아동·청소년 부모채무 상속 방지 법률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1309호 '20.12.18
도	강원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제4728호 '21.7.02
	경기도 구리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	제1905호 '21.4.22
	경기도 하남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관한 법률지원 조례	제2033호 '22.2.25
	경기도 화성시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제1908호 '22.3.14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제4945호 '21.4.30
	충청남도 천안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제2343호 '22.4.11
	충청남도 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제2292호 '22.9.26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 및 발체 후 연구자 재구성(www.law.go.kr/, 2022.8.22. 검색 및 발체)

이들 「조례」에서 규정하는 주요 내용은 ①지원대상, ②지원범위, ③지원방법, ④비용지원 등으로 유사하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지원대상인 ‘아동·청소년’의 연령 정의가 각 지역에 따라 「민법」 규정을 준용하여 “19세 미만”으로 규정한 지역과 「청소년 기본법」 연령 정의를 준용하여 “24세 이하”로 규정한 지역이 혼재되어 있다. 가령 같은 서울지역이라 할지라도 각 구마다 연령 규정이 같지 않고, 기초지자체의 조례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다.

표 VI-11. 지자체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명	공포번호	시행일
서울	강남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1526호 '19.11.8
	강동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1614호 '21.7.7
	강서구	아동·청소년 부모·채우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1322호 '20.7.15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1197호 '21.9.13
	성동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1517호 '21.12.30
광역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5682호 '21.4.20
	광주 광산구	아동·청소년 부모·채우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1455호 '19.8.8
	광주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1608호 '20.5.29
	대구 달서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1436호 '20.7.13
	대구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1403호 '20.9.21
	대구 북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조례	제1514호 '21.11.1
	대구 수성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1444호 '20.12.21
	대전 대덕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조례	제1547호 '21.9.30
	대전 동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조례	제1499호 '21.7.1
	부산 연제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912호 '20.3.27
	부산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1317호 '19.9.28
	부산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1164호 '19.5.31
	울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2232호 '20.9.24
	울산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1111호 '21.8.2
	인천광역시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1309호 '20.12.18
	인천 계양구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1810호 '20.11.9
	인천 서구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6840호 '20.4.21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1734호 '21.7.15

구분	조례명	공포번호	시행일
도	경기도	아동·청소년 부모·보호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6712호 '20.7.15
	경기 고양시	아동·청소년 부모·보호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2221호 '20.2.4
	경상남도	아동·청소년의 부모·보호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5224호 '22.5.6
	경남 거제시	아동·청소년 부모·보호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1809호 '21.2.24
	경남 김해시	아동·청소년 부모·보호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1620호 '21.2.20
	경남 창원시	아동·청소년의 부모·보호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제1639호 '22.3.31
	전라남도	아동·청소년 부모·보호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5087호 '20.6.18
	전남 해남군	아동·청소년 부모·보호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3053호 '21.9.15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보호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제4658호 '21.11.05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 부모·보호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제3214호 '22.8.17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검색 및 발체 후 연구자 재구성(www.law.go.kr/, 2022.8.22. 검색 및 발체)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법」 개정의 주요 대상이자 수혜자가 취약계층 청소년이므로, 청소년 생활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청소년복지 서비스에 「민법」 개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법률서비스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지원하고, 각 지역의 조례에서 19세 미만 또는 24세 이하로 층을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지역에 따른 청소년 법률지원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법률지원 서비스 연계를 규정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② 주요 제안 내용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법률상담이나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등 법률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 2022.10.19. 검색)이 존재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알아보고 찾아가 설명을 들어 이해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홀로 처리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본 연구 제5장에서 논의 된 바와 같이, 도움을 받아 법률적 처리가 완료되었을지라도 당사자는 그것이 상속포기인지 한정승인인지도 인지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자체까지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의 청소년 법률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개정을 통해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을 지원하는 관계 법률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요자 관점에서 사각지대로 남는 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한다.

표 VI-12.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 제안

현행	개정 제안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하생략)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 및 법률지원 서비스 연계 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하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2022.10.14. 검색)

(2) 영케어러 체계적 실태파악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추진 과제 5		영케어러 체계적 실태파악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 돌봄 청년(영케어러) 지원 대책 수립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영케어러 실태조사는 영케어러(young carer)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초점 대상은 '청년 케어러(young adult carer)'에 있어 가족 돌봄이 시작되는 시점인 초등학교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한계가 있음. 매 3년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실태조사 내용에 청소년의 가족 돌봄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체계적인 실태파악 및 지원정책 수립의 실증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규정 개정을 제안함.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돌봄청년지원대책 수립방안'(22.2.14)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예산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① 과제 제안을 위한 검토

부모나 조부모를 돌보는 청소년, 즉 돌봄 제공자로서의 청소년은 아직 우리사회에서 인식조차 되고 있지 않으나, 실제 청소년의 일상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시기부터 (조)부모 돌봄의 조력자 또는 간병인까지 다양한 범주의 돌봄 제공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본 연구의 결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이른 시기에 돌봄 제공자의 역할이 취약계층 청소년이 갖는 중첩된 부정경험을 구성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관계부처 합동(2022.2.14.)으로 발표한 「가족 돌봄 청년(영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책영역에서 관심을 갖는 ‘영케어러(young carer)’ 용어는 18세 미만의 가족 돌봄 청소년을 뜻하는 ‘영케어러’를 붙여 사용하지만, 실상 대상자 범주 측면에서는 ‘청년 돌봄 제공자(young adult carer)’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돌봄 제공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논의가 앞서 언급한 「가족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기에, 아직 제도화를 위한 충분한 실증 자료가 확보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보니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떠한 내용의 가족 돌봄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태자료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제5장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복지부가 실시한 가족 돌봄 청년 실태조사는 기본적으로 조사 설계에 있어서 가족 돌봄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초등학생을 포함하지 않았다.

19세 미만		19세 이상	
중·고등학생	학교밖 청소년	대학생	일하는 청년

*출처: 관계부처합동 「가족 돌봄 청년(영케어러) 지원 대책 수립 방안」, p.9 일부 발췌

그림 VI-8. 보건복지부 ‘가족 돌봄 청년 실태조사’의 대상 연령 범주

가족 돌봄의 경험이 한시적인 것이 아닌, 10대 청소년기를 넘어 20대-30대 청년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부정경험이라는 것을 상기해 볼 때, 영케어러에 대한 실태는 초등학생을 포함하여 10대부터 20대-30대 청년기까지 파악되어야 적절한 정책개입의 지점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지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생애 어느 단계에서 돌봄을 맡느냐에 따라 고려할 사항과 지원 방식이 달라져야하기 때문이다(시부야 도모코, 2021, p.9).

일각에서는 영케어러 지원에 관한 법률근거의 마련을 제안하거나 실행사업을 요구하기도 하고, 영국을 비롯한 국가들에서 실시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대략 청소년 인구의 5%~8% 수준의 영케어러이며, 우리나라에 이를 단순대입 할 경우 약 18만 4천명~29만 5천명의 영케어러가 존재할 수 있다(허민숙, 2022, p.3)는 추정치로 그 규모가 가능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을 돌봄으로 정의할 것이며, 다양한 층위로 나타나는 돌봄 제공자 중 어느 범위까지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 할 수 있는 실증 자료가 부재한 상황에서 선불리 법률 기반의 제도화는 불안정한 출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실태파악이 영케어러 지원정책 설계를 위해서도, 그리고 본격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위해서라도 실태조사가 선행된 후 지원 대상의 범위와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법정조사로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활용하여 9세~24세 청소년 돌봄 제공자에 대한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제안하고자 한다.

② 주요 제안 내용

매 3년마다 청소년의 의식태도·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의2에 근거하여 ‘청소년종합실태조사’로 실시되고 있다. 실태조사의 내용은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조항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 가족 돌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과제를 제안한다.

표 VI-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제안

현행	개정 제안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 생략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제1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 생략 6. 청소년의 돌봄제공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2022.10.14. 검색)

(3)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 과제 6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대시기 경험이 청년의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실증 결과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립되는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 이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생애 앞선 단계보다 이후 단계에서 연계성이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매 5년마다 수립되는 청년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청년정책과 청소년 정책 간 정책지원 연계성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제6호 규정으로 신설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재개정 (○)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예산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사업 도입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① 과제 제안을 위한 검토

본 연구의 단계적 실증분석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10대 청소년기 경험이 청년의 삶의 질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며, 생애 중간과정의 대상자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분야의 확장만이 아닌, 생애단계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구조의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가 '그러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대한 실증 근거로서의 확인이나 결과의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정책설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책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연계성은 앞선 단계보다는 이후 생애단계에서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 정책수립과 관련된 사항에 청소년정책과의 연계성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② 주요 제안 내용

「청년기본법」 제8조에는 매5년마다 수립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담겨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①기본방향, ②추진목표, ③분야별 주요 시책, ④이전 계획 분석평가, ⑤정책 기능 조정, ⑥재원 조달 방법, ⑦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⑦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하나로 청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지원 연계성을 추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1호부터 5호까지 규정된 사항에 제6호의 내용, 즉 ‘청년정책과 청소년정책 간 정책지원 연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 할 것을 제안한다.

표 VI-14.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제안

현행	개정 제안
제3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청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간 청년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하 생략)	제3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생략 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년정책과 관련된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청년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간 청년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 공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청년정책과 청소년정책 간 정책지원 연계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2022.10.14. 검색)

3) 지자체 역할 강화

(1) 영케어러(young carer)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추진 과제 7		영케어러(Young Carer)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의 「아동 및 가족법」 제96조(「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Sec.96)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영케어러에 대한 실태 및 지원을 위한 필요·욕구 파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실효성 있음. •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김해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22.2.11 제정 및 시행)가 첫 번째로 제정되었고, 최근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22.10.17)가 제정되었음. • 김해시 사례를 참조하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상향식(bottom-up)의 단계적 법률 기반 마련 추진하는 시작점으로서 조례 제정 추진을 제안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돌봄 청년 지원대책 수립방안'(22.2.14) 	■ 과제 추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제개정 (○)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예산 과제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① 과제 제안을 위한 검토

1996년부터 영케어러에 대한 조사를 대규모로 실시하고, 2014년에 제정한 「아동 및 가족법」에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조항(Sec.96)을 마련한 영국에서는 영케어러 지원의 기초가 되는 실태 파악과 욕구에 대한 조사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허민숙, 2022, p.9, 시부야 도모코, 2021, pp.25-26, 영국 국가법률 공식 홈페이지(the official home of UK legislation), 2022.10.14. 검색 및 인출).

표 VI-15. 영국 영케어러 지원 「아동 및 가족법(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 Sec 96. Young Car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케어러의 필요 욕구에 대한 파악의 주체는 지방정부 (A local authority in England must assess whether a young carer within their area has needs for support and, if so, what those needs are) • 영케어러는 다른 사람을 돌보거나 돌보려고 하는 18세 미만자 (“young carer” means a person under 18 who provides or intends to provide care for another person)
<p>* 출처: 영국 국가법률 공식 홈페이지(the official home of UK legislation,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4/6/section/96/enacted, 2022.10.14. 검색 및 인출)</p>

청소년이 가족 안에서 돌봄 제공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통해서 영케어러의 필요-욕구를 적절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영케어러에 대한 실태와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며, 지자체의 역할 수행의 수준이 지역 내 가족 돌봄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핵심 기제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영케어러를 지원하는 「조례」가 첫 번째로 제정된 지역은 경남 김해시로, 조례 제1810호 「김해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이에 해당한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로 정의하고 있다. 동 조례 제5조의 지원 계획에는 5가지 사항(①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②실태조사, ③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④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⑤그 밖에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포함(국가법령정보센터, 2022.10.14. 검색)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가족돌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조례 제8494호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지면서 「민법」 제779조²⁶⁾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가족돌봄청년으로 정의하였고, 이들을 위한 매 5년마다 기본계획수립을

임무조항으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민간전문가의 활용과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을 임의조항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2.11.1. 검색).

표 VI-16. 가족 돌봄 청소년 지원 「조례」 제정 사례

「김해시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2022.2.11. 제정 및 시행)」 주요 조항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해시의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장애·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p>제5조(지원 계획) 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연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6조(관계 기관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p>
<p>*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2022.10.14. 검색)</p>

② 주요 제안 내용

본 연구에서는 김해시 조례를 하나의 사례로 각 지자체가 우선 영케어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시행과정에서 필요 사항들을 모아 각 지역의 공통사항을 도출한 후, 국가가 역할을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가족 돌봄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법률에 담는, 즉 상향식(bottom-up) 법률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한 시작으로 돌봄 제공자로서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와 더불어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을 추진과제로 제안한다.

26)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국립병원 연계 찾아가는 지역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추진

추진 과제 8		국립병원 연계 찾아가는 지역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추진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적 영향력이 큰 우울 또는 자살충동과 같은 10대시기 경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내 자원인 국립병원과 연계한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의 추진을 제안함. 현재 국립공중병원에서 매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및 고양시는 「조례」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이들 사례를 참조하여 각 지자체에서 지역 내 국립병원과 같은 자원을 연계,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추진 제안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과제 추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재개정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신규 사업 도입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예산 증액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국립병원(공주, 나주, 추천, 마산, 부곡, 목포 등) 지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체계 활용 			

① 과제 제안을 위한 검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10대 청소년시기 우울 또는 자살충동의 경험은 20대-30대 청년의 삶의 질, 특히 정신건강 측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인이다.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이 갖는 중첩되고 시간 누적적인 부정영향은 상당 시간이 경과된 30대 이후에 더 악화된다는 사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증 분석의 결과로 확인된 바 있다.

청소년대상 정신건강 정책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제2조 및 제7조,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3에 근거하여 ‘학생정서행동검사’를 매년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일차적으로 온라인 또는 서면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심 군으로 선별된 학생들은 Wee센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되고 이후 전문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의원으로 연계되는 구조이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에 근거, 9세~24세를 대상으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와 1388상담채널을 운영하고 전국 기초자치단체까지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상

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①서비스 지원 체계 및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측면의 한계와 ②지원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박진우·허민숙, 2021, pp.8-9)는 평가와 동시에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덧붙여 또 다른 측면에서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사→위험군 분류→전문기관 연계→치료’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서는 보호자의 관심과 의지, 그리고 시간 할애가 전제되기 어려운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과정에서 중도 탈락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밀착도 높은 정신건강 지원은 청소년들이 거주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거나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고, 그 체계의 중심에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지자체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되며, 본 연구에서는 우선 지역 국립병원이라는 자원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청소년대상 찾아가는 정신건강 지원서비스 추진을 제안하고자 한다.

② 주요 제안 내용

청소년과 청년의 삶에 있어 무엇보다도 영향력이 큰 우울 또는 자살충동과 같은 경험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위하여, 지자체가 지역 내 자원인 국립병원(공주, 목포, 마산, 나주, 춘천, 부곡 등)과 연계한 청소년 정신건강지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하나의 사례로 국립공주병원에서 매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정신건강지원사업’(국립공주병원 누리집, 2022.10.20. 검색 및 인출)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에서는 지역 내 드림스타트센터, 지역아동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평가가 실시되고, 결과에 따라 치료 및 서비스연계가 필요한 이들에 대해서는 다시 종합심리평가 후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으며, 동시에 부모상담 및 서비스제공 종사자들의 사례회의가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도 고양시가 지역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자치법규, 즉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유일한 지자체이다. 이와 같은 조례의 내용을

참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의 체계성을 갖추고, 지역 내 국립병원과 같은 자원을 심분 활용하여 거주 지역 내 취약계층 청소년대상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찾아가는 마음건강 사업’ 추진을 제안한다.

(3) 지역 공익법률센터,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legal clinic) 연계 취약계층 청소년 법률지원 체계 구축운영

추진 과제 9		지역 공익법률센터, 법학전문대학원 연계 취약계층 청소년 법률지원 체계 구축운영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법률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단순히 법률 처리의 결과만이 아닌 청소년 당사자가 과정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갖는데 도움을 될 수 있는 지역의 내 다종의 법률지원 창구 구축운영 제안 • 기본적으로 ‘공익법률센터’ 또는 조례 기반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뿐만 아니라 지역 법학전문대학원의 ‘리걸클리닉’에서 지역 청소년 대상 법률지원 서비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연계·활용 추진 제안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회의 통과('22.08.09) 「민법」 일부개정안 •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 지원 조례」 	■ 과제 추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재개정 ()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예산 증액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 연계사업 		

① 과제 제안을 위한 검토

앞서 제안한 ‘추진과제 4.’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을 통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위한 법률 전문가의 지원을 받기 전까지의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법률지원 서비스 연계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문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내 공익성을 갖고 법률지원을 하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지원정책 접근성에 있어 장벽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외, 지역의 공익법률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지자체에 공익법률센터의 설치 현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서울시의 경우 서울복지재단 산하에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2012년에 설치하여 운

영하고 있고, 경기도를 비롯한 총 105개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무료 법률 상담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지식이 없어 용어조차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상속포기가 되었는지 한정승인이 되었는지 당사자가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정에서도 포착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일반적인 ‘공익법센터’ 또는 ‘무료법률상담실’과는 또 다른 법률지원 경로가 구축·운영될 필요가 있다.

② 주요 제안 내용

앞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부모 부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청소년 지원을 위해 공익법률센터나 무료 법률상담실 구축·운영 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법률지원의 접근성과 더불어 내용에 대한 청소년 당사자의 이해가 동반되는 법률처리를 위해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마다 법률임상교육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리걸클리닉(legal clinic)’을 지자체가 연계함으로써, 청소년 법률지원서비스를 위한 다층의 창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4) 연계사업 확대 및 강화

(1)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지원연령 상향 조정 및 이용자 범위 확대

추진 과제 10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지원연령 상향 조정 및 이용자 범위 확대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대시기 부정경험(학교폭력, 음주, 도박게임 등)의 영향이 고교졸업 직후 19세~20세 무직상태 청소년에게 집중된다는 실증 근거를 토대로 부정경험의 영향이 회복되지 않은 채 연령만 높아진 무직상태 후기청소년에 적절한 정책 개입 필요 현재 정사행동 어려움을 겪는 9세~18세 청소년 대상 통합적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지원 대상 연령을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통해 24세까지로 조정하여 후기청소년 대상 체계적 정사행동 치료의 기회 제공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 보호법」 제2조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재개정 (○)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예산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사업 도입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① 과제 제안을 위한 검토

본 연구 제3장의 실증분석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10대시기 누적된 부정경험(고교 시기 학교폭력 지속년수, 중고등학교시기 음주 횟수 및 지속년수, 고교시기 도박게임 횟수 및 지속년수)의 부정적 영향은 고교 졸업 직후 무직상태에 있는 후기청소년들에게 집중되어 나타난다. 또한 제4장에서는 10대시기 우울 또는 자살충동의 경험이 20대-30대에 지속적으로 부정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는 앞선 장들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부정적 영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는 그대로이지만 연령만 높아졌기에 19세~20세 무직상태에 있는 후기청소년에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이들에 대한 심리정서를 비롯한 10대시기 부정경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9세~18세 이하 청소년에 한하여 우울, 불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를 통해 통합적 치료·재활서비스(상담치료, 대안교육, 생활보호, 진로탐색, 자립지원 등)를 중기과정(11박 12일)과 장기과정(4주, 16주)의 형태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여성가족부, 2022.6.9.).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지원 대상자 연령을 19세~24세 후기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정확대함으로써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받을 기회가 제한된 후기청소년이 부정경험 영향으로부터 회복하여 이후 생애단계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② 주요 제안 내용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이용자 연령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연령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법률에서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35조제1항에 근거규정을 둔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이용자에 한하여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청소년” 정의 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단서 내용 추가의 방식으로 법률 일부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표 VI-17.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 제안

현행	개정 제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을 말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24세 이하인 사람(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으로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2022.10.14. 검색)

(2) 10대시기 왕따 및 폭력피해 청년 회복 지원 특화 사업운영

추진 과제 11		10대시기 왕따 및 폭력피해 청년 회복 지원 특화 사업운영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연계성이 정신건강 분야에서 강화되어야하며, 그 연계의 첫 단계는 왕따 및 폭력피해 청년 회복지원임. • 10대시기 피해 경험으로 빚어지는 잠재된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우울감은 20대-30대 청년의 일상에 강한 부정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단순히 마음건강 또는 정신건강 측면에서의 접근보다 학교폭력 피해회복 지원이라는 명시적 지원이 요구됨. • 지원 사업은 취약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재단 ‘청년다다름 사업’을 확대보완하여 지원항목 모듈을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기본법」 제21조 	■ 과제 추진 유형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조정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 재개정 ()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예산 증액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조정실→청년재단 유관 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사업 도입 ()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① 과제 제안을 위한 검토

본 연구의 제5장을 비롯하여 종합결과 및 정책함의의 도출 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10대시기 ‘왕따’ 경험과 그 연장선상에서 가해지는 폭력의 피해는 그것이 단 한 번일지라도 잠재된 분노와 억울함으로 남아 20대-30대 청년의 마음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회복되지 않은 학교폭력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은 일상에서 긴장과 강박,

우울감이 반복되어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치료를 받으며 생활한다. 고교재학 시기까지는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이 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교 졸업 후에는 학교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이 있지는 않고, ‘청년마음건강 사업’ 등을 통해 상담지원을 받을 수준이다.

제1장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유명인에 대해 청년세대가 보이는 혹독한 평가는 쉽게 잊히지 않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을 마음 속 깊은 곳에 안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적지 않음이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십수 년이 지난 지금도 악몽으로 피해의 상황이 재현된다는 제5장 심층면접 참여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의 이면에는 적시에 회복할 수 있는 지원이 없었다는 아쉬움과 서러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0대시기에 불거진 문제이지만, 20대-30대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왕따 및 폭력피해로부터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명시적으로 필요하며, 청년정책의 하나로 편성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다만, 청년정신건강 또는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중앙과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으므로, 첫 단계에서는 취약상태 청년을 돕는 기존 청년지원 사업을 확대·보완하여 하나의 모듈로 시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② 주요 제안 내용

어떠한 형태와 사업의 내용으로 10대시기 왕따를 비롯한 학교폭력 피해경험자의 회복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적지 않은 시간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첫 단계로서 현재 청년재단에서 운영 중인 ‘청년다다름 사업’에 모듈(module)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재단은 청년정책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에 등록된 재단법인이고, ‘청년다다름 사업’에서는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종료, 장기미취업, 대학비진학, 가족돌봄 청년 등을 발굴하고, 청년과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개인 밀착형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청년재단누리집, 2022.10.20. 검색). 이 사업의 지원 항목은 다섯 가지 모듈(①생활기술, ②자기발견, ③자립지원, ④삶의 질 향상, ⑤사회진입 및 안착)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왕따 및 학교폭력’ 피해회복 지원) 항목을 추가한다거나, 생활기술 항목의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마음건강을 두 개로 분리하여 일반 마음건강과 학교폭력 피해 회복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3) 취약계층 후기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확대·강화

추진 과제 12		취약계층 후기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확대·강화
■ 주요 제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대시기 다양한 활동경험은 지지자 존재와 함께 부정경험 영향을 완화하는 기제가 되고, 특히 문화예술지원 수혜 경험과 동아리 활동 경험은 20대-30대 청년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취약계층 청소년은 긍정경험을 갖는 활동경험 자체 구성이 되지 않고 부정경험 영향이 많음을 고려하여 후기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지속 확대·강화할 것을 제안함.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교육 다각화' 사업 지속 확대·강화를 제안 		■ 추진 전략
■ 근거 법령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2년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과제 2-1-3 	■ 과제 추진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 재개정 () 기존 사업 보완·확대 (○) 신규 사업 도입 () 제도 및 추진 체계 정비 ()
■ 소관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 	
■ 예산 증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예산 증액 필요 	
■ 추진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연계·협력→ 지지체→지역문화기반시설 or 청소년시설 	

① 과제 제안을 위한 검토

본 연구의 실증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10대시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갖는 긍정경험은 지지자 존재와 함께 불안정한 성장환경에서 비롯되는 부정경험의 영향을 완화하는 기제가 된다. 특히 10대시기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수혜경험은 20대-30대 청년의 주관적 웰빙 수준을 높이는 요인이고, 동아리활동 경험은 청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삶의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는 것 또한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10대시기 교내외 동아리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기회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가족환경에서 자란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대체로 활동경험 자체가 10대시기 긍정경험으로 구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제4장의 실증분석 결과 및 종합결과 도출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도 지역의 무직상태의 19세~24세 후기청소년이 10대시기 전반 만족도 수준에 영향을 크게 받는 집단으로, 이들의 낮은 10대시기 전반 만족도가 20대-30대에도 지속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본다면 취약계층 후기청소년, 특히 무직상태에 있는 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족했던 10대시기 동아리활동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긍정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문화예술분야 동아리활동 경험의 긍정적인 영향이 20대-30대 청년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영향력보다는 영향의 지속성이 강하다는 본 연구의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화 예술교육 지원의 확대·강화도 제안하고자 한다.

② 주요 제안 내용

앞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한 여성가족부의 후기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제안하고,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다각화’ 사업을 확대·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청소년 동아리 지원의 최근 3년간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2021년까지 청소년어울림마당과 동아리지원을 통합하여 지원하였고, 2022년에 이 두 가지가 분리되었는데, 총 예산 금액은 최근 3년간 변동이 없다. 예산 구조상 후기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별도의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 하에서 후기청소년의 동아리 활동 지원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예산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 한,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만으로는 단기에 정책에 반영되어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표 VI-18. 최근 3년 간 청소년 동아리 지원 예산 : 2020년~2022년

2020년	2021년	2022년	
어울림마당·동아리지원	어울림마당·동아리지원	동아리지원	어울림마당 지원
2,762백만원	2,762백만원	1,250백만원	1,512백만원

* 자료: 2020년, 2021년, 2022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 중,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 세부 내역 (<http://www.mogef.go.kr/2022.10.18>. 검색 및 인출)

그러나 지난 4월에 발표된 「2022년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동아리 활동의 형태는 아니지만,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후기청소년에 대한 활동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2-1-3. 아동·청소년 문화 예술교육 다각화 사업’에서는 그 동안 지역문화기반 시설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와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예술 꽃 씨앗 학교’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2022년 사업으로 후기청소년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확대추진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2.4, pp.46-48).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이 사업의 지속 시행과 확대·강화를 추진과제로 제안한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청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부정경험 형성 및 영향력 완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된 총 12개 정책추진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19. 정책 추진 과제 요약

추진 과제	과제 추진 유형	근거 법령	추진 기간 ^{주)}	소관부처
	①법령 재개정 ②기존 사업 보완확대 ③신규 사업 도입 ④제도·추진업무정비	①있음 ②개정 필요 ③제정 필요 ④없음	①단기 ②중기 ③장기	각 중앙부처 및 지자체
① 인적 지지체계 강화				
1. 취약계층 청소년 집중 지역 학교 내 '교육복지사' 배치 확대	②	①	②, ③	교육부, 지자체
2. 청소년지도사 정책지원 대응 역량강화 전문연수과정 개설운영	②	①	①	여성가족부
3.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정책대응 역량강화 연수과정 개설운영	③	④	①	여성가족부
② 법령 기반 강화				
4. 부채상속 청소년 지원 기반 강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	①	②	①	여성가족부
5. 영케어러 체계적 실태파악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①	②	①	여성가족부
6. 청소년-청년 지원정책 연계성 강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①	②	①	국무조정실
③ 지자체 역할 강화				
7. 영케어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①	①, ③	①, ②	지자체
8. 국립병원 연계 '찾아가는 지역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 추진	②, ③	④	①, ②	지자체
9. 공익법률센터, 법학전문대학원 연계 취약계층 청소년 법률지원 체계 구축운영	②, ③	④	①, ②	지자체
④ 연계사업 확대 및 강화				
10.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지원연령 상향 조정 및 이용자 범위 확대	①, ②	①	①	여성가족부
11. 10대시기 왕따 및 폭력피해 청년 회복지원 특화 사업 운영	③	②	①, ②	국무조정실
12. 취약계층 후기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및 문화예술교육 확대강화	②	①	①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 주: 단기(1~2년 이내), 중기(3~5년 내), 장기(5년 이상)

○ —————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 논문과 저서]

- 강성률, 박병선, 이정미, 최귀숙 (2015). 한부모가정 아동 청소년의 우울과 스트레스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가족관계와 지역사회지지의 다중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32, 137-157.
- 권지은, 유성은 (2021). 사건중심성이 청소년기 부모사별을 경험한 초기 성인의 복잡성 사별비애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외상화된 자기체계와 의미재구성의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0(2), 156-166.
- 김경희, 윤민화, 박주혜, 김성원 (2020). 빈곤한 환경에서 자란 청년의 '좋은 성장' 의미 탐색: 사회복지관을 이용한 청년의 회고적 경험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50, 221-253.
- 김민혜, 최은진 (2019). 아동기 사회경제적 환경이 중고령자의 당뇨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42(1), 89-113.
- 김성호 (2021). 미성년 상속인 보호 입법 방안-상속재산 초과 채무의 승계 방지, **NARS 현안분석 제197호**. 국회입법조사처.
- 김윤희, 구자연, 김현경 (2018). 대학 신입생의 우울: 청소년기 학교생활적응 발달궤적, 부모의 학대적 양육, 그리고 음주 및 흡연 경험의 영향과 성차. **청소년학연구**, 25(7), 67-92.
- 김지경, 변금선,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2019).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궁근 (2017). **행정조사방법론** 제5판. 경기: 법문사.
- 남미애 (2006). 사법처리과정 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사회복지학**,

- 58(1), 265-290.
- 남재욱, 김영민, 한기명 (2018). 고졸 청년 노동자의 노동시장 불안정 연구. **사회복지연구**, 49(1), 221-262.
- 문진영, 강상준 (2020). 근로빈곤층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성별에 따른 소득·건강·주거 및 노동과 음주 요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생명연구**, 55, 79-107.
- 민인식, 최필선 (2009). **STATA 기초통계와 회귀분석**. 서울: 한국 STATA학회.
- 박진우, 허민숙 (2021).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방향. **NARS 현안 분석 제200호**. 국회입법조사처.
- 박은경, 정원미, 전종철 (2019). 청소년 도박에 관한 연구 동향. **청소년복지연구**, 21(1), 103-134.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2021).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 서울: 서울시복지재단
- 서경현 (2012). 청소년의 삶에 대한 기대와 주관적웰빙: 일반 성인과의 비교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2), 137-157.
- 송나경 (2020). 1인 가구의 세대별 특성과 우울 영향. **인문사회** 21, 11(4), 405-420.
- 시부야 도모코 저, 정혜정 역 (2021). **영케어러**. 서울: 도서출판 황소걸음.
- 씨리얼 (2019). **나의 가해자들에게: 학교 폭력의 기억을 안고 어른이 된 그들과의 인터뷰**.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 안로사 (2017). 사례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빈곤 청년의 성장 경험.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주엽, 길현종, 김주영, 김지경, 오선정, 정세은 (2016). **일과행복(II)**.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오세현, 강현아 (2018). 청소년의 우울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팬덤 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2, 163-185.
- 오효정, 심혜미 (2019).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을 가진 대학생의 관계적 삶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1), 101-128.
- 유지안 (2020). 청소년 약물 및 도박 중독에 관한 연구 동향분석. **미래교육통합연구**, 1, 29-48.
- 윤명숙, 이묘숙, 김남희, 정향숙 (2012). 이혼가정 자녀의 상실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35, 73-104.

- 윤수경 (2019). 아동기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장년기 성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생애과정 관점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9(1), 200-229.
- 이도훈 (2020). 가족소득과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한 자녀의 통시적 경험이 학업성취 및 우울 증세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54(3), 1-33.
- 이명숙 (2015). 청년세대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녕에 미치는 건강, 사회적지지, 삶의 기대 요인의 상대적 영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22(7), 179-199.
- 이정민, 정혜원 (2018). 청소년의 팬덤활동 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중단적 변화연구: 경향점수 매칭과 다층성장모형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9(2), 35-67.
- 정세정, 최권호, 최보라 (2021). 불리 (disadvantage) 의 경험과 취약 청년의 삶. **비판사회정책**, 70, 293-334.
- 정슬기, 김지선 (2021). 한국 성인의 우울을 예측하는 사회적 결정요인.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9(1), 229-258.
- 정옥분 (200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안나, 이은경 (2020). 청소년의 팬덤활동과 학교생활적극 관계에서 기본심리욕구와 공동체의식의 이중 매개효과연구. **인문사회**21, 11(6), 331-345.
- 하형석, 황진구, 김성은, 이용해 (2021). **202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상철, 김미숙 (2008). 성인의 청소년기 위험행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 학회지**, 5(1), 201-218.
- 허민숙 (2022). 해외 영케어러(young carer) 지원 제도와 시사점. **NARS 현안분석 제242호**. 국회입법조사처.
- 현미열 (2016). 아동청소년기 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와 정신건강. **정신간호학회지**, 25(2), 147-154.
- Cameron A. C., and Trivedi K. P. 저, 강창희, 박창곤 역 (2017). **Stata를 활용한 미시경제학**, 서울: 지필미디어.
- Gujarati Damodar 저. 강달원, 김윤영, 제상영, 차경수, 홍찬식 역 (2016). **예제를 통한 계량경제학**, 제2판, 서울: 시그마프레스.
- Tashakkori, A. & Teddie, C. 저, 염시창 역 (2001). **통합연구방법론(Mixed Methodology)**. 서울: 학지사.

[해외 논문과 저서]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Beck, N., & Katz, J. (1995). What to do (and not to do) with time-series cross-section dat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 634-647.
- Benasso, S., Cefalo, R., & Tikkanen, J. (2022). *Landscapes of Lifelong Learning Policies Across Europe: Conceptual Lenses*. In *Landscapes of Lifelong Learning Policies across Europe* (pp. 19-39). Palgrave Macmillan, Cham.
- Bendor, S. J. (1990). Anxiety and isolation in siblings of pediatric cancer patients: The need for prevention. *Social Work in Health Care*, 14(3), 17-35.
- Bronfenbrenner, U. (1977). Toward an experimental psych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2, 513-532.
-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6), 723-742.
- Cameron A. C., & Trivedi P. K. (2005). *Micro Econometrics: Methods and Applic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eswell, J. W. (1995). *Research design: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 Creswell, J. W. (2014). *A Concise Introduction to Mixed Methods Research*. Los Angeles: SAGE.
- Dearing, E. (2008). Psychological costs of growing up poor.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136(1), 324-332.
- Doutre, G., Green, R. & Knight-Elliott, A. (2013). Listening to the voices of young carers using Interpretative Phenomenological Analysis and a strengths-based perspective. *Educational & Child Psychology*, 30(4), 30-43.
- Duncan, G. J., Telle, K., Ziol-Guest, K. M., & Kalil, A. (2009). *Long-run impacts of early childhood poverty: Comparative evidence from Norwegian registry data and the US PSID*. The long-run impact of early life events II.

- Elder, G. H., Johnson, M. K., & Crosnoe, R. (2003).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life course theory*. In Handbook of the life course (pp. 3-19). Boston, MA: Springer.
- Fingerman, K. L., & Yahirun, J. J. (2016). 10 Emerging Adulthood in the Context of Family. *The Oxford handbook of emerging adulthood*, 163-176.
- Flouri, E., Tzavidis, N., & Kallis, C. (2010) Adverse Life Events, Area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Psychopathology and Resilience in Young Children: The Importance of Risk Factors' Accumulation and Protective Factors' Specificity.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9(6), 535-546.
- Gates, M. F., & Lackey, N. R. (1998). Youngsters caring for adults with cancer. *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1), 11-15.
- Gerard, J. M., & Buehler, C. (2004). Cumulative environmental risk and youth maladjustment: The role of youth attributes. *Child development*, 75(6), 1832-1849.
- Gibb, S. J., Fergusson, D. M., & Horwood, L. J. (2012). Childhood family income and life outcomes in adulthood: findings from a 30-year longitudinal study in New Zealand. *Social science & medicine*, 74(12), 1979-1986.
- Gough, G., & Gulliford, A. (2020). Resilience amongst young carers: investigating protective factors and benefit-finding as perceived by young carers. *Educational Psychology in Practice*, 1-21. Retrieved from 9.5, 2022, <https://doi.org/10.1080/02667363.2019.1710469>
- Heyman, A. & Heyman, B. (2013). 'The sooner you can change their life course the better': The time-framing of risks in relationship to being a young carer. *Health, Risk & Society*, 15(6-7), 561-579. Retrieved from 9.5, 2022, <http://doi.org/10.1080/13698575.2013.830080>
- Jansson, K. B., & Anderzén-Carlsson, A. (2017). Adolescents' perspectives of living with a parent's cancer: A unique and personal experience. *Cancer nursing*, 4(2), 94-101.
- Justin, P., Lamore, K., Dorard, G., & Untas, A. (2021). Are there young carers

- in oncology? A systematic review. *Psycho-Oncology*, 30(9), 1430-1441.
- Kaatsiz, M. A. A., & Oz, F. (2020). I'm Here, Too: Being an Adolescent Sibling of a Pediatric Cancer Patient in Turkey.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51, e77-e84.
- Kok, J. (2007). Principles and prospects of the life course paradigm. *Annales de Demographie Historique*, 1, 203-230.
- Lakey, J., Barnes, H., & Parry, J. (2001). *Getting a Chance: Employment Support for Young People with Multiple Disadvantages*. York: Joseph Rowntree Foundation.
- Lanza, S. T., & Rhoades, B. L. (2013). Latent class analysis: an alternative perspective on subgroup analysis in prevention and treatment. *Prevention science*, 14(2), 157-168.
- Liem, J. H., Lustig, K., & Dillon, C. (2010). Depressive symptom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emerging adults: A comparison of high school dropouts and graduate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7(1), 33-43.
- Levy, R., & Bühlmann, F. (2016). Towards a socio-structural framework for life course analysis.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30, 30-42.
- Melchior, M., Moffitt, T. E., Milne, B. J., Poulton, R., & Caspi, A. (2007). Why do children from socioeconomically disadvantaged families suffer from poor health when they reach adulthood? A life-course study.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66(8), 966-974.
- Poulton, R., Caspi, A., Milne, B. J., Thomson, W. M., Taylor, A., Sears, M. R., & Moffitt, T. E. (2002). Association between children's experience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adult health: a life-course study. *The lancet*, 360(9346), 1640-1645.
- Power, C., Atherton, K., Strachan, D. P., Shepherd, P., Fuller, E., Davis, A., ... & Stansfeld, S. (2007). Life-course influences on health in British adults: effects of socio-economic position in childhood and adult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36(3), 532-539.

- Proctor, C. L., Linley, P. A., & Maltby, J. (2009). Youth life satisfac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0(5), 583-630.
- Settersen, R. A., Jr. (2003). *Age structuring and the rhythm of the life course*. In J. Mortimer & M. Shanahan (Eds.), *Handbook of the life course* (pp. 3-19). Kluwer Academic/Plenum.
- Stauber, B., & Ule, M. (2015). *Life course—Biography*. *GOETE Glossary*. Retrieved from 10.5, 2022, from <http://www.goete.eu/glossary>
- Thastum, M., Johansen, M. B., Gubba, L., Olesen, L. B., & Romer, G. (2008). Coping, social relations, and communication: a qualitative exploratory study of children of parents with cancer.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3(1), 123-138.

[국내정책자료]

- 강득구의원실. (2021.10.12.). 직업계고 교육사각지대 만드는 요인들 차고 넘쳐' 보도자료
- 교육부. (2022.8.22.). 교육복지 지원 학생 중심으로 강화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 (2022.2.14.).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보도자료
- 국무총리실. (2021.7.16.). '청년정책 제안 나도 한마디!' 유튜브 댓글 이벤트 결과 내부 보고자료(비공개)
- 관계부처합동 (2018.3.6).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18~'22)」.
- _____ . (2020.12.1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_____ . (2021.7.13.).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
- _____ . (2022.2.14.). 「가족 돌봄 청년(영케어러) 지원대책 수립 방안」.
- 문화체육관광부. (2022.4). 「2022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 법무부. (2022.4.5.).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 _____ . (2022.8.9.).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2019.4.3.).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강화' 보도자료.

- _____. (2020.1). 「2020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_____. (2021.1). 「2021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_____. (2022.1). 「2022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 _____. (2022.3). 「2021 청소년백서」.
- _____. (2022.6.9). ‘청소년 우울불안, 디딤센터에서 함께 극복해요!’ 보도자료 충청남도. (2021.4.30.). 도보 제2538호 「충청남도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에 관한 조례」
- 5차 정책실무협의회. (2022.5.12.) 국무조정실 정책실무협의회 내부자료.

[국외정책자료]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191655-en> Retrieved 5.4, 2022
검색 및 인출

[데이터 원자료]

국무총리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청년정책 제안 나도 한마디!」 댓글 취합 원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 010)’ 원자료 <https://www.nypi.re.kr/archive/mps/program/examinDataCode?menuId=MENU00226> 에서 2022.5.11. 검색 및 출력

[언론보도 자료]

- 교육플러스. (2021.10.12.). [2021 국감] 학교 내 교육복지사 배치율 13%...경남 4.8%, 경기 4.9% 저조,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4>
2022.9.29. 인출
- 뉴스포스트. (2021.3.3.). “20대는 학교폭력을 기억한다... ‘눈감았던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2394>. 2022.01.15. 검색 및 인출
- 조성민 (2022.2.24.). 돌봄간병에 시달리는 숨겨진 집단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시급, 더인디고 <https://theindigo.co.kr/archives/29822>. 2022.8.4. 검색 및 인출

[영상 및 온라인 검색 자료]

유튜브 씨리얼 영상 ‘왕따였던 어른들’ 시리즈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C%99%95%EB%94%B0%EC%98%80%EB%8D%98+%EC%96%B4%EB%A5%B8%EB%93%A4

유튜브 씨리얼 영상 ‘용돈 없는 청소년’ 시리즈

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C%9A%A9%EB%8F%88%EC%97%86%EB%8A%94+%EC%B2%AD%EC%86%8C%EB%85%84

위키피디아(Wikipedia) ‘Noisy Data’, https://en.wikipedia.org/wiki/Noisy_data

한국정책방송 영상자료 (2022.8.31.) 취약계층 학생 돕는 교육복지사 확충 필요, https://www.ktv.go.kr/content/view?content_id=655011&unit=266

[참고 누리집]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www.gbusepb.kr/userMain.do>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민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청년기본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학교보건법」, 「학교건강검사규칙」

국립공주병원 찾아가는 정신건강지원사업 http://www.knmh.go.kr/knmh/board/knmhNewsView.jsp?no=4775&menu_cd=M_04_01&ctx=pds-1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https://www.klac.or.kr/legalstruct/summary.do>

서울시 청년포털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일본케어러연맹(日本ケアラー連盟) <https://youngcarerjp.jimdofree.com>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청년재단 청년다다름사업 <https://kyf.or.kr/user/business/businessGuide.do>

통계청 e-나라지표 <https://www.index.go.kr/main.do>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전문연수과정 https://www.kywa.or.kr/leader/leader1_1.jsp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직무연수 https://www.kyci.or.kr/userSite/sub02_8.asp

OECD <http://www.oecd.org/>

UK Legislation,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Retrieved 10.11, 2022,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4/6/section/96/enacted>.

○ — 부 록

1. 조사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ID				
----	--	--	--	--

청년 대상 10대 시기 경험 및 삶의 질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회고하는 10대 시기의 경험 및 그 경험의 청년기 삶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조사대상은 2022년 7월 1일 기준 만19세 ~ 만34세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보다 나은 청소년 및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응답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더불어, 동법 제34조(통계종사자의 의무)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통계분석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 일이 절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청소년 및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설문에 응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사동의표

-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	----	--------------------------	-----

연구기관



김지경 선임연구위원
044-415-2212 / jkkim@nypi.re.kr
김윤희 부연구위원
044-415-2130 / bboddc@nypi.re.kr

조사기관

에스티아이

(주)에스티아이 박재균 책임연구위원
02-785-9124 / rabong2106@goodsti.com

변수명	문항 내용
가족 ID	Family ID
응답자 번호	number (응답자 번호)

[응답자 특성 구성 (7-8문항)]

응답대상자 Filtering 및 할당 확인	
문항 내용	응답값
귀하의 생년월일을 적어주세요 (YYYY/MM/DD) (예, 2003년 5월 23일) (연구대상자 생년월일 1987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 사이)	(생년월일의 범위안에 들때) 응답지속
1. 응답지속의 경우	조사 동의서 작성
2. 응답종료의 경우	응답 자동 종료: 귀하는 설문 대상자가 아닙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문항 내용	응답값	연계 문항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1. 서울 2. 광역시 3. 도 지역의 시 4. 그 외 도 지역의 군	

경제활동 상태 및 하는 일의 형태, 직업		
문항 내용	응답값	연계 문항
현재 귀하의 현재 상태와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1. 대학교(원)에 재학하면서 일(아르바이트 등)은 하지 않고 있음 2.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교(원) 학업을 병행하고있음 3. 대학교(원)에 재학하면서 일(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있음 4. 직장을 다니거나 내 사업(일)을 하고 있음 5. 대학교(원)에 재학 중도 아니고 일도 하지 않고 있음(무직상태) (※3-1에 응답)	
3-1. 다음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을 위한 문항입니다. 다음 중 귀하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진학 준비중 2. 취업, 재취업 준비중 3. 창업 준비중 4. 쉬고있음 5. 육아 및 가사 6. 기타

최종학력, 혼인상태, 가구(가족) 형태	
문항 내용	응답값
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중졸 이하 2. 고졸 3. 2년제대학졸업 4. 3년제대학졸업 5. 4년제 이상 대학 졸업 6. 대학원 졸업 또는 이상
5.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1. 결혼한 적 없다. 2. 결혼하였으며 현재 배우자가 있다 3. 결혼한 적 있으나, 현재 배우자가 없다
6. 귀하를 포함해 총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1. 1명 (1인가족) (※7) 2. 2명 이상 (※6-1)
6-1.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1. 할아버지 2. 할머니 3. 아버지 4. 어머니 5. 배우자 6. 형제 및 자매 7. 자녀 8. 직장 등의 동료 9. 친구
월 평균 소득 수준	
7. 귀하를 포함하여 귀 가정의 최근 6개월 간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소득원을 고려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세후)	1. 250만원 미만 2. 2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3.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4. 800만원 이상
8. 귀하의 최근 6개월 간 월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후이고, 소득이 없다면 0으로 써주세요)	(_____ 만원)

[10대시기 성장환경 특성: 문항 최소 9, 최대 13문항]

다음은 10대시기(9세~18세: 초4~고3 시기)의 성장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천천히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내용	응답값	연계 문항
1. 귀하가 10대시기에 주로 성장한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가장 오래 살았던 지역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서울 2. 광역시(특별자치시포함) 3. 도 지역의 시 4. 그 외 도 지역의 군 5. 해외	

문항 내용	응답값	연계 문항
2. 귀하가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1. 일반/자율형/자립형 고등학교 졸업 2.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3. 특목고등학교 졸업 4. 학력인정 대안학교 졸업 5. 학력인정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6. 감정고시 합격 7. 기타	
3. 10대시기에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예. 주거비, 기초생활비, 보건·의료비, 학비)을 받은 적이 있다	1. 있다 (☞3-1) 2. 없다	
4. 10대시기에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한 적이 있다	1. 있다 (☞4-1) 2. 없다(☞5)	
4-1. 부모님의 이혼을 경험을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3. 고등학교 시기	
5. 10대시기에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한 적이 있다	1. 있다 (☞5-1) 2. 없다(☞6)	
5-1. 부모님의 죽음을 경험을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3. 고등학교 시기
6. 10대시기에 나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1. 있었다 (☞6-1) 2. 없었다(☞7)	
6-1. 나를 지지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부모 2. 친구 3. 교사 4. 기타 ()
7. 10대시기에 정기적으로 용돈 받았던 경험이 있다	1. 있다 (☞7-1) 2. 없다(☞8)	
7-1. 정기적으로 용돈 받은 경험을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3. 고등학교 시기
8. 10대시기에 보호자가 없거나 부모님이 나를 양육하기 어려워 보호시설에 거주한 경험이 있다 (보호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1. 있다 (☞8-1) 2. 없다	
8-1. 보호시설에 거주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3. 고등학교 시기

문항 내용	응답값	연계 문항
9. 귀하가 보냈던 10대시기는 전반적으로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2. 별로 만족스럽지 않았다 3. 보통이다 4. 대체로 만족스러웠다 5. 매우 만족스러웠다	

[10대시기 활동: 문항 최소 5, 최대 15문항]

다음은 10대시기(9세~18세: 초4~고3 시기) 일반경험과 관련한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천천히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내용	응답값 경험유무	연계문항1 경험 시기	연계문항2 영향 여부
1. 10대시기에 1박 이상의 가족 여행을 한 경험이 있다	1. 있다 (☞1-1) 2. 없다(☞2)		
1-1. 1박 이상의 가족 여행을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3. 고등학교 시기	
1-2. 그때의 가족 여행이 현재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1.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3.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2. 10대시기에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1박 이상의 여행을 한 경험이 있다	1. 있다 (☞2-1) 2. 없다(☞3)		
2-1.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1박 이상의 여행을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3. 고등학교 시기	
2-2. 그때의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여행이 현재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1.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3.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3. 10대시기에 해외 교육 또는 연수를 한 경험이 있다	1. 있다 (☞3-1) 2. 없다(☞4)		
3-1. 해외 교육 또는 연수 경험을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3. 고등학교 시기	

문항 내용	응답값 경험유무	연계문항1 경험 시기	연계문항2 영향 여부
3-2. 그때의 해외 교육 또는 연수 경험이 현재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1.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3.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4. 10대시기에 좋아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과 관련된 팬덤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팬덤활동: 팬미팅참석, 팬카페/팬클럽 가입, 방송국/공연장/경기장 가기, 선물 보내기, 동영상 올리기 등)	1. 있다 (☞4-1) 2. 없다(☞5)		
4-1. 팬덤활동 경험을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3. 고등학교 시기	
4-2. 그때의 팬덤활동 경험이 현재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1.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3.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5. 10대시기에 교내외 학생회 활동, 교내외 동아리, 단체의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1. 있다 (☞5-1) 2. 없다		
5-1. 교내외 학생회 활동, 교내외 동아리, 단체의 활동 경험을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3. 고등학교 시기	
5-2. 그때의 교내외 학생회 활동, 교내외 동아리, 단체의 활동 경험이 현재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1.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3.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0대시기 경험: 문항 최소 5, 최대 15문항]

다음은 10대시기(9세~18세: 초4~고3 시기) 가정에서의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천천히 읽고
 응답해주세요.

문항 내용	응답값 경험유무	연계문항1 경험 시기	연계문항2 영향 여부
1. 10대시기에 가족문제나 가정형편의 어려움으로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다	1. 있다 (☞1-1) 2. 없다(☞2)		
1-1. 가족문제나 가정형편 어려움으로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3. 고등학교 시기	
1-2. 그 때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현재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2. 10대시기에 연락없이 하루 이상 가출했던 경험이 있다	1. 있다 (☞2-1) 2. 없다(☞3)		
2-1. 하루 이상 가출을 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3. 고등학교 시기	
2-2. 그때의 가출 경험이 현재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1.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3.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3. 10대시기에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부모 또는 조부모를 장기간(6개월 이상) 돌보았던 경험이 있다	1. 있다 (☞3-1) 2. 없다(☞4)		
3-1. 부모 또는 조부모를 돌보았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3. 고등학교 시기	
3-2. 그때의 부모 또는 조부모를 돌보았던 경험이 현재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1.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3.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4. 10대시기에 부모 또는 조부모의 채무(빚)를 상속받거나 갚아야 했던 경험이 있다	1. 있다 (☞4-1) 2. 없다(☞5)		

문항 내용	응답값 경험유무	연계문항1 경험 시기	연계문항2 영향 여부
4-1. 채무(빚)를 상속받거나 갚아야 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3. 고등학교 시기	
4-2. 그때의 채무(빚)를 상속받거나 갚아야 했던 경험이 현재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1.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3.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5. 10대시기에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모욕, 정서적 학대 또는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1. 있다 (☞5-1) 2. 없다		
5-1.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모욕, 정서적 학대 또는 신체적 폭력을 당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3. 고등학교 시기	
5-2. 그때의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모욕, 정서적 학대 또는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현재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1.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3.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0대시기 학교: 문항 최소 5, 최대 15문항]

다음은 10대시기(9세~18세: 초4~고3 시기) 학교에서의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천천히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내용	응답값 경험유무	연계문항1 경험 시기	연계문항2 영향 여부
1. 10대시기에 학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한 경험이 있다	1. 있다 (☞1-1) 2. 없다(☞2)		
1-1. 따돌림을 당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3. 고등학교 시기	
1-2. 그때의 따돌림 당한 경험이 현재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2. 10대시기에 학교 친구, 선·후배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	1. 있다 (☞2-1) 2. 없다(☞3)		
2-1. 학교 친구, 선·후배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문항 내용	응답값 경험유무	연계문항1 경험 시기	연계문항2 영향 여부
응답 가능)		3. 고등학교 시기	
2-2. 그때의 학교 친구, 선·후배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현재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1.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3.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3. 10대시기에 학교 친구나 교사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있다	1. 있다 (☞3-1) 2. 없다(☞4)		
3-1. 학교 친구나 교사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3. 고등학교 시기	
3-2. 그때의 학교 친구나 교사 때문에 학교를 그만둔 경험이 현재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1.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3.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4. 10대시기에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다	1. 있다 (☞4-1) 2. 없다(☞5)		
4-1. 학교에서 징계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3. 고등학교 시기	
4-2. 그때의 학교에서 징계받은 경험이 현재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1.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3.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5. 10대시기에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힌 경험이 있다	1. 있다 (☞5-1) 2. 없다		
5-1.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힌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3. 고등학교 시기	
5-2. 그때의 학교에서 친구들을 괴롭힌 경험이 현재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1.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3.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0대시기 사회: 문항 최소 5, 최대 15문항]

다음은 10대시기(9세~18세: 초4~고3 시기) 사회에서의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천천히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내용	응답값 경험유무	연계문항1 경험 시기	연계문항2 영향 여부
1. 10대시기에 가족이나 학교와 관련 없는 성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 돈떼임, 임금체불(일한 대가를 못받음), 사기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	1. 있다 (☞1-1) 2. 없다(☞2)		
1-1. 성인으로부터 폭력, 돈떼임, 임금체불, 사기피해를 당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3. 고등학교 시기	
1-2. 그때의 피해 경험이 현재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2. 10대시기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도박에 빠졌던 경험이 있다	1. 있다 (☞2-1) 2. 없다(☞3)		
2-1. 도박에 빠졌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3. 고등학교 시기	
2-2. 그때의 도박에 빠졌던 경험이 현재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1.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3.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3. 10대시기에 술, 담배, 약물에 빠졌던 경험이 있다	1. 있다 (☞3-1) 2. 없다(☞4)		
3-1. 술, 담배, 약물에 빠졌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3. 고등학교 시기	
3-2. 그때의 술, 담배, 약물에 빠졌던 경험이 현재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1.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3.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4. 10대시기에 게임에 과몰입(중독)되었던 경험이 있다	1. 있다 (☞4-1) 2. 없다(☞5)		

문항 내용	응답값 경험유무	연계문항1 경험 시기	연계문항2 영향 여부
4-1. 게임에 빠졌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3. 고등학교 시기	
4-2. 그때의 게임에 빠졌던 경험이 현재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 까?			1.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3.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5. 10대시기에 깊은 우울감 또는 자살충 동을 느낀 경험을 한 적이 있다	1. 있다 (☞5-1) 2. 없다		
5-1. 깊은 우울감 또는 자살충동을 느꼈 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중복 응답 가능)		1. 초등학교 시기 2. 중학교 시기 3. 고등학교 시기	
5-2. 그때의 깊은 우울감 또는 자살충동 을 느꼈던 경험이 현재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1.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3.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0대시기 정책지원 수혜경험]

다음은 10대시기(9세~18세: 초4~고3 시기)에 지원받았던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천천히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내용	응답값 경험 유무
1. 10대시기에 심리상담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예, 우울 및 불안 등 정서문제 상담, 흡연, 음주,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상담,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상담)	1. 있다 (☞1-1) 2. 없다 (☞2)
2. 10대시기에 진로상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예, 대학 등 진학 상담, 직업 및 적성 등 직업에 관한 상담)	1. 있다 (☞2-1) 2. 없다 (☞3)
3. 10대시기에 취업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예, 직업체험 및 인턴십 프로그램, 일자리(아르바이트 포함) 제 공, 직업기술훈련 및 자격증 취득, 취업준비교육 프로그램 제공)	1. 있다 (☞3-1) 2. 없다 (☞4)
4. 10대시기에학업지원을받은적이있다 (예, 검정고시, 부족한 교과목 지도, 방과후학교, 중고등학교 복 학 적응지원, 대학 입시준비 프로그램 제공)	1. 있다 (☞4-1) 2. 없다 (☞5)

5. 10대시기에 문화예술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예, 연극,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지원, 문화바우처, 도서바우처 등)	1. 있다 (☞5-1) 2. 없다		
문항 내용			
6. 귀하의 10대시기를 돌아켜 볼 때, 그때 가장 필요했던 지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음 중 가장 필요했던 우선순위로 세 개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심리상담 ② 진로상담 ③ 취업지원 ④ 각종 지원 정보에 대한 제공 ⑤ 문화예술활동 및 생활 지원 ⑥ 학업지원 ⑦ 경제적 지원 (예, 주거비, 기초생활비, 보건의료비, 학비) ⑧ 기타 ()			
7. 현재 귀하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다음중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로 세 개만 선택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심리상담 ② 진로상담 ③ 취업지원 ④ 각종 지원 정보에 대한 제공 ⑤ 문화예술활동 및 생활 지원 ⑥ 학업 및 학비 지원 ⑦ 주택 및 주거비 지원 ⑧ 기초생활비 지원 ⑨ 보건의료비 지원 ⑩ 기타 ()			

[삶의 만족도]

다음은 귀하의 현재 삶의 질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질문을 천천히 읽고 응답해 주십시오.

OECD core 문항 (주관적웰빙)										
문항 내용	응답값									
1.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행복했다		
	0	1	2	3	4	5	6	7	8	9
2.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걱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걱정했다		
	0	1	2	3	4	5	6	7	8	9
3.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우울했다		
	0	1	2	3	4	5	6	7	8	9
4.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0	1	2	3	4	5	6	7	8	9
5.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치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가치있다		
	0	1	2	3	4	5	6	7	8	9

행복 요인 문항										
귀하의 현재 삶의 질에 다음의 사항들이 어느정도 중요합니까?										
문항 내용	응답값									
6. 재산 및 경제력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하다		
	0	1	2	3	4	5	6	7	8	9
7. 확복한 가정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하다		
	0	1	2	3	4	5	6	7	8	9
8.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 이루기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하다		
	0	1	2	3	4	5	6	7	8	9

9. 건강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10. 삶에 대해 감사하는 긍정적인 태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11. 일 또는 학업과 생활의 균형(워라밸)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12.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관계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보통					매우 중요하다				
	0	1	2	3	4	5	6	7	8	9	10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생애 중간과정의 일정 연령대 ‘대상자정책’인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을 잇는 ‘정책 고리 잇기(Policy Chaining)’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를 연구의 출발선으로 설정하고, 정책구조 설계 시 중요한 연결고리(chaining key)의 발견과 그 고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한된 시간과 예산 하에서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순차적 통합방법설계(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를 기본 틀(frame)로 하여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2차 자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의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요인의 영향력을 실증 분석하고, 심층면접조사의 질적 분석을 통해 10대시기 경험의 구체적인 형성과정과 영향의 맥락을 분석하였다.

양적 및 질적 분석을 통해 10대시기 경험이 청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종합 분석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부정경험, 특히 심리-정서 및 정신건강 관리가 청소년-청년정책 연계의 핵심 고리(key chain)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청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10대시기 부정경험 형성 및 영향력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4가지 정책 추진 방향과 각 추진 방향에 따른 추진 전략 4가지, 그리고 총 12가지의 추진과제를 정책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핵심어 : 10대시기, 경험, 청년, 정책, 고리 잇기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a critical chaining key which is essential in designing policy structure and derive a policy plan needed to reinforce such chain in the belief that policy chaining that connects adolescent and youth policies, a target policy in a life course, is needed.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study efficiently within time and budget limits, research approach and methods were constructed, using a sequential mixed method design as a framework. Specifically, factors affecting young adults' subjective wellness and their influence were empirically analyzed with secondary data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In addition, the context of specific experience formation process and influences during adolescence was investigated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Th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experiences during adolescence on the quality of young adults' lives throug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reached the conclusion that disadvantaged adolescents' negative experiences, especially psychological and emotional health management, should be a key chain in connecting adolescent and youth policies.

Based on such conclusion, this study set a policy goal of "Reduction of Negative Experiences during Adolescence Affecting the Quality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Lives and their Influences" and proposed 4 strategies and 12 specific assignments as a policy plan.

Keywords: Adolescence, Experience, Youth, Policy, Chaining

202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2-기본01 전환기의 국가청소년정책 전략 연구 / 황여정·임희진·오승근
- 연구보고22-기본02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청소년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 최인재·오해섭·김민·정건희
- 연구보고22-기본03 코로나-19 시대 MZ세대의 사회성 발달 연구 / 최정원·이지연·김현수·박지숙
- 연구보고22-기본04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정책 혁신모델 구축방안 연구 / 최용환·좌동훈·박윤수
- 연구보고22-기본05 지방정부 청소년정책 추진기반 강화연구: 재정 및 인프라를 중심으로 / 김영한·이유진
- 연구보고22-기본06 청소년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추진방안 / 황세영·강경균·김남수
- 연구보고22-기본07 북한 청소년정책 분석 연구 / 김경준·모상현·전영선·차승주
- 연구보고22-기본08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지원 방식 재편 / 임지연·김정주·한지형
- 연구보고22-기본09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김지경·김윤희·송현주
- 연구보고22-일반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 연구보고22-일반01-01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학교인권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 김신영
- 연구보고22-일반01-0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최홍일
- 연구보고22-일반02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 / 황진구·전현정·이용해
- 연구보고22-일반02-01 202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전현정·김나영·이용해
- 연구보고22-일반03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양계민·이정민·정윤미·엄진섭·장윤선·전경숙
- 연구보고22-일반03-01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양계민·이정민·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6-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4-0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7-03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5-0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8-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79-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7)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3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2)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4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0-05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8-0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1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2-81-02
(자체번호 연구보고22-일반09-01)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Ⅴ:
질적 종단자료 심층분석 보고서
/ 김희진·서고운·조혜영·민윤경
-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이창호·이경상
- 후기청소년(19-24세)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미디어 정책에 대한 인식 연구 / 강진숙·권오현
-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Ⅲ-후기청소년-기초분석보고서 / 이창호·이경상
-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Ⅱ
/ 김형주·장근영·박미선·정세정·변금선·배정희
-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 유민상·신동훈·신영규·박미희
- 청년종합연구Ⅰ: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김지연·백혜정·김미향·김성아·정소연·이우태·
이상정·박광옥
- 2022년 시설외소청년 생활실태조사 보고서
/ 김지연·백혜정·김미향
- 북한배경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우태·조정아·이규창·이지순·최규빈·김정원·
장인숙·박환보·최종학
- 청소년부모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이상정·류정희·변수정·하태정
- 경계선지능청년의 정책소외 실태 및 정책개발
/ 박광옥·이기연·이복실·안예지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Ⅰ
/ 성윤숙·문호영·천정웅·이희현
- 통계자료를 활용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취약성 진단과
지원정책 평가 / 홍성호·장수명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2-수시01 2021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사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 유민상·신동훈
연구보고22-수시02 COVID-19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실태 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경준·권일남
연구보고22-수시03 소년법정 재판기록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연구 / 김윤희·서정아
연구보고22-수시04 학생의 참정권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모델과 방향 연구 / 김윤희·남화성
연구보고22-수시05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 및 요구에 관한 연구 / 문호영
연구보고22-수시06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연구 / 이우진·박찬걸

수 탁 과 제

< 일 반 >

- 연구보고22-수탁01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 선거교육 활성화: 메타버스 설계구축 및 운영 / 임지연
연구보고22-수탁02 위험과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돌봄 체제 구축 / 서정아·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3 경기도형 청소년 정책참여 추진체계 개발 연구 / 이윤주
연구보고22-수탁04 2022년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성과평가 / 최용환·송헌재·장혜윤
연구보고22-수탁05 경기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양계민
연구보고22-수탁06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컨설팅 및 평가 / 좌동훈·황진구
연구보고22-수탁07 학생의 참정권 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 / 장근영·김윤희
연구보고22-수탁08 다양한 가족과 수용자자녀에 대한 메타버스 상담, 활동, 교육 플랫폼 설계구축 및 효과성 연구 / 임지연·최려나·문세진
연구보고22-수탁09 2022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모상현
연구보고22-수탁10 발달장애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자립지원 연구 / 김지연·김미향·조윤경·박광옥·오욱찬·조양진
연구보고22-수탁11 정책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하형석·박지수·이인영
연구보고22-수탁12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정윤미·송헌주·김균희
연구보고22-수탁13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황여정·임희진·좌동훈·오승근

연구보고22-수탁14	2022년 인성교육 확산지원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5	2022년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6	인성교육의 추진에 관한 평가·분석 / 성윤숙·문호영·김현수
연구보고22-수탁17	2022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8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19	출발! 함께해요 인성교육(초등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0	인성교육으로 자유학기에 날개 달기(중학교용) / 성윤숙
연구보고22-수탁21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 김영지·김지연·서고운·전현정·김미향·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2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운영 연구 / 황세영·이경상·유민상·최홍일
연구보고22-수탁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임희진·서고운·유성렬
연구보고22-수탁24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연구보고22-수탁24-01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정윤미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2-학폭01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2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중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3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한문)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2-학폭04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고등학교용-진로와 직업) / 성윤숙·강경균
연구보고22-학폭05	2021년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6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이경상·김현수
연구보고22-학폭07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 안내서 / 성윤숙
연구보고22-학폭08	2021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결과 분석 연구 / 성윤숙

〈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2-대안01 대안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 이호준·윤홍주·김훈호·송원일
연구보고22-대안02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의 교육요구조사 및 지원 방안
/ 김영지·유민선·박하나·김현수
연구보고22-대안03 2022년 대안교육기관 등록 현황 및 실태 조사 / 황세영·오해섭·김세훈·이지혜
연구보고22-대안04 민·관협력형 대안교육 운영 선도모델 개발연구 / 조창호·김세광·한속희

자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2-01 2021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 성과보고회 (22.1.27.)
세미나22-02 2022 미디어 교육 주간자료집 (22.1.19.)
세미나22-03 청소년 기후환경 정책연대 세미나: 기후위기 시대 청소년 활동과 정책참여의 방향
(22.12.21.)
세미나22-0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22.12.23.)

〈 워 크 쉘 〉

- 워크숍22-01 학교폭력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 연수 (22.2.8.)
워크숍22-02 2022 상반기 학교민주시민교육 배움 공유회 자료집 (22.4.22.)
워크숍22-03 2022년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워크숍 (22.1.25.)
워크숍22-04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 자료집 (22.1.26.)
워크숍22-0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22.4.29.)
워크숍22-06 2022년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워크숍 (22.7.12.~13.)
워크숍22-07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시·도교육청 담당자 협의회 및 워크숍 (22.12.15.)
워크숍22-08 어울림 프로그램 재구조화 워크숍 참고 자료 (22.7.22.)
워크숍22-09 202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대면 워크숍 (22.8.4.,
22.8.12.)
워크숍22-10 2022년 인성교육 우수전문교사 워크숍 (22.8.17.)

〈 포 럼 〉

- 포럼22-01 제43회 청소년정책포럼: 기후위기, 청소년의 다가올 미래에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가? (22.4.26.)
- 포럼22-02 2022년 제1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 활동 패러다임의 전환 (22.4.20.)
- 포럼22-03 제44회 청소년정책포럼: 지표를 통해 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과제 (22.5.11.)
- 포럼22-04 2022년 제2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활동 정책의 대전환, 현장의 목소리 (22.5.17.)
- 포럼22-05 2022년 제3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참여 정책의 재구조화 (22.6.24.)
- 포럼22-06 2022년 제4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 현황과 과제 (22.7.12.)
- 포럼22-07 제1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후기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과제 (22.8.11.)
- 포럼22-08 제2회 이주배경청소년 정책포럼: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청소년으로 살아가기 (22.8.12.)
- 포럼22-09 제46회 청소년정책포럼: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개념 정립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 (22.9.2.)
- 포럼22-10 제47차 청소년정책포럼: 지방정부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및 개선 방안 (22.9.21.)
- 포럼22-11 인구소멸위기지역 청소년정책 전환 방안「현장 사례를 말한다」 포럼 (22.10.14.)
- 포럼22-12 2022년 제5회 청소년정책 토론회: 청소년정책 전달 및 추진체계 현황과 개선방안 (22.10.13.)
- 포럼22-13 제15차 청년정책포럼: 정책소외계층 유형별 실태와 정책과제 (22.11.15.)
- 포럼22-14 2022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22.12.2.)

〈 콜 로 키 움 〉

- 콜로키움22-01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1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Vietnam (22.6.8.)
- 콜로키움22-02 글로벌청소년연구센터 2차 콜로키움: National Youth Policy Review: Ethiopia (22.6.14.)
- 콜로키움22-03 인구소멸위기 지역에서의 커뮤니티 저널리즘의 역할과 과제 (22.9.6.)

〈 기 타 자 료 집 〉

자료22-01	2021년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자료22-02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자료22-03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가이드
자료22-04	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전문 컨설팅 매뉴얼
자료22-05	2021 양성평등한 캠퍼스 조성 우수사례집
자료22-06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자료22-07-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관리자)
자료22-07-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관리자)
자료22-08-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원)
자료22-08-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원)
자료22-09-1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관리자 직무연수(교행)
자료22-09-2	2022년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사례 실습(교행)
자료22-10	2022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연수 자료집
자료22-11	2022년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자료집
자료22-12	제11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2-13	2022년 대안교육기관 교원 연수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제10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2호(통권 제10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10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33권 제4호(통권 제107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 137호 코로나시대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의 삶과 희망: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 138호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139호 지역사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방안
- 140호 「메타버스 선거랜드」 구축과 선거교육 효과성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분석
- 141호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14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Ⅳ: 질적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143호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I
- 144호 10대시기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NYPI Bluenote 통계 >

- 64호 후기청소년 건강권 실태
- 65호 장애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이용 현황과 여건
- 66호 10대 청소년의 정신건강 실태
- 67호 미래지향적 청소년시설 및 공간 혁신 방안 연구
- 6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 69호 청소년 정치참여 실태
- 70호 디지털 성범죄
- 71호 아동·청소년의 놀이 실태 분석
- 72호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학업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 73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 주요 조사 결과 및 데이터 분석·활용

연구보고22-기본09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인 쇄 2022년 12월 23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김 현 철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358-9 93330

연구보고 22-기본09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358-9